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198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적인 것’의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및 국문학전공
이 미 영

198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적인 것'의 연구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이 미 영

이미영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김 종 욱 (인)

부위원장 손 유 경 (인)

위 원 김 동 식 (인)

위 원 장 문 석 (인)

위 원 방 민 호 (인)

국문초록(16pt)

본 논문은 ‘비非인간적인 것’의 관점에서 1980년대 한국문학의 문제성을 규명한다. 이 시대 소설이 휴머니즘에 토대를 둔 ‘인간Man’의 개념과 지식, 지위를 상대화하고, 인간다움에 관한 사유의 지평을 확장해나간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 과제다. ‘비非인간적인 것’에 대한 1980년대 문학의 인식과 상상이 중요한 것은, 민중이나 노동자라는 이상理想적 인간형을 기반으로 하는 1980년대 특유의 휴머니즘을 비판적으로 해부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이 논문은 ‘비非인간적인 것’의 각도에서 기존의 주체 개념에 내재한 인식론적·존재론적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 존재와 삶의 변화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논점과 방향을 제공한다.

1980년대 초반 한국사회는 자본 자체의 동학으로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한다. 그 어느 때보다 자본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해진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국문학은 인간의 살 만한 삶을 향한 변화를 치열하게 모색한다. 이 변화를 사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본성)을 변형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1980년대 한국문학의 ‘비非인간적인 것’에 관한 고찰이 요구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다. 이에 본고는 인간의 자격과 지위를 선별적으로 부여 혹은 박탈하는 인식론적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와 분투하는 존재들의 서사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 소설들에서 인간의 인식가능성의 조건이 수정되고, 인간다움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본고에서 주목한 서사적 주체들은 비非인간으로 격하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가 갖는 공모성과 착취성을 폭로하고, 인간과 비非인간을 이분화하는 인식론적 규범을 전유하여 자기의 인간됨을 수행하며, 때로는 그 규범의 간극에서 출현하여 인간다움에 관한 한계를 재설정한다. 서로 다른 경향과 문제의식을 가진 이 텍스트들을 분석하는 핵심은, 이 서사적 주체들이 도모하는 ‘비非인간적인 것’의 인식과 상상을 ‘조건과 행위의 관계’로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非인간적인 것'이 인간에게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로서 위치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인간Man'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탈구성되는지 고찰한다. 그것은 지식인의 위치에서 민중·노동자의 인간화 기획에 내재한 전통적인 주체-대상의 위계를 변형하고자 하는 사유의 실천(2장), 타자의 위치에서 남성중심주의적으로 규정된 인간됨의 조건을 수정하는 여성들의 수행(3장), 주체 내부의 위치에서 인간의 경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탈脫인간화한 몸들의 번역(4장)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2장에서는 주체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에 관한 인식을 주목한다. 박태순과 조세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탈중심화한 인간들을 통해 주체-타자의 위계에 변형을 가져오는 맥락을 밝혀본다. 먼저 박태순의 1970년대 말- 1980년대 텍스트를 통해 포스트식민적 조건에서 지식과 권력의 공모성을 자각한 지식인 주체가 시도한 사유와 실천을 규명한다. 그의 소설과 실천론은 당대 '민중'의 인식론적 규범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통해 창출된 것으로, 규범 바깥에 놓인 존재들을 인식·인정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규명한다. 2절에서는 희망이 착취되는 삶의 현장에서 타자를 착취하는 메커니즘을 해체하고자 한 조세희의 작업을 분석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이어져 있는 조세희의 문제의식은 주체와 타자, 행복과 불행에 관한 이분법을 가로질러 인간의 욕망을 변형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휴머니즘적 토대 위에 세워진 지식인과 민중의 위계적 관계를 전환한 다른 질서를 가진 인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타자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의 수행을 규명한다. 구조적 타자로 규정된 인간들의 수행적 실천이 인간됨humanness의 조건을 수정해나간 맥락을 이문열과 강석경, 석정남과 방현석의 텍스트를 통해 검토한다. 1절에서는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과 강석경의 「숲속의 방」의 교양 주체들의 성장을 마주 세워, 젠더화된 형성buildungs의 규범을 패러디하는 여성들의 분투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석정남과 방현석의 노동문학 관련 텍스트를 통해 성차와 계급차를 각인한 인간들의 연대가 제한적으로 표명된 노동자성을 갱신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구조적 타자들은 규범이 부과하는 한계를 전유하여 자기형성이라는 수행을 실천한다. 이들의 수행적 실천은 인간됨을 강제하는 조건을 수정·갱신하여 민주주의의 자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非인간적인 것'의 번역의 요구를 주목한다. 양귀자와 김영현, 임철우와 최윤의 소설은 비非인간적 과잉으로 충만한, 벌레나 짐승 또는 훼손되고 찢긴 몸들로 가득하다. 양귀자와 김영현의 소설은 개별 주체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권력 앞에서 탈脫인간화한 몸으로 변신變身을 시도한다. 이들의 시도는 '나'의 인간됨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억압과 금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탈脫인간화하는 생존의 역설을 보여준다. 임철우와 최윤의 소설에서는 인간다움personhood의 한계에서 출현한 '비非인간적인 것'을 주목한다. 이 훼손되고 찢긴 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비非인간을 나누는 이분법을 심문하고, 인간을 구성하는 새로운 질서를 통해 윤리적 토대를 쇄신한다.

1980년대 공론장의 '민중·노동자·여성의 인간화'라는 정치적 의제는 민주화운동의 목표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집단적 에토스를 형성하며 폭력적·배제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지위와 자격에 경계를 그었다. 이 시대의 소설은 이와는 다른 질서로 구성되는 인간들의 조건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유임을 말한다. 이에 본 논문은 1980년대 소설의 침체를 해석의 침체로 되비추며, 이 시대 문학이 수행한 균열·전복·해체를, 휴머니즘의 전통 위에 세워진 '인간Man'이라는 개념과 지식, 지위에 일어난 차이différance의 운동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1980년대 한국소설이 문제적으로 그려낸 인간 존재와 그 삶의 문제를 '비非인간적인 것'이라는 프리즘으로 조명할 때, 로고스중심주의·인간중심주의의 보편으로 위치해 온 '인간'은 탈구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0년대 소설은 인간 삶에 관한 다른 관점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비인간적인 것, 인간, 수행성, 관계성, 타자성, 희망, 자본, 소설침체론, 문화번역

학 번 : 2016-30023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1
2. 연구의 시각 ····· 22

Ⅱ. 사라지는 지식인과 주체/대상의 위계 변형 ····· 38
1. 지식-권력의 공모성과 ‘민중’의 경계 비판 ····· 38
2. 착취의 메커니즘과 ‘불행의 공유’ ····· 60

Ⅲ. 수행하는 여성들과 인간됨의 조건 수정 ····· 83
1. 젠더화된 형성 규범과 패러디하는 여성들 ····· 83
2. 소외된 차이들의 연대와 노동자성의 재표명 ····· 120

Ⅳ. 번역을 요구하는 몸과 인간다움의 지평 확장 ····· 138
1. 탈인간화한 몸으로의 변신과 ‘인간’의 분쇄 ····· 138
2. 관계 속의 ‘자기’ 상실과 윤리적-정치적 토대의 쇄신 ·· 187

Ⅴ. 결론 ····· 187

참고문헌 ····· 190
Abstractr ····· 208

Ⅰ.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980년대는 197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민중’이라 불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구집단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가시적인 변화를 맞이한다.[1] 1980년대의 지식인들은 ‘민중’을 5·18 광주민주화항쟁,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서 출현한 인간 주체의 문제로 담론화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존재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 시대의 문학·문화운동론은 사회변혁과 실천적 역량을 주된 척도로 삼아 문학(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며 1980년대 문학 특유의 자장을 형성한다. 1980년대 문학·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식인과 민중·노동자·여성 주체의 주체성을 의미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1980년대 운동권 지식인들의 회고의 서사가 상품화되는 문화적 현상이나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라는 시간성에 입각하여 80년대 여성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관심이 집중되는 연구의 경향은 이 시대와 연구자들의 현재가 맺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2] 이를 고려하여 1980년대 문학·문화가 연구되어 온 흐름과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체와 운동의 성과를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고, 운동권 지식인의 기억과 경험이 주목을 받았다. 주지하듯,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1970년대 중반의 언론운동, 종교운동,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이뤄진 지식인과 민중·노동자 연대에 그 기원을 둔다.[3] 특

---

1) 최장집,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돌베개, 2009, 178면.

2) 배하은은 이를 2010년대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 담론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 풀이한다.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154면.

3) “1970년대 문학을 바라보면 놀라운 문화변동 양상이 나타납니다. 1970년대 문학이 나름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학생운동, 언론운동, 종교운동, 그리고 뒤늦게 동참하게 되는 노동운동의 연대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문화운동의 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담

히 대학생 신분으로 공장에 취업하여 노동자로의 존재전이를 감행한 '학출'은 1980년대 운동권 지식인들의 집단적 실천에서 형성된 주체로서 일찍부터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4] 이들은 '민중'을 주체화하는 기획을 통해 포스트식민적 역사의식에서 발원한 '역사주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5]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딜레마와 그로부터 비롯하는 죄책감은 주요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6] '세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조명되면서 운동권 지식인들의 기억과 경험, 집합적 정서가 갖는 정치성은 비판적인 맥락에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7] 특히 '87년 체제'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의 의미와 가치, 효과는 직선제나 민주정부의 수립과 같은 제도적 차원에 국한할 수 없으며, 성별·계급 등의 차이를 고려한 '다른' 주체의 기억과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논제가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규정해온 방식이 재검토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1990년대 문학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8]

론을 내세워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를 문학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지요." 박태순·이명원, 「소설가 박태순에게 들어보는 1980년대와 『실천문학』, 그리고 문학운동」, 『실천문학』, 2012 봄, 106-107면.

4) 대표적으로 오하나, 『학출-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이매진, 2010;김정한, 『1980년대와 대중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2013;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 - 학출운동가와 변혁운동』, 봄날의 박씨, 2015; 이남희, 유리·이경희 옮김, 『민중만들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15 등.

5) 이남희, 앞의 책, 서론 및 1부 1장 참조.

6) 김정한은 1980년대 운동가요 추모제와 장례투쟁 열사의 유서 등을 중심으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그것의 불가능성 사이에서 형성되는 주체의 문제를 조명한다.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애도가 금지되었던 시대적 조건으로부터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비난과 자책을 특징으로 하는 1980년대 정치적 주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김정한, 「1980년대 운동사회의 감성- 애도의 정치와 멜랑콜리 주체-」,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천정환, 「열사의 정치학과 그 전환- 2000년대 노동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74, 문화과학사, 2013.

7)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20-3, 대중서사학회, 2014; 김원, 「'장기 80년대' 주체에 대한 단상-보편, 재현 그리고 윤리」, 『실천문학』, 2013 겨울; _____, 「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장기 80년대': 지식인들의 80년대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8)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 - 시대와 문학론의

이 연구들과 동시적으로 이 시대에 급부상한 노동자 계급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9] 해외 한국학자의 입장에서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과정을 재구성한 구해근의 연구는 1980년대 노동(자)문학 연구가 전개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기존의 연구가 계급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구조로부터 다소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환원주의적 혹은 본질주의적 가정"에 입각해있다고 비판하고, 19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집단적 정체성과 계급의식에 나타난 유의미한 변화를 노동운동뿐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화활동으로 확장하여 이해한다.[10] 개개인의 경험과 실천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능동적·저항적 정체성과 역량을 조명한 구해근의 문화주의적 연구방식은 이후 노동자들의 글쓰기를 주목하는 연구들에서 널리 활용된다. 문화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손으로 쓰인 생활글을 주목한 연구들은, 1970년대 여공의 수기와 연결성을 확보하는 한편[11] 노동자들의 자기재현의 정치성을 노동운동과의 매개라는 관점에서 규명하였다.[12] 이 연구들은 르포나

'토픽'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연구소, 2014;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이소영,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참조.

9) 2000년대에 들어서 노동문학연구는 간헐적으로 제출된 바 있다. 1980년대 문학연구가 본격화되기 이전 제출된 논의로는 이정희, 「훈육되는 몸, 저항하는 몸 - 1980년대 초반의 여성 노동 수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3, 한국여성연구소, 2003; ____, 「노동문학 속의 여성상」, 『여성문학연구』 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_____, 「여성노동자의 경험 읽기-1980년대 초반의 여성노동수기에 나타난 성(사랑)·가족· 노동」, 『여성과 사회』 15, 한국여성연구소, 2004; 오창은, 「198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일고찰-정화진·유 순하·방현석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200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0)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문헌의 지배적인 경향은 한국에서 전개된 치열한 노동자투쟁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쓴 글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데 그들 대부분은 노동운동가나 사회운동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지식인들에게 노동자들이 보여준 계급적대감과 집합적 행위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였을 것…노동착취와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무자비한 탄압을 강조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저작은 …공식노조가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구해근, 신광영 옮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38-40면.

11)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_____, 「하층민 서사와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 1980년대 논픽션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등.

수기와 같은 논픽션 장르의 양식적 특성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창작 주체의 변화와 더불어 텍스트의 창작(생산)과 수용 과정이 변모하면서 당대 문학장의 형질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규명하였다..[13] 결과적으로 이 연구들을 통해 1980년대 문학의 민주화의 의미가 새롭게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 주체들의 학술적 실천과 성과를 조명하는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앞의 두 분야의 연구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식인과 민중·노동자의 만남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문화적 산물을 주목한다면, 이 연구들은 민중·노동자의 타자로 간주되며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민주화의 숨은 주역으로 조명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14]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페미니즘 지식/이론의 유입은 여성해방운동의 이론적 자원이 되었고,[15] 이를 토대로 여성에 부여된 '차이'에 관한 논의가 『여성과 사회』, 『여성』, 『또 하나의 문화』 등 여성주의 매체들을 중심으로 논쟁적으로 전개되었다.[16] 『또 하나의 문

12) 이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해볼 수 있다.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연구소, 2011; 장성규, 「1980년대 노동자 문집과 서발턴의 자기 재현 전략」,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의 정치성」, 『상허학보』 37, 상허학회, 2013;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멩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1980~90년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 『역사비평』 106, 역사문제연구소, 2014; 한영인, 「글 쓰는 노동자들의 시대—1980년대 노동자 "생활글" 다시 읽기」, 『대동문화연구』 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김경민, 「1970-80년대 서발턴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노동자·농민 수기의 서사구조와 욕망의 메커니즘」,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등.

13)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 문학이 성취한 변혁을 주목한 연구는, 장성규, 「수행성의 미학을 위한 텍스트의 전략들」, 『한국현대문학연구』 44, 한국현대문학회, 2014; _____,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 1980-90년대 노동자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한국현대문학회 2021;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등을 참조.

14) 이혜령,「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참조.

15)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참조.

16)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0·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화』 동인들의 학술적 실천은 중산층 여성에 부과된 한국사회의 전통적·규범적인 여성 정체성을 해체하는 여성지식인들의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17]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운동을 중심에 둔 이 연구들은 동시대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현상과 긴밀히 교호하면서 시의성과 현재성을 확보한다.

1980년대 문학·문화는 (1) 운동권 지식의 기억과 경험, (2) 노동자의 자기재현의 정치성, (3) 여성지식인들의 학술적 실천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운동 주체의 저항적 실천과 변혁의 역량을 규명하는 데 그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1980년대 문학·문화연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특수성에 반향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욕망이 연구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1980년대 문학 연구의 진전을 위한 세 가지 논점을 제안한다.

첫째, 1980년대적 타자들의 주체화 실천을 '능동적인 것'으로 해석해온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놓여 있는 모순적인 위치의 복잡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민중·노동자·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과정의 경험과 글쓰기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들의 직접적·감각적 현실체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식주체에 의한 대상화의 방식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1, 한국근대문학회, 2005; 김영선, 「1980년대 여성운동의 새로운 여성 주체 기획과 주부운동론」, 『여성과역사』 28, 한국여성사학회, 2018;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회, 2018; 홍지혜,「1980년대 여성학·여성운동계 출판물과 여성지의 교착(交錯)」, 『민족문학사연구』 78, 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등.

17)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_____,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회, 2020; 김보경, 「『또 하나의 문화』의 여성시에 나타난 '차이'라는 여성 연대의 조건과 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60, 한국현대문학회, 2020;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021; 김정은, 「또 하나의 집회」, 『구보학보』 27, 구보학회, 2021. 윤조원, 「페미니스트의 돌봄—문화정치학 -무크지 『또 하나의 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등.

18) 배하은은 무크운동(소집단 문학운동), 노동문학운동, 여성주의 및 여성해방문학 운동과 같은 문학·문화운동(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1980년대 문학연구가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고 평가한다. 배하은, 앞의 논문(2022), 161면.

로 형성되는 이 존재들의 위치성이 ‘세계’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1980년대적 주체의 위치와 그 주체성을 해석하는 과정에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이 이데올로기의 주체를 발견해내는가”[19]라는 질문이 도입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1970-80년대를 연속한 주체 논쟁의 과정에서 민중·노동자·여성은 지식인에 의해 이념과 계급으로 그 특성과 본질이 규정·환원되는 통일성을 갖춰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 이 문제는 휴머니즘적 보편 인간을 성립시키는 인식론적 토대 위에서, 지식인 주체가 민중·노동자·여성이라는 타자를 담론화해 온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발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포스트식민적 조건에서 비롯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인간’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이 인식의 과정을 추동해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20] 논의의 기원은 1960년대 후반 김주연의 「새 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의 60년대」(『아세아』, 1969.2)과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창작과비평』, 1969 여름)에서 촉발된 소시민·시민 논쟁으로[21] 소급되기에 이로부터 각각의

---

19) 어떤 담론의 ‘통일성’이 만들어질 때에는 다양하고 서로 구분되는 요소들이 절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절합의 관점으로 담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이데올로기 요소들이 담론 내에서 서로 일관성을 띠게 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주체에 절합되거나 혹은 되지 않는지 반문해 보는 방식이다. 이처럼 홀의 방식으로 담론의 통일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체가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속하는 사상을 어떻게 사고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의 주체를 발견해내는가 하는 문제”다. 스튜어트 홀, 임영호 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 스튜어트 홀 선집』, 컬처룩, 2018, 179면.

20) 1970-80년대 지식인들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에서 인간의 해방, 민주화를 달성할 역량을 가진 존재로 ‘민중’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 시대 지식인들의 “민중 만들기”의 기획을 추동한 것이 포스트식민주의적 역사의식에 기반한 주체성의 위기라고 본 이남희는, 1970-80년대 한국의 민중운동을 “민중 프로젝트”라고 명명한다. 이남희, 앞의 책, 서론 및 1부 1장 참조.

21) 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미란, 「시민·소시민논쟁의 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전상기, 「문화적 주체의 구성과 소시민 의식 - ‘소시민’ 논쟁의 비평사적 의의」,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2004; 이현석, 「4·19혁명과 60년대말 문학담론에 나타난 비-정치의 감각과 논리」,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2011; _____, 「1970년대 서사담론과 ‘문학 주체’ 재현의 논리」, 『한국문예창작』 13-3,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__, 「시민과 혁명의 시간」,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강동호, 「민족문

국면에서 주체의 자리가 확보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논쟁 당시 김주연이 제안한 '소시민'은 세계와 교섭하며 낯선 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주체이자 60년대 세대의 세대적 '자기'를 표현하는 주체였다면, 백낙청의 시민적 주체는 김주연의 '소시민'과는 다른 맥락에서 "미지·미완의 인간상"으로 '소시민성'을 극복하는 존재로 구상되었다. '시민'의 개념적 근거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마련되었기에 한국의 역사에서 부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파생한다.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구체적 과제로 '민주 회복'과 '인간해방'이 설정되고[22] 역사 발전을 이룩할 주체로 '민중'이 호명되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본격적으로 민족문학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백낙청은 '민중'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23]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고 느끼고 깨달은 만큼의 힘을 다해 자신의 욕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수정하지 않았다.[24] '민중'의 실체를 말하라는 비판을 통해 숙고되어야 했던 것은 '민중'이 형이상학적 정신과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이었으나,[25] 각성을 통해 결여(무지)를 극복할 때에야 해방된 사회의 주인(인간)이 될 수 있다는 변증법적 사유에서 '민중'은 대상의 자리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었다.[26]

김주연은 1970년대 민족문학론에 내재된 당위성을 비판하는 한편,[27] 한국에서 '민중'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28] 김주연은 민중을 "시민 일반의 광범

학론의 인식구조—1960~70년대 백낙청의 김수영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 『인문학연구』 5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허선애, 「『문학과지성』의 비평적 글쓰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장 3절 참조.

22)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월간중앙』 1974.7.;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1, 창비, 2011 참조.

23) 백낙청, 「인간해방과 민족문화운동」, 『창작과비평』, 1978 겨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2011, 539면.

24) 백낙청, 「민중은 누구인가」, 『뿌리깊은나무』, 1979.4, 166-167면.

25) 손유경, 「현장과 육체 - 『창작과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 『현대문학의 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참조.

26) 백낙청, 「민중의 이름과 얼굴」, 『뿌리깊은 나무』, 1979.4.;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월간중앙』 1974.7.;『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1, 창비, 2011.

27) 김주연, 「민족문학론의 당위와 한계」, 『문학과지성』, 1979 봄호 발표;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참조.

위한 비판적 의식에 조응하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면서 “지식인이 종사하고 있는 계층 전반”을 포함시킨다. ‘대중’은 이러한 ‘민중’의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문제적인 것은 “대중은 실체 개념이지만 민중은 가치개념”이기에 “올바른 지향점을 갖는 순간” 대중이 민중으로 전화轉化한다는 논리적 귀결이다. 이 지점에서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지식인다운 고뇌를 통해 성립되는 그 어떤 깨어있는 정신”이야말로 “참다운 민중”이라는 김주연의 판단과[29] 백낙청의 논리는 구분되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1960-70년대 민족문학론과 이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민중’은 지식인에 의해 깨어나야 할 “실체 아닌 방법정신”으로 존재하였으며, 인식되는 대상의 자리에 위치해있었다.

1980년대 노동자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민중의 주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은 한층 더 논쟁적인 장으로 변해간다. 새롭게 등장한 소장 비평가들은 지식인을 민중의 범주에 포함하는 민족문학론의 소시민성을 비판하며 전선을 형성한다. 백낙청은 이들의 비판을 ‘70년대 민족문학론을 넘어설 민중문학론에 대한 요구’로 일축한다. 그에게는 “80년대 특유의 문학”이 제3세계문학의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분단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인간해방이라는 민중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족문학론의 기본논리가 달라질 이유”가 없었다. 1985년 백낙청은 “민중지향적 지식인이 곧 민중의 일부”라는 변함없는 기조 속에 ‘민중·민족문학론의 새 단계’라는 좌표를 설정한다. 이는 “민족문학론 자체의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의 일환”이자 “70년대 민족문학론의 심화과정”으로 1980년대

---

28) 김주연, 「민중과 대중」, 『민중문학과 대중문학』, 민음사, 1979, 11-14면.

29) “그렇다면 누가 민중을 선택하는가, 즉 어떤 근로자나 농민을 **민중으로 불러주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부딪치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결국 우리는 …지식인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의 회로에서 바라볼 때, 그 실체를 대중의 일부로 하고 있는 민중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지식인의 관념-올바른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자기반성의 그림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민중’이라는 개념구조의 이중성이다. … 참다운 민중은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지식인다운 고뇌를 통해 성립되는 그 어떤 깨어있는 정신일 것이다.…(중략)…우리는 대중의 실체를 인정하고 민중을 실체 아닌 방법정신으로 인식함으로써 문학의 민주화를 향한 정직한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글, 20-21면. (강조는 인용자의 것)

민중문학론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30] 문제는, 80년대 문학의 새로운 주체로 내세워진 노동자(생산대중) 역시 지식인에 의해 주체화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민중의 실체는 역사발전에 있어 대자적 민중으로서의 역사 주체로 성장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31]이이라는 논리는 '민중문학론들'[32]에서 공통적으로 견지되고 있었다.

「지식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1987)을 통해 김명인은 '소시민적 지식인은 진정한 의미의 민중이 될 수 없다'며 '민중'에 관한 기존의 개념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지식인 문학'은 위기이지만, '민족문학'은 건재하다는 논리를 구사하며 『문학과지성』과 『창작과비평』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문학을 상대화한다.[33] '새로운 민족문학'은 '민중'을 80년대의 '노동하는 생산대중'으로 전환하고, "다른 존재조건과 다른 세계관을 지닌 인간 집단들"의 차이와 개별적 특수성을 "보다 근원적인 역사적 전망 아래서" 통일하는 것으로 구상된다. 이러한 논리는 타계급을 묶어 세워 민중의 승리를 전망하는 변혁의 과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정환의 민주주의 민족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다.[34]

선행연구는 이처럼 1980년대 지식인들이 민중·노동자를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자 역사발전의 주체로 창출하는 과정이 타자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음을 비판하고 문화주의적 시각에서 이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경험과 실천을 재의미화한다.[35] 1980년대에 가시화한 타자들

---

30) 백낙청,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편, 『자유의 문학 실천의 문학』, 이삭, 1985; 백낙청,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 57(부정기간행물 1호), 창작과비평사, 1985.

31) 채광석,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80년대 대표평론선 2』, 지양사, 1985, 94면. (이하 『평론선 2』로 표기)

32) 정과리의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정과리, 「민중문학론의 인식구조」, 『문학과사회』1-1, 1988 봄 참조.

33) 김명인, 「지식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문학예술운동1 :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참조.

34) 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학의 현단계와 문학적 현실주의의 전망」, 『창작과비평』 61, 1988 가을;_____,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학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 1989 창간호 참조.

35) 이는 1980년대 운동권 지식인과 노동자를 주목한 이남희, 구해근의 연구가

의 일상과 경험은 “긴밀히 연결된 실천들의 미분화된 집합으로서”[36] 역사가 재현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임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주체화가 이뤄지는 방식과 과정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민족・민중문학(운동)론자들을 통해 전개된 주체에 관한 논의는 지식인 주체가 민중・노동자를 목적론적 역사의 주체로 담론화해 온 과정을 축약한다. 이는 민중・노동자에 관한 지식이 만들어지고, 다시 그 지식에 의거하여 이들에게 역사 주체로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담론화 작업이 주체-타자, 보편-특수의 이분법적 위계에 근거하여 진행된 까닭에 “특정한 인식 구조의 자장”[37] 안에서 민중의 개념과 실체 사이의 괴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관한 해명은 공전해왔다.민중・노동자에 관한 지식이 생산되는 이 과정은 이질적 계기와 상이한 조건 속에 출현하는 인간을 인식의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문제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지식인이라는 인식의 주체와 민중・노동자라는 인식의 대상 사이의 위계적 관계와 구도뿐 아니라, 이를 통해 보편적 주체가 성립하게 되는 방식이다. 보편성은 “스스로를 추상으로 구성하기 위해 배제해야 하는 것의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고는 엄밀히 추상적인 것으로 남을 수 없”다.[38] 이데올로기의 장 안에서 구체적인 것과 분리되는 추상의 작용 속에 성립하는 보편성에는 “분리의 흔적 또는 잔여”가 남아있

취하고 있는 연구방식이기도 하다. 이들의 연구가 문화주의적 관점을 취한 것은 1990년대 마르크스주의의 퇴조와도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2010년대 진행된 연구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경향은 이러한 맥락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6) 스튜어트 홀, 김용규 옮김,『문화연구 1983』, 현실문화, 2021, 94면.

37) 정과리는 민중・노동자 중심의 주체 논쟁이 연쇄되는 과정에 대해 ‘민중문학론들’이 “특정한 인식 구조의 자장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출된다”면서 이 이론들의 ‘자기동일성에의 집착’과 ‘부정성’을 비판한다. 정과리, 앞의 글, 75면.; 손유경은 구조주의자 정과리가 마르크스의 원전을 인용하며 민중문학론・노동문학론의 전개과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 1980년대 한국의 지식풍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손유경,「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박현채와 조한혜정을 중심으로」,『상허학보』45, 상허학회, 2015, 131면.

38) 주디스 버틀러, 박미선 옮김,「보편자를 다시 무대에 올리며」, 주디스 버틀러·에르네스토 라클라우·슬라보예 지젝, 박대진・박미선 옮김,『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도서출판b, 2009, 38면.

다. 이 잔여로서의 '흔적'은 인간 존재의 보편성이 다른 방식으로 사유되어야 할 필요를 가리키고 있다.[39]

이상으로 첫 번째 논점을 정리하자면, 인간학적 문화주의의 관점에 입각한 기왕의 연구들은 1980년대를 경험한 타자들의 일상과 글쓰기를 이들이 주체가 되는 변화를 반영한 텍스트로 주목했다. 1980년대 문학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1980년대의 민중·노동자·여성을 주체로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장을 형성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보편적 주체와 특수한 타자의 위계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만큼 변형시킬 수 있는지 그 변형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는 1980년대의 계급결정론적·경제환원론적 시각에 거리를 두고자 하면서 자본과 인간의 관계를 소거한 채 인간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러나 1980년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본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해진 시기로, 변화 가능한 인간/삶을 향한 정치적·문화적 투쟁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40] 요컨대, 이 시기의 자본은 인간의 삶에 상존常存하는 불행과 고통, 이를 넘어서는 희망을 굴절시키고 있었다. 이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은 자본과 인간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당대 문학장에서 '희망'은 노동자들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당위적·일괄적으로 요구된 핵심 요건이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자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변화가 뚜렷해졌고, 논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1980년대 '노동(자) 문학'의 개념과 역할, 지향성을 새롭게 마련하는데 집중했다.[41] 이 과정에 박현채의 이론적 개입이 미친 영향

39) 흔적은 동일성 속에 각인된 근원적 타자성을 일컫는 데리다의 용어다. 데리다는 현존의 개념이 자기동일적이지 못한 차이성과 타자성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형이상학의 토대가 갖는 위상을 전환한다. 데리다·라캉·알튀세·푸코, 윤효녕 외 옮김,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8-19면.

40) 데이비드 하비, 김성호 옮김,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창비, 2019, 88면.

41) 1985년 12월 간행된 80년대 대표평론선 3권은 『민중, 노동 그리고 문학』으로 출간된다. 편자들은 책머리에서 이 책에 모인 글들이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며 자본-임노동 관계를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의

은 적지 않다.[42] 당시 박현채는 “‘계급’이라는 규정성을 지닌 개인”을 민중의 실체로 제시하면서,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 중 노동자 계급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다.[43] 그는 민중이란 “하나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부단한 인식의 차원의 제고가 민중구성의 보다 기본으로 되는 노동 계급의 주도에 의해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사회적 실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44] 박현채가 제공한 설명을 바탕으로 1980년대 ‘노동(자) 문학’의 역할과 목표가 세워졌다. 민중의 실체인 노동자는 ‘역사적으로 자기 회복에 의해 다시 역사의 주인으로 되어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본과 임노동 관계 위에서 자기 재생산의 기반을 갖는다. 이들이 (창작)주체가 되는 1980년대 노동(자)문학은 계급적 인간의 “소외 극복을 위한”노력이 곧 “자기해방의 노력이 역사에서 진보의 동력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45]

이처럼 노동(자) 문학이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경제·문화적 소외”를 능동적으로 지양·극복하는 “소외극복의 문학”[46]으로 정의되면서 ‘희망’은 소외 극복을 위한 믿음과 신념으로 요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이 믿음과 신념이 ‘행복을 좋은 것, 불행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47] 희망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19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실천적

미를 갖는 노동, 그리고 그 노동을 행하는 자로서 민중 구성의 중추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문학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김병걸·채광석, 『민중, 노동 그리고 문학 - 80년대 대표평론선 3』, 지양사. 1985, 6면.(이하 『평론선 3』으로 표기)

42) 1980년대 문학비평계는 박현채의 설명을 중요한 자원으로 삼아 민중문학론·노동문학론을 전개해나가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 학술장에 미친 박현채의 영향에 대해서는 손유경, 앞의 논문(2015) 참조.

43) 박현채, 「문학과 경제 - 민중문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 『실천문학』 4, 1983, 99면.

44) 박현채의 언어로 제공된 민중·노동자에 관한 설명은, 당대 문학장에서 백낙청이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유보한 민중에 관한 ‘과학적’ 인식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김병걸·채광석 편, 『평론선 2』, 지양사, 1985, 125면.

45) 박현채, 「문학과 민중」, 『한국문학』, 1985.2, 322-324면.

46) 이재현, 「노동, 문학 그리고 민주주의」, 『평론선 3』, 지양사, 1985; 현준만, 「노동문학의 현재적 의미」, 『한국문학의 현단계 Ⅳ』, 창작과비평사, 1985 참조.

47)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참조

역량을 조명하는 기왕의 연구들에도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적했듯 살아있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가볍게 다뤄지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랑시에르의 시각에 입각하여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논의해온 연구 경향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48]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예술의 식별체제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랑시에르의 저작들은 1980년대 문학을 정치적 이념성과 미학적 자율성의 이분법적 구도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이론적 전거로 이해되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49] 기존의 지배 질서인 치안의 체계와의 대립과 단절을 통해 성립하는 랑시에르식 민주화의 논리는, 비가시적인 것들의 가시화를 이룩한다는 점에서 주체화의 논리로 등치된다.[50] 그러나 그의 주체화의 논리에는 적대에 의해 구조화되는 사회적 관계 개념이 기각되어 있다.[51] 다시 말해 구조적 시스템과의 분리, 혹은 단절을 통해 주체화되는 랑시에르의 주체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에 내속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생산체계의 바깥에서만 성립 가능"한 것이다.[52] 이러한 이유에서 1980년대 급격한 자본

48) 이 부분의 문제제기는 랑시에르의 이론 전반 혹은 랑시에르의 이론 자체에 있지 않다. 랑시에르의 이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이해방식과 경향성을 지적하기 위함임을 밝혀둔다.

49) 2000년대 말부터 랑시에르의 저작은 번역되기 시작한다. 예술의 식별체제로 미학을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가 지각되는 방식과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그의 문학의 정치 개념은 진은영의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 이후 문학과 정치, 미학적 예술체제와 정치적인 것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활발하게 인용되었다. 랑시에르의 이론적 사유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문학비평과 연구에 하나의 "읽기 패러다임"을 형성했다고 할 만큼 한국문학연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김미지, 「한국 근대문학연구에서 랑시에르의 '문학정치' 개념 적용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19-1, 한국근대문학회, 2018, 163면.; 초창기에 번역・활발하게 인용되었던 랑시에르의 저작은 『미학 안의 불편함』(인간사랑, 2008), 『감성의 분할』(도서출판b, 2008), 『문학의 정치』(인간사랑, 2011),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길, 2013) 등이 있으며, 최근 랑시에르의 박사학위 논문인 『프롤레타리아의 밤』(문학동네, 2021)이 번역되었다.

50) 서용순, 「네그리-하트와 랑시에르의 계급론적 주체 이론에 대한 연구」, 『철학연구』, 142, 대한철학회, 2017, 132-135면 참조.

51) 서관모, 「반폭력의 문제설정과 인간학적 차이들」, 『마르크스주의연구』 5-2,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282면.

52) 위의 논문, 140면.

의 증식이 이루어지던 한국 사회 속 인간/삶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투를 구명하기에 랑시에르의 논리가 충분한지 되짚을 필요가 있다.

특히 몫 없는 자들의 몫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은, 인간 고유의 욕구와 필요, 욕망이 자본이 운동하며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을 추동하는 힘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욕망이 살아있는 노동을 영구적으로 착취하는 유인을 내장한 추동력이 된다는 점에서[53] 자본의 무한한 증식이 이루어지던 한국사회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적인 맥락을 형성한다. 1980년대는 산업화가 내걸었던 '행복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었고, 그곳에서 희망은 '너'의 불행을 착취하여 재생산하는 "희망의 정치경제"를 통해, 특정 소수에게만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54]

이를 고려할 때, 1980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나 신념으로 손쉽게 해석될 수 없다. 그것은 '너'의 고통과 '나'의 행복이라는 자본이 강제하는 이분법을 넘어 사유되는 것이어야 한다.[55]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문학 장에서 인간이 경제주의적·물질주의적으로만 논의되었다는 문제를,[56] 무한히 증식하는 자본의 위력이 인간의 불행과 고통, 희망을 일정한 방식으로 굴절시킬 때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며,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보다 예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53) 마르크스는 개인적인 이윤의 동기를 자본의 가치 증식과정이 무한히 유지될 수 있는 추동력으로 이해한다. 카를 마르크스, 강신준 옮김, 『자본』, 길, 2012 참조.

54) '희망의 정치경제'는 희망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 아메드가 사용한 표현을 빌려왔다. 희망이 놓여 있는 모순적 위치를 아메드가 비판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기 위함이다.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40면. 데이비드 하비가 모순에 대항하며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혁명적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 황성원 옮김, 『자본주의의 17가지 모순』, 동녘, 2014, 416면.

55) 이를 2.2에서 조세희의 '불행의 공유'라는 기획의 핵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56) 방민호, 「사회구성체 논쟁의 시대 - 1980년대 문학을 위하여」,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옥, 2018, 246-266면; 방민호, 「물질적 인간을 넘어서」, 『한국 비평에 다시 묻는다』, 예옥, 2021, 32-40면 참조.

마지막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민주화운동의 결과이자 효과로 1980년대 문학의 운동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이 시대 문학의 해석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다는 점이다.[57] 기왕의 연구들이 보여준 이와 같은 접근법은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양식'인 소설의 침체라는 낡은 통념을 지속시키고 있다. 1980년대 문학의 핵심적 의의가 '운동성'에 있는 것이라면, 이 시대 문학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는 관건은 이 운동성의 의미를 얼마나 탄력적이고 생산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80년대 문학이 수행하는 해체와 균열·전복의 움직임을 다른 기준과 척도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인간 주체에 관한 인식론적 질서와 위계의 전복과 해체라는 사유의 운동으로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운동에 기여하는 문학'[58]을 주장했던 1980년대 문학운동론자들의 이념중심성을 비판하고, 운동과 문학의 절합articulation[59]의 관점에서 1980년대 문학의 운동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가령, 1980년대 지역 무크지들이 출간되는 현상이 연구되는 다음

---

57) 르포나 수기와 같은 전통적인 문학 제도 '바깥'의 장르나 '아래의 목소리'들이 기존의 문학장에 유입되면서 생겨나는 일련의 변화들이 주된 근거였다.

58) 백진기, 「노동문학, 그 실천적 가능성을 향하여」, 『평론선 3』, 지양사, 1985 참조.

59)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과 사회집단들 간의 우발적이고 비필연적인 연결을 뜻하고자 마르크스주의 문화연구가 스튜어트 홀이 의식적으로 활용한 개념이다. 절합은 반드시 특정한 존재 조건의 등장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과정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사라지거나 뒤집힐 수도 있는 관계 사이의 연관 혹은 연결을 가리킨다. 홀은 문화연구의 갱신을 위해 마르크스와 알튀세르, 그람시의 작업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홀에 따르면, 다양한 실천 사이의 절합이란 이 실천이 모두 똑같아진다거나 하나가 다른 것으로 융해된다는 뜻이 아니다. 각 실천은 그 특유의 결정과 존재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동일성'으로서가 아니라 '통일 속의 차이'로서 함께 기능할 수도 있다. 스튜어트 홀, 앞의 책(2018), 2장, 4장 참조.; 스튜어트 홀, 앞의 책(2021), 5강 참조; 제임스 프록터는 홀이 이 개념을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견해와 관련된 환원주의 및 근본주의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옮김, 『지금 스튜어트 홀』, 앨피, 2006, 99면. 이 책의 역자인 손유경은 'articulation'을 절합으로 번역하였고, 최근 출간된 번역본에서는 '접합'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홀의 개념이 알튀세르의 '지배 내 절합'이라는 개념과 갖는 연관성을 고려하여 '절합'으로 표기한다.

과 같은 방식은 1980년대 문학이 연구되는 특정 경향과 운동성에 관한 해석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60]

1980년대 이례적으로 급증한 무크지의 출간은 "한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움직임"[61]이라는 점에서 '무크운동'으로 명명되었다. 1980년대 무크운동은 1970년대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지성』 등이 주도한 문학판의 한계와 결여를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문학적 표현 욕망이[62] '문학 담당층'의 변화를 가져와 "기왕의 문학적 질서를 뚫어내고" 문학적인 범주 바깥의 비공식적·비전문적인 움직임과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문학의 정치'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63] 무크지의 정치성을 '운동'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전개되는 가운데,[64] 김예리는 기존의 지식 담론과 그 담론을 구성하는 언어 질서의 부정과 해체라는 관점에서 무크운동이 아닌, 무크문학이라는 명명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시와 경제』, 『시운동』과 같은 '무크문학'에서 나타나는 자기반성적 윤리와 태도를 '제도의

60) 80년대 무크지 간행 현황을 정리한 원재길에 따르면, 1980년대 발행된 무크지는 모두 26종, 그 중 서울에서 13종, 광주에서 4종, 부산·대전·대구에서 각 2종, 그리고 마산과 포항에서 각 1종이 간행되었다. 김문주는 이러한 현황이 문학잡지의 지역 발행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특히 고무적인 현상이며 단순히 간행 종수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원재길, 「80년대 문학 종합 무크지의 실태」, 『문화예술』 124, 1989;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 95면 재인용.

61) 정이담, 「문화운동 시론」, 정이담 외,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5면.

62) 김문주, 앞의 논문 참조.

63)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인문학연구』 45,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참조

64) 김대성, 김문주의 논의 이후 후속 연구들의 상당수가 '운동'의 차원에서 무크지를 연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문주, 「무크지 출현의 배경과 맥락—『마산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0, 한국근대문학회, 2014; 임시현, 「1980년대 광주 지역 무크지의 실제」, 『한국언어문학』 99, 한국언어문학회, 2016; 심선옥, 「1980년대 시 동인지 운동과 '5월시'」,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2017; 임세진, 「문학(성)의 민주화와 민중 언어의 실천—대전지역 무크지 『삶의 문학』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9, 겨레어문학회, 2017; ____,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 『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 김경연, 「1980년대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무크지 『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2021 등.

반성적 해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문학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무크지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제도 문학에서는 부재했던 ‘타자’를 위한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65]

무크지와 관련한 이 연구들은 1980년대 문학의 운동성이 연구되는 방식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대다수 연구가 무크지의 성과와 의의를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평가하고 있다는 점, 동일한 대상을 ‘문학’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도 기존 문학에 가져온 부정과 해체, 균열이라는 키워드가 그 의의로서 공유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1980년대 문학의 운동성을 운동의 결과나 효과가 아닌 다른 기준과 척도로 평가하는 접근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는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양식으로 간주되었던 소설 연구가 정체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까지 1980년대 소설은 광주항쟁과 연계된 국가 폭력의 문제를 조명하는 연구를 중심으로,[66]노동소설의 현재화를 모색하거나,,[67]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학출 여대생과 중산층 여성 서사를 주목하고[68] 이

65) 김예리, 「80년대 ‘무크 문학’의 언어 풍경과 문학의 윤리」,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회, 2014, 194면.

66) 차원현, 「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 광주」,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배하은, 「재현 너머의 증언」,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2017; 강소희, 「1980년대 소설에 재현된 주체의 정치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미정, 「재현의 곤경, 설득의 서사 넘기 - 5월 광주 서사의 현재와 과제」, 『현대문학이론연구』 83, 현대문학이론학회, 2020;양진영, 「5·18 소설의 정치미학 연구-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에 바탕해」, 『한국문학이론과비평』 8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0; 양순모, 「이행기 정의와 비극-「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현대소설연구』 81,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등.

67) 차원현, 「두 개의 휴머니즘-1980년대 문학의 정념들」, 『개신어문연구』 34, 개신어문학회, 2011; 조현일, 「노동소설과 정념,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이혜령, 「노동하지 않는 자의 초상」, 『東方學志』 175, 동방학회, 2016; 손유경, 「일하는 사람의 ‘아플’ 권리 : 1980년대 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의 질병과 섹슈얼리티」,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2017; 천정환, 앞의 논문(2017): 정고은, 앞의 논문(2017); 허민, 앞의 논문(2022) 등 참조.

68) 손유경, 「사후(事後/死後)의 리얼리즘」,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 2014;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 『한국현대문학연구』 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_____, 「중산층 가정의 ‘기획’과 80년대 ‘워킹

를 감정 등과 같은 새로운 키워드로 독해하는 방식으로로[69] 전개되어 왔다. 논픽션 장르에 관한 연구의 양적인 축적과 그 성과를 비교할 때, 소설 연구의 활기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장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김도연의 「장르확산을 위하여」(1983)가 제시한 논점을 효과적으로 반향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참조한다면, 소설 연구의 정체된 현상을 당대의 소설침체론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4년경 집중적으로 표면화된 소설침체론은, 당대 문학 장이 직면한 변화와 그에 대한 비평계의 반응을 집약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1980년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타난 "소설 편수의 감소"라는 "양적인 침체" 현상을 문제적으로 인식했다.[70] 이 현상이 80년대의 소설계가 "논의점 자체를 잃고",[71] "극히 무기력"[72]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언급하는 비평가들의 발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소설이 침체되었다'는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들에게 문제는, 소설의 침체 자체라기보다 소설이 침체된 듯 '보이게 하는' 현실적 변화였고, 그에 발맞추어 소설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 불편함을 야기한 것이다.

창작과비평의 신작소설집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의 편자들은 "「객지(客地)」같은 뜨거운 작품에 의해 70년대 소설사가 세차게 개막되고 이후 당대 현실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그려낸 역작들이 줄을" 이었던 지난 연대를 떠올리면서 소설이 침체된 (듯 보이는) 문제를 언급한다. 그들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그럴 만한 어떤 객관적 사정"때문에 생겨났으며 "80

맘'의 경계 -『살아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연구』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김윤진, 「시선의 분화와 목소리의 중첩」, 『민족문학연구』 71,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등.

69) 이한나, 「1980년대 학출 여성 노동자의 도덕과 연애 감정 : 김향숙, 「얼음벽의 풀」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77, 동악어문학회, 2019.

70) 윤후명, 「小說」, 『1980年度版 文藝年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1, 214면.

71) 「세 번째 우리 세대의 문학을 엮으며」, 『우리 세대의 문학 3-살아야 할 시간들』, 1983, 문학과지성사, 6면.

72) 「책 머리에」, 염무웅・최원식 편, 『14人 創作小說集—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창작과비평사, 1984, 3면.

년대 특유의 상황과 문제의식이 정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소설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김도연의 도발적인 주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현실적 변화 앞에서 “필요한 것은 현대 세계구조의 수탈적 본질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이 살 만한 세상으로 개혁하는 일에 각자의 전문적 기능을 도리어 좀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일”이기에, 민족문학이 지켜온 기존의 방식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73]

비슷한 시기에 열린 좌담 「소설은 침체되지 않았다」(『문예중앙』, 1984 겨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소설이 침체된 듯 보이게 하는 현실의 변화였다. 이들은 소설이 양식적 특성상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한 뒤 소설을 “침체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르포, 수기, 기타 논픽션”과 “TV방송극의 큰 인기”로 독자층이 잠식된 현실적 변화(조남현)나 원고매수에 의해서 돈으로 계산”되는 “상품화”현상(김치수) 등이 이들이 생각하는 현상의 원인이었다.[74] 그런데 해당 좌담의 말미에 “오히려 발표된 소설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깊이 해석하지 못하는 비평의 침체”(정현기)라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된다. “비평이 왜 최근 4-5년간 침체되어 있느냐”하는 그의 질문은 소설침체론을 해명할 단서가 되는 중요한 물음이었지만, 이는 해당 좌담에서도 “사회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그럴 만한 어떤 객관적 사정”을 소설침체론의 이유로 지적한 민족·민중문학론자들에게서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소설침체론에 대한 선행연구의 판단은 크게 소설의 침체 여부를 승인하는가, 부정하는가로 나뉜다. 수기나 르포 등을 주목한 연구들은 소설침체론에 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소설의 장르적 특성이 급변하는 80년대적 상황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의 시각과 그 결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소설침체론이 제기된 배경과 원인을 70년대 문학에 대한 ‘영향의 불안’과

73) 위의 글, 3-6면.
74) 김치수·정현기·조남현, 「소설은 침체되지 않았다」, 『문예중앙』, 1984 겨울, 228-230면.

5·18이라는 언어화될 수 없었던 사건이 가져온 '리얼리즘적 재현체제'의 한계로 풀이한 경우도 있다.[75] 이러한 해석은 1980년대 소설의 문제성을 '침체'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위의 좌담에서 제기된 비평의 침체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적이다. 본고 역시 소설침체론을 5·18 이후 소설에서 나타난 어떤 변화와 이를 해석하지 못한 비평(해석)의 문제로 이해하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러나 이 변화를 민주화 운동과 절합하는 문학장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유하는 질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밝혀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왕의 해석과 구별된다.

1980년대 문학의 고유성이 '오월 광주'라는 시공간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존재의 특수한 배치"를 통해 '사건'이 출현한다고 본 지젝의 사유를 빌려본다면,[76] 이 시대의 소설이 포착하고 문제적으로 서사화한 질서의 변화란, 인간 존재가 재배치되는 사건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 논문은 1980년대 소설이 해석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부과해 온 소설침체론을, 존재의 질서가 변화한 '다른' 인간을 해석할 수 없었던 비평의 침체로 재맥락화한다. 그리고 이를 형이상학적·자기동일적으로 성립하는 인간이 아닌, 관계성과 이질성·타자성으로 구성되는 인간에 관한 인식론적·존재론적 전환을 가져오는 문제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부터 이 시대 소설의 문제성을 보다 풍요롭게 자원화할 수 있는 논점과 방향이 마련될 것이다.

지금까지 1980년대 문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바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제기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1980년대 문학·문화를 경험의 주체인 인간의 능동적 실천이 반영된 텍스트로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타자들의 자기재현의 글쓰기는 기존 문학 장의 위계와 질서에 생산적인 균열을 가져온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1980년대 문학·문화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는 타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

75) 천정환, 앞의 논문(2014); 배하은, 앞의 논문(2017), 2장 3절 참조.
76)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118면.

던 이 존재들의 주체화의 결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체화는 '조건화 된 행위'[77]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에, 이들이 놓여 있던 모순적인 위치로부터 조건과 행위 사이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맥락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삶 그리고 그에 관한 성찰에 관여하는 자본의 동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동의 결과이자 효과만으로 이 시대 문학의 운동성을 논의한다면, 이 시대 재배치된 인간의 질서에 관한 해석의 침체는 지속될 것이다.

1980년대 공론장의 '민중·노동자·여성의 인간화'라는 정치적 의제는 민주화운동의 목표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집단적 에토스를 형성하며 폭력적·배제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지위와 자격에 경계를 그었다. 이 시대의 소설은 다른 질서로 구성되는 인간들의 인간됨의 조건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유임을 말한다. 이에 본 논문은 1980년대 문학이 수행한 균열·전복·해체를, 휴머니즘의 전통 위에 세워진 '인간Man'이라는 개념과 지식, 지위에 일어난 차이différance의 운동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980년대 한국소설이 문제적으로 그려낸 인간 존재와 그 삶의 문제를 '비非인간적인 것'이라는 프리즘으로 조명할 때, 로고스중심주의·인간중심주의의 보편으로 위치해 온 '인간'은 탈구성 될 것이다.[78]

---

77)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41면.

78) 버틀러에 따르면,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인간적 삶에 대해 말할 때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지칭하고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의 범위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인간적 삶human life'이라는 용어를 두고 버틀러는 이 '삶'이 인간을 인간적이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것과 연결하고, 이 연결성으로부터 '인간적인 것'을 설정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인간적이지 않은 것, 인간 바깥에 있지만 삶 속의 상호 관련성 때문에 인간과 연속되는 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신이 아닌 것과 맺는 이런 관계가 살아 있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므로, 인간은 그런 것들을 확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인간의 경계를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6, 27면.

2. 연구의 시각

1980년대 공론장의 정치적 의제였던 민중·노동자·여성의 '인간답게 살 권리'란 최근 다양한 각도에서 도전받고 있는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사유였다. '인간'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의 정당성이 비판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비非인간적인 것'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비非인간적인 것'은 휴머니즘의 이상理想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인식론적·존재론적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한 개념으로, 형이상학적·본질주의적 인간이 아닌, 타자성과 관계성으로 구성되는 인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리하여 '비非인간적인 것'은 인간과 그 삶의 문제를 '변형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인식과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절chapter은 '비非인간적인 것'을 설명할 이론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인간과 그 삶의 문제를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를 제시하고, '비非인간적인 것'의 개념적 착안의 출처로부터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비판이론의 탈중심화 된 인간, 포스트휴먼이론의 비非인간에 관한 논점을 짚어보겠다.

1980년대 한국은 경제적 성장의 정점을 기록했던 시공간으로 기억되는데, 이 성장의 주역이 '자본'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 사회가 봉착해 있던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히 증식하며 운동하는 자본이 자체의 동학으로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를 재생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79] 실제로, 1979-80년 사이 권력 교체기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이 경제안정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80]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에서 1980년 5월

79) 데이비드 하비, 황성원 옮김, 『자본주의의 17가지 모순』, 동녘, 2014, 18면.
80) 하이에크 방한 이후 신현확 경제팀이 1979년 4월에 발표한 '경제안정화 종

광주항쟁에 이르는 ‘저항의 국면’과 중첩되면서 경제적 위기와[81]

정치적 위기가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82] 악화되고 있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은 1986년 정부가 중화학공업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국내의 대기업들에 독점적 특혜를 주면서부터다. 물가가 안정되고, 일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면서 외채 위기가 해결되자 한국의 경제는 성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1980년대의 상황은 자본이 국가기구의 능력을 통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83]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거대해진 자본의 위력이 대다수의 인간과 삶을 규율하는 제약이 되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전 시기 전태일로 대표되는 공장 노동자들을 비非인간으로 내몰았던 폭력적 수탈과 착취가 민중 구성원 전반의 문제로 그 의미망을 확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자본의 관계가 중요해진 시공간이었고, 그로 인해 문학은 인간의 살 만한 삶의 필요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84] 인간의 욕구와 필요, 욕망이 가치의 증식과 전화,

---

합 시책’의 핵심은 시장기능 강화와 민간 자율성 확대였다. 유신 말기의 핵심 경제 관료였던 강경식은 이 안정화 시책을 “관 주도에서 시장 경제로 가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성장에서 안정으로, 보호에서 개방으로, 경쟁 촉진으로”라는 내용의 전환을 강조했다. -황병주,「유신, 자본과의 공모 혹은 대결」, 권보드래・김성환・김원・천정환・황병주,『1970 박정희 모더니즘—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5, 40면.

81) 실제로 1979년 봄부터 한국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에 의한 유가상승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유가상승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였고 미국의 금리인상은 외채 부담을 빠른 속도로 누적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미국에서 권력 엘리트와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교체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레이건 정부는 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케인스주의적 국가개입정책에 의한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경제정책을 전환한다. 박찬종,「한국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기원—부마항쟁과 광주항쟁 이후의 경제정책 전환」,『사회와 역사』117, 한국사회사학회, 2018 참조;「유가 더 낮출 수 있었다」,『조선일보』, 1980.2.2.;「인상해일, 표류하는 서민가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동아일보』, 1980.2.2.;「임금인상 요구, 노사분규사업장 잇달아」,『매일경제』, 1980.4.25. 참조.

82) 박찬종, 앞의 논문(2018), 95-105면 참조.

83) 데이비드 하비, 강윤혜 옮김,『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선순환, 2021, 135면.

84) 경제의 양적 성장이 국민들의 피부에 감지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자 분배

분배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동하는 힘이기에, 자본은 인간의 욕망의 구성과 재구성에 필연적으로 관여한다.[85] 따라서 끝없이 변화하는 '본성'을 우리와 미래를 둘러싼 정치적·문화적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86] 인간을 변형 가능한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은 '비非인간적인 것'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 개념은 푸코의 작업에서 착안한 것이다. 푸코는 '인간'이라는 에피스테메를 통해 근대의 인식론적 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형제같은 타자"가 "사유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19세기 인간의 은밀하고 부단한 동반자"이자 "끈질긴 분신"으로 표현되는 이 사유되지 않은 것을, 푸코는 인간을 인식할 가능성이 생겨나는 '맹점'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헤겔의 즉자, 쇼펜하우어의 무의식적인 것, 마르크스의 소외된 인간, 후설의 비현실적인 것과 개념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이 '사유되지 않은 것'이 결코 자율적인 방식으로는 숙고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푸코의 설명을 토대로 이 논문은 "실행되지 않은"채 보충적인 형태와 전도된 명칭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이것을,[87] 1980년대 민중·노동자·여성이 담론의 대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완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잔여에서 발견한다. 이에 잔여의 '흔적'[88]을

와 복지,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인간의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80년대 예술은 계급, 이념 등과 같은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기에 이른다. 이영미, 「총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현대 예술사대계』 V, 시공사, 2005, 16-17면.

85) 데이비드 하비, 김성호 옮김,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창비, 2019, 86-88면.

86) 자본에 의해 우리는 사고와 이해를 비롯하여, 제도와 지배이데올로기, 정치적 주체성, 기술, 사회관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관습과 취향의 변화를 겪는다. 자본의 "모순을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은 자본에 의한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사유와 실천, 행동을 통해 인간 자신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2014), 31-32면.

87)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447-448면.

88) 각주 39 참조.

‘비非인간적인 것’으로 명명하며, 이를 통해 당대의 인식론적 질서에서 사유되지 못했던 ‘다른’ 인간의 인식의 조건과 인정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비非인간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기보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비판이론, 근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이론에 이르는 궤적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답해보도록 한다.

휴머니즘이 상정한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우연적·허구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은 알튀세르와 푸코, 데리다의 작업을 통해서였다. 알튀세르는 전후 프랑스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인간학적·철학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비판하며,[89] 인식론적 절단coipure épistémologique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튀세르의 이론적 개입은 청년기와 후기 마르크스 사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론의 공백을 포착하면서 시도된다.

>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의식”과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데올로기는 심지어 숙고된 형태로 드러날 때에도 지극히 비의식적이다. …그러나 이 표상들은 무엇보다도 구조로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식”을 경유하지 않고 부과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결코 의식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의 한 대상으로서, 그들의 “세계” 자체로서 “산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살아지는”vécu관계는 이데올로기를 통과한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 이데올로기 자체라는 것을 뜻한다. …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살아지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실상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 조건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조건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를 사는 방식을 표현한다. 이것은 현실적 관계와 “살아지는” “상상적” 관계를 동시에 전제한다. 이데올로기는 따라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의 표현이다.… 이데올로기 속에서 현실적 관계는 불가피하게 상상적 관계 속으로, 즉 하나의 현실을 기술하기보다는 하나의 의지(보수

89)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알튀세르의 이론적 개입은 전후 프랑스의 철학계에 대두된 마르크스의 휴머니즘적 해석에 반대하여 시작된다. 사르트르나 메를로퐁티 등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유물론적 역사개념이 사람들을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상태로부터 해방하는 사유체계라고 생각했고, 공산주의 사회가 그들이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르크스 휴머니즘의 특징은 18세기 계몽주의 시기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전한 휴머니즘, 즉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치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신념과 비슷하다. 루크 페레터, 심세광 옮김,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앨피, 2014, 57면.

적·순응주의적·개혁적 또는 혁명적 의지)를, 게다가 하나의 희망 또는 향수를 표현하는 관계 속으로 투여된다.[90]

알튀세르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주어진 한 사회 내에서 그것의 가능성의 조건들, 그것의 구조, 그것의 특유한 논리 및 실천적 역할"과 동시에 "그것의 필연성의 조건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사고의 모든 요소들을 통일하는 전형적인 체계적 구조"로서사람들은 이 이데올로기(구조)를 결코 의식의 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한 대상처럼, 자신들의 '세계' 자체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살아간다'.[91] 이데올로기에 대한 알튀세르의 설명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는, '나'가 이데올로기를 경험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 조건에 대한 자신들의 관계를 사는 방식"을 재현하는 존재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알튀세르는 라캉에게서 빌려온 호명interpellation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이데올로기와 주체의 관계를 발전시켜 논의한다. '호명'은 이데올로기나 권력의 작용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개인들이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가 구체적 개인들을 주체들로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 한에서 성립한다는 것이 밝혀진다.[92] "이데올로기가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한다"[93]는 알튀세르의 정식은 주체가

90) 루이 알튀세르, 서관모 옮김, 「Ⅶ 마르크스주의와 인간주의」, 『마르크스를 위하여』, 후마니타스, 2017, 406-408면.

91) 이는 진태원의 해석을 참고한 것이다. 진태원, 「호명(interpellation) Ⅱ」, 『사람과 글 人・文』 통권 3호, 2011.7 참조.

92) 진태원은 호명의 핵심 논점이 우리가 이데올로기나 권력의 작용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개인들이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개인들 내지 주체들의 존재 양식이 계급 지배의 메커니즘과 내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태원, 「호명(interpellation) Ⅰ」, 『사람과 글 人・文』 2, 2011.6 참조.

93)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옮김, 『아미엥에서의 주장』, 솔, 1991, 115-116면. 여기서 알튀세르는 주체가 "모든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범주"이며, 이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구체적 개인들을 주체들로 '구성하는' 것을 자신의 기능(이는 이데올로기를 정의하는 기능이다)으로 갖고 있는 한에서만" 그러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주체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이러한 사명은 "주체라는 범주와 그 기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화하는 존재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주체란, 가장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의 범주이자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적 범주와 개념들이 근거로 삼는 범주가 된 것이다.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가 항상 "장치 속에 그리고 그 실천 혹은 실천들"[94] 속에 존재한다면서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을 강조하는 이유 역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가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토대, 경제 자체를 변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95] 이로써 인간은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표현되는 세계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로 그 위치를 탈중심화하게 된다.

알튀세르가 표방한 반인간주의적 사유는 동시대 푸코의 작업에서도 공유된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도발적인 명제로 널리 알려진 푸코의 초기 이론의 성과는, 근대적 인간이 초월적 위치에 있는 주체가 아니라, 지식이 수렴하는 곳이자 그로부터 산출된 담론으로부터 지식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에피스테메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 에피스테메란 다양한 과학들을 관통함으로써 한 주체의, 한 정신의 또는 한 시대의 지고한 통일성을 드러내는 인식의 한 형태 또는 합리성의 한 유형이 아니다. 그것은 한 주어진 시대에 있어서 과학들 사이에서 그들을 언설적 형성의 수준에서 분석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관계들의 집합인 것이다.…따라서 에피스테메에 대한 기술은… 한 시대의 모든 인식들이 복종하는 가정들의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들의 무한정한 장을 주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수립되었다가 파괴되는 분절들의 어긋남들의 일치들의 무한히 동적인 집합인 것이다.…에피스테메는…언설적 실천들의 실증성 안에서, 인식론적 윤곽들과 과학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96]

에피스테메는 인식을 위한 가능조건, 인식의 실증적 기반을 이루는

---

94)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옮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엥에서의 주장』, 솔, 1991, 111면.

95) 알튀세르 이데올로기론의 의의는 이데올로기를 토대와 관련시키면서도 그것이 수행하는 적극적 · 구성적인 역할을 해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알튀세르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게 이데올로기를 경제적 토대 또는 계급투쟁에 근거 짓는 한편, 이데올로기의 물질성 및 호명 개념을 통해 이데올로기에 대해 전통 이론에서 볼 수 없었던 커다란 실재성을 부여한다. 진태원, 앞의 글 참조.

96)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18, 267-268면.

한 시대의 특유한 인식방법을 일컫는다. “사물의 배열에 관한 일반 이론과 사물의 배열에 의해 요구되는 해석이 세워지는 데에는 확고한 토대로 간주”되는 질서가 먼저 존재한다. “언설적 실천들의 실증성 안에서 인식론적 윤곽들과 과학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관계들의 집합으로 에피스테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한히 동적인 집합”으로서 변화한다는 점이다. 에피스테메의 불연속은 우리로 하여금 인식론적 질서의 존재 양태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97] 그리하여 푸코는 근대의 에피스테메로서 ‘지금, 여기’의 지식의 근거가 되는 ‘인간’을 주목한다. “사물이 인간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기에 인간의 경험은 이 “사물에 의해 전적으로 구성되고 제한”되는 만큼 “누구도 인간에게 기원을 지정할 수 없”다.[98] 이렇게 푸코는 인간의 특이한 존재 방식과 인간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지식의 배치를 통해 구성되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선험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기원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러한 푸코의 작업은 로고스중심주의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과 친연성을 갖는다.

니체와 하이데거가 제기한 ‘형이상학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계승한 데리다는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직관과 본질, 존재와 의미, 진리, 말과 같은 “개념들과 사유 태도의 체계적 역사적 연대를 명백하게 함으로써”[99] 이 개념들에 부여된 특권적 위치를 해체한다. 이를 통해 서양의 형이상학이 ‘현전의 장’ 속에서, ‘존재의 의미의 한계’로서, ‘언어적 형식의 지배’로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다. 데리다가 지배의 기원을 묻는 것은, 하나의 초월적 기의를 실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성립시키는 전제 혹은 초월성을 산출시킨 것이 무엇인지 묻고자 함이다.[100] 이렇게 형이상학적 사유의 기원과 본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지배력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데리다는 차이/차연différance, 대리보충이라는 특유의 개념을 활용한다. 차이를 갖는다는 것과 지연시킨다는 낱말의 이중적 의미를 갖는 차연différance은 “차연시키는 것의 생산을 지칭하는 경제적 개

97) 미셸 푸코, 앞의 책(2012), 7-22면.
98) 위의 책, 454면.
99) 자크 데리다, 김성도 옮김,『그라마톨로지』, 민음사, 2010, 54면.
100) 자크 데리다, 위의 책, 71면.

념”으로,[101] 이 연쇄를 통해 보충적 매개는 끊임없이 증식된다. 대리보충supplément적 매개가 그것이 지연시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다.[102]

알튀세르와 푸코, 데리다를 중심으로 개진된 ‘인간’에 관한 비판적 사유는, 지금까지 ‘인간’을 지지해왔던 휴머니즘적 가정들이 역사적으로 틀 지워지고 맥락 속에서 정의되는 것임을 보여준다.[103] 이들의 이론적 사유를 통해 “인간은 보편주의적 이상을 발화하는” 표준이나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우발적인 가치와 지역성을 지닌 역사적 구성물”(36)이 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과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유럽중심주의·남근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그 결과, 성차화·인종화라는 구조적 차별 속에 주변화되고 배제된 인간들, 다양성과 차이, 내적으로 균열된 인간들이 주목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다움’의 지위가 지식의 문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것,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와 ‘인간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가 공생적·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요컨대, ‘휴머니티’는 어떤 인간들이 보다 우월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들이 다른 인간 존재들보다 좀 더 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유럽중심주의적·로고스중심주의적 휴머니즘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104]

많은 논쟁과 갈등 속에서 다양한 효과를 산출해온 휴머니즘은 보편적이고 타고난 인간본성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합리성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표현되어 알 수 있다는 신념을 견지해왔다.[105] 근래 활발하게 논의되는 포스트휴먼이론은 이 신념을 상대화하면서, 주체 바깥의 타자 인간들뿐 아니라 인간종의 바깥, 비非인간 생명체들과 기계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성찰을 시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지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주체성이 전통 휴머니즘과 보편 인간에 대한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비판적 개입을 통해 모색된 주체

101) 위의 책, 72면.
102) 위의 책, 2부 참조.
103)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옮김,『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195면.
104) 릴라 간디, 이영욱 옮김,『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44-45면.
105) 위의 책, 42-43면.

성이자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변화가 일상으로 대두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는 주체성일 것을 그 조건으로 요구받는다고 말한다. 때문에 그는 우리가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의 범주적 경계선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되는 동시에 흐려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브라이도티가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자연-문화 연속체'의 개념이다. 주어진 것(자연)과 구성된 것(문화)을 범주적으로 구별하는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방식이 이분법적 대립으로 구축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유의 도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이론이 어디에서 인간성을 넘어서는지, 포스트휴먼이 지지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인지, 포스트휴먼은 어떻게 자체의 비인간성의 형태를 발생시키는지, 우리는 우리 시대의 비인간적/비인도적 특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와 같은 물음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106] 포스트휴먼이론이 제기하는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간'의 개념과 인식의 방법을 사유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공존·공생·공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非인간(종)의 발명을 촉구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107] 물질적 전회를 통해 인간 주체의 위치를 벗어난 물질(사물)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신유물론이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된다.

신유물론은 지금까지 이뤄진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인간'의 의도, 행위, 담론, 담론에 관련된 경험과 기표, 표상을 통해 이뤄졌기에, 결국 인간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한다. 이에 근대의 에피스테메인 인간 바깥에 놓여 있는 객체(사물), 담론적 구성물로 간주되지 않는 물질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물질'은 인식의 대상에 함의된 것으로 여겨졌던 "수동성, 불변성, 정태성 등의 제약" 대신 "생기, 행위자성, 생산성, 창조성 같은 적극적 속성"과 연결되고, 이 능동적인 물질과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설정된다.[108] 레비 브라이언트에게 이 문제는

106)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참조.
107) 헤일스 캐서린, 허진 옮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3 참조;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김은주 외, 『디지털 포스트휴먼의 조건』, 갈무리, 2021, 19-20면.

“인간의 수위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객체의 역능을 주목하는 문제로 구체화한다.

> 첫째 인간은 존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 **중**에 속한다.
> 둘째 객체는 주체에 대립적인 하나의 극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객체나 인간이 그것과 관계를 맺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현존한다. 인간은 객체에 대립적인 주체라고 일컬어지는 범주를 구성하기는커녕 많은 종류 중 한 **종류**의 객체일 따름이다.[109]

그는 주체와 객체,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형이상학적 특권을 부여하기를 거부하며, ‘인간의 수위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간을 존재자 ‘중’에 속하는 “한 종류의 객체”로 규정한다.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인간을 존재의 중심이 아닌 존재자 중의 하나로 그 위치를 전환하는 것에 있다. 이제 ‘인간’은 객체에 대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 중의 한 객체, “객체 이외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 특정한 종류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주체 없는 객체’로의 전환을 통해 객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주목하게 되면, 객체가 어떤 체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리 행동하고, 외부와 자기의 내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부터 레비 브라이언트는 객체의 역량이 ‘매개자’의 역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존재자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자기 고유의 국소적 표현을 산출”하는 역능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놓여 있는 맥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110] 그러나 이렇게 객체인 존재자의 역능을 ‘매개자’의 ‘번역’의 역량으로 해석하고, 이 존재가 주변 세계를 창조적으로 번역함으로써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결론에 이르면, 이것이 과연 인간의 의도나 행위, 담론 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방식인지 되물을 필요는 있다. 존재와 존재가 맺는 새로운 관계의 필요와 그 대안적 관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이기에, 이

108) 황정아, 「물질과 문학 그리고 인간되기」, 『문학동네』, 2022 봄, 203면.
109) 레비 R. 브라이언트, 김효진 옮김, 『객체들의 민주주의』, 갈무리, 2021, 350면.(강조는 원문)
110) 위의 책, 261면.

‘번역’에의 요구란 취약한 존재들 간의 관계성relationality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가능해지는 삶의 양식으로 변형할 것에 대한 요구와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111]

‘인간’에 관한 위의 논의를 참고할 때, 민중이나 노동자라는 이상理想적 인간형을 기반으로 했던 1980년대 특유의 휴머니즘을 비판적으로 해부하려는 본고의 작업에 유의미한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은, 탈중심화한 인간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인간의 내부에 타자가 있다며 관계성을 기원에 둘 것을 주장하는 구조주의·포스트구조주의적 사유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1980년대 문학에 나타난 ‘비非인간적인 것’을 논의해보려 한다. 논의의 관건은 첫째, “불변의 구조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며[112] 둘째, 인간다움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비非인간적 과잉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확보하여 “다른 국면에서 인간을 새롭게 획득”[113]하는 일이다.

먼저 구조 안에 놓인 인간과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행적 행위가 규범과 규약, 규제의 경계에서 ‘나’를 재구성하게 되는 역설을 탐구한 버틀러의 작업방식을 빌려올 것이다. 특히 그는 젠더를 구성하는 행위주체성agency을 통해 정체성이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114] 초기의 이론에서 수행성은 주로 젠더 정체성의 맥락에서 활용되었다면, 이후 버틀러는 이 변화를 이끄는 구성적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점을 확장한다. 인간의 생존에 관한 규범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115] 타자와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

---

111) ‘번역’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절의 마지막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112) 주디스 버틀러, 박미선 옮김, 「보편자를 다시 무대에 올리며」, 앞의 책(2009), 51-52면.

113) 인간은 다른 국면에서 인간을 새롭게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낯설어져야 하며, 스스로에게 괴물마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6), 304면.

11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참조.

115)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사회적 규범’과 ‘개별 인간됨’에 관한 규범적 관념에 의해 우리는 구성되는 동시에 비판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버틀러는 다른 삶의 양식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변화’는 이 규범과 비판적인

기’를 상실하고 자신에 대해 무지한 주체가 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버틀러의 사유를 빌려, 인간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게 하는 구성적 한계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설명가능성을 확보해보고자 한다.[116]

한편, 비非인간적 과잉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는 인간 존재에 관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마련된다. 1980년대 문학 장은 벌레나 짐승, 또는 찢기고 훼손된 몸으로 출현하는 비非인간적 과잉을 설명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앞서 ‘해석(비평)의 침체’로 제기한 이 문제는 ‘인간다움personhood’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환은 인간과 비非인간이 각기 구별되는 두 존재가 아니라, 차이와 간극을 내재한, 인간을 구성하는 질서의 문제로 포착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지젝은 이에 관해 ‘시차視差, parallax’의 개념을 활용한 “시차적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해준다.[117] 그에 따르면 ‘시차視差’에 의해서만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는 간극은 드러난다. “존재자의 영역 자체를 ‘비-전체’로 만드는”[118] 이 존재론적 차이는 “극소한 차이”이며,[119] “다른 국면에서 새롭게 획득될 인간”을 위해 기존의 ‘보편’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자체의 구성적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극소 차이의 논리”[120]가 보편의 틀을 전복한다는 지젝의

관계를 맺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삶을 규제하는 관점, 인간이 인간으로 인식되고 인정될 인식가능성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6) 참조.

116)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참조.

117) 시차視差, parallax란 두 층위 사이에 어떠한 공통 언어나 공유된 기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고차원적인 종합을 향해 변증법적으로 “매개/지양”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율배반을 뜻하는 것이다.…시차적 간극이라는 개념은 결코 변증법에 되돌릴 수 없는 장애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 전복적 핵심을 간파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를 제시한다.…(중략)…**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의 전환은 전적으로 관점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인류의 집단적 실천의 지평 너머에 도달하는 인간의 ‘비인간’적 중핵인 죽음충동 같은 주제를 도입한다. 그러므로 간극은 인간다움과 그 자체의 비인간적 과잉 사이의 간극으로서 인류 사회에 내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14-17면.(강조는 인용자의 것)

118) 위의 책, 54면.

119) 그가 스스로 인정하듯, 이 차이는 한 요소와 다른 요소 간 차이가 아니라 한 요소 자체의 차이라는 점에서 데리다의 차이différance와 유사하다. 위의 책, 41면.

문제제기는, 문화적 특수성에 반응하는 데 실패한 보편성의 작동방식을 비판하며 문화번역의 필요를 제안하는 버틀러의 문제제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121]

버틀러는 자신의 적용가능성의 영역 안에 포함된 사회적·문화적 조건에 반응하면서 재정식화되지 못하는 보편성에 문제를 제기한다.[122] 이 '실패한 보편성'은 우리로 하여금 보편성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보편성이란 자신이 언표하는 그 보편성을 수행적으로 실연하기 위한 다양한 맥락으로 번역되는 구성적 행위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23] 이 점에서 버틀러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범주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124]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보편성에서 관습적으로 배제되어 온 이들"의 "수행적 모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 보편성을 지속적으로 수정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125] 이 논문은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의 근본 범주를 수정하고 갱신함으로써 보편적인 것을 재표명하는 이 사유의 운동을 통해 1980년대 문학의 지평은 확장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보편적이고 자명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기원에 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

120) 슬라보예 지젝, 위의 책, 65면.

121) "보편성이 정태적 가정이나 선험적 소여가 아니며 대신 그 외양의 규정적 양태 어느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과정 또는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젝과 버틀러, 라클라우는 공통된 논의의 지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편성을 문제화하는 세부(細部)에는 합의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표도, 논의해야하는 범주 안의 문제도 아니다. 본 논문은 이들, 특히 버틀러와 지젝을 통해 특수성/우연성과 보편성의 관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급진적 형태'에 관해 사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주디스 버틀러·에르네스토 라클라우·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2009) 참조.

122)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6면.

123) 주디스 버틀러, 박미선 옮김, 「보편자를 다시 무대에 올리며」, 앞의 책(2009), 61면.

124)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5), 67면.

125)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09), 66면; 앞의 책(2016), 303면.

고는 기존의 주체 개념에 내재한 인식론적·존재론적 한계를 강조하는 '비非인간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1980년대 소설에서 보편 인간의 인식가능성의 조건과 인간다움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정받을 만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구분하고 인간의 자격과 지위를 선별적으로 부여 혹은 박탈한 인식론적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와 분투하는 존재들의 서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비非인간으로 격하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의 공모성과 착취성을 폭로하고, 인간과 비非인간을 이분화하는 인식론적 규범을 전유하여 자기의 인간됨을 수행하며, 때로는 그 규범의 간극을 벌려 비非인간적 과잉으로서 출현한다. 본 논문의 2-4장은 이를 문제적으로 서사화하는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작품들로 배치되어 있다. 서로 다른 경향과 문제의식을 가진 이 텍스트들을 분석할 때,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이 있다면, 서사적 주체들이 도모하는 '비非인간적인 것'의 인식과 상상을 '조건과 행위의 관계'로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26]

본 논문은 '비非인간적인 것'이 인간에게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로서 위치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인간Man'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탈구성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민중·노동자의 인간화 기획에 내재한 전통적인 주체-대상의 위계를 비판하는 지식인의 사유의 실천(2장), 남성중심주의적으로 규정된 인간됨의 조건을 수정하는 여성들의 수행(3장), 인간의 경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탈脫인간화한 몸들의 번역(4장)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2장에서는 주체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주목한다. 탈중심화 한 인간이 주체-타자의 위계에 변형을 가져오는 방식을 박태순과 조세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박태순의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1980), 「3·1절」(1983), 「밤길의 사람들」(1987)을 중심으로, 포스트식민지의 지식과 권력의 공모성을 자각한 지식인 주체가 '민중'의 인식론적 경계를 비판하고, 그 경계 바깥의 존재들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사유의 실천을 분석한다. 2절에서는 조세희의 『시간여행』(1983)과 『침

12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08), 41면.

묵의 뿌리』(1985)를 중심으로, ‘너’의 불행을 착취하여 ‘나’의 행복을 재생산하는 착취의 메커니즘을 ‘불행의 공유’라는 급진적인 기획으로 해체하고자 한 시도를 주목한다. 포스트식민적 조건에서 지식인의 위치에 내장된 권력과의 공모가능성과 주체의 착취성이 폭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사유와 실천이 이뤄지는 과정을 규명해나갈 것이다. 지식인의 위치에서 이루어진 주체들의 자기인식은 휴머니즘적 토대 위에 세워진 지식인(주체)과 민중(타자)의 위계적 관계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며 관계의 변형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타자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의 수행을 주목한다. 구조적 타자로 규정된 인간들의 도전이 인간됨humanness의 조건을 수정해나간 맥락을 이문열과 강석경, 석정남과 방현석의 텍스트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1절에서는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1983)과 강석경의 「숲속의 방」(1985/1995)의 교양 주체들의 성장을 마주 세워, 젠더화된 형성buildungs의 규범을 패러디하는 여성들의 분투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석정남 「장벽」(1985), 「노동자와 문화」(1985), 「실제와 이론」(1985), 「불신시대」(1987)와 방현석의 「새벽출정」(1989), 「내일을 위한 집」(1989) 등을 통해 성차와 계급차를 각인한 인간들의 연대가 제한적으로 표명된 노동자성을 갱신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구조적 타자들의 자기형성(성장)이라는 수행이 남성중심주의적 인간됨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의 자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체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非인간적인 것’의 번역의 요구를 주목한다. 비인간적 과잉의 출현은 인간/비非인간의 이분법을 심문하고 인간다움personhood의 해석 지평을 확장한다는 점을 과정을 양귀자와 김영현, 임철우와 최윤의 텍스트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양귀자의 「방울새」(1985), 「한 마리의 나그네 쥐」(1986)와 김영현의 「벌레」(1985)에 나타난 벌레와 짐승으로의 변신變身이 인간의 내부를 파괴하는 폭력 앞에 인간다움을 지키는 생존의 실천이 되는 역설을 조명한다. 2절에서는 임철우의 「불임기」(1985), 「사산하는 여름」(1985)과 최윤의 「저기 한 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1988)와 「회색

눈사람」(1992)을 통해 찢기고 훼손된 몸이 건네는 말(고백)을 주목한다. 이로부터 맺어지는 몸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자기'를 상실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해 무지하다는 취약성을 사유할 수 있다.

Ⅱ. 사라지는 지식인과 주체/대상의 위계 변형

1. 지식-권력의 공모성과 ‘민중’의 경계 비판[127]

2장에서는 주체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주목한다. 탈중심화 한 인간이 주체-타자의 위계에 변형을 가져오는 방식을 박태순과 조세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여기서는 박태순의 『어제 불던 바람』(전예원, 1979),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심설당, 1980), 「3·1절」(『세계의 문학』, 1983 봄), 「밤길의 사람들」(풀빛, 1987)을 중심으로, 포스트식민적 조건에서 지식과 권력의 공모성을 자각한 지식인 주체가 ‘민중’의 인식론적 경계를 비판하고, 그 경계 바깥의 존재들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사유의 실천을 분석한다. 포스트식민적 조건에서 지식인의 위치에 내장된 권력과의 공모가능성이 폭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사유와 실천이 이뤄지는 과정을 규명해나갈 것이다.

1980년대 박태순의 텍스트에 관한 선행연구는 비非문학적 주체를 요청하는 현재성을 띤 문제의식 속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1980년대 박태순이 발견한 존재들이 당대 민중문학론이 위계적으로 대상화한 민중에서 어긋나 있는 비非민중들로서, 작가의 텍스트에 그들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논점으로 의미화해왔다.[128] 지난 몇 년간 1970-80년대 민족·민중 담론을 탈구축하는 서발턴·서발터니티의 발견과 이에 대한 복원의 문제[129], 이를 수행하

127) 박태순의 소설 『어제 불던 바람』(1979),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1980)과 「3·1절」(1983)에 관한 분석은 졸고, 「1980년대 박태순의 실천에 관한 메타실천」, 『상허학보』 62, 상허학회, 2021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서술한 것이다.

128) 이현석, 「시민과 혁명의 시간」, 『구보학보』18, 구보학회, 2018;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배하은,「혁명의 주체와 역사 탈구축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56, 한국현대문학회, 2018; 강소희, 「‘비-동일성’의 민중을 기입하는 글쓰기」, 『현대문학이론연구』7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최은아, 「탈중심을 향한 이념적 실험의 기록」, 『상허학보』 61, 상허학회, 2021 참조.

129) 이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해볼 수 있다. 장성규, 「1980년대 노동자 문집과 서발턴의 자기 재현 전략」, 『민족문학사연구』

는 글쓰기로서 르포·수기에 관한 주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연동하는 지점에서 박태순의 텍스트를 조명한 결과라고 이해된다.[130] 이 연구들의 성과로 박태순의 문학이 지금, 여기의 문학연구가 지향하는 '탈중심'의 문제의식들을 풀어낼 수 있는 풍요로운 텍스트임이 입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태순이 동시대 문학인들과 '다르게' 민중 재현의 위계를 전복할 수 있었던 맥락이 충분히 조명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1980년대 박태순의 실천적 면모를 그의 표현을 빌려 "산문가"[131]로 규정하는 방식은,[132] 박태순이 실천과 문학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변형'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33] 이러한 문제는 1980년대 박태순의 활동과 산물을 '실천'과 '사유'의 이분법으로 평가하는 데서 비롯한다. 1960년대의 박태순이 4·19세대로 문학적 출발을 표명하였음에도 동시대 문인들과 다른different 방식으로 자신의 문학행위를 실천하였다거나 그가 발견한 '비-민중'이 1980년대 민중문학론의

50,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권경미, 「노동운동 담론과 만들어진/상상된 노동자—1970년대 노동자수기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 의 정치성: 연구자의 무의식과 노동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7, 상허학회, 2013;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연구소, 2011 등.

130) 박태순의 소설보다 르포와 기행(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뜨겁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와 같은 소설과 르포·수기와 같은 논픽션 장르 사이의 연구의 편차가 생겨난 이유와 그 문제에 관해서는 Ⅰ장 1절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참조.

131) 박태순, 「작가서문」, 『낯선거리』, 나남, 1989, 10면. 이 용어는 빈번하게 인용되었다. 이 글에서 박태순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문학인이 산업화되는 자본제 사회 속에서 일종의 '지식노동자'가 된 현실에서도 사회·민족·역사를 총체적으로 조감하는 존재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을 가진 문학인은 "민족의 '형식'을 규정하고, 민중의 '내용'을 정당하게 설명"하여 "민중의 이야기를 매개하여야 한다."

132) 김세준, 「박태순의 실천 담론과 역사의식」, 『현대문학이론연구』 6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51-77면.

133) 박태순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사상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수행되는 실천"이라는 의미로 '실천'을 사용한다. 박태순, 「문화운동과 실천으로서의 문학예술」,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실천신서1』, 실천문학사, 1983; 박태순, 「언사록」, 『民族의 꿈 詩人의 꿈』, 한길사, 1986 등

위계적 재현을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때, 논구되어야 하는 것은 박태순으로 하여금 다른alternative 실천을 가능하게 한 내적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고정적인 해석의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성' 이야말로 박태순의 텍스트에 내장된 문제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134]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135]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문학이 수행하는 해체와 균열·전복의 움직임을 다른 기준과 척도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문제를 인간 주체에 관한 인식론적 질서와 위계의 전복과 해체라는 사유의 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975년을 지나며 박태순은 돌연 절필을 선언·감행한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문학-행위가 일종의 "가짜문학"에 불과하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는데, 창작을 중단한 박태순은 '나는 어디에 놓인 누구인가', '개인으로서 또 집단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

134) 관련하여, 박태순의 초기 소설에 관한 연구들이 '이동성'을 주목했다는 점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들은 공간에 국한된 개념으로 '이동성'을 이해하며 월남 작가라는 박태순의 자전적 이력을 바탕으로 서울(도시)과 지방(농촌)의 거리, 그 사이에서 인물들이 근대화를 경험하는 방식을 형상화하는 기제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의 논문들이 대표적이다. 김주현, 「시각체험과 6·70년대 도시빈민 소설의 새로운 형식」, 『어문연구』 33-2, 『어문논총』, 어문학회, 2005, 353-379면; 백지연, 「박태순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 고찰」, 『비평문학』 26, 한국비평문학회, 2007, 83-105면;오창은, 「4·19 공간 경험과 거리의 모더니티」,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13-52면; 조현일, 「대도시와 군중」, 『한국현대문학연구』 22, 한국현대문학회, 2007, 343-386면; 장현, 「배회하는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381-408면; 김한식, 「박태순 소설과 1960년대 서울」, 『현대소설연구』 58, 현대소설학회, 2015, 105-135쪽; 이소영, 「박태순의 (비)문학과 장르이 동양상」, 『우리말글』 75, 우리말글학회, 2017, 507-547면 등.

135) 다음과 같은 박태순의 언급은 그의 변화를 논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생각 해보게 한다. "나는 이 나라의 사회를 고정된 것, 운동이 없는 것, 변화생성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고 형성되고 있고 … '움직임'의 총화로서 파악하게 된다. 이 사회의 구조는 전근 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관료적인 것과 민간적인 것 …현실적인 층과 미래적인 건설 등의 문제에 있어서 벅찬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일단 이 나라 사회의 문제이면서 다음 순간에 나 자신을 거기서 분리시킬 수없는 그러한 내 문제가 된다. 그것은 논리 이전의 문제이면서 논리보다 더 소중하게 실감에 부딪쳐 오는 현실의 문제이며 역사의 문제이다." 박태순, 「젊은이는 무엇인가」, 『아세아』, 1969, 211면.

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136] 이 절필의 국면에서 이루어진 인식론적 전환을 「후진국문학론」(『세계의 문학』, 1977 여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박태순은 “민족들의 문학”을 문학‘내’적인 시선에서는 ‘민족문학’, 문학‘외’적인 시선에서는 ‘후진국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명칭을 정리한 뒤 후진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문학이 갖게 되는 특수성과 독창성을, 다른 후진국들의 경우에 비추어 검토한다. 군나르 미르달의 저서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의 여러 ‘후발 근대화 민족’들의 문학권(文學圈)”에 비추어 살펴보려 할 때, 유의미한 참조점이 된 텍스트로 인용된다.[137] 박태순은 뮈르달을 통해 ‘외래적 근대화 이념’을 ‘토착적’인 것으로 변모시키는 후진국의 지식인들의 위치성(position)을 깨닫는다. 후진국의 엘리트-지식인들의 “근대화 이념의 전파자”이자 동시에 “특권층”이라는 모순적 위치에서 근대화 이념에 공모한 결과[138]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식민통치자와 싸워야 할 그들”이 “자기 동포들을 배반하는 엄청난 모순을 자초”하여 민중의 현실과 괴리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1960-70년대 문학인들이 부르짖은 ‘자유’와 ‘참여’의 지향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것이라는 사실은 재고를 요하는 문제다. 박태순 자신이 1960년대 4·19세대로 명명되며 “새 시대 문학”[139]을 이룩할 기수로 한국문학(사)에 등장했던 ‘젊은’ 문학인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와 ‘참여’를 통해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기 때문이다.[140] 이를

---

136) 박태순, 「작가지망」, 『문학사상』 25, 1974.10.

137) 박태순, 「후진국문학론」, 『세계의문학』2-2, 1977 여름, 156-157면.

138) 스피박의 『포스트식민 이성비판』은 피식민지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식민지의 권력-지식과 어떤 공모관계에 놓일 수 있는가를 철학, 문학, 역사의 거대 텍스트의 짜임과 구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이론화한 텍스트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지식인의 위치성과 ‘공모’의 긴밀한 결부에 관한 인식과 문제제기는 스피박의 작업에서 빌려왔다.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포스트식민이성비판』, 갈무리, 2005 참조.

139) 김주연, 「새 시대 문학의 성립」, 『아세아』 창간호, 1969.2 참조.

140) 관련하여 서울대 문리대 학보 『형성』이 기획한 「현대문학방담」(『형성』, 1968 여름)은 ‘젊은’ 세대로 문단에 등장한 김현, 김승옥, 이청준, 박태순이 1968년 당시 기성 문학인들이 부르짖는 ‘참여’에 대해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시사적인 컨텍스트다. 졸고, 「서사적 ‘자기’

통해 박태순은, 후진국의 지식인의 위치가 식민성과 분리불가능한 서구중심의 규범과 공모하면서 주체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실천의 명제는 외국 이론의 도입이 아니라 70년대에 자생적으로 제시"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141]

이를 고려할 때, 박태순은 지식인의 위치가 갖는 공모성에 대한 자각에서 후진국 문학을 규정해온 '척도'와 '경계'를 의심할 수 있었고, 이를 해체하여 다른 방식의 문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실천'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실천론은, 1970년대 말 후진국 지식인으로서의 주체의 위치가 갖는 모순에 대한 숙고를 통해 문학 주체의 역할과 위치를 변형시키고자 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1970년대 한국의 지식인의 위치성에 대한 사유는, 필연적으로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를 문제삼을 수 밖에 없었던 당대적 조건이다. 1980년대 박태순의 텍스트가 당대 민중문학론이 제시하는 '민중'의 규범과 그 인식론적 경계에 대해 보이는 비판적 거리는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제 불던 바람』(전예원, 1979),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심설당, 1980)과 「3·1절」(『세계의 문학』, 1983 봄)을 읽어본다.

『어제 불던 바람』[142]과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143]은 지식인의 공모성에 대한 사유가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에 대한 사유로 접속·분기해나가는 맥락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작품들이다.[144] 1977년부터

창출과 사유의 네트워크」,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368-369면 참조.

141) 박태순, 「문화운동과 실천으로서의 문학예술」,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실천신서1』, 실천문학사, 1983, 290면.

142) 『어제 불던 바람』은 1977년 7월 1일부터 1978년 8월 31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다. 작가는 "2천 8백매 가량의 신문연재 분량을 1천 2백매 정도로 줄"여서 1979년 4월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박태순, 「작가와의 대담」, 『어제 불던 바람』, 전예원, 1979, 357면. 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143)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은 1977년 1월에서 1978년 12월까지 『세대』에 연재되었다. 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144) 선행연구에서 이 두 텍스트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동시대에 제출된 김주연과 김현의 서평을 제외하고, 이 텍스트들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논문으로는 김진기,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의 위상 연구」, 『통일인문학논총』 36,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복도훈, 「전쟁

1978년까지 1년여의 기간에 걸쳐 동시적으로 연재되었고, ‘1970년대 중반의 서울’—현재와 ‘1954년의 서울’—과거 사이에 끼어 표류하는 인물들이 ‘자기’를 새롭게 형성하고자 뜨겁게 열망하며, 자신의 삶의 모양을 인식해나가는 과정을 서사화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인식의 대상과 맺는 관계라는 관점에서,[145] 작가가 이들을 타자화·대상화하는 ‘민중’의 인식론적 규범과는 다른 방식을 모색하며, 그들의 ‘살 만한 삶’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읽어본다.

먼저 『어제 불던 바람』의 네 주인공— “밑바닥 인생을 가파르게 헤쳐온” 사내 나합석과 정미회, 인류학과 고고학을 전공한 문세빈과 대학을 졸업한 유이안은 모두 부모로 대변되는 과거에 연루된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뿌리 뽑힌 자”들로 “슬픔” 속에서 “이 서울바닥” 을 살아가고 있다.[146] 작가는 과거와 다른 현재를 살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이 어떻게 새로운 자기인식에 이르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면서 “1950년대의 기구한 청춘은 어떻게 아이들을 낳아 그 자식의 청춘을 1970년대에 배당시키고 있는 것일까” “1970년대에 배당된 청춘 들은 무엇을 어떻게 승계 (承繼) 하며 또는 자립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질문은 유이안과 정미회의 삶을 통해 ‘지금, 여기의 현실을 구성하는 과거의 “반복되고 있는 타의적인 삶”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표명된다. 그녀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부모 세대의 선택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으로 자각하면서 이를 ‘빚’으로 인식하는 특유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자기와 같은 여자에게는 청춘시절이란 바로 빚잔치를 벌여야 하는 절대적인 기회. 문제가 되는 것은…고민이 많은 나라…그 중에서도 더욱 고민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

의 폐허에서 자라난 젊음과 공민적 삶의 가능성」, 『한국문학연구』 4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정착과 유랑, 1970년대 후반기 한국 피카레스크 교양소설의 두 양상」, 『한국문학연구』 5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8이 있다.

145) 이 시기의 민중은 역사의 주체로 각성시키기 위한 지식인들의 인식의 대상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Ⅰ장 서론의 연구사 검토 참조.

146) 소설의 서두에 제시된 “선생님은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 아세요?”라는 정미회의 물음은 이 소설에서 인물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질문이다. 『어제 불던 바람』, 21면.

쪽에 속하는 자기. 가난한 벽촌 산골의 부모 없는 외가에서 자라난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아파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녀를 더욱 참담한 상태로 몰아가게 할 뿐이라는 것쯤은 이미 그녀로서도 깨닫게 된셈이었다. 그러니 더 이상 때가 늦지 않게 '빚잔치'를 벌여야 했다.…(중략)… "빚잔치를 벌이는 장소로서는 서울이 아주 알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너나 없이 빚잔치를 벌이려는 사람들만 몰려드는 곳이 아닌가 싶은 거에요. 사람들은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가 벌여놓고 있는 빚잔치의 판인 서울에서…"[147]

정미회는 양산골 진둥의 외할아버지 장욱환을 떠나 생모가 있는 서울로 향했던 열두 살 이후로 외할아버지 곁에도, 생모 곁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서울과 진둥을 오가는 "진자"(31) 와도 같은 삶을 살아 왔다. 서울에서 여공으로 보낸 2년여의 떠돌이 생활 끝에 남은 것은 "이 공룡과도 같은 도시"에서 "자기가 그 모든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는" 슬픔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녀가 완행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나합석과 결혼을 결심한 것은 '새롭게' 자기를 탄생시키려는 마지막 시도다. 때문에 그녀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불행하고 비참했던 과거를 모두 청산"(51) 할 수 있는 '빚잔치'를 열망한다. 한편, 그녀의 이복동생 유이안 역시 정미회와 사뭇 다른 삶을 살아왔음에도 자기의 현실을 과거의 '빚/죄'로 얼룩진 것으로 인식한다. 어머니 장덕금에 의해 조건지어진 삶에 순응해왔다는 자각에서 말미암는 그녀들의 과거에 관한 독특한 인식은 벤야민을 참조할 때 좀 더 명징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 벤야민은 '빚/죄'를 통해서야 운명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태의 삶을 "유일하게 구성적인 개념들이 불행과 죄"일 뿐,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아무런 해방의 길도 없는 어떤 질서"에 종속된 것으로 설명한다.[148] "살아있다는 것이 죄—연관"[149] 에 불과한 삶은 그 삶을 그저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운명'에 붙들려 있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합석과의 결혼 전

147) 『어제불던 바람』, 32-33면.
148) 벤야민, 최성만 옮김, 「운명과 성격(1919)」,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외—발터벤야 민선집 5』, 길, 2012, 69면.
149) 벤야민, 위의 글, 71면.

‘빚잔치’를 필요로 하는 정미회나 유이안이 진둥의 외할아버지 장노인의 병간호를 자처하며 어머니를 대신한 “속죄”(102) 에 매달리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빚/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지를 드러낸다. 그녀들이 “어머니와 달리 인생의 문법을 도리어 찾고 싶다”(41)고 할 때 이 자매들이 만들어 나갈 삶의 문법은 ‘죄—연관’으로 질서화된 삶의 속박을 풀어내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문세빈이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 제가 어떠한 여자인지, 그리고 여기 나합석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야 하는 일이구요. 우리의 결혼이 어떠한 ‘빚잔치’ 뒤에 벌어지는 잔치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납득을 하신다면 주는 돈은 받아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 니까 어머니가 단지 딸자식을 떼 팽개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거 싫은 거예요. 그 판단도 알아서 내려주셨으면 싶구요.…(중략)…쟤 어머니를 만나거든 꿋꿋한 자세로 말해줘야 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하다는 것을 말야.[150]

나합석과 정미회가 문세빈에게 장덕금을 대신 만나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죄 연관’으로 연속·지배되는 삶이 아닌 방식으로 설명해 줄 것에 대한 신뢰에서였다. 이처럼 작가는 이들의 삶을 새로운 질서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등장인물 가운데 유일한 지식인인 문세빈에게 부여한다. 이 지점에서 문세빈이 나합석과 정미회의 삶에 대해 해석하는 내용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 누구나 다 각자의 서 있는 위치는 다르겠지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유이안씨가 유이안씨의 관점에서 나합석과 정미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든 그것은 나합석이나 정미회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도리어 유이안씨 자신에게 상관되는 일이겠군요. 이 점을 혼동하고 있지나 않은지…?[151]

150) 『어제 불던 바람』 43-44면.
151) 『어제 불던 바람』, 69-70면.

박태순은 문세빈의 입을 빌려, 나합석과 정미회의 삶을 '죄 연관'에 종속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들에 대한 오해는 사실 그들의 실상이 아닌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이와 상관되는 일임을 지적한 다. "누구나 각자의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에, 그들에 대한 판단은 그들의 실상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도리어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판단의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위치에 있는 그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 주체의 판단이 아니다. 말하는 자와 그들 각각이 '자기의 위치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사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문세빈과 유이안이 맞이하는 삶의 전환의 순간이 각각 다른 결과 방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경험들이 서로에게 상관될 수 있도록 교차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유이안이 1943년 Y시에서 있었던 '노무라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어머니 장덕금과 정미회의 아버지 정수명,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유길재의 삼각관계가 8·15를 거치며 지금에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문세빈은 25년 만에 '재일동포'의 자격으로 나타난 부친과 처음으로 상면한 후, 다시 "고아"가 된다. 이후 문세빈이 부친과의 만남 이후 외국에서 학위를 얻어 공부를 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할 때, 유이안은 아버지 유길재가 운영하는 대화호텔이 경영부실과 조직적 탈세가 드러나면서 "자기 삶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엄청난 여러 모순들"(274) 임을 깨닫고 있었다. 이처럼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갖고 있지만, "자기의 인간 형성이 잘못돼있다고 느끼는" 혼란을 그들 각각에게 상관되는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문세빈이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은 나합석과 정미회 그리고 유이안과 접촉하는 기회가 잦아지면서부터였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골몰한 나머지 나 아닌 남의 겪음이나 알음알이에 그토록 소홀하고 허전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겉과 속이 서로 감추어져 있는 그만큼 서로 함께 즐기고 웃고 슬퍼하는 공통적인 체험, 공유하는 감정이 줄어들어 있는 게 아니냐 싶었다. 그런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도 나합석과 정미회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152)]

이런 방식으로 문세빈은 그의 위치에서, 나합석과 정미회, 유이안과 접촉하는 경험을 통해 이들의 삶에 대해 자기의 삶과 상관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발화는 문세빈의 입을 빌린 1970년대 지식인 박태순의 그것이기도 하다. “서로 함께 즐기고 웃고 슬퍼하는 공통적인 체험, 공유하는 감정”없이는 타인의 삶에 관한 사유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1970년대의 지식인 작가인 박태순이 민중과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건일 것이다.[153]

『어제 불던 바람』이 민중을 ‘어떻게’ 인간으로 인식·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모색을 담고 있다면,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154]은 ‘누구’를 인간으로 인식·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소설은 1953년 휴전협정으로 생겨난 정치적 존재인 실향사민을 주목하여, 이들이 인간으로 인식·인정될 가능성을 ‘공민으로서의 삶’이라는 문제로 제시한다. 특히 이 문제가 ‘사학도’라는 주체 창출의 기획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중’을 주체화하고자 했던 당대 한국 문학장의 규범의 경계에서, 그 규범에 대한 비판으로서 시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군의 군수물자들은 곧 재생산 과정을 거쳐 높은 시장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것은 양공주가 벌어들이는 외화와 함께 기묘한 경제 구조를 이루어 한반도의 전후(戰後)한국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뿐아니라 당시의 지배 담당측의 두터운 하층구조를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말하자면 그것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152) 『어제 불던 바람』, 82면.

153)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 박태순이 국토 기행과 같은 르포 창작에 주력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1980년대 한국을 살아가는 개별 인간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틀 지워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로 전락한 “이 땅”—국토의 현재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국토 기행을 통해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만난 이들과 “서로 함께 즐기고 웃고 슬퍼하는” 감정을 공유하고자 했다. 이에 관해서는 박태순, 「땅과 국토의 문학」, 『기독교사상』 28-6, 대한기독교서회, 1984, 44~57면;박태순, 『국토와 민중』, 한길사, 1983 참조.

154)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은 1977년 1월에서 1978년 12월까지 『세대』에 연재되었다. 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중요한 젖줄의 하나로 등장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어지러운 원무(圓舞)가 벌어지게 되었다.[155]

소설은 1954년 전후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세 주인공 고왕만, 김치삼, 장지황은 서로 다른 삶의 내력을 가진 고아들로,[156] 박태순은 이들을 통해 1954년 한국사회의 모순적인 상황과 그곳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당시 한국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아이젠하워가 요청한 원조 2억 달러가 유통되면서 미국의 경제 권역에 예속된 "폐허더미"가 되어간다. "식민시대의 미망, 8·15 직후의 극단적인 혼란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삶에의 욕구"를 지켰는가, "그 폐허의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건설하여 그들의 삶의 욕구를 여기에 연결"(15) 시킬 수 있는가가 이 소설이 제기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것은 "과연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성격의 민民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90) 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던 세 인물의 입을 빌려 작가는 "민주주의라는 게 서양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서양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영국의 청교도 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쟁과 독립 선언서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한다. "우리의 정치·사회 발전과정은 없이 그 서양사의 체험을 가지고 한반도를 설명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그곳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가장 문제적으로 제기하게 하는 것은 "실향사민"의 존재다.

---

155)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14면.

156) 경상북도 금릉군 출신의 시골소년이었던 고왕만은 전쟁 때문에 38선을 넘었고, 황해도의 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군의 잔류부대원들이 조직한 게릴라 '구월산 부대'의 정탐꾼이 되었다가 제대한다. 황해도 태생의 김치삼은 우여곡절 끝에 월남 피난민이 되어 서울을 살아가고 있다. 장지황은 "고왕만이나 김치삼으로서는 짐작이 안 되는 다른 세계로부터 튀어나온 인간"으로 첫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그의 부친이 일본으로 단신 밀항해버린 후 퇴학과 자퇴를 반복하며 방황하는 중이다. 이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전쟁 '고아'가 되어 서울을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정치면의 기사는 휴전협정 이후의 뒤처리와 전후 사회의 새 질서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유당 정부의 여러 조처들로 채워져 있었다. 휴전협정에 따른 중립국 포로 송환임무가 완료되었다는 기사는 월여 전에 이미 크게 보도된 바 있었으나 신문은 그 뒷이야기를 싣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한에 머물 기도 거부하고 북한으로 가기도 거부한 채 제3국을 택한 사람들이 인도다 남미다 하는데에서 어떻게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내고 있느냐는 보도이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든 무슨 관심이냐고 장지황은 코똥을 쌌다. … '실향사민교환(失鄕私民交換)'이 전혀 없었다는 해설기사가 읽어볼 만했다.…휴전 협정에 따를 때 자기 의사에 반하여 남북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자기 의사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원칙과 어긋나게 남북간에 원하는 바에 따라 귀환가거나 온 사람이 전무하다는 내용이었다. 사민(私民)이라는 개념이 재미있었다. 장지황은 지난 번 김치삼과 공민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을 상기했다. … 하기야 이 판에서는 모두들 실향사민이 아닌가. 이제 이들은 어떤 공민으로 되어갈 것인가…[157]

실제로, 1953년 7월부터 납치된 민간인들의 송환을 개시하겠다는 신문기사가 발표되기 시작한다. 기사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휴전협정 제59항 "실향사민 귀향업무" 조약을 따라 1954년 3월 1일 유엔과 북한군은 판문점 앞에서 하루 백 명씩의 민간인들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북 희망자 37명을 공산 측에 인도하고, 외국인 실향사민 19명을 유엔군이 인수하는 것으로 송환은 종결되었다.[158] 박태순이 주목했듯, 휴전협정으로 인한 포로 송환 이후 '실향사민'의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해결되지도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실향사민들이 주권의 개입에 의해 비인간적 상태로 환원된다는 점을 생각게 한다.[159]

전시 민간인 납치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남과 북의 입장이 첨예하게

157)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117-118면.

158) 「三月一日에 送還開始)」, 『조선일보』, 1954.1.1; 「실향사민 교환사무종료」, 『경향신문』, 1954.3.4; 「실향사민 교환은 끝났다」, 『조선일보』, 1954.4.3 등 참조. 남한 출신 납북자 송환은 전혀 없었다.

159) 아감벤은 이중적 배제와 이중적 포획의 구조에 놓여 주권권력이 생산하는 생명을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벌거벗은 생명'은 주권의 개입에 의해 비인간적 상태로 환원되는 인간을 가리킨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175면.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참고한다면, 박태순이 '실향사민'의 존재에 주목한 것은 다분히 문제적이다. 휴전협정을 위한 회담에서 민간인 납치와 송환 문제에 관한 남북의 인식은 타협될 수 없는 지점이었음에도 휴전협정문 제59조 실향사민에 관한 조항으로 합의는 이루어졌다. 이는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미국과 발언권과 결정권을 모두 갖지 못했던 한국, 발언권만을 가진 북한이라는 각국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결과로 실향사민 교환의 '실패'를 노정하는 것이었다. 협정 준비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여 이들을 송환 받기를 원했고, 북한은 1950년 12월 중국군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 '피난민'들의 강제납치가 있었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미국은 납북자 문제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거나 쟁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160] '실향사민'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161]

이러한 사실을 참고할 때, "모두들 실향사민"에 불과한 "이판"에서 이들이 어떻게 "공민으로 되어갈 것인가"[162]라는 작가의 비탄은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 전반과 이에 관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학장 모두를 향해 있다. 즉, 실향사민들이 공민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문제에 결정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남한의 상황과, 민중을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당대 문학장의 규범이 '모두가 실향사민'인 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이 소설을 통해 창출한 '사학도'라는 새로운 주체의 형상은, 당대 문학장의 '민중'에 관한 인식론적 규범 바깥에 있는 실향사민들을 민중이 아닌, 공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들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의 필요를 제기하는 문

160) 미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을 포로송환 문제와 연계시키되, 한국측에서 주장하는 납북자 문제나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문제와 연루되는 것은 피하라고 지시했다. JCS to Ridgway 1951.12.10.,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역,『한국전쟁-미국합 동참모본부사』(하), 1991, 125면.(김보영,「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을 통해 본 전시 민간인 납치문 제의 쟁점과 귀결」,『역사와현실』87, 한국역사연구회, 2013, 583면에서 재인용)

161) 해당 단락의 내용은 김보영, 위의 논문, 578-586면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62)『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117-118면.

제적인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소설의 마지막 장면 깡패였던 고왕만이 '사학도'가 되는 순간을 함께 읽어본다.

> 고왕만이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 순간. 한 시대가 거(去)하고 음험한 새로운 한 시대가 내(來)하고 있다는 무서운 자각을 그는 가졌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대상의 전모가 그의 머리에 들어와 박혔다.… 이 이상한 현실이 진실된 체계를 살펴보기에는 도리어 적당한 시대가 아닐까. 장구한 시간의 축적에서 역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의 어떤 사상을 통하여 역사의 본질이 파악되게 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는 그 역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그는 여태까지의 자기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소속시켜두고 있었던 그 역사를 버렸다. …그는 '주먹'의 세계를 버리고 사학도가 되었다.[163]

후일 박태순은 "사학자가 역사적 사실(事實)에 입각하여 역사의 총체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면, 문학은 역사적 상상력에 의하여 역사를 감지하고자 한다"면서 "역사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164] 문학인으로서 갖는 역사적 상상력은 '수정의 가능성'에 그 핵심이 있다.[165] 이를 고려하여 고왕만의 '사학도'로의 변신의

---

163)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355면.

164) "문학을 하기 위하여서는 역사에 관한 문학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인식을 필요로 하며, 또한 사학자의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학인에 의하여 탐구되어야 할 까닭을 가지고 있다.… 역사는 진지한 학구적 자세로 추적되어야 하지만 또한 학문의 대상 만으로서는 해명되어질 수 없는 복합적인 <예술적 감수성>에 의하여 파악되어야한 요인들을 갖고 있다.…한 사람의 문학도로써 1980년대의 이 시점에서… 파악된 역사는 다름 아닌 역사적 상상력이 된다. 사학자가 역사적 사실(事實)에 입각하여 역사의 총체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면, 문학은 역사적 상상력에 의하여 역사를 감지하고자 한다는 말이 된다. 즉 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역사에의 인식이다." 박태순, 「역사적 상상력」, 『실천문학』 2, 1981, 279-280면.

165) 1976년 『창작과비평』 가을호의 특집으로 마련된 좌담 「民族의 歷史, 그 反省 과 展望」에서 박태순은 3·1운 동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역사학자 강만길과 의견을 대립한다. 그는 "3·1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 해석방법이 좀 달라져야"한다는 입장에서 "3·1운동 자체의 역사적인 위치는 역시 한정"되어 있다는 강만길의 의견에 반대한다. 박태순에게 3·1운동은 "오늘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평가·해석될 수 있는 역사인 것이다. 이는 각각 '역사'의 의미를 실증주의적으로 연구된 결과에 입각한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가,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담지한 "역사적 상상력"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패망으로부터 비롯된 혼란스러웠던 한 시대가 거(去)하고” “새로운 시대가 내(來) 하려는 갈림길”에서 이루어진 사학도의 탄생은, “냉전논리가 한반도의 현실논리로 되어 새로운 사대주의 시대가 개막되려”하는 시대상의 “진실된 체계”를 파악하게 되었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왕만은 실향사민으로서 자기의 현재를 만들어낸 역사를 포착하였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기에 지금까지의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종속시켜왔던 역사를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태순의 ‘사학도’의 창출 기획은, ‘역사적 상상력’에 입각하여 종속되고 규정되어 온 ‘민중’이 아닌,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주체의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문제를 ‘소설’로 제기한 이유다.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서두를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

> 이 소설을 시작하면서 미리 밝혀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아니, 차라리 작가는 먼저 이렇게 말해 두고 싶다. ‘지금부터 소설을 시작한다’라고. …작가는 그의 소설이 얼마만큼의 객관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일까. …소설이라는 하나의 문학적 형태로서 우리가 자각하고 생각해야 할 바가 여전히 가치 있을 것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그 당시의 무질서와 절망을 해석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166]

소설의 서두에서 작가는 이 소설이 “얼마만큼의 객관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되묻고 있다. 그는 “소설이라는 하나의 문학적 형태”가 “여전히 우리가 자각하고 생각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이곳의 삶을 조건짓고 있는 과거-1954년 서울의 ‘무질서와 절망’을,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인간/삶의 문제를 ‘역사적 상상력’에 입각하여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지금 이곳의 인간/삶을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으로 파악하는가, 하는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졸고, 앞의 글(2021), 379-382면 참조.

166)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5-6면.

그러나 문제는 당대 문학장에서 박태순이 시도한 이러한 변형의 의미가 적절히 해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는 배타적으로 민중을 규정하고,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예속의 시공간 속에서 자기 삶을 자각하고 변형하는 인간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이해- 공민으로서의 삶의 가능성-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반향은 돌아오지 않았다.

> 작가가 굳이 이런 사람을 택함으로써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폭력은 그 것이 사회와 연결될 때는 언제나 정상배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경제의 지도자가 그들 나름의 공적인 자율성과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그들의 허위의식을 반영한다. 이는 50년대 현실의 허구상을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여전히 '사민(私民)'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167]

김주연은 박태순이 "1950년대를 사민私民의 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정치·경제의 지도자가 그들 나름의 공적인 자율성과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50년대의 현실에서 "그들은 여전히 '사민私民'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김주연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는 고왕만을 '사민私民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는 과거의 인물로 고정시키고, 사학도로의 변형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고왕만의 주체형성의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지금, 이곳'의 인간들의 문제를 새롭게 사유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김주연의 사고방식은 당대 문학장에서 민중을 주체화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요구했던 담론적 규범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1979년 김주연은 「민족문화론의 당위와 한계」[168]를 통해 "최근 새

---

167) 김주연, 「사민의식과 허위의식—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세계의 문학』 6-1, 1981 봄, 263-268면.

168) 김주연,「민족문학론의 당위와 한계」, 『문학과지성』, 1979 봄 발표;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최근 새삼 다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민족문학론에 대하여 문제제기의 의미를 검토해 봄으로써 말인즉 그럴싸하나 자칫 동어반복의 공소함을 야기하고 있는 이 논의의 성격을 구명해보고자 하는 의도 아래 씌어지고 있는 것이다.…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당위처럼 계속 역설되고 있을 뿐 막상 그 개념이

삼 다시” 논의되는 민족문학론이 “동어반복의 공소함”을 야기하고 있다며 민족문학론이 하나의 ‘당위’로 논의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한다. ‘민족문학론’과 관련한 많은 글이 발표되는 상황이었는데[169] 글을 읽다보면 김주연의 비판이 향하는 곳이 얼마 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을 출간한 백낙청임이 분명해진다. 김주연은 “민족문학론이 구태여 제기될 수밖에 없는”(363) 정서적 차원의 “민족콤플렉스”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민족’이라는 개념의 불분명함이 민족문학론을 서구의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집약된다. 먼저,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이 곧 ‘민족문학’이라는 백낙청의 규정은 민족문학이 당위적 ‘가치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며,[170] 이는 문학의 “자유의 위축”(370)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정체성의 정치로 “후진국 민족주의”, “제3세계의 민족주의”를 말하며 제3세계와의 정신적 제휴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 관계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타당한 지적 이후 김주연의 논의가 ‘주체성’의 문제로 수렴한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 민족문학론을 제기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문학을 제대로 수행해나가는 길인가”라는 물음에 전후 독일의 낭만주의가 “민족의 생존을 결단

반드시 명료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문학’이라는 표현 앞에 왜 굳이 ‘민족’이라는 말이 덧붙여 필요한가…”

169) 대표적으로 고은 외,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13-3, 1978 가을, 2-52면;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염무웅, 「식민지 문학관의 극복문제」, 『창작과비평』 13-4, 1978 겨울; 조동일 · 임규찬, 「대담 민족문학 이것이 문제다」, 『문예중앙』, 1978 가을; 임헌영, 「민족문학의 사적 전망」, 『세계의 문학』, 1978년 겨울 등.

170) 김주연이 인용 · 비판하는 것은 백낙청의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월간중앙』, 1974.7.)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그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을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시킬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그 대다수 구성원의 복지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이며 이러한 민족적 위기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바로 국민문학 자체의 건강한 발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124-125면.

하는 주체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대답한다. 우리에게는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민족의식”은 있지만, “참된 의미에서의 세련된 자기 각성이라는 관점에서”의 “개성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개성의식’을 “언제나 자기자신 에게로 정직하게 되돌아오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참된 주체성”이라고 일컫는다.

기시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이 “자기 각성”을 가진 참된 주체의 문제가 10년 전 김주연과 백낙청이 ‘새 시대의 문학’ 주체의 형상을 둘러싸고 각각 ‘소시민’과 ‘시민’을 내세우며 논쟁을 벌인 핵심이었기 때문이다.[171] 그 참된 주체는 시간이 흐른 1979년의 문학장에서도 여전히 논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172]

> 민중은 오합지중이라고 해서 민중이 아니거나 자기 나름으로 인간답게 살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까마귀떼 모아놓은 것처럼 떠들기만 하고 단결된 행동을 못하는 동안에는 실제로 인간답게 살게 되기가 힘들고 그러므로 앞으로 각성된 민중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길고도 험한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그들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미 소중하고, 소수 지배자· 억압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들보다 단연코 훌륭하며, 땀흘려 일하고 자식 낳아 기르면서 인류의 살림살이를 지탱해왔다는 점에서 버젓이 역사의 주체로 역할해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댄다는 것 자체도 제3세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진보라고 볼 수 있다.[173]

---

171)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지적해왔다. 대표적으로 이현석은 소시민—시민 논쟁에서 창비그룹이 시민정신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은 채 시민성 논의를 민족 —민중문학론으로 급격하게 이월시켰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소시민성의 문제가 표면적으로나마 극복되었다면, 이를 해소하는 계기였던 시민성의 문제는 하나의 결여태로서 담론장에서 봉합된 것이다. 그는 이후 문학사 전개에서 이 시민성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로 다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이현석의 지적은 박태순이 ‘사학도’라는 주체의 형상을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1980년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현석, 「4·19혁명과 60년대말 문학담론에 나타난 비—정치의 감각과 논리」,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2011; 「1970년대 서사담론과 ‘문학 주체’ 재현의 논리」, 『한국문예창작』13-3,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시민과 혁명의 시간」,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강동호, 「민족문학론의 인식 구조—1960~70년대 백낙 청의 김수영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 『인문학연구』 5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허선애, 「『문학과지성』의 비평적 글쓰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장 3절 참조.

172)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Ⅰ장 1절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참조.

173) 백낙청, 「제3세계와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14-3, 1979 가을, 181면.

1979년의 백낙청에게 민중은 "정치 · 사회 · 문화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지 않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174]이자 미래에 진보를 이룩할 주체로 존재한다. 그는 이들이 "좀 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알고 느끼고 깨달은 만큼의 힘을 다해 자신의 욕구를 실천"할 때에 인간의 해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175] 그가 더 이상 구체화하지 않은, 각성된 민중으로 성장하기 위해 남아있는 "길고도 험한 과정"은 김주연이 제시한 서구의 문학으로부터 겸허히 "진정한 개성의식"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

후일 박태순은 이 시절을 반영하는 소설 「3 · 1절」(『세계의 문학』, 1983 봄)을 통해 "정치의 구조는 파악하기 쉬운 반면, 문학의 구조는 그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된"[176] 1970년대의 한국문학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회고한다. 여기서 그는 그 시절 문학인들이 "'민중'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워 올려서 그 밧줄에 매달려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면서 "문학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해내기 어려우니까 트집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민중'이라는 소리를 떠들어댄다는 것은 결국 문학의 비민중적인 구조를 광고하는 것일밖에 없고 민중에 대한 미화는 도리어 민중이 갖고 있는 정당한 힘을 모호하게 윤색하는 것"[177]이라고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이처럼 박태순은 당대의 민중론이 지식인들에 의한, 지식인들을 위한 '대상'으로서 민중이 규정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이로부터 거리를 둔다. 먼 후일 그가 한 인터뷰에서 "민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신은 "일종의 시민운동가 스타일 문인"이라며, "노동운동가, 노동해방가도 못 되고, 민중론자도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178]

---

174) 백낙청, 「인간해방과 민족문화운동」,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시인사, 1979, 128-129면.

175) 백낙청, 「민중은 누구인가」, 『뿌리깊은나무』, 1979.4, 166-167면.

176) 박태순, 「3 · 1절」, 『세계의 문학』, 1983 봄 발표; 『신생』, 민음사, 1986, 295면.(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작품, 면수만 표기.)

177) 「3 · 1절」, 285면.

178) 이소영: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중이란 무엇인가요?
박태순: 나는 일종의 시민운동가 스타일 문인이었던 것이지 노동운동가, 노동해방 가도 못되고 실상 민중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민중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인간/삶의 문제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인식론적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 박태순의 실천은 「밤길의 사람들」(풀빛, 1988)[179]에서도 이어진다.[180] 1987년 6월 항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이 앞서 다룬 소설들과 차이를 보이는 변화가 있다면, 이제 '민중'이 아닌, '노동자'가 그 인식의 대상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박태순은 이 소설에서 서춘환이라는 일용직 노동자와 조애실이라는 여성 노동자의 만남을 6월항쟁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겹쳐놓는다. 영등포 거리에서 보낸 지난 밤의 회상을 통해 이들의 인생역정이 펼쳐지고, 다음 날 하루의 시간 동안 6월항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 날, 명동성당의 농성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들의 재회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1987년 6월 10일이라는 정치적 시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 소설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라는 서춘환을 향한 물음이다.

> 몸살을 앓듯 괴로워해야 할 일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대단히 어려운 숙제를 낑낑대며 풀어야 할 일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명감, 신성한 의무, 노가다, 노동삼권 보장, 인간다운 대접…그는 이른바 불온 책자에 쓰여져 있는 융통성 없는 소리들을 딱딱하게 접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을 되뇌이고 있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181]

역사적으로 보자면 봉건 신민에서 근대 시민으로 이행되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지요. 봉건 사회는 극복을 했는데, 시민 사회는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 이소영, 「소설가 박태순이 제안하는 한국문학의 출구전략—소설가 박태순 인터뷰」,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446면.

179) 박태순, 「밤길의 사람들」, 『밤길의 사람들』, 풀빛, 1988; 이후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제목과 면수만 표기한다. 박태순은 이 소설로 1988년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한다.

180) 이 소설을 주목한 선행연구는 이주미, 「인물의 시선을 통해 본 박태순 소설의 현실 재현방식 -「무너진 극장」, 「환상에 대하여」, 「밤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학회, 2013; 김예림, 「빈민의 생계윤리 혹은 탁월성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3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_____, 「'마주침'에 대하여 6월항쟁의 소설적 재현」,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배하은, 「혁명의 주체와 역사 탈구축하기 박태순의 6월항쟁 소설화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6, 한국현대문학회, 2018;이현석, 「시민과 혁명의 시간 4.19와 박태순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등 참조.

181) 「밤길의 사람들」, 26-27면.

> 상일꾼이라…서춘환은 과연 자신이 그런 상일꾼 될 자질이나마 있는지 생각하며 중얼거렸었다. 고참 노동자 입에서 뱉아져 나온 '상일꾼'이란 것이 그에게 택도 닿지 않는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았다. 조애실 씨, 그 늙은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 준 충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잘난 위인인데 무언가 잘못되어 아래로 구을러 떨어졌다는 생각 같은 거 해보지 않은 사람이 상일꾼이래요. 동시에 내가 잘해 보기만 하면 위로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마음 먹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아무튼 나는 상일꾼도 노동자도 아니고 무언가 잘못되어 일시 노가다 신세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나 앞으로 약간만 풀리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약간 알게 되었나요?[182]

봉제 노동자인 조애실과의 만남 이후 서춘환은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노동자, 노가다, 상일꾼, 만국 노동자 등을 떠올리지만, 그 어떤 단어도 자기를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서춘환은 조애실과 함께, 그녀와 헤어져서는 혼자서 '거리의 사람'으로 배회한다. 소설이 전개되는 '영등포의 밤'에서부터 6.10 항쟁이 벌어진 하루,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마무리되기 전날의 '명동의 밤'에 이르기까지 서춘환은 끊임없이 옮겨다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과 만나고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맺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맺어질 필요는 없는 연결(접속)을 통해 6월 항쟁을 완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 항쟁에 참여하고 그 항쟁을 우연한 방식으로 완성하는 이들- 서춘환과의 그의 "노가다판 선배"(56)인 최충현, 그리고 조애실의 사촌 조치현에게는 지식인들이 이들에게 "사고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어떤 관념(각성)"도 새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당대 문학장이 전제하는 '노동자'로부터 미달된 이 "도시빈민"[183]들을

182) 「밤길의 사람들」, 280면.

183) 1970-80년대 "도시빈민과 빈곤을 둘러싼 감수(感受)와 표현의 양식"을 규명하고자 한 김예림은 박태순의 이 텍스트를 도시빈민 표상의 역사 가운데 70-80년대에 걸쳐 일어난 연속과 전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 위치시킨다. 그는 이 소설에서 '다중'이 각자의 위치에서 세계에 응하고 자기를 구성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것이 '사회정치적 공간을 구성하는 복수의 정체성에 위계를 정하거나 어떤 하나를 이데올로기적 중심에 놓는' 80년대 비평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김예림, 「빈민의 생계윤리 혹은 탁월성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36, 인하대학교 한국

접속시킴으로써 박태순은 이들을 사회관계-구조에 의해 지정되는 '즉자적' 계급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집단적 기획을 구축할 수 있는 '대자적' 세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184]

지금까지 절필을 마친 이후 1970년대 말부터 이어져있는 1980년대 박태순의 문학적 실천을 살펴보았다. 박태순의 사유와 실천은, 당대 민족·민중문학론자들이 위계적으로 대상화하는 민중이 아닌, 그와 같은 경계를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인간들의 살만한 삶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서구중심의 규범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모하는 위치에 포스트식민적 지식인(주체)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반성하고, 이러한 사유의 실천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의 주체 위치를 허물었다. 후일 박태순은 자신의 실천문학운동이 "비문학적"인 것들을 용해하려는 "불온"한 움직임이었다고 회고한다.[185] 불온한 어떤 무엇이었던 이유에 관해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 그의 작업은 당대 한국문학 장이 토대해 있는 민중의 경계에 대한 인식론을 해체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그의 '실천'은 한국 문학을 성립·지속시켜왔던 울타리를 넘어 현재에 예고되는, 앞으로 오고야 말 세계를 향해 차이를 도입하는 '불온한 움직임'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186]

학연구소, 2015, 71면.

184) 스튜어트 홀, 앞의 책(2021), 74면

185) "'문예운동' 또는 '문학운동'이라는 개념틀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발족될 당시에 이미 생소하고 불안한, 나아가서 불온한 '어떤 무엇'이었다. 기존의 문학 관성에 용해되기 힘든 ('비문학적'인 것들을 수용하려는) 문예상황을 전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박태순, 『민족문학작가회의 문예운동 30년사 1』, 작가회의, 2004, 11-12면.

186) 자크 데리다, 앞의 책, 29면.

2. 착취의 메커니즘과 '불행'의 공유

2절에서도 주체의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 차이가 도입되는 양상을 주목한다. 앞서 박태순의 텍스트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지식인 주체가 포스트식민적 조건에서 갖게 되는 공모성을 자각하고 지식인과 민중의 위계적 관계를 변형하는 시도로 나타났다면, 조세희에게 이 문제는, '너'의 불행을 착취하여 '나'의 행복을 재생산하는 착취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주체의 착취성을 자각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인간 본성의 변형을 시도하는 문제로 구체화한다. 여기서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연작 가운데 「클라인 씨의 병」과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로부터 난장이들의 불행의 공유라는 과제를 확인하고, 주체/행복과 타자/불행에 관한 이분법을 해체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룰 단서 역시 찾아본다. 이를 토대로 『시간여행』(1983), 『침묵의 뿌리』(1985)를 통해 불행이 공유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욕망하는 인간으로 변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규명해본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문학의 개념과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해진다.[187] 노동(자)문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1970년대 노동문학의 성과는 1980년대 노동(자)문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한다. 산업화가 야기한 비인간적 노동의 문제를 다룬 황석영의 「객지」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88]은 70년대 노동문학의 중요한 성취를 보여준 작품들로 빈번하게 호명되었고, 동시에 80년대 노동문학의 새로움을 위해 지양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텍스트로 평가되었다.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것은 조세희의 소설이었다. 『난쏘공』의 관념적 문체와 실험적 기법을 중심으로, '현장성'의 결여

187) Ⅰ장 1절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참조.
188) 이후부터는 『난쏘공』으로 표기한다.

를 문제삼았던 민족문학론자들은 1980년대 들어와서도 반복적으로 "살아있는 노동자의 육성"이 들리지 않는 문제를 비판했다면,[189] 소장비평가들은 조세희의 소설에 희망이 부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박했다. 노동 문학이 감당해야 할 변혁의 의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190] 그러나 조세희 소설의 세계에 '희망 없음'을 서둘러 비판하기 전에, 1980년대의 현장에서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되물을 필요가 있다.

1980년대의 한국에서 자본은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자체의 동학으로 극복하며 그 위력을 극대화했고, 그 결과 대다수의 인간과 삶을 규율하는 제약이 되어 있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전 시기 전태일로 대표되는 공장 노동자들을 비非인간으로 내몰았던 폭력적 수탈과 착취가 민중 구성원 전반의 문제로 그 의미망을 확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191] 이는 동시에 이전 시기 산업화가 경제적 성장과 기술 진보의 결과로 약속했던 풍요가, 다수가 아닌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 뚜렷해졌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자본의 관계가 중요해진 시공간이었고, 인간의 살 만한 삶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한 모색 역시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192]

이때 인간의 욕구와 필요, 욕망이 가치의 증식과 전화, 분배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동하는 힘이기에, 자본은 인간의 욕망의 구성과 재구성에 필연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93]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존재의 살 만한 삶을 모색하기 위해서

189) 백낙청,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 『한국문학의 현단계 Ⅱ』, 창작과비평사, 1983, 32면.

190) 성민엽, 「이차원의 전망」, 『한국문학의 현단계 Ⅱ』, 창작과비평사, 1983;황광수, 「노동문제의 소설적 표현」, 『한국문학의 현단계 Ⅳ』, 창작과비평사, 1985;이재현, 「문학의 노동화와 노동의 문학화」, 『실천문학』, 1983.12 등

191) Ⅰ장 2절 연구의 시각 참조.

192) 경제의 양적 성장이 국민들의 피부에 감지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자 분배와 복지,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인간의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80년대 예술은 계급, 이념 등과 같은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기에 이른다. 이영미, 「총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현대 예술사대계』 Ⅴ, 시공사, 2005, 16-17면.

193) 데이비드 하비, 김성호 옮김,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창비,

는 우리와 미래를 둘러싼 정치적·문화적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우리의 '본성'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194] '희망'은 이렇게 인간(본성)을 변형 가능한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상상할 때 그 '다른' 인간을 통해서야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내걸었던 '행복의 약속'이 성취된 1980년대의 현장에서 희망은 '너'의 불행을 착취하여 재생산하는 "희망의 정치경제"속에 놓여 있었고,[195] 따라서 자본(주의)이 약속하는 행복을 욕망하고, 이 행복에 부착되어 있는 '좋은 것'이라는 가치에 순응할 때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렇게 희망이 특정 소수에게만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복잡한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당대 문학 장은 '희망'의 복잡성을 소거하고, 노동자들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낙관의 힘이자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불행없는 미래를 향한 신념을 요구했다. 조세희의 소설에 희망이 부재한다는 비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소설에 희망이 부재한다면 어떤 희망이 부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희망없음을 통해 조세희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세희가 '다른' 희망의 필요를 자각하게 된 것은 『난쏘공』의 출간이 가져온 반응을 목도하면서다.

2019, 86-88면.

194) 자본에 의해 우리는 사고와 이해를 비롯하여, 제도와 지배이데올로기, 정치적 주체성, 기술, 사회관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관습과 취향의 변화를 겪는다. 자본의 "모순을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은 자본에 의한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사유와 실천, 행동을 통해 인간 자신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 황성원 옮김, 『자본주의의 17가지 모순』, 동녘, 2014, 31-32면.

195) '희망의 정치경제'는 희망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 아메드가 사용한 표현을 빌려왔다.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40면.) 희망이 놓여 있는 모순적 위치를 아메드가 비판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기 위함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모순에 대항하며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혁명적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 황성원 옮김, 『자본주의의 17가지 모순』, 동녘, 2014, 416면.)

많은 사람들이 난장이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이 나 혼났다고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경쾌하게 들렸다. 말할 수 없이 창피하고,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이었다.[196]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내 소설이 동화적이고 우화적이라고 했다. 또 사람들은 내 문장이 보기 드물게 짧고, 형식도 새롭고, 슬프고,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했다. 어떤 독자는 책 표지가 '예쁜' 그림으로 치장된 것을 보고 내 소설집이 어린이들이 읽을 동화책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물론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고… 내 '난장이'는 십만 백만의 한계를 가졌다.…불온서적…'난장이'는 읽을 필요가 없는 작품…이 모든 말이 옳았다. 내가 바로 그렇게 쓴 사람이었다. [197]

「부끄러움」(『시간여행』, 1983)에서 작가 자신을 반영한 화자를 통해 조세희는 난장이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이 나서 혼났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결같이 경쾌하게 들렸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창피와 슬픔을 느꼈다고 쓴다. 「연극」(『시간여행』, 1983)의 화자는 이 반응이 그가 "생각한 것을 조금은 썼"지만, "잘못 썼"기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198] 그는 『난쏘공』을 통해 난장이의 불행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길 원했지만, 경쾌한 목소리를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만 그의 소설이 유효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먼저 그가 난장이들의 불행을 공유하고자 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난쏘공』이 '불행의 공유'라는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제기하는지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망없는 닫힌 세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주된 비판을 받았던 「클라인씨의 병」(『문학과지성』, 1978 봄)은 주체와 타자, 안과 바깥과 같은 공고한 이분법이 무화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

196) 조세희, 「부끄러움」,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143면.
197) 조세희, 「파괴와 거짓 희망, 모멸의 시대」, 『문학과사회』, 1996, 1370-1371면.
198) 조세희, 「연극」,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136-137면.

나는 지섭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앞으로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했다. … 지섭이 다녀간 다음의 내 변화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과학자였다. “따져보면 목사님과 나는 줄 밖의 사람야.” 그가 말했다. “저도 줄 앞에 선 사람은 아녜요.”…“하지만 너희 줄야.…” 그가 공장 그의 방에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병을 보여주었다.… 대롱 벽에 구멍을 뚫어 한쪽 끝을 그 구멍에 넣어 만든 이상한 병이었다. 과학자는 그것을 ‘클라인 씨의 병’이라고 했다.…종이는 안과 밖 두 면을 갖는데, 학자들은 ‘안팎이 없는 한 면의 종이’ ‘안팎이 없고 닫혀있는 공간’ 등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것들도 연구하게 된다고 했다. 과학자가 내게 보여준 이상한 병도 독일의 수학자 펠릭스 클라인이 순전히 논리의 결과인 추상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과학자는 의아해하는 나에게 말했다. “이것이 클라인 씨의 병야. 안팎이 없는데 닫힌 공간이 있어.”…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내부가 없군요.” 내가 말했다. “안팎을 구분할 수 없어요.…”[199]

이 소설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은강으로 옮겨 간 난장이 가족과 지섭의 재회를 다룬다. 영수는 지섭과의 만남에서 자신도 뚜렷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이 변화를 먼저 알아본 과학자가 영수에게 “대롱 벽에 구멍을 뚫어 한쪽 끝을 그 구멍에 넣어 만든 이상한” ‘클라인 씨의 병’을 보여준다. 영수는 처음에는 이 병이 “안팎이 없는데 닫힌 공간”이면서 “그림 ③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상상의 세계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갖는다. 이 문제는 지섭과 영수의 대화를 통해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내가 죽은 조합을 살려냈다고 말했다. 그의 말들을 나는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말했다.

“알아.…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을 따라 했을 뿐야.…네 잘못을 이제 알아야 돼.”…“너는 처음부터 장님이 아니었어!…현장 안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뭘 배워? 네가 오히려 이야기해줘야 알 사람들 앞에 가서 눈을 떴다구?…”(…중략…)

---

199) 조세희, 「클라인씨의 병」, 『문학과지성』, 1978 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78(1996), 224-225면.(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제목과 면수만 표기)

"교회 목사님이 만드신 모임이 있어요. 여러 산업장의 대표급 근로자 모임인데 얼마 전부터 제가 그 모임을 주도하게 됐어요."

"…그래, 너에겐 훌륭한 이론가가 될 소질이 많아. 원하기만 하면 넌 고급 노동운동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거야.…네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는 일을 네가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할 일은 뭐예요?"

"현장을 지키는 일야."

"제가 일하는 곳이 현장야요."

"그럼 그곳을 뜨지 말고 지켜. 그곳에서 생각하고, 그곳에서 행동해.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부딪치는 그 지점에 네가 있으라구."[200]

지섭은 그간 영수가 해 온 일들을 듣고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부딪치는 그 지점"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생각하고, 그곳에서 행동하라고 요구한다. 1983년 이루어진 한 인터뷰에서 조세희는 '현장'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밝힌 바 있다.

…70년대의 현장이라 할 때, …흔히는 판자촌 혹은 저임금 공업지대를 떠올리지요. 내게 있어서 70년대의 현장이라 하면, 아주 무기력한 사람들이 그대로 70년대로 진입한 겁니다. 화장품 얘기를 흔히 하지요. 바깥에서는 닫혀진 상태에서 목소리만 들릴 때, 여기에 좋은 화장품이라든지 입에 단 무엇이 있다든가 해서 문을 열게 한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총을 들이대니까 꼼짝을 못한다든 거지요. …70년대로의 진입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로의 진입으로 내게는 보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의 진행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70년대의 진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점까지를 다 포함해서 70년대의 현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그러나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얘기에는 흔히 노동 현장 이야기가 먼저 결부되지요.[201]

그에 따르면 '70년대의 현장'이란, 흔히 떠올리는 저임금 공업지대와 같이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만을 가리키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무기력한 사람들이 그대로 70년대로 진입"하여 그가 옳다고 믿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가는 상황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

200) 「클라인씨의 병」, 220-223면.

201) 성민엽・조세희, 「상황과 작가의식」, 『제3세대 한국문학 조세희』, 삼성출판사, 1983(1986), 426-427면.

었다. 그가 생각하는 '현장'과 당시 문학장에서 비판하는 '현장감'의 부족은 서로 다른 범주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현장'이라는 표현에 작가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지섭의 말을 이해한다면, 영수에게 현장을 지키라는 지섭의 요구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장(현장)'을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섭이 영수더러 "바깥에 나가서 뭘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영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약속하는 '좋은 화장품이나 입에 단 무엇'이 실은 '총'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장 안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202] 영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부딪치는 그 지점"에서 생각하고, "그곳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안이 아닌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현장을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안팎이 없는데 닫힌 공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이제 알았어요.… 이 병에서는 안이 곧 밖이고 밖이 곧 안입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부를 막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는 갇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벽만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이 세계에서는 갇혔다는 그 자체가 착각예요."[203]

지섭이 떠난 후, 은강의 사용주들은 "그들만의 다른 배를 탔다고 고집"하며 노동자들의 '숨'을 막았다. 영수는 "옳은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회·지원·무지·잔인·행운·특혜 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했고,[204] 그 끝에서 드디어 '클라인 씨의 병'을 내부를 막혀있는 것, 갇힌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지 않는 클라인 씨의 병처럼 이 세상을 "안이 곧 밖이고 밖이 곧 안"이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 갇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영수의 살인은 이러한 깨달음 후에 이뤄진다.

---

202) 「클라인 씨의 병」, 222면.
203) 「클라인 씨의 병」, 228면.
204) 「클라인 씨의 병」. 227면.

이처럼 「클라인 씨의 병」은 내부와 외부, 안과 바깥이라는 이분화된 공간을 '하나'로 사유하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러한 전환된 사유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분법의 도식을 넘어설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은 주체와 타자(대상)의 이분법적 위계를 무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이면서 기술의 진보나 경제적 성장이 약속하는 행복(좋은 것)과 불행(나쁜 것)의 위계를 해체하는 다른 사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행의 공유'를 위해서는 '불행'을 욕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이러한 문제로 읽어본다.

「클라인 씨의 병」에 이어지는 이 소설은 경영주의 아들인 경훈의 시선으로 은강의 경영주(실제로는 그와 닮은 회장의 동생)를 살해한 영수의 재판을 그리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한 영수를 "무서운 악당"이라 생각하는 경훈에게는 좋은 것은 행복, 나쁜 것 그래서 피해야 할 두려운 것은 불행이라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각인되어 있다. 때문에 경훈은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작은 몸 속에 모진 생각들만 처넣고 사는" 은강의 노동자들과 거리를 둔다. 그들은 "소위 의미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사회"를 꿈꾸기에 불행해져 있기 때문이다. 경훈의 생각에 노동자들에게 빛을 준 것은 지섭이다. "우리 반대쪽"에서 "공원들보다 더 더러운 옷을 입고, 공원들 것보다 더 더러운 손수건을" 쓰는 지섭은 "자신을 분석하고, 동료들을 분석하고, 저희들을 경제 권력으로 억압한다는 우리를 분석하다가 불행해질 사람"[205]인 것이다.

> …깨기 직전에 꿈을 꾸었다.…한 떼의 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찐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지느러미만 단 큰 가시고기들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큰 가시고기들이 뼈와 가시 소리를 내며 와 내 그물에 걸렸다.…그것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수천 수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갗은 찢어졌다. 그렇게 **가리가리 찢기는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깼다.** 서쪽 유리창에 황적색 저녁놀이 와 닿았다.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져** 창가로 가 내다보았다.…난장이의 큰 아들이 끌려나갈 때…공원

205)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창작과비평』, 1978 여름 발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78(1996), 261면.(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제목과 면수만 표기)

들은 밖으로 나가 **울었다**. 지섭은 올라올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사랑이 나를 슬프게 했다.**…내일 아무도 모르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보자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아버지는 제일 먼저 나를 제쳐놓을 것이다.…[206]

공판 선고 때마다 기차를 타고 올라왔던 지섭은 정작 영수의 사형이 구형되던 공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경훈은 그것이 남쪽에 있는 은강의 한 기계 공장에서 일어난 심상치 않은 일 때문임을 알게 된 후 앙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 지느러미만을 달고 있는 큰 가시고기들의 꿈을 꾼다. 꿈속에서 지섭은 큰 가시고기들이 자신에게로 뛰어올라 살갗을 "가리가리 찢기는 아픔"을 느낀다. 경훈은 지섭의 불행과 사람들의 사랑에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곧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형들과의 경영권을 중심으로 한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할 치명적인 약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국 경훈은 자본이 약속하는 풍요로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불행을 공유하기보다 정신과 의사를 찾겠다고 결심한다.

아메드는 행복의 명령・약속에 대한 동의는 그것에 저항하며 변용될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한다.[207] 이는 로렌 벌렌트가 '잔혹한 낙관'이라는 정동의 형식으로 적절히 표현했듯, 미래에 대한 애착이 자기/삶을 소진하는 역설을 구현한다.[208]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축소시키면서까지 대상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는 것은 그 애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훈의 선택은 지섭의 불행에 슬픔을 느끼는 고통 대신 약(정신과 의사)을 통해 계속해서 행복의 약속에 사로잡혀 있기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행이 공유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만 하는 공감의 차원이 아니라, "기꺼이 불행에 근접해 있겠다는 의욕"이라는

206)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262-263면.

207)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373-378면.

208) 벌렌트는 모든 애착이 "낙관적optimisitic"이라면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애착을 "바로 곁에 있음(근접성)"이라는 정동의 한 형식으로 설명한다. 욕망의 대상에 대한 애착에서 우리는 그 대상에 근접해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로렌 벌렌트. 「잔혹한 낙관주의」,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참조.

것을 알 수 있다.[209]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우리가 난장이의 불행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슬픔을 비슷한 느낌으로 되돌려주면서 "거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접촉방식"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행복을 거부하며 불행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난쏘공』에서 제시되는 '불행의 공유'라는 문제는 불행을 욕망하는 '다른' 인간의 필요를 말하는 문제로 논점을 확장한다.

"이미 철도 들고, 고생도 많이 해본 공장 동료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려 엉엉 소리 내어 우는 현장에 저는 서 있어보았습니다. 웬만한 고생에는 이미 면역이 된 천오백 명이, 그것도 일제히 말입니다. 교육도 받고 사물에 대한 이해도 깊은 공장 밖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그분은, 인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새끼!"

나는 외쳤다. …아버지가 왜 그 따윌 생각해야 된단 말인가.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작은 악당은 몰랐다.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경영·경쟁·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독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했다. 그 중독 독물이 설혹 가난이라 하고·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210]

…지섭은 계속해 난장이의 큰아들이 상대한 것은 어떤 계층 집단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었다고 말했다. 자기와 난장이의 큰 아들은 처음부터 평범한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일깨워 분명히 해 둔 게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는 다같은 하나의 생산자이지 이해를 달리하는 두 등급의 집단은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저희는 인간을 괴롭히지 않는다.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사용자-인용자]다. 저희는 피해자다.…[211]

209)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52면.
210)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251면.
211)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257면.

영수가 은강의 경영자가 ‘인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죽였다고 고백하자, 경훈은 아버지는 “그 따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아버지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았고,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212] 지섭은 은강의 경영주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의 문제로 영수를 변호한다. 그는 난장이의 큰아들-영수가 “상대한 것은 어떤 계층 집단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었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다같은 하나의 생산자이지 이해를 달리하는 두 등급의 집단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이처럼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사용자 집단인 경훈의 시선으로, 영수와 지섭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타자화하여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이 그들과 우리,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불행한 이들과 행복한 이들이라는 이분화된 경계에서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위계적으로 배치된 인간들 사이에서 불행을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난쏘공』 연작 두 편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를 정리하자면, ‘불행’을 공유한다는 것은 「클라인 씨의 병」이 보여준바, 안과 바깥을 ‘하나’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에 의거하여 나의 행복과 너의 불행의 구분을 허물어야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가 보여주듯, 불행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 불행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비판적 태도의 변경을 요구한다.

이를 고려할 때, 『난쏘공』 이후 1980년대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을 구현하는 문제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욕망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형되는 것, 즉 자본이 약속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윤리실천으로 인간을 이동시키는 문제가 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르게 배치하여, 고통과 상실, 불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로질러 그 너머로 나아가는 윤리적 주체로의 ‘트랜스포지션’을 요구하는 것이다.[213] 이러한 관점에서

212)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251면.

213) 브라이도티는 “대안적인 앎의 다른 방식을 발생시키는 창의적 통찰의 경험”을 강조하며 ‘트랜스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는 주체와 대상

1980년대 조세희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1985년 출간된 조세희의 작품집 『침묵의 뿌리』는 고통과 불행이 소수의 행복을 위해 착취되는 1980년대의 현장을 '사북'이라는 문제적 공간과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로 그려낸다. 작가는 1980년 4월에 일어난 '사북사건'[214]에 대한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주체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양식의 산문과 사진 이미지를 결합하여 텍스트를 구성한다.

1부에는 조세희의 소설 세 편과 석정남에게 청탁하여 받은 글 「이론과 실제」, 사북의 어린이들의 일기가 실렸고, 2부에는 작가가 직접 찍은 사북과 사북의 사람들, 인도와 요르단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의 사진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다. 3부는 이 사진들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 각주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탄광지대의 사정을 세상에 제일 먼저 알린 이경만의 수기 「광산촌」,[215] 사북 사건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드러내는 황인호의 「사북사태진상보고서」와 「사북사태공소장」을 수록하여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맥락화한다.

『침묵의 뿌리』는 출간 당시 사진과 산문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당대의 비평가들을 통해 "장르체계에 대한 충격 내지 해체"[216]로 받아들여지거나, 주제를 보다 효과적

사이에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통일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이를 통해 현상의 가시적 복잡성과 숨겨진 복잡성을 이해하는 비통일적 주체관을 주장한다. 브라이도티는 트랜스포지션(변위)을 통해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전환을 재검토하고, 인간 주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위치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사유 도식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에 거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로지라이도티, 김은주・박미선・이현재・황주영 옮김, 『트랜스포지션 : 유목적 윤리학』, 문화과학사, 2011, 32-40면.

214)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사북의 동원탄좌에서 어용노조의 임금소폭 인상에 항의하여 광부들이 일으킨 노동항쟁으로, 사측에서 요구한 경찰이 개입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해 심각한 폭력사태로 확산된 사건이다. 광부 1500여 명과 대치 중이던 500여 명의 경찰은 진압 작전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차량으로 치는 실수를 범했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격하면서 이들을 피해 도망가던 경찰 1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노동자와 경찰 수십 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광부들은 경찰서장을 집단폭행하고 3일간 사북읍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사북·고한 역사연구/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2001, 189면.

215) 『대화』, 크리스천아카데미, 1977.7-11;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37, 2012 참조.

216) 성민엽, 「自己反省 담은 "삶의 목소리"—趙世熙의 『침묵의 뿌리』」, 『경향

으로 표현하기 위해 문자예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진예술'이 겸해진 작업으로 이해되었다.[217] 이후 제출된 선행연구들도 『침묵의 뿌리』에서 시도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주목해왔다. 이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이 "'광주'에서 행해진 국가폭력"이 야기한 분노, 공포와 무력감, 죄의식과 슬픔의 정서"를 반영한다거나[218] 소설적 재현이 갖는 감응의 한계를 절감한 작가의 '장르융합/장르해체적인 동시에 매체혼종적' 방식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고통에 감응할 수 있게 한다는 해석,[219] 르포르타주 글쓰기 방식으로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는 '형이상학적 죄과'를 묻고자 했다는 평가[220] 등을 통해 '고통의 재소유'로 표현되는 조세희의 문제의식이 사진과 산문의 결합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되었는가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신문』, 1985. 9. 27.

217) "…조세희의 '제3작품집'은 문자 예술을 해체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시각 예술을 함께 겸해서, 서로의 독자성을 전제하면서 수행하는 작업…문자예술이라고 하는 예술 형식이 자신들이 파악한 세계와 진실을 드러내는 데 이따금 한계를 느끼게 되었음을, 그래서 고착적인 장르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적절한 드러냄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진실한 것(또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과 그것에 적합한 표현 양식을 통한 예술적 감동이지, 장르 그 자체, 소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유연한 문학의식을 그들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익, 「사랑·분노 그리고 관용」, 『세계의 문학』 38, 1985.11; 『전망을 위한 성찰』, 문학과지성사, 1987, 309-310면.

218) 이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이 "'광주'에서 행해진 국가폭력"이 야기한 분노, 공포와 무력감, 죄의식과 슬픔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본 서은주는 탄광(막장)노동자의 고통이 재현될수록 이에 대한 기피와 거부가 나타나는 노동 재현의 역설을 지적했다. 서은주, 「노동(자)의 재현과 고통의 재소유 - 조세희의 『침묵의 뿌리』에 담긴 '사북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219) 배하은은 소설적 재현이 갖는 감응의 한계를 절감한 작가의 선택으로 '장르융합/장르해체적인 동시에 매체혼종적' 방식이 시도되었다고 보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함으로써 그것에 감응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석했다.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장 3절 참조.

220) 정주아는 도덕적 엄격성을 고수하며 희망을 말하고자 했던 작가가 시대적 곤경으로부터 르포르타주 글쓰기 방식을 선택하여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는 '형이상학적 죄과'를 묻고자 했다고 해석했다. 정주아, 「조세희 문학을 통해 본 1970년대 산업사회와 '희망'의 문제-개발독재 시대의 윤리와 부(2)」, 『한국근대문학연구』 19-2, 한국근대문학회, 2018, 427-431면.

이 논문에서는 『침묵의 뿌리』에 나타난, 타자의 고통과 불행을 착취하여, 주체의 행복을 재생산하는 주체의 착취성을 해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행의 공유'라는 과제를 주목하고자 한다. 『난쏘공』 이후 이 문제는, 주체의 위치에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만 하는 공감이 아니라, "기꺼이 불행에 근접해 있겠다는 의욕", 다시 말해 자본(주의)이 약속하는 행복을 거부하며 불행을 욕망하는 인간으로의 변형을 말하는 문제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목되는 것은 『침묵의 뿌리』가 비참한 인간들이 놓여 있는 불행을 수집·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수집된 기록은 착취당하는 불행의 역사-"불행아카이브"가 된다는 점에서 행복의 역사를 슬픔과 비참의 각도에서 상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21] 이렇게 불행아카이브로 『침묵의 뿌리』를 읽는 것은 첫째, 행복과 불행을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 가치와 믿음의 위계를 거부하고 불행을 사유하기 위한 다른 언어-사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둘째, 사진을 통해 고통이 예견되는 불행 앞으로 우리를 데려감으로써 불행에 기꺼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불행을 욕망의 대상으로 상상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로부터 이 작품집의 출간 당시의 표제가 '제3작품집'이었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해왔듯 '불행의 공유'를 위해서는 나/너 주체/타자라는 구분을 허물어서 너의 불행을 우리의 문제로 사유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위치가 필요하다.[222] 이런 의미에서 『침묵의 뿌리』는 기존의 주체 '나'의 위치에서 타자 '너'의 불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의 위계를 변형하여 마련한 제3의 관점, 제3의 위치에서 우리의 문제로 불행을 기록하고 수집한 텍스트인 것이다.

『침묵의 뿌리』에는 사북사건의 현장에 대한 취재 전후로 발표된 세 편의 소설 「어린왕자」(『문예중앙』, 1983.9)[223]와 「풀밭에서」(『침묵의

---

221) 사라 아메드, 앞의 책, 40면.

222) 『침묵의 뿌리』의 초판 부제는 "제3작품집"이었으나 이후 "사진-산문집"으로 바뀌었다.

223) 조세희, 「어린 왕자」, 『문예중앙』 6-3, 1983.9 발표; 『침묵의 뿌리』, 열화당, 1985 수록(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제목과 면수만 표기).

뿌리』, 1985)[224], 「1979년 저녁밥」(『외국문학』, 1984.9)[225]이 수록되어 있다. 이 소설들은 제3의 위치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를 1980년대 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1970년대가 경제적 성장과 기술의 진보로 약속했던 미래가 "윤리적인 모든 것"이 무너진 현재로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은강건설과 입주민들이 같은 이익을 보았다. 은강 아파트는 당장 행복한 소수에 끼어야 된다고 믿는 성급한 시민들을 몰아 담은 채 그림처럼 서 있었다. 그 주거지역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졌다. …영희의 어머니는 국경이라도 넘어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 집 식구들은…민족의 젖줄 한강이 내다뵈는 새 주거단지 안으로 들어가 경계선 저쪽에서 남겨온 짐을 풀면서 옛날 생활과 작별했다.…은강 아파트의 1979년 주민들은 이런 일과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들이 우월한 소수에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복해했다. 그러나…내 친구의 어머니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226]

1980년대는 은강아파트라는 상징적 공간이 보여주듯, "윤리·도덕·질서·책임 같은 것들을 단숨에 모든 생산행위의 적으로 몰아버"리고 무서운 속도로 다수의 고통과 불행을 착취하여 소수의 희망과 행복을 재생산하는 중이다. 이들 소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우월한 소수에 들었다는 사실에 행복해할 뿐이다. 다수의 고통과 불행을 착취하여 소수의 행복이 재생산되는 1980년대 희망의 정치경제의 현장에서 작가는 "낙원으로 보여지는 이들 나라"에서 공동선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주목한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여행이 가능하다면" 부자 나라가 아닌,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고 출구를 찾던 대공황기의 어려운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이때 사진은 이들 나라에서 공동선이 어떻게 추구되는지, 혹은 희망과 고통의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다.[227]

---

224) 이 작품은 1994년 자선대표 작품집 『풑밭에서』(청아출판사)의 표제작으로 수록·출간되었다.
225) 조세희, 「1979년 저녁밥」, 『외국문학』1, 1984.9 (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제목과 면수만 표기)
226) 「1979년 저녁밥」, 329면.
227) 「어린왕자」, 27면.

어려운 나라의 지도 계층이 언제나 숨기려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처해있는 가난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진에는 그림자 하나 없다. 그들은 빛이 가득찬 세계만 보여준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림자가 없는 사진에는 깊이가 없다. 3차원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조형적 요소를 빼놓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사진은 평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의 미국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다. 경제학자가 사진가를 동원했다. 자기 시대의 기분을 이해한 사진작가들이 비참한 국민 생활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나갔다.……사진가들은 도시로 돌아와 부유한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상도 함께 찍었다, 그 사진들 가운데서 얼마가 공적인 분노를 야기시켰다. 어떤 상황아래서는 부유한 사람들의 행복이 떳떳한 것이 못 되며 어떤 행복은 바로 죄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준 셈이다.…어려운 나라에서는 어떨까?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맥큐베인이라는 사진작가가 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작가들처럼 고통받는 국민들을 사진 찍었다. 그것, 다시 말해 자기가 태어나 자란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에서 애정어린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바로 그 땅에 살며 동족의 어려운 생활을 기록했다는 한 가지 이유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야했다.[228]

작가는 "자기 시대의 기분을 이해한 사진작가들이 비참한 국민 생활을 기록" 했을 때, 부유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교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의 행복이 떳떳한 것이 못 되며 어떤 행복은 바로 죄악이기도 하다는 사실" 에 대한 분노를 야기하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고통받는 이웃의 어려운 생활을 기록' 했다는 이유로 작가들이 감옥에 갔다. 작가는 "몇 나라의 안전과 풍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다른 나라의 불안, 빈곤, 속박 같은 것과 관련" 을 가지듯,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을 착취한 결과라는 문제를 "우리 모두의 일, 또는 우리 개인의 일과 연결지어 생각"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가장 문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사북사건이다. 작가는 이 제3의 위치에서 그들의 불행과 비참에 단순히 눈물을 흘리기만 하거나,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사북과 그곳의 인간 그리고 그곳의 삶을 담아내고자 한다.

228) 「어린왕자」, 28-29면.

몇 나라의 안전과 풍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다른 나라의 불안, 빈곤, 속박 같은 것과 관련을 갖는다면 이 이상 무서워해야 할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두의 일, 또는 우리 개인의 일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내가 사북을 찾아갔을 때 한 주민은 그 읍이 20년 남짓한 시기에 세워졌다고 설명해주었다. 해방을 맞고 어느덧 40년이 다 된 때였다. 그러니까 우리 암울한 시기의 역사에 압박자, 수탈자로 기록되는 일본 사람들도 그곳 그 시기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이다.[229]

1984년 처음으로 사북에 내려가기 전 작가는 "철야조업 공장의 기계처럼 망가져 떠오르는 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암담했던 과거의 연장"이자 "도대체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보"였기 때문이다.[230] 그런 그에게 '어린왕자'가 찾아왔다. '작가노트'에서 언급한 대로, 이는 1980년의 사북사건이 그에게 가져다 준 어떤 충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231] 사북의 역사가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 모두"의 일로 연결지어져야 한다. 이는 '길들인다'는 것,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텍쥐베리의 소설에서 인용해온 데서도 알 수 있듯, '사북'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우리'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 시대의 희망이 한쪽으로 몹시 기울어져 있는 일을 나는 슬퍼한다. 능력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당하게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 우리시대의 문제를 바로 짚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좋은 희망이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지금 당장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이까지 아는 민주주의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으면서 고통받는 다수를 소수 쪽으로 옮겨놓는 일이다.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이 지친 몸에 깃들어 있지 않게 하고도 다른 환경에 닿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이다.[232]

"우리 시대의 희망이 한 쪽으로 몹시 기울어져"있는 것을 슬퍼하며, 작가는 "고통받는 다수를 소수 쪽으로 옮겨놓는 일"이 필요하

229) 조세희, 『침묵의 뿌리』, 열화당, 1985, 39면.
230) 조세희, 위의 책, 24면.
231) '작가노트'에서 조세희는 "충격적인 일을 대할 때마다 어린왕자가 나를 찾아왔다"고 적었다. 조세희, 「어린왕자」, 『문예중앙』6-3, 1983. 9, 68면.
232) 조세희, 앞의 책(1985), 134면.

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옛날 생활과 미련없이 작별하고, 우월한 소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들은 "불행의 사정거리 밖에"서 "눈물 한 방울 빼내지 않았"다는 점이다.[233]

중편 「시간여행」을 통해 '눈물'이라는 말을 2백 번 이상 써넣으면서, '집단통곡'에 의해 강물이 범람하는 이야기를 쓰는 동안 작가는 눈물이 비극에 대처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234] 이 문제가 KBS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이 "'눈물강'에 빠져 허위적거려야 했던" 상황과 밀접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의 경훈의 선택이 보여주었듯 '불행의 공유'라는 실천은 공감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눈물"로도 '각성'되지 않는, 다시 말해 "우리의 각성을 방해"했고, 앞으로도 방해할 "무엇"을 극복하는 문제인 것이다.[235]

>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인가, 진보인가, 답보인가, 실패인가, 좌절인가, 부분적인 행복인가, 우리는 이성을 싫어하는가, 고통은 나눌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천성적으로 캄캄한 곳을 좋아하는가 밝은 곳을 좋아하는가, 그대는 제한조건 많은 세계에 살고 싶은가, 발전된 다른 세계에 살고 싶은가?[236]

아메드에 따르면, 각성이 쉽지 않은 이유는 불행과 행복에 나쁜 것 혹은 좋은 것이라는 가치가 사회 속에서 이미 전제된 채로 우리에게 주입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각성을 방해하는 것은 자본(주의)이 부과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불행을 행복(좋은 것)의 상실, 나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행을 행복의 방해물로 간주하는 익숙한 사유를 전환하여 불행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237] 『침묵의 뿌리』 서두는 현실의 우리가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즉 이미 자본주의가 부과한 사고방식을 따라 우리가 성공과 진보, 밝은 곳을

233) 조세희, 위의 책, 124면.
234) 조세희, 위의 책, 123면.
235) 조세희, 위의 책, 124면.
236) 조세희, 앞의 책(1985), 16면.
237)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78면.

원하고, 답보와 실패, 고통, 캄캄한 곳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있다. 그렇다면 불행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익숙하고 습관적인 시선과 욕망을 변형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행'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여 사유해야 하기에, 사진-이미지가 도입된다.[238]

> 최근에야 나는 사진이 갖는 기능 가운데서 내가 힘 빌어야 할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기본 과제 해결에 그렇게 열등할 수 없는 민족인 우리가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것, 학대하는 것, 막 두드려버리는 것, 그리고 어쩌다 지난 시절의 불행이 떠올라 몸서리치며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다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즉 재소유시키는 기능이었다. [239]

2부에 수록된 조세희의 사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중시하는 '스트레이트 사진straight photography'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시대에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계급을 초월한 대중의 사실에 대한 갈망이나 필요성을 충족시키며, 지식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특성을 담고 있다. 사진은 계급을 초월한 대중적인 의사소통 수단, "민주적인 재현 수단"으로[240]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241]

이러한 설명을 고려한다면, 『침묵의 뿌리』 2부에 수록된 사진들은, 사북이라는 현장에서 벌어진 불행과 고통을 민주적으로 재현하는 이미지로서 불행과 고통에 관한 새로운 해석(지식)을 구축한다. 이로써 사진은 조세희의 소설 문법-실험적 기법이나 관념적 문체에 익숙지 않은 누구라도 이 텍스트에 수집되고 기록된 불행과 고통의 이미지를

---

238) 사라 아메드, 앞의 책, 353-354면.
239) 조세희, 앞의 책(1985), 136면.
240) Eastlake, Lady Elizabeth. "Photography", *The London Quarterly Review 101*, April, 1857, reprinted in Bermont Newhall (ed.), *Photography : Essays and Images*, London : Secker and Warburg, 1980, pp. 442-468.; 데릭 프라이스・리즈웰스, 「사진에 대해 생각하기」, 앞의 책, 32면에서 재인용.
241) 데릭 프라이스・리즈웰스, 「사진에 대해 생각하기」, 리즈웰스 엮음, 문혜진・신혜진 옮김, 『사진 이론-사진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실천의 역사』, 두성북스, 2016, 30-31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진이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이미지를 읽게 한다는 점에서 필립 뒤봐는 사진을 어떤 특별한 생성을 누설하는 이미지-행위, 즉 사진적 행위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진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생기게 한 행위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진은 이미지가 생산된 결과가 아니라, 찍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생성하는 사진적 행위인 것이다.[242] 사진적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 개념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뒤바는 사진을 의미를 방출하는 발신기호가 아니라 의미를 수용하고 유통하는 수신기호로 이해함으로써[243] 사진-이미지를 읽는다는 것이 사진을 만든 원인・의도를 이해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 비주얼 리터러시의 개념으로 사진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이 이미지를 생기게 한 행위-'사진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침묵의 뿌리』에 도입된 사진-이미지는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그 사진이 만들어지게 된 '맥락'[244]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부의 사진들은 독자-응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것, 학대하는 것, 막 두드려버리는 것… 몸서리치며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불행을 기록한 촬영자의 의도(불행의 공유)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이를 응시자의 앎의 영역에서 번역하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침묵의 뿌리』는 사회가 주입한 행복에 대한 욕망을 거슬러 불행 앞에 우리를 마주하게 하면서, 불행에 무감하고, 무능력해진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245]

> 우리는 윤리적인 모든 것이 그때 자지러지고 또 지리멸렬하는 것을 보았다.…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 우리는 정신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

242) 필립 뒤봐, 이경률 옮김, 『사진적 행위』, 사진마실, 2005, 69-70면.
243) 이경률, 「사진읽기의 다변화된 관점과 수용미학 - 사진적 행위와 비주얼 리터러시에 관한 존재론적 연구」, 『기호학연구』 37, 2013, 241면.
244) 맥락은 질문에 외재적이지 않다. 맥락은 질문이 취할 형식을 조건 짓는다.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6면.
245) 이처럼 사진이 집단적 자아와 보편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이념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20세기 전반기 포토저널리즘과 인본주의 사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다. 이경률, 위의 논문, 247-248면.

다. 우리의 안락한 생활을 지켜준 것이 바로 그 무능력이었다. 사실 나는 생명이 차디 차진 몸과 함께 사멸하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으로 날아가든 크게 관심하지 않는다. 나는 몸과 마음이 작용을 정지하기 이전 단계를 말하고 싶었다.[246]

이 절의 서두에서 논의하였듯, 인간 존재의 살 만한 삶을 위한 자본과의 투쟁에서 관건은, 인간 본성이 끝없이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치적・문화적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47] 정신적으로 무능력해 있는 이 상태로부터 각성한다는 것은 고통을 통해, 불행을 향해 일어나는 도약을 요구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욕망을 다르게 배열하여, 고통과 상실, 불행 너머로 나아가는 투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물질적 안락의 약속에 사로잡히지 않은, "몸과 마음이 작용"하는 다른 질서의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인 것이다.

조 : … 『난장이…』연작 속의 수많은 문장들이 **내 기분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문장**이니까. 독자의 반응이, 내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격렬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쓴 의도와는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므로 당혹감은 전혀 없지요.[248]

조 : 80년대 들어 공격의 패턴이 '비겁자'로 바뀐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내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할 시간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수법이 기분나빠졌다**고 하더군요. 안 읽히던가요? (…중략…)

조 : 더욱 난해해졌다는 이야기와 관계가 되는 겁니까?… 70년대 말 그런 사건이 있은 뒤, **80년대 이후 독자의 태도가 확 바뀌는 인상을 받았는데…** 내 작품에 환상성이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70년대와 80년대의 차이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요? 시대적인 힘에 작가가 무력해지고 묘해지고 일그러지고 있는 거죠.[249]

---

246) 조세희, 앞의 책(1985), 133면.

247) 자본에 의해 우리는 사고와 이해를 비롯하여, 제도와 지배이데올로기, 정치적 주체성, 기술, 사회관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관습과 취향의 변화를 겪는다. 자본의 "모순을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은 자본에 의한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사유와 실천, 행동을 통해 인간 자신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 황성원 옮김, 『자본주의의 17가지 모순』, 동녘, 2014, 31-32면.

248) 성민엽・조세희, 「상황과 작가의식」, 앞의 책(1983), 427-428면.

249) 성민엽・조세희, 「상황과 작가의식」, 위의 책(1983), 429-431면. (강조는 인용자의 것)

1983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조세희는 80년대 들어서 자신의 소설에 가해지는 비판의 강도나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독자의 태도가 확 바뀌는”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조세희의 소설에 대한 “공격의 패턴”이 ‘비겁자’로 변한 것도 그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공격적인 반응의 이유가 “수법이 기분 나빠졌다”는 것이다. 이 인터뷰에서 조세희는 여러 번 자신의 문장에 시대와 마주한 결과로서의 ‘기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250] 자기의 기분이 드러난 이 문장들이 독자들의 비판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1980년대 새롭게 정립된 노동(자)문학의 중요한 요건은 소외를 극복하는 문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희망’은 노동자들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당위적·일괄적으로 요구된 핵심 요건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1980년대의 현장에서 희망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소외가 극복된 삶을 향한 믿음이나 신념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자본이 강제하는 방식으로 행복과 불행을 구분짓고, 나의 행복을 위해 타자의 불행을 착취하는 착취의 메커니즘 속에 희망이 놓여 있었던 까닭이다.

조세희의 소설에 ‘희망이 부재한다’고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원한 것이 이와는 ‘다른’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1980년대 문학장에서 다수가 믿고 있는 가장(假裝)된 희망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다수가 공유하는 행복 또는 슬픔을 느끼는 “정서 이방인”[251]

---

250) 김병익은 조세희의 독특한 언어 구사와 실험적 기법에서 파생되는 추상성에 대해 인물과 세계와의 단절된 대립을 비언표된 방법적 구조로 드러내고자 하는”것이라면서 “인물과 세계, 세계와 세계”의 단절과 그 화해 불가능성에 대한 ‘절망’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병익은 “접속사가 없는 단문의 연속 배치”가 조세희가 이 세계에 대해 느끼는 ‘단절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김병익, 「대립적 세계관과 미학」, 『문학과지성』 37, 1979 가을;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78, 286-287면.

251)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서론 참조. 아메드에 따르면 정서 이방인은 행복의 대상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정서적 공동체에서,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다수를 불편하게 하는 역사를 상기시키거나 분위기를 불편하게 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말썽꾼, 반대자, 분위기 깨는 자’로 간주된다. 아메드는 ‘좋은 느낌을 나쁜 느낌으로 바꾸어서 남들의 흥을 망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 ‘정서이방인’ 혹은

으로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1980년대 조세희가 전개한 불행의 공유라는 기획은 행복이 불행을 착취하는 구조에 우리의 가치와 믿음이 어떻게 순응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하면서, 이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행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혁의 자원이자 조세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희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통과 슬픔에 대한 정서적 감응 속에서 너와 나,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적 위계가 해체되고, 서로에게 연루되어, 서로의 책임의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 중의 우리에게만 그러한 희망은 가능할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박태순과 조세희의 소설은, 주체의 위치에서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주체-타자의 위계에 변형을 가져오기 위한 각각의 시도를 보여준다. 이들은, 포스트식민적 조건에서 이로부터 휴머니즘적 토대 위에 세워진 지식인과 민중, 나와 너의 위계적 관계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였고, 이로부터 주체와 타자의 위계를 변형할 수 있도록 인식론적 규범을 전환함으로써, 다른 질서를 가진 인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임을 보여준다

'정서소외자'라고 표현하였으며 페미니스트 여성, 퀴어, 인종차별을 경험한 이주민 등을 그 실례로 주목한다.

Ⅲ. 수행하는 여성들과 인간됨의 조건 수정

3.1. 젠더화된 형성Buildung의 규범과 패러디하는 여성들[252]

3장에서는 타자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의 수행을 주목한다. 구조적 타자로 규정된 인간들의 도전이 인간됨humanness의 조건을 수정해나간 맥락을 이문열과 강석경, 석정남과 방현석의 텍스트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먼저 이 절chapter에서는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1983)과 강석경의 「숲속의 방」(1985/1995)의 교양 주체들의 성장을 마주 세워, 젠더화된 형성buildungs의 규범을 패러디하는 여성들의 분투를 분석한다. 구조적 타자들의 자기형성(성장)이라는 수행이 남성중심주의적 인간됨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적 교양소설에 관한 가장 정식화 된 설명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읽는 루카치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루카치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통해 개인의 삶과 총체성 사이의 간극을 체념으로 봉합하고, '성숙한 남성의 형식'으로서의 소설에 관한 정식을 완성했다. '성숙'이 왜 '남성'의 형식으로 주어지는가에 대해 루카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를 대타적으로 이어받은 모레티는 정치(사회)와 끊임없이 불화할 수 있었던 남성만이 소설이라는 근대의 양식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253] 이

252) 이문열과 강석경의 작품 분석은 졸고, 「누가 교양소설을 노래하는가-교양 주체의 남성(성)네트워크와 이문열의 1980년대 텍스트」, 『상허학보』 56, 상허학회, 2019와 「강석경의 텍스트와 여성-성장-서사의 재맥락화-누가 교양소설을 노래하는가(2)」, 『구보학보』 25, 구보학회, 2020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53) 1789-1815년의 거대한 변동을 직시하며 탄생한 교양소설에 대해 모레티는, 개인의 운명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과 집단적인 리듬으로 움직여가는 정치 두 영역이 동일해지는 것이 가능한지, 개인의 성장이 공공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둘 사이의 갈등관계를 탐구하고 둘 사이의 균형 혹은 타협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모든 소설에서 왜 남성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이미 그 안에 담고 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단일한 차원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여성에 의해서는 결코 개인의 운명과 정치의 집단적 리듬의 합치를 꾀하려는 교양소설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루카치의 소설에

처럼 교양소설은 국가의 성립과 시민으로서의 주체화라는 근대화 과정의 모순의 경험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한다. 교양소설의 핵심인 '교양'은 세계에 대항하는 '나'와 그 세계 속의 대상임을 알게 되는 '나' 사이의 잠재적 조응을 통해 구축되는 헤겔식 모델로서, 주체와 대상간의 이분법의 전통과 조건 속에 성립된 유럽중심주의적·로고스중심주의적 인식론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254] 개인과 사회의 구조 안에 위치할 수 있었던 주체의 자기인식과 형성Buildung[255]만이 보편으로 간주되었기에 여성의 그것은 교양의 미달태, 반反성장이라는 특수로 규정된다. 이 문제를『세계의 문학』'오늘의 작가상'의 수상자들인 이문열과 강석경의 교양소설이 잘 보여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간『세계의 문학』의 편집위원들을 비롯한 몇몇 비평가들에게서 한국적 교양소설에 대한 기대가 표출되기 시작한다.[256] 이는 괴테의『빌헬름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같은 고전적·서구적 교양소설을 그 전범으로 상정한 것으로, 시민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 성숙해나가는 개인의 형상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김병익은 성장(교양)소설이 "70년대 이후 비교적 활발"해졌다면서 교양소설의 문화적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에

관한 공식적인 명명이 '성숙한 남성의 형식'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 모레티가 답해주고 있는 셈이다.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옮김,『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참조.

254)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08), 354면.

255) 한국어에 정확히 대응하는 번역어를 갖지 못한 채, '형성' 혹은 '교양'으로 번역되는 독일어 "Buildung"은 독일 신비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 '형상' '초상' '닮은 모습' '모사' '형태', '형성' 등을 의미하던 이 용어는 모방신학에서 '인간에게 미치는 신의 활동에 의한 정화'의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변형'의 뜻을 갖게 되었다. 18세기 초반까지 종교적·신학적 개념으로만 사용되던 이 개념은 18세기 중반 이래 종교적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세속화하였고,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신과의 합일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인간성의 완성을 추구하는 고전적 그리스 교양이념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Buildung"은 조화, 보편성, 총체성 등의 이상과 연결된다. 김혜숙,「독일 교양소설 이론과 수사학」,『독일어문학』28, 독일어문학회, 2005, 2장 참조.

256) 김우창·백낙청·유종호,「(좌담)어떻게 할 것인가-민족·세계·문학」,『세계의 문학』창간호, 1976; 권영민,「탐색의 과정, 그 소설적 미학」,『젊은 날의 초상』, 민음사, 1981; 김병익,「성장소설의 문화적 의미」,『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44-160면.

따르면 교양소설은 사회적 자아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개인적 자아가 성립되고 허용되는 문화 체계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두 자아간 갈등이 내성적인 각성으로 지양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소설의 범주보다 '교양'소설의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 그 사회의 문화가 "보편적 이념"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선호가 존재해야 한다.[257] 김병익의 설명은 '교양소설'과 '성장소설'의 개념이 혼용되지만, '성장소설'이 아닌 '교양소설의 이름'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며, 이것은 보편적 이념으로 표명되는 '교양'의 본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교양소설이 성별화된 계보를 구축해 온 이유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설명이면서 성장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그 방식과 결과를 몸의 경험에 고정시키는 여성성장소설과 '성숙한 남성의 형식'으로서 보편적 이념을 담고 있는 남성교양소설이라는 이분법적 용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1977년 『대구매일신문』에 「나자레를 아십니까」로 입선, 1978년 『동아일보』가 신설한 신춘문예 중편 부문에 「새하곡」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이문열이 그의 "이름을 많은 독자들의 머리 속에 인상적으로 각인"[258]시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오늘의 작가상'[259]제 3회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였다. 민음사의 출판자본과 초대 회장 박맹호의 기민한 감각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작가상'은 수상작들을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린, 당대 독자들이 읽기 원하는 문학의 바로미터였다.[260]

---

257) 김병익, 위의 글, 144-147면.

258) 이동하, 「작가정신과 시대상황」, 『이문열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994, 59면.

259) 1976년 창간된 『세계의 문학』은 2015년 겨울, 158호로 종간하기까지 단 한 번의 중단 혹은 폐간을 겪지 않았다. 1976년 제정된 이후 『세계의 문학』이 폐간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오늘의 작가상'은 '김수영 문학상'과 함께 민음사의 근간을 이루는 공모제도라 할 수 있다. 초대회장 박맹호는 "통속소설을 제외하고 문예지에 수록된 본격문학이 대중에게 이렇게 큰 호응을 얻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한국의 본격 문학과 대중 사이에 가교를 놓는데 오늘의 작가상이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박맹호, 『박맹호 자서전 책』, 민음사, 2012, 102면.

260)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1973년 완성되었으나 문학을 읽는 대중의 형질 변화, 민음사의 대형 출판사화라는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1979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국문학장에 입사入社한다. 단행본의 시대 속에서 축적되어가던 출판자본과 세계문학이라는

이후, 이문열의 소설이 1980년대 문단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남성성의 구축과 사회적 변전이 긴밀하게 결부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261]

『젊은 날의 초상』(1981) 은 본래 각각의 단편으로 발표했던 세 편의 소설을 사후적으로 묶어낸 연작소설이다.

『젊은 날의 초상」이 출간되었을 당시 논자들은 사회가 '개인'의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가능케 하는 실례로 이 소설을 읽었다.[262] 최근 '중산층' 표상에 주목하여 이 소설을 읽을 가능성이 제시되면서[263]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촉발하고 추동했던 '발전'에의 욕망과 소설 속 영훈의 삶의 행로가 상동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264]

실제 창작·발표의 순서와 달리, 서사의 시간은 열아홉 살의 '나'가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되찾으려 강진에서 보낸 시절을 회상

지평을 향한 여로를 '민족'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시작하고자 했던 비평적 지향이 접속하는 자리에서 이문열과 그의 소설은 1980년대를 대표할 문학(인)으로 호명되었다.

261) 코넬의 연구에서 '남성성'은 여성성을 혐오하면서, 동시에 남성들 내부의 포함과 배제의 실천을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그는 다양한 층위, 다양한 계층 속에서 형성되는 '남성성/들'을 문제화하고자 하였다. 코넬이 남성성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밝히려 했던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일종의 '담론의 효과'이며 사회적 실천에 의한 배치 속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그의 논의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젠더 관계를 기반으로 차지하게 되는 '위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관계의 기반이나 양상이 달라짐으로 인해 '위치'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요컨대,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조건과 환경의 변모로 인해 얼마든지 다른 위치로 옮겨갈 수 있다. R. W. 코넬,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장 참조.

262) 권영민, 「통과제의의 스토리」, 『한국문학』, 1981.6, 334-336면; 「(해설) 탐색의 과정, 그 소설적 미학」, 『젊은 날의 초상』, 민음사, 1981; 김병익, 「관찰과 반성」,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262-275면.

263) 이문열 소설의 '중산층' 표상을 주목한 이철호는 1980년대를 풍미한 이문열 소설의 저력은 제5공화국의 중산층 장려 정책과 고도성장 이후 선진화를 향한 열망과 기대심리가 고조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철호, 앞의 글;「장치로서의 연좌제－1980년대 이문열의 초기 단편과 중산층 표상」, 『현대문학의 연구』 56, 현대문학회, 2015; 최근 제출된 연구 오자은, 「위안의 서사와 불화의 서사: 1980년대 교양소설의 두 가지 문법」, 『한국현대문학연구』 56, 한국현대문학회, 2018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참조할 수 있다.

264) 장문석, 앞의 글 참조.

하는 「하구 (河口)」(『한국문학』, 1981.5),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 후 강진을 떠난 '나'의 방황기 「우리 기쁜 젊은 날」(『세계의 문학』, 1981.6) 그리고 그 방황 끝에 '문학(예술)'이라는 숙명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을 안도하며 회상하는 「그해 겨울」(『문학사상』, 1979.12)[265]로 정리된다.

> 강진의 인상으로 들어온 것은 그곳의 가난이었다. 선창 쪽으로 통틀어 오십호 정도의 인가가 몰려 있었는데 대부분은 초가집, 그것도 갈대로 두텁게 이엉을 엮어 유난스레 낮고 음침해 보이는 세 칸 내외의 한일자 집이었다. 도회의 행락객을 위한 술집인 듯 선창가 전망 좋은 곳에 몇 군데 멋 부려 지은 양옥 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원주민들의 가난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266]

형과 떨어져 방황하던 '나'는 대학 입시를 통해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 형의 곁으로 돌아온다. '나'의 강진의 첫인상은 "가난"이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있다. 강진에는 박용탁과 최칠성, 건달 김성구, 별장 남매, 자신의 과외선생이 되어준 서동호 등의 원주민과 이주민 등이 어울려 살아간다. 강진의 '가난'은 이들 중 원주민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래장에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 '나'는 모래장 선원들－강진의 원주민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던 '나'는 장티푸스에 걸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병에서 회복한 뒤로부터 닥치는 대로 강진의 원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런 선택의 기준이나 구별 없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다고 회고하지만, 이러한 그의 발화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는 강진에서의 삶이 "속절 없는 유적(流謫)"(23)의 시간임을 뚜렷하게 자각한 뒤에서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들의 삶 속에 동화되려 하거나 그들과 유대를 나누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서동호'나 '별장집의 오라비 황과 같은 이주민들, 즉 '나'와 같이 이곳에서의 삶을 "유적(流謫)"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동료의식"(

265) 『문학사상』에 연재되었을 당시 소설의 제목은 「그 겨울이었다.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고자 「그해 겨울」로 지칭한다.

266) 이문열, 「하구」, 『한국문학』, 1981.5, 12면.(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함)

28)을 느낀다. 오라비 황과는 “영락과 유적의 분위기”를 공유하며 “유적된 삶을 잇고 있는 사람”(34)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교류할 수 있다면, 건달 김성구는 “공장을 하는 아버지 덕택에 놀고 먹는” 생활이 가능했기때문에 ‘나’는 그와 교류할 수 있다.[267]

후일 강진을 떠나온 ‘나’가 그들 각각의 사연을 ‘강진’에 대한 기억과 함께 하나의 “추상”으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가까이하지 않으려 했던, 강진의 원주민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혹은 그들을 어떤 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억누름의 다른 표현이다. ‘가난’은 1970년대 전(全)공동체적 문제였으므로 ‘가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구속력으로 작용할 만한 어떤 윤리 감각,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등을 내포한다.[268]따라서 강진에서의 삶으로 요약되는 가난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의 ‘추상’으로 밀어두고서 애써 마주하지 않으려는 ‘나’의 태도는, 자기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에 대한 거절이자 거부이며, 이에 대해 사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십여 년이 지난 뒤 강진을 다시 찾은 ‘나’는 윤택하고, 안정적인 삶에 안착한 서동호와 김성구 그리고 요정의 마담이 된 별장집 여인과 재회한다. 부친 소유의 야산이 부동산 투기 붐을 타고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면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김성구나 대기업의 중견사원이 된 서동호의 성공과 별장집 여인의 타락이라는 극명한 대조에서도 드러나듯, 그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이동은 여성-혐오를 통해 달성된다. 이러한 혐오의 실천은 「우리 기쁜 젊은날」에서 ‘학벌’이라는 자본의 획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문제는 가난한 고학생인 ‘나’에게 대학이 “잘못 지어진 옷”처럼 불편했다는 점이다.

---

267) 이는 ‘나’가 최광탁과 박용칠과 관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예컨대, 최광 탁과 박용칠은 배를 다섯 척이나 부리는 “어엿한 선주(船)”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형적인 모래배 선원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나’는 그들과 동료가 되지 않은 것이다.

268)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참조.

> 그때만 해도 가난한 유학생들에게는 당연했던 그 부업은 (…중략…) 아직 풍요의 1970년대가 열리기 전이어서 좋은 자리를 얻기는 돈 많은 부모를 가지는 것 못지않게 어려웠고, 어쩌다 운 좋게 얻게 돼도 그걸 오래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중략…) 대개 부모의 애정 어린 보호와 좋은 교사의 충실한 지도 아래 자라난 모범생들로 이루어진 과(科)라는 동료집단은, 다른 세계에서 그들에겐 낯선 경험과 엉뚱한 지식 사이를 홀로 떠돌다 온 나에게는 애초부터 잘못 지어진 옷과 같았다. 그리하여 끝내 우리는 피투성이 싸움으로 작별하고 만다.[269]

「우리 기쁜 젊은날」(『세계의 문학』, 1981.6)의 '나'는 대학의 과(科)와 문학서클 등의 동료집단과 "피투성이 싸움"을 벌이며 그들에게서 (비)자발적으로 멀어진다. 간과되지 말아야 할 차이는 「하구」와 「우리 기쁜 젊은 날」의 '이동'의 성격이다. '강진'으로부터의 벗어남은 '나'를 강진의 '가난'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었다면, 여기서의 '이탈'은 자신의 가난을 의식하게 하는 대학으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가 스스로를 "가난한 유학생"으로 지칭하는 데서도 드러나듯, 여기서 문제시되는 '가난'은 '나'를 그들과 구별하게 하는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훈이 문학서클과 같은 동료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에는 가난한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가 착종되어 있다.[270] 영훈이 하가와 김형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동성사회적 관계homo-social[271]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난'이 아닌, '문학적 재능'으로 인정해줄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형과 나누었던 정신적 교류는 '나'로 하여금 '민중'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272]

---

269) 「우리 기쁜 젊은날」, 『세계의 문학』, 1981.6, 73-74면. (이후 동일 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함)

270) 여기에는 자신과 달리 유복한 여대생이었던 혜연과의 연애 실패 역시 중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271)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272) 다카다 리에코는 고등교육이 가져다 준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이 청춘기를 발생시켰다는 것, 이 점에서 '청춘은 근대 산업사회의 고학력 남자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김형과 '나'의 교류는 "선택받은 장소에서 선택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남자 사이의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카다 리에코, 김경원 옮김, 『문학가라는 병』, 이마, 2017, 209면.

김형과의 만남으로 '나'는 "서민의 밑바닥 삶을 몸으로 겪었다는" 허위의식 속에서 그들에 대한 "증인"을 자처하고, "민중의 아픔"을 발언하면서 민중의 '대변자'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음을 자각한다. 이제 '나'는 "천부의 권리"처럼 떠들었던 것들이 "오랜 국민형성 교육의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초등학교의 '사회생활'과 중등학교의 '공민(公民)' 및 '일반사회'에서 주입된 관념과 몇 권의 번역서에서 얻은 지식의 단편이 집적된 것일 뿐이라고 냉소한다.

> 민중이란 내게는 어떤 서먹한 추상이었으며, 김형과는 달리, "시대의 강자" 로서가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고 이용당하게 되어 있는 극히 비관적인 추상"이 었다. 만약 내게 애정이나 신뢰가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내가 그들 민중 위에 군림하며 누리는 계층에 끼어들게 되리라는 예측에서 오는 부채감(負債感) 이나 죄의식의 변형이었지, 민중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중략…) 죄스럽게도, 나는 차츰 심한 자기모멸과 원인 모를 부끄러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기껏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소년시절의 충동적인 모험의 연장이며, 추구하는 것 또한 영광과 승리의 동참자로서 나누게 될 기억, 언젠가 빼앗기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노라는, 장차 혜택받는 계층에 끼어들었을 때의 변명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그것이그 무렵 이미 병적인 피로에 빠져 있던 나의 결론에 가까운 자기검토였다.[273]

이 소설이 발표될 시점 (1981.6) 을 고려한다면, 대학의 과 (科) 라는 동료 집단은 당시 '민중'의 문제에 골몰했던 '지식인-문인' 집단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과 '나'는 급부상 중인 '민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나'는 '민중'을 "시대의 강자"가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고 이용당하게 되어 있는 극히 비관적인 추상"에 불과한 존재로 규정한다. 그리고 민중에 대한 '나'의 열정이 민중 자체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아닌, 그들 위에 군림하며 누리는 계층에 끼어들게 되리라는 예감에서 비롯된 "부채감" 혹은 "죄의식"일 뿐이며, 결코 '민중'이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일 수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식화의 과정은 자신의 인간적 유약함이 더 낫다고 느끼기 위하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낙인' 찍는 정상성의 메커니

273) 「우리 기쁜 젊은 날」, 85-86면.

즘을 구현한다. ‘정상성’의 메커니즘과 혐오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마사 너스바움의 지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 혐오는 끊임없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274] ‘

「그해 겨울」(『문학사상』, 1979.12)[275]을 발표하며 이문열은 이 소설이 ‘70년대 자신이 시도해 온 일련의 소설창작의 마무리’이자 다가오는 ‘80년대를 준비하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를 기대한다고 적는다.[276] 이를 고려한다면, 이후 창작되는 이문열의 소설은 어떤 식으로든, 1980년대와 마주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후 이문열은 도리어 그의 과거를 보완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앞서 언급했듯 각 작품이 발표·연재되는 시점과 서사 상의 시간이 불일치하며[277]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연작의 표지가 마지막에 발표된 「우리 기쁜 젊은 날」에 이르러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278] 이 소설이 처음부터 완결성을 지닌 텍스트로 창작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해 겨울」(1979)과 「우리 기쁜 젊은 날」(1981)사이, 1980년대 들어서 보완되기 시작한 어떤 ‘자기인식’의 내용이다.

> 아름다움은 모든 가치의 출발이며 끝이었고 모든 개념의 집체인 동시에 절대적 공허였다. 아름다워서 진실할 수 있고 진실하여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

274) ‘혐오’와 정상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4장 참조

275) 연재 당시 소설의 제목은 「그 겨울」(1979.12)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혼란을 피하고자 「그 해 겨울」로 지칭한다.

276) “觀念的이란 말처럼 애매한 것도 없다. 그리고 한 作家의 性向이 한마디로 규정되는 것도 곤란하다. (…중략…) 이로써 나는 올해 생각해보고자 했던 네 개의 주제—집단·神·권력·美 — 에 대한 내 견해를 마감한다. 피상적이었을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피로한 연습이었다. 그 피로가 다가 오는 80년대에는 보람되어 피어날 것도 기대해본다.” 이문열, 「그 겨울」, 『문학사상』 85, 1979, 345면.

277) 권영민은 이 소설이 삼부작의 소설로 묶이게 된 사실을 두고 “「그해 겨울」을 강의실에서 함께 읽었던 당시의 필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영민, 「탐색의 과정, 그 소설적 미학」, 『젊은 날의 초상』, 민음사, 1981, 311-312면.

278) 『세계의 문학』(1981.6)에 연재된 「우리 기쁜 젊은 날」에 이르러서야 ‘젊은 날의 肖像 Ⅱ’라는 부제를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치를 향해 열려 있고, 모든 개념을 부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아름다움의 위대함이 있다-. ……내 모든 외형적인 방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나를 사로 잡고 있는 예감 중의 하나는 내가 어떤 예술적인 것-아름다움의 창조와 관련 있는 삶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입으로야 무어라고 말하든 아름다움은 내가 마지막까지 단언하기를 주저하던 가치였다.[279]

'나'는 대학을 떠나 경북 산촌으로 내려가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죽음충동에 이끌린다. 해발 칠백 미터의 창수령에 올라 "처절한 아름다움"에 압도당한 그는 "어떤 예술적인 것 -아름다움의 창조와 관련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예감을 갖는다. 당시의 '나'는 공허를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무모"해보였으므로 그 예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 후 동지의 배신으로 19년 동안 정치범으로 장기복역했던 과거를 지닌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나'는 배신자를 죽이기보다, 자신의 "오랜 망집"을 죽이는 쪽을 택한 노인과의 만남을 계기로, '나'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삶', 문학(예술) 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이처럼 '나'가 방랑의 끝에서 '예술'이라는 숙명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십 이 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회상하는 '나'의 자기인식의 내용이다. 문제는, '문학(예술)'이라는 선택이 강조될 뿐, '나'가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문학이어야하는지 소설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영훈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삶과의 동일시를 통해 보여주려 하는 자기인식은 작가적 '자기'의 정체성을 재귀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여주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과의 다툼 속에서 얻어진 것인지 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설 속에서라기보다 소설의 바깥, '나'와 작가 '이문열' 사이의 동일시를 통해서 정당화된다.

예술의 아름다움을 내면화한 이 주체의 자기인식은 모레티가 지적한 '닫힌 인간의 강렬한 자기인식'에 가깝다. 모레티는 "닫힌 인간"의 형상에 주목하여, 이들의 강렬한 '자기인식'이란 실은 그것이 억압해야만 하는 '충동들의 인식'이라는 역설을 지적한다. 닫힌 인간들의 언명할 수 없는 숨겨진 정체성은 그가 어떤 가치관을 숨겨

279) 이문열, 「그해 겨울」, 219-220면.

서 그것을 침묵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감추려 하는 충동의 강렬성, 그 자체가 그의 개인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공적 삶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예술하는 삶'이라는 숙명을 내면화하는 과정만을 제시하는『젊은 날의 초상』의 교양주체는 자신이 추구할 '가치'(아름다움)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작가적 정체성을 재연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의 내면화가 교양주체의 취약한 정체성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억누르며 그리고 그것의 침묵을 강제하려는 강렬성에 힘입어『젊은 날의 초상』3부작은 추구되고 있다.

이처럼 세 편의 연작을 교양소설의 형식으로 묶은『젊은 날의 초상』은 가난과 정상적이지 않은 삶으로부터 '자기'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방식으로 혐오를 실천하고, 예술의 아름다움만을 절대적 차원에서 긍정하며 자기 정체성의 경계를 긋는다. 이 교양주체의 자기인식의 과정은 실상,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의 내면화를 통해 취약한 정체성을 가리려는 노력이자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애써 사유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전통적 지식인'이라는 특정 계층·성별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해석를 통해 현실과 괴리된 관념 편향에서 생겨나는 결함은 예각적으로 규명되기보다 일정한 범위로 제한·축소되었고, 관념적 추상화를 향한 강렬한 의도의 이면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교양주체의 '자기인식'이 구체적인 어떤 존재들을 부정하는 혐오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예술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긍정의 이면에 자신을 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이 놓여 있다는 것은 "낭만주의적 세계관"[280]으로 '봉쇄'될 문제가 아

280) 당대 비평이 이문열의 초기작에서 간취했던 것은 낭만주의적·예술지상주의적 경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이동하는 이문열 소설의 관념 편향성을 "전통적 동양 문화에 입각한 공동체 사회가 '서구의 충격'에 의하여 와해되어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보았다. 그는 "이문열의 소설이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 혹은 역사의 거친 흐름과 대결하여 극복의 길"을 여는 것에 회의적인 비관주의를 드러내는 문제를 이문열 "개인의 범위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지식 계층 대다수가 여러 가지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공통적으로 지니게 된 결함"이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이문열 소설의 현실과 괴리된 관념 편향의 문제와 추상화를 시도하는 작가적 의도의 이면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젊은 날의 초상』의 교양주체가 예

니라 ‘무엇이 우리를 사람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깊이 숙고되어야 할 문제이다.[281] 이 질문을 강석경의 소설 「숲속의 방」을 통해 살펴본다.

1985년 ‘오늘의 작가상’ 세 번째 수상작인 강석경의 「숲속의 방」은 중산층 여성 대학생의 삶을 통해 젠더화된 인식론의 규범을 비판하고 세계 속에 여성 개인의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1980년대를 여성해방문학운동의 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연구를 통해 강석경의 소설은 새롭게 주목되었다. 운동권 여대생이었던 소양이 다음 세대인 공지영, 김인숙의 소설에 등장하는 운동권 여대생들보다 ‘앞서’ 출현했음을 주목한 연구사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282] 그러나 강석경 텍스트가 선취한 지점, 즉 여성의 성장과 존립에 관한 사유의 의미는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강석경의 소설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거치며 시작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유입’[283] 속에 축적된 ‘여성’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창출된 여성의 자기인식과 자기형성의 방향이 ‘민족’으로서의 여성이기보다[284]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지향한다는 점 등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강석경은 1974년 소설 「根」(『문학사상』, 1974.1)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다. 「오픈게임」(『문학사상』, 1974.11), 「동전

술적 아름다움을 절대적인 차원에서 긍정하려는 의지와 상동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동하,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 『우리 세대의 문학』 1, 문학과지성사, 1982 참조

281)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참조.

282) “학출 여성 노동자는 1980년대 뚜렷해진 노동자 중심의 민중운동의 지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중산층 여성으로 규범화된 여성 정체성에 대한 거부의 상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형상은 민중주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것이었다.”는 이혜령의 지적과(이혜령, 앞의 논문(2016), 421면) “많은 여대생들이 대안적 여성 주체성을 추구”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가출의 시대”이기도 했다.”는 김은하의 지적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은하, 앞의 논문(2017), 16-17면)

283) 2019년 5월 11일 개최된 한국여성문학학회의 학술대회의 주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284) 대표적으로 이효재가 1970년대 후반 ‘창작과비평’과의 교호 관계 속에서 마련한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1979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효재의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김정은, 「전망으로서의 여성과 여성 지성의 ‘자리’:이효재와 조한혜정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참조.

한 닢」(『문학사상』, 1975.6), 「한밤의 나팔수」(『월간문학』, 1976.1), 「달리는 황제」(『문학사상』, 1977.9) 등의 초기 소설에서 강석경은 남성 인물을 화자이자 주인공으로 내세워 산업화 사회 속 비인간화의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작품 세계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첫 장편이 될 「청색지붕의 파수꾼들」(『여성중앙』, 1980.1-1981.2)의 연재를 완료하고, 자전적 인물인 '정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이사」(『문학사상』, 1981.2) 를 발표한 1981년은 그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강석경은 여성 인물을 텍스트 전면에 내세워 그녀가 놓여있는 사회구조와 상황의 문제에 대해 발화하기 시작했다. 이 절의 서두에서 제기한바, '여성교양소설의 불가능성'이라는 함정은, 이 말하는 여성의 출현으로부터 상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당대 비평을 비롯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숲속의 방」을 '교양소설'의 관점에서 읽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소양의 '자살'로 마무리되는 소설의 결말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합일/화해'를 중시하는 교양소설의 규범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겠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여성교양소설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주체로서의 '여성 개인'의 존재가 1980년대 새로운 정치적 주체에 대한 상상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강석경의 소설에 대한 비평계의 해석에서 여성에 대한 '무지'가 문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 강석경의 소설은 당대 문학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하고자 기획된 특집 논문[285]이나 기사[286]를 통해 중요한 작품으로 거론되고는 했다. 강석경의 소설이 논의가 필요한 작품으로 판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강석경 소설의 성

285) 『문학, 현실, 상상력- 우리세대의 문학 4』, 문학과지성사, 1985의 특집기획 "80년대 소설이 가고 있는 길"이나 『동서문학』(1986. 9)의 기획 "문학의 거울에 비친 우리시대의 인간탐구" 등에서 강석경의 소설은 중요한 작품으로 거론된다. 김윤식의 글 「중간세대의 문학과 그 형식」, 『세계의 문학』, 1984 여름은 특집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지만, 이문열과 김성동, 김원우, 강석경을 '중간세대' 작가로 명명하며, 70년대 문학과는 달라진 80년대 문학 특유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286) 「84년에 건다(12)」, 『매일경제』, 1984.1.30.

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와 관계없이 강석경이 그리고 있는 여성문제에 관한 의도된 무지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당시 비평가들은 강석경의 소설은 크게 둘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밤과 요람」(『서울신문』, 1983.2.1.-2.27),[287] 「낮과 꿈」(『세계의 문학』, 1983 여름) 등에서 드러나는 자기파괴적 의지를 드러내는 세계가 그 하나라면, 「폐구」(『작가』 3, 1982.7) , 「거미의 집」(『문학사상』, 1983.2)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소설의 세계가 다른 하나다. "강석경 소설의 본령이 성장소설"인지(김치수) "자기파멸을 향한 심미의식"이자 "자기파멸의 형식"(김윤식)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자기파괴적 지향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기록이 강석경 소설의 특질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강석경의 소설이 '여성의 현실'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괄호 속에 묶은 채, 고통의 원인을 여성의 현실이라는 구조와 연결하지 못하는 비평적 맹목이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강석경의 소설에 대해 "현실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나[288] 냉철한 "역사의식"을 결여하였다는 지적,[289] 심지어 "유치한 선민의식"[290]이라는 과도한 비난이 주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의 현실을 다루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문제, '여성'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제기 자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속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91] 아울러 이들의 해석에서 드러나는 여성에 관한 인식론적 폐제foreclos

287) 연재 당시의 제목은 「세인트 써니」였다. 1983년 소설집 『밤과 요람』으로 출간하면서 「밤과 요람」으로 개제된다.

288) 김치수, 「고통의 기록과 절망의 표현」, 『밤과 요람』, 민음사, 1983, 283면.

289) 진형준, 「순수 탐구의 드라마-강석경론」, 『문학, 현실, 상상력- 우리세대의 문학 4』, 문학과지성사, 1985, 151면.

290) 이동하, 「오만과 폐쇄 기질로 관념벽 못 뚫은 희생양-강석경 '숲속의 방'의 자살한 소양」, 『동서문학』, 1986. 9, 69면.

291) 김은실은 1994년 한국여성학회 1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민족담론과 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민족/국가 담론이 페미니즘의 질문 혹은 문제제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속하고 있고, 자신들의 질문이 한국 사회의 규범을 구성하는 지식/진리 체제를 비판하는 정치적 담론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김은실, 「페미니스트크리틱, 새로운 세계를 제안한다」, 김은실 편,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휴머니스트, 2018, 20-21면.

e’ [292]는 주체의 구축이 성별화된 방식으로 전개되던 1980년대 정치적·사회적 현실과 동연하는 ‘정치적인 것’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예외적으로 김윤식은 ‘자기파멸의 형식’에서 강석경 소설의 새로움을 포착하며 소설 속 “여인상”을 조명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는 강석경의 문학을 70년대 소설의 상업주의라 비난받기도 했던 “매력적인 문학”-최인호의 『별들의 고향』(1972)이나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1973), 조해일의 『겨울여자』(1975) 등의 소설과 대비하면서 이들과 달리, 강석경 소설의 여성 인물들의 ‘자기파멸 의지’가 “독자의 사디즘을 의도적으로 막”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여인상을 만들어내는 쪽과 또 그것을 즐기는 쪽이 함께 공범자의 의식을 가졌던 “70년대의 독자들은” 「낮과 꿈」의 ‘나’나 「밤과 요람」의 ‘지선희’가 창녀가 된 원인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93] 김윤식의 분석은 앞서 언급한 동시대의 다른 비평가들과 달리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역량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울뿐더러, 「숲속의 방」이 발표되기 전의 시점에서 “징후와 비슷한 수준에 있기에 죽음에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자기파멸의 형식’이 “조만간 어느 탈출구를 찾아낼 것”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확했다. 그러나 문제는, 「낮과 꿈」, 「밤과 요람」에 대한 고평이 「폐구」나 「거미의 집」을 강석경의 대표작으로 뽑을 수 없다는 가치판단 위에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김윤식은,

---

292) 버틀러는 비평가의 주체 입장 (subject position)을 비롯한 자신의 용어를 협상하려 하는 바로 그 개념적 장치 자체에 권력이 녹아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권력의 장에서 이러한 비평 용어는,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된 비평이라는 전제조건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토대를 구축하는 이론적 움직임이 승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폐제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를 조사해야”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Judith Butler, ‘Contingent foundations : feminism and the question of “postmodernism”’,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1992. pp.3-21.

293) 6·25로 인해 빚어진 여인상의 퇴폐적 모습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타율적이요 숙명적이었다. 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오면 비록 퇴폐에로 흐르는 매력적인 여인상이 상당한 자각적인 상태이긴 하나 전쟁의 상흔에 그 타락의 근원이 있었다. 이러한 단계의 시대상에서 만들어진 여인상은 …값싼 동정심을 바닥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상을 제시하는 작가의 의식이 알게 모르게 제약을 받았으며 이 사정은 독자 편에서도 적용되었다. 말하자면 여인상을 만들어내는 쪽과 또 그것을 즐기는 쪽이 함께 공범자의 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김윤식, 「중간세대의 문학과 그 형식」, 『세계의문학』 1984 여름, 74면.

「폐구」, 「거미의 집」과 같은 성장소설이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묘사해 보임으로써그 개인의 눈뜸이 사회적인 것에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교양소설의 규범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그가 이 소설들을 "단지 한 개인의 자전적인 묘사를 통해 개인의 유년기 심리적 외상을 드러내는 심리소설"에 멈춰 있다고 본 것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처럼 "시민계급"의 인물이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고비 같은 것"에 맞서 "뒤틀린 자기세계를 찾는 인간의 성장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김윤식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참다운 교양소설'이란 시민사회로의 변화라는 정치적 현실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 성숙해가는 '개인'을 요체로 하는 서구적·고전적 의미의 교양소설이다. 이를 역으로 참조한다면, 여성교양소설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역시 '역사적인 변화의 계기로서 파악될 사회'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여성 개인'의 존재가 가장 먼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94] 그러나 세계와 관계하며 교섭하는 과정에서 세계 속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이 '여성 개인'의 존재는 1980년대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온하다. 「숲속의 방」(1985/1995) 을 둘러싼 해석에서 '여성'에 관한 인식론적 폭력이 작동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남호의 평문 「회색지대의 진실」은 '소양'을 '개인주의자'로 규정함으로써 「숲속의 방」의 의미를 개인주의자의 '회색지대'라는 문학 (사) 적으로 고립된 영역에 위치시킨다. 그에 따라 한 명의 '시

294) [교양소설의-인용자] 주체는 철두철미 선택적인 삶의 계획과 상이한 경력을 통해서 다양한 목표와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미래 속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 점차 형성된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속한 영역이나 그 영역의 특수성에 의해 파악될 수밖에 없는 주체들이 사회와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각각의 주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이 수행하거나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의 합계가 자신의 정체성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이 자신의 정체성인지에 대한 물음과 대면하게 된다. 이때 주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의 독특성을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과 조화롭게 일치시킬 경우 교양이 성취된 것으로 여겨졌다. 고규진, 「교양소설 개념의 문제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 대 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79, 한국독어독문학회, 2001, 55면.

민’으로 사회와 교섭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여성-개인의 분투는 충분히 의미화되지 못한 채 지워졌다.

「숲속의 방」은 소양이라는 심판하고 단죄하는 성향이 강한 여대생이 학교, 가정,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삶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끝내 자살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피상적으로 볼 때 소양은 지극히 안정된 환경을 누리고 있다.…소양은 참혹한 방황과 고통 속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소양이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소설의 일차적 의도이다. 이 과정에서 80년대의 젊은 풍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기존 인식의 허구성이 날카롭게 노출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가치관이나 단순한 민중 논리로서는 포착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보다 진실된 삶임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소설의 궁극적 의도이다.…(중략)…현실의 실재 영역은 거의가 회색지대이다. 이분법적 인식 논리 아래서 회색주의자는 가장 비겁한 삶이 되지만 진실은 양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회색지대에 있다. 소양의 처절한 방황과 절망은 그 어느 극단도 진실로 인정할 수 없는 다양성 때문이었다. 이 다양성이란 달리 말해서 회색주의이다. 따라서 소양의 처절한 방황은 회색지대에 진실이 있음을 밝히려는 노력이었고 그 참혹한 죽음은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다.[295]

이남호는 소양을 할머니-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제3세대”로 규정하면서 소양이 안주할 좌표”(244)가 보이지 않는다며, 어느 곳에서도 “소양이 찾는 진실은 없다”(246)고 단언한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평자는 소양의 자살과 관련된 ‘진실’이 아니라, “단순한 민중 논리로는 포착되지 않는 현실”을 강조한다. 소양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보다,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는 해석 방식은, 「숲속의 방」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발생한 한 여대생의 자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서도 반복된다.

지난달 22일 동작대교부근 한강에서 투신자살한 시체로 발견된 박혜정 양(서울대 국문과4) 박양은 잇단 서울대생의 분신자살을 지켜보며 “5월은 회색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달”이란 말을 남긴채 친구들과 헤어진 뒤이틀 후 시체로 발견됨으로써 대학사회에서 ‘회색인’의 존재와 아픔을 극명하게 노출시켜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지난 3월초에 나온 강석경 씨의 소설 숲속의 방의 여주인공 ‘소양’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역시 ‘회색인’을 용납지 않는 현실에 저항하는 것으로 묘사돼있어 문단에서

295) 이남호, 「회색지대의 진실」, 『숲속의 방』, 민음사, 1986, 242면, 256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296]

당시 기사는 대학생들의 분신자살을 목도했던 '박혜정'이 "5월은 회색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달"이라며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한다. 박혜정의 자살과 '소양'의 죽음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죽음은 "대학사회 에서 '회색인'의 존재와 아픔"을 노출시킨 사건으로 뭉뚱그려졌고, '회색인'이라는 수사 속에 '운동에 투신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죽음의 이유는 고정되었다. '운동'이라는 정치적·사회적 현실과 고투하며 갈등했던 '여성 개인'의 이름은 지워지고, 이데올로기화 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갈등하는 '회색인'만이 주인공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80년대적 현실의 지도 위에는 정직한 젊음이 위치할 좌표가 없다"는 이남호의 결론이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 결론은 소양의 좌절과 방황에 '여성'을 지운 '80년대의 젊음'이라는 대표성을 부여하고, "극단적 저항주의자도 되지 못하고 비정한 현실주의자도 되지"못한 "평범한 현실주의자"로 미양을 폄하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소양을 향한 '개인주의자'라는 호명은 소양이 운동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는 점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소설이 '여성'개인주의자의 서사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소거하는 탁월한 수사가 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 개인'의 존재와 삶의 기반을 "제3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는 구체적 현실 속에 이들이 살아갈 자리를 '박탈'하는 정치적인 것의 작동방식을 구현한다.

'여성은 어떻게 역사적 변화의 계기가 되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자, 당대 비평계는 '여성'의 폐제로 응답했다. '여성 개인'이 아닌 '회색인'을 통해 정치적 기능의 영역을 일방적으로 구축하는 행위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미리 폐제 foreclose 하는 것으로, "주체의 지위를 둘러싼 정치적 경합을 즉각적으로 묵살"하는 전략이기도 하다.[297] 강석경의 소설을 둘러싼 비평적

296) 「회색인의 죽음 그린 강석경 소설 「숲속의방」화제」, 『동아일보』, 1986.6.3.
297) Judith Butler, op.cit., pp.6-7.

해석에 작동하는 이 여성의 '폐제'는 여성 개인을 식별불가능하게 만드는 인식론적 폭력의 한 실천으로서, 여성교양소설의 불가능성이라는 예정된 결과를 위한 조건이 된다. '여성-개인'의 존재와 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이 폐제를 해체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유입'[298]과 '여성의 인간화'라는 전세계적 의제가 제3세계 한국의 여성 작가의 '여성'에 관한 사유 속에서 교차된 결과, '젠더-여성은 어떤 시점에 인간으로 인식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 한국의 지식장은 여성억압이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제2의 물결'과 더불어 큰 변화를 겪는다.[299]

특히 1975년 UN을 통해 '세계여성의 해'가 선포되면서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계나 제도, 조직의 구성, 의식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일찍부터 여성교육과 여성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를 비롯하여[300] 한국의 여성문제를 연구하던 지식인들의 "집합적/학술적 실천"을 통해 1970년대는 "지식에 내장된 가부장 성에 도전하며 이론의 급진적 정치화를 통해 페미니즘 이론의 축적"을 이룰 수 있었다.[301] 이렇게 축적된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298) 2019년 5월 11일 개최된 한국여성문학학회의 학술대회의 주제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에서 빌려온 표현이다.

299)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240-242면 참조.

300)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교육을 이수한 지식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1976년 7월 24일 여성사회연구회(초대 회장 윤후정)가 창립된다. 1977년 여성학자 윤후정, 이상화, 장필화 등이 중심이 되어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1970-8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에 기여한 자세한 사항은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의 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한국여성학회, 2009; 김영선, 「1970년대 한국여성학 학술운동의 계보와 장소성」, 『현상과인식』 39,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이정자, 「1970년대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교육」, 『젠더연구』 19,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4; 김인혜,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참조.

301)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일찍부터 주도했던 대화모임의 결과물인 아카데미 총서 시리즈 10권(1975), 이효재가 엮은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1979), 이화여대 여성학연구소의 『여성사회철학』(1979)은 대표적인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영선,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

이화여대가 여성 학을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편입하면서[302] 1980년대 '여성'에 관한 지식 (장)은 제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활발하게 읽히기 시작한다.[303] 당시 보부아르는 1950년대 실존주의 사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인-문 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으로 한국에서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명성에 비해 번역은 미흡한 상태였다. 1970년대 중후반, 보부아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를 비롯하여 그의 소설과 수필이 다양하게 번역되었다.[304]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제2의 성』이다.[305] 보부아르는 여성이 '몸'의 존재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맺는 관계란 문화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사실(1부), 신화(2부), 체

실천과 여성학」, 『여성문학연구』 37, 한국여성문학학회, 37, 2016, 39-62면을 참조. (본문의 인용은 이 논문의 41면.)

302) 1977년 이화여대에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었고, 1982년 이화여대 여성학 대학원과정이 설치되었다. 1988년 6월 총 30여 개 대학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이듬해 봄 학기에는 설문에 응한 대학 중 11%인 61개 대학에서 여성에 관한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Cho Hae-joang, "The "Woman Question" in the Minjok-Minju Movement : A Discourse Analysis of A New Women's Movement in 1980's Korea", edited by Cho Hyoung & Chang Pil-wha, Gender Division of Labor In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94, p.332. (이혜령, 앞의 논문, 423면에서 재인용)

303) 『창작과비평』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1977년 『창작과비평』여름호에는 '여성의 인간화'라는 제목으로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에 대한 서평이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영자, 「여성의 인간화」, 『창작과비평』, 1977 여름, 693-698면 참조.

304) 당시 보부아르를 번역했던 여성 번역가-연구자들은 보부아르가 '여성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주목하여 '인간으로서의 여성 탐구'라고 하는 보부아르의 연구 주제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려 했다. 국내 여성 독자의 정서를 간파한 출판계의 감각에 따라 보부아르의 저작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은 위기의 여자 였다. 이선미의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의 소설」,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과 박지영의 「'위기'의 여자들 :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번역과 1970년대 젠더/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회, 2016의 연구는 1974년과 1975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를 중심으로, 보부아르가 국내 작가 박완서(이선미)와 비평가, 번역가를 비롯한 대중 독자에게 읽혀 온 맥락(박지영)을 고찰하고 있다.

305) 『제2의 성』은 1955년 중역을 통해 국내에 부분 번역된 상태였고, 1973년 조홍식에 의해 을유문화사의 '세계문학전집'의 한 권으로 이름을 올리며 상·하 두 권으로 번역되었다. 『제2의 성』의 번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혜란, 「『제2의 성』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장을 참조.

험 (3부) 의 차원에 놓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이 과정에서 보부아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기본적인 요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형성하려는 상황"[306] 사이의 갈등이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상황'[307]을 자각적·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본질적인 존재 로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주체'[308]가 되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성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강석경의 첫 장편『순례자의 노래』(까치, 1981)[309]는 보부아르에 대한 공명에서 쓰인 텍스트지만,[310] 섹스/젠더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젠더화된 '여성-되기'에 관한 전복적인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주제의 토론을 준비하며, '나'는 "보봐르의 제이의 성(性) 도 들쳐봤고 일선 여교사의 수기까지 구해 보았다. 나의 장래희망은 여학교 카

---

306) 시몬느 드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 조흥식 옮김,『제2의 성(상)』, 을유문화사, 2004, 30면.

307) 보부아르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상황'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주의적인 의미에서 '상황'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세계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보부아르는 '상황'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타자와 시간, 공간 그/녀의 사실성이 낳은 다른 산물과 관계하며 이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지 설명하려 한다. 우루슐라 티드, 우수진 옮김,『시몬 드 보부아르, 익숙한 타자』, 앨피, 2007, 20-21면, 64면.

308) 신옥희,「타자(他者)에서 주체(主体)로」,『한국여성철학』 11, 한국여성철학회, 2009, 122면.

309) 이 소설은『여성중앙』에 1980년 1월부터 1981년 2월까지「청색지붕의 파수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고, 연재를 마친 1981년 4월 『순례자의 노래』(까치)로 개제・출간되었 다. 이 소설은 1989년 청색시대 (한벗)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재출간되기도 하였다. 재출간의 과정을 상업성과 연결지어 비난하던 짤막한 기사를 제외한다면, 이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출된 바 없었다. 작가의 첫 장편이었던 만큼 형식상의 미숙함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소설의 문제의식과「숲속의 방」이 맺고 있는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감안한다면 순례자의 노래 는 주목되어야 할 텍스트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강석경의 단편에 대한 주목과 달리 이 소설에 대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은 이 소설이 '여성지'를 통해 연재되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310) 강석경은 이 소설뿐 아니라 에세이 곳곳에서도 보부아르의 저작을 애독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애독하는 책 중의 하나인『제2의 성』을 얼마 전 다시 읽게 되었다. 그 속에 '여자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의 하나는 체념'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보브아르는 폼페이 시 유적으로 발굴된 시체를 그 예로 들었다.…" 강석경,「수치심과 옷」, 모윤숙 외,『긴모리 자진모리 -이화 100년 대표 에세이』, 미완, 1986, 13면.

운슬러였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선 여자가 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주변을 둘러봐도 여자 이기 때문에 짊어진 업(業)과도 같은 고통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 모든 것은 여자가 여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악이며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관념이 아닌 체험에서 절감한 이러한 생각으로 교육학을 택한 것이니만큼 이 주제에 골몰했다.[311]

이 소설은 주인공 경임의 시선에서 '청색 지붕'의 하숙집의 '젊은' 여성 인물들에게 요구되는 젠더화된 여성-되기라는 '상황'과 이로 인해 생겨 나는 갈등을 서사화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312]라는 보부아르의 문장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경임과 경임의 언니들이 경험해야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짊어진 업 (業) 과도 같은 고통"의 체험을 언어화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자, 여학교의 상담교사가 되어 "여자의 굴레"[313]를 아이들이 내면화하지 않게 하고 싶다는 열망을 지속시키는 동력이다.

경임의 면모 외에도 인간적 번민과 갈등 끝에 가톨릭에 귀의하기로 결심하는 혜선언니나 소설을 쓰기 위해 회사를 사직하는 소설가 김동란 등 인물 전반에서 보부아르의 그림자는 쉽게 감지된다.[314]보다 주목을 요하는 곳은 경임이 보부아르를 경유하여 버틀러와 조우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과외 첫날부터 훈장처럼 언성을 높였다. 어린아이들조차 그토록 편협하다니. 아니 그것은 어른들, 기성 세대의 잘못이다. 이 집에서만 하더라도 …여자아이들은 남성 위주의 기존 질서에서 식물적으로 자란다. 보봐르가 말한대로 여자로서 키워지는 것뿐이다. 그것은 아이들 도덕 교과서를 잠깐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는 되도록 깊이 뒤로 앉고…여자일 때에는 손을 겹쳐서 무릎 위에 놓기도 합니다."글쎄 여기에 왜 "여자"가 들어가야 한담.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여자이기 전에 인간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315]

---

311) 강석경, 『순례자의 노래』, 까치, 1981, 18면.
312) Simone de Beauvoir, 앞의 책, 392면.
313) 강석경, 앞의 책(1981), 87면.
314) 교수자격시험을 통과한 보부아르는 국립고등학교 철학교사가 되어 12년간 재직했다. 1943년 '문학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교사직을 사임한 보부아르는 그 해 첫 소설 『초대받은 여자』를 발표하는데, 김동란 역시 회사를 사직하고 몰두했던 소설 「회생」이 당선된 것으로 그려진다.
315) 강석경, 앞의 책(1981), 63면.

“남성 위주의 기존질서에서” 여자아이들이 이미 “식물처럼” 자라고 있는 상황을 목도한 경임은 ‘여자이기 전에 인간인 여자’를 생각할 수있는 가능성을 묻는다. 경임의 물음을 버틀러식으로 바꿔보자면, ‘젠더로 만들어진 그가 어떤 시점에 인간으로 인식되는가’[316]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임에게 보부아르가 그러했듯, 버틀러에게도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은 중요했다. 버틀러는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상황’을 통해 ‘여성’이 선험적으로 확립된 본질이 아니라는 보부아르의 주장을 사유의 단초로 삼아 섹스/젠더의 이분화된 경계를 심문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적 강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은 ‘섹스’에서 ‘젠더’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 ‘문화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몸’에 기댈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섹스’ 역시 “젠더만큼이나 문화적으로 구성된” “정의상, 지금까지 줄곧 젠더”였다는 전복적인 사유가 가능해진다.[317] 버틀러와 경임은 섹스가 젠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젠더도 섹스를 반영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보부아르의 사유를 초과한다. 이 초과를 통해 도달하는 곳은 탈자연화 된 수행으로서의 젠더, 패러디로서의 젠더라는 개념이다.

>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져야 할 때도 있다. 이 해의 마지막 몇일을 남겨 놓고 우리는 모두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저마다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중략)…나도 무대에서 퇴장하듯 이 집을 떠나리라. …이 집에서의 체험에 감사할 작정이다. 여러 형태의 삶을 보았고 성숙했다.…이 모든 것이 만남으로 얻은 것이니 어찌 만남을 헛되다 하랴.…(중략)… 나는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려다 손바닥만한 종이조각을 발견했다. 무얼까.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내 방으로 걸어갔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앞에서 나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한국문예사 응모소설「회생」, 당선을 축하합니다.[318]

소설의 결말에 이르자 청색지붕의 인물들은 나환자촌으로, 블란서인 띠보와 동거를 약속한 곳으로, 효창운동장이 내려다보이는 맨션아

31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0), 293면.
317) 위의 책, 1부와 3부 참조. 인용은 99-108면.
318) 강석경, 앞의 책(1981), 274-275면.

파트로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흥미롭게도 경임은 이 인물들의 헤어짐을 “저마다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한 ‘무대’에서의 “퇴장”이라고 의미화한다. 이는 ‘청색지붕’의 하숙집에서 이 여성-개인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 즉 젠더화 된 여성이 되라는 요구와 이로 인한 갈등을 한 편의 연극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청색지붕의 ‘젊은’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타자인 여성으로의 성장의 각본에 충실했던 무대 위의 배우들로 변모한다. 여성 인물들의 행위를 규범적인 젠더화 과정에 대한 패러디적 수행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 지점에서 소설가 김동란과 그녀의 소설 「회생」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 김동란씨는 너무 관념적이 아닌가요?
>
> 관념?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소한 사고는 모두 관념이라고 못박아. 그건 사고의 게으름이야. 도대체 모든 인간이 어떻게 똑같이 단순할 수 있단말 야.…내게 절실하지 않은 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중 략)…할 일이란 그때그때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겠죠…문학이 내 종착역이라는 것.…나는 이제 글로써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319]

이마에 핏발이 드리”워질 만큼 “열렬”하고 절실한 문학에 대한 동란의 태도는 경임으로 하여금 종순과 수자언니 등 타인의 의지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한다. 이 점에서 동란은 경임의 자기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란은 “사랑 이전에 강요된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도 싫어” 하는 개인주의자로서 ‘운동’에의 경험과 그로 인한 환멸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양의 전신(前身)이며, “자신에게 생소한”것을 “관념이라고 못”박는 “사고의 게으름”을 경계하고 그때그때의 ‘절실한 것-“내면의 리얼리티”(109)를 추구하는 과정을 소설 쓰기와 동일시하는 작가 강석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모들을 고려한다면, 김동란과 그의 소설 「회생」을 강석경의 텍스트 속 미장아빔(Mise an abyme)[320] 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강석경의 텍스

---

319) 강석경(1981), 위의 책, 109-110면.

320) 어원상 미장아빔(Mise an abyme)은 ‘마주보고 있는 거울 속에서 동일한 이미지가 무한히 반복되는 양태’를 의미한다. 특히 “어떤 이미지가 자기

트가 전개되는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321]

첫 장편이 될 소설의 연재를 완성한 강석경은 뒤이어 자신의 이력을 상당 부분 반영한 소설 「이사」(『문학사상』, 1981.2)를 발표했다.[322] 주인공 '정인'은 "문학세계사"의 주간인 은사의 지도로 "시에서 소설로 전향"한 뒤신춘문예를 통과한 소설가다. "가난하고 약하며 제각기씩 응어리를 지닌 채 살아있는 가족", "가족이라는 고통"을 피해서 "혼자 있을 방"[323]을 필요로 하는 정인은 강석경 소설 고유의 여성상을 구현한다. 그리하여 '정인'은 「북」(『기독교사상』, 1982.8)에서 자신을 옥죄는 동생 욱에 대한 의무감과 고향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원하는 지수이거나, "집에서 오 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의 방을 얻으면서까지 "혼자"이기를 원하는 「날궂이」(『현대문학』, 1982.10)의 인숙,[324] 남은 전 재산을 걸어 계약한 집이 지상에서는 부재하는 집이었음을 알게 된 「지상에 없는 집」의 수옥 (『세계의 문학』, 1984.봄)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작가는 이 '정인'들을 통해 여성이 한 명의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존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말할수 있었다.

김동란의 '소설가'로서의 출발을 알린 소설 「회생」은 '나'-여성이라는 발화 주체의 출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81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강석경 소설의 변화를 집약한다. 소설 속 소설 「회생」은 "언어를 통해 내 관점과 보편성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세계를 재조직할 수 있는 '나', 그리하여 사회와 교섭할 수 있는 '나'-여성으로 회생한다.[325] 다만, '나'-여성이 사회와 어

자신 속에 더 작은 자기 복제 이미지를 포함하게 되는 형식적 기교"로서 주제를 압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김종기, 「예술작품에서 지시성의 문제」, 『새한논총』 76, 새한철학회, 2014 참조.

321) 이 점에서 경임과 동란의 관계는 핵심적이다. 요컨대, 경임을 보부아르에 대한 공명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면, 동란과 그의 소설 「회생」은 보부아르로부터의 반향을 의미한다.

322) 「청색지붕의 파수꾼들」의 연재를 마친 시점과 「이사」를 발표한 시점은 1981년 2월로 동일하다.

323) 강석경, 「이사」, 『밤과 요람』, 민음사, 1983, 158면.

324) 강석경, 「날궂이」, 『숲속의 방』, 민음사, 1986, 232면.

325) 젠더를 '언어의 요소'로 인식한 모니크 위티그는 여성이 소설을 통해 발화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언어를 통해, 발화를 통해 비로소 그

떻게 관계 맺으며 교섭할 수 있는가에 대해 『순례자의 노래』는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 「숲속의 방」이 창작되어야 했던 이유이다.

1985년 가을, 강석경은 계간 『세계의 문학』을 통해 중산층 가정의 교육 받은 자매들의 이야기인 「숲속의 방」을 발표한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역사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는 사회, 이 사회와 교섭하며 관계하는 두 명의 여성을 출현시키면서 여성교양소설의 가능성을 실현한다. 중요한 것은 이 자매들의 교양소설이 교양소설의 주어진 문법을 사용하되, 개인과 사회의 불화를 견딜 수 있는 '형성'의 결과로 "여러 사회적 형태의 박탈"[326]에 취약한 '너'와 '나'는 어떻게 이 세계 속에 '함께' 살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물음을 제안한다는 점이다.

소양이 "붉은 꽃무리에 익사할 것"[327]만 같은 느낌에 이끌려 휴학했다는 사실은 가족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양만은 소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미양은 소양의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일기를 읽고, 소양의 행적을 따라

주체가 된다는 것"은 "성별화되지 않고,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젠더가 여성의 존재론적 사실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주체성을 박탈하려는 항상적인 시도에 조응하는 식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모니크 위티그, 허윤 옮김, 「젠더의 표식(1985)」,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이성애 제도에 대한 전복적 시선』, 행성B, 2020, 177-178면.

53) 「숲속의 방」은 『세계의 문학』 1985년 가을호에 발표되었고, 이듬해인 1986년 3월 15일 동명의 소설집 『숲속의 방』에 수록, 출간되었다. 제10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986년 6월 9일이다. 『숲속의 방』은 출간 3개월 만에 2만 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올랐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7판을 인쇄할 만큼 큰 호응을 받았다. 다른 각도의 반응이었지만, 문단 안팎에서도 이 소설을 주목했다. 이 소설이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기성 작가라고 하더라도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못한 '신인'에 해당하는 이의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강석경은 1974년 등단 이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온 기성 작가로, '이미' 작품 집을 출간한 상태였기에 선정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선정은 『세계의 문학』의 편집위원이자 '오늘의 작가상' 심사위원이었던 김우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젊은 날의 고뇌·방황 그린 작품 인기」, 『동아일보』, 1986.7.2.; 「왕성한 활동 여류작가 폭넓은 주제」, 『동아일보』, 1986.8.13.; 「오늘의 작가상 선정 구설수」, 『매일경제』, 1986.6.12.

326)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김응산 옮김, 『박탈』, 자음과모음, 2016, 23면.

327) 강석경, 「숲속의 방」, 『숲속의 방』, 민음사, 1986, 15면. 이후의 인용에서는 작가, 작품명, 연도만 표기하며, 본문에 그대로 인용할 때는 면수만 표기한다.

그가 몸담았던 공간과 관계했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차 소양의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한다. 이 과정은 미양과 소양이라는 여성주체가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자 할 때, 무엇이 이들의 의향을 가로막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328]

> … 이제 나는 성이다. 나와 객체와의 단절감 때문에. 한땐 타인에게 결코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젠 제법 세련된 주석을 붙일 수 있다. 나는 common people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나와 타인들을 다르게 하는 건 나에게 나라고 불리어지는 이유 뿐일까.
>
> 6월 4일
> 희중은 만날 때부터 내내 양미간을 세운 채 전혀 웃지 않았다.
> 비정한 그런 표정이 싫어서 혼자 떠들다가 희중의 손등을 문지르며 문제점이 뭐야? 물었다.
> —너랑 관계없는 일이야. 내 문제야. 네가 여자라서 말 안 해.
> 무엇보다도 유치해서 흐흥 웃음이 나왔다.[329]

일기에서 소양은 자신을 삶을 규율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소양의 표현대로 그것은 자신이 "commom people"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소양은 '여성'이라는 태생적 조건이 남자친구 희중과 자신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부모의 계급적 조건-"부르주아적 속성"[330]은 명주를 포함한 운동권으로부터 자신이 소외되는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소양의 인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그간 소양이 학생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회의를 보인 이유가 그녀의 '개인주의적 지향'에서 비롯된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로 오독되어 왔음을 보여주

---

328) 권김현영은 '고통에 연대하는 정치와 피해자화'의 문제를 성찰하며,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정, 타인의 고통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지적한다. 미양이 소양에 대해 보여주는 '존중'의 태도가 값진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권김현영, 「성폭력 폭로 이후의 새로운 문제, 피해자화를 넘어」, 김은실 편, 앞의 책(2018), 33-53면.

329) 강석경, 「숲속의 방」(1986), 47-48면.

330) 강석경, 「숲속의 방」(1995), 387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양이 '운동권'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그녀가 실제로 부딪치며 불화하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 어느 날 다방에서 만나 담배를 피는데 남자 종업원이 와서 담배를 끄라고 시비를 한 모양이었다. 사장이 여자가 담배 피는 꼴은 못 본다고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 "소양이는 사장을 부르라고 한참 실갱이를 하더니 지쳤는지 담배를 끄대요. 차는 돈주고 시킨 거니까 마시고 나왔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다방 입구 층계에 앉아 담배를 꺼내 피우는 거예요. 바로 행길에서 노파같이."
> …종업원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은 것은 동행인 네가 동조나 하듯 가만 있었기 때문이다, 같이 앉아 있는 남자도 설득시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종업원을 설득하겠느냐, 이렇게 자기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전말을 보고했 다.… "난 제발 길에선 피지 말라고 했지만 소양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가는 사람들도 쳐다보고 난 소양이 고집을 꺾으려고 그냥 가버렸어요."… 소양인 마치 여권주의자처럼 행동하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유교사회다, 요즘 여자들은 여성해방이니 우먼리브니 떠들면서 남자들을 적으로 몰지만 남녀는 원초이며 모든 것의 종착점이라는 것이 희중의 지론이었다. … 나는 우선 소양이 여권주의자처럼 행동한다는 희중의 말을 반박했다.…[331]

인용된 부분은 「숲속의 방」이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소양이 사회와 불화하는 이유를 명확히 드러낸다. 명주에 따르면 처음 소양은 연극반과 방송반, 판소리반에 들어가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 하였으나 부원들과의 충돌 때문에 활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주체의식 없이 판소리 하나 배우면서 주체의식을 운운"하는 이들과 달리 소양은 "신입생 환영회 날 눈 하나 깜짝 않고 담배를 피워서 사람들을 놀라게"했고, "여자가 대낮부터 술마신다고 시비"(87) 하는 남학생과도 목소리를 높여 싸웠다. 이런 소양을 명주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측면"(89)이 있다며 비난하고, 소양의 남자친구인 희중은 소양이 "극단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또 매사에 부정적이라"고 매도한다.

>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깨우치고 민중운동을 한다고 나서느냐 해요. 또 운동하는 건 좋은데 다른 고통, 갈등도 포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너희들만 의식 있는 인간이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고 너희들이 대항하려는 체제만큼 비인간

331) 강석경, 「숲속의 방」(1986), 99-100면.

적이라고 공박했어요.[332] …그러나 피아니스트로 성공하리라는 야심은 크게 갖고 있지 않았다.

일찍이 소양은 명주와 “함께 데모”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소양은 “데모할 때도 갈등했고 빠질 땐 빠져서 괴로워했다.”(54면) “전위의식”이라는 허울 아래 자신들만이 의식있는 인간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운동권에서는 “다른 고통, 갈등을 포용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양 역시 명주와 희중을 만나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소외된 자는 중시하면서 정신적으로 소외된 자는 외면”하는 운동의 편협 함과 소양이 충돌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소양은 운동권의 체험을 통해 결코 그들의 ‘운동’이 ‘중산층’가정의 교육받은 딸 (여성)이라는 조건이 제한하는 삶의 반경 바깥으로, “자신을 생성해낸 명령”을 거부 하려는 자기의 싸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미양은 소양이 세상과 불화하며 남긴 기록들이 “common people”이 될 수 없다는 소양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투였음을 유일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소양을 ‘존중’하며 그녀가 겪고 있는 사회와의 불화의 의미를 이해한 미양의 존재 덕분에 소양과 세상의 부딪침은 “유치한 선민의식”으로 ‘관념의 벽을 뚫지 못한’[333] 소양의 패배담이 아니라 삶을 규율하는 사회적 명령을 거부하며 ‘자기’를 찾고자 했던 한 여대생의 교양소설이 된다.

한편, 미양이 소양의 싸움을 이해해가는 과정은 미양의 ‘형성’이 이뤄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간 미양은 “불행의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 사람”처럼 “지적인 어머니에 의해 건전한 중산층 집 딸로 교육받았고 부족함도 별다른 괴로움도 없이 성장” (64면) 한 듯 보였다는 점에서 과소하게 이해되 어왔다. 그러나 미양은 소양의 방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며 자기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 속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서 ‘결혼’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숲 속의 방」의 또 다른 여성-교양주체가 된다.

---

332) 강석경, 「숲속의 방」(1986), 42면.
333) 이동하, 앞의 글, 69면.

> 상식적인 면이 있는 나는 그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월의 장미 같은 신부가 되는 구체적인 꿈을 꾸었다. 그것이 여자의 길이 아닌가. 목욕탕의 몸닦아 주는 여자도 나를 소녀 취급하여 남과 조금 다르게, 부드럽게 다루 지만 여태 순결하게 키워 온 젊음과 아름다움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334]

미양은 소양의 일기를 처음 보고 "왜 소양이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335]하는 곤혹스러움을 느끼며 스무 살 때의 자신을 떠올려 본다. 그때 미양은 어머니가 만든 "수놓인 블라우스나 중국식 옷"을 입고, "윤나는 머리를 땋아 성처녀"같은 모습을 하고서 "몇 개피의 담배를 몰래 피우면 이내 체리 한 알 꺼내 먹고 순백한 얼굴로 휘파람을 부는 종마 같은 처녀"였다. 미양은 "문화적인 것에 열등감이 있는 아버지"에게 명문여대의 음악도인 자신이 "어머니 다음가는 동산"이라는 사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겠다는 야심보다 "유월의 장미 같은 신부"가 되는 것을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 미양이 자신에게 부과된 "여자의 길"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날"의 일 때문이 다. 동양화를 그리는 친구의 소개로 찾은 서예실에서 처음 본 그가 쓴 작고 고르지 못한 글씨를 보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미양의 "인생을 뒤흔 들어 놓"을 만큼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불러왔다.[336]

그러나 미양은 자신이 겪은 그날의 일에 대해 동생인 혜양을 비롯한 가족 누구에게도[337] 그리고 남편이 될 최대리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다. 그누구도 미양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

334) 강석경, 「숲속의 방」(1986), 56면.

335) 강석경, 「숲속의 방」(1995), 387면.

336) "…널 안 건드릴 거야. 네가 내게 무릎 꿇을 때까지 손끝 하나 안 댈 거야. 대신 넌 지금 내 앞에서 발가벗어야 해.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모욕을 느낄 테니까." 내가 그를 무시했다고 했다. 나는 관심도 없었다고 냉담하게 대꾸했으나 남자는 그것도 무시의 일종이라고 못박았다. 하긴 난 저능아 같은 인간이니까. 남자의 중얼 거리는 소리를 듣자 온몸에 맥이 풀리는 듯했다. 그 하찮은 한마디가 가져온 결과가 나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강석경, 「숲속의 방」(1986), 60-63면.

337) "언니는 내가 고통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 언니야말로 화초같이 살아온 것 같애. 지금 결과도 그렇잖아. 한 남자의 아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언니는"…뜻밖이었다. 혜양이가 내 고통을 모르듯 나도 혜양의 꿈을 몰랐다. 강석경, 「숲속의 방」(1986), 77-78면.

않았던 것은, 미양 스스로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기를 '선택' 하였기 때문이다. "과거를 현재 속에 옮겨 놓고 현실을 도피하는 편집광이었" 던 그 남자가 "윤리며 의지며 그 모든 현실에 눈가리고 더 이상 성장을 멈춘 정신의 기형아" 가 되었다면, 미양은 과거의 고통에 얽매여 자신을 훼손시키기보다 "두려움 없이 앞만 향해 나아" 가기로 결단한 것이다.[338] 따라서 미양이 최대리와의 '결혼' 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날" 이 미양에게 남긴 깨달음을 통해 좀 더 신중하게 사려될 필요가 있다.

> …나는 환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린 셈이다. 지적인 어머니에 의해 건전한 중산층집 딸로 교육받았고 부족함도 별다른 괴로움도 없이 성장했다. 세상에 깔린 숱한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분명 혜택받은 사람이고 분배의 법칙에 따르자면 그만큼 세상에 빚진 사람이기도 했다.[339]

"그날" 의 경험으로 미양이 깨달은 것은 "건전한 중산층집 딸" 로서 누려온 것들이 쉽게 '박탈'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찬란한 봄날", 잃어버린 육 페니 때문에 "심장이 마르도록" 울고 있는 소년처럼 자신이 받아온 "혜택", 자신이 누려온 "환경" 이 얼마든지 탈취될 수 있으며 자신의 쾌락과 고통은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빚진 것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최대리와의 결혼은 그가 '울고 있는 자신에게 육 페니를 건네' 줄 사람이라는 믿음과 기대에서 내린 결단이었다.[340]

버틀러는 우리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율적 개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쾌락과 고통을 어떤 지속된 사회계 혹은 지속적인 환경에 빚지고 있는 상호의존적인 존재" 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취약성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341] 이러한 버틀러의 설명은 미양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소양의 자기인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미양은 소양의 고통(박탈)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고통(박탈)을 직시하면서 박탈

338) 강석경, 「숲속의 방」(1986), 63면.
339) 강석경, 「숲속의 방」(1986), 64면.
340) 강석경, 「숲속의 방」(1986), 65면.
341)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앞의 책, 23면.

당한 주체로서의 자기인식을 확보한다. 미양-개인의 자기인식의 과정이 소양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미양 자신과 소양의 삶은 모두 사회적 '박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성교양소설이라는 틀 속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이렇게 이루어진 자매들의 자기인식을 통해 이루어진 '형성'의 결과 - 즉, 교양의 이념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미양이 소양의 '죽음'을 의미화하는 방식과 맥락을 주목하여 읽어야 하는 이유다.

> 방바닥은 피로 온통 붉게 물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소양이가 방바닥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얼마 전 내가 사다 준 검은 옷은 피로 온통 젖어 검붉었고 두 손은 펴져 있었다. 입도 약간 벌려 있었으나 피로 얼룩진 장판 위에 누워 있는 소양의 그 모습은 붉은 지도 위에 잠들어 있는 혁명가 같았다.[342]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양을 맞이한 것은 "붉은 지도 위에 잠들어 있는 혁명가"의 모습을 한 소양이다. 소양의 '자살'로 마무리되는 이 결말은 당대의 비평가들이 준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합일/ 화해'를 중시하는 교양소설의 규범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숲속의 방」을 교양소설로 읽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금껏 이 글이 견지하고자 했던 여성교양소설을 사유할수 있는 다른 방식, 다른 관점으로 이 '죽음'을 의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혁명가'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여성들이 '혁명'을 말하는 맥락에 대한 참조가 필요하다.

강석경은 이탈리아의 기자이자 작가인 오리아나 팔라치의 소설 「사과를 따지 않은 이브」(원제: 태어나지 못한 아기에게 보내는 편지)」[343]를 두고 쓴 서평에서 "아름다운 혁명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

---

342) 강석경, 「숲속의 방」(1986), 128면.

343) 강석경은 서평을 통해 오리아나 팔라치의 생애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있다. 그녀의 소개에 따르면, 오리아나 팔라치는 16세 때 이미 기자로 활약하며 여자 기자 최초로 위험한 종전 활동을 하며 베트남전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증명하려했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대회에선 멕시코 군대가 혁신파 학생의 집회를 습격하여 대량학살 하는 장면을 취재 하다 3발의 총을 맞기도 했다. 강석경은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오리아나 팔라치의 소설이 "모든 여성의 은폐된 상처, 존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여성의 성

이 있다. 강석경은 “혁 명적이라는 것은 데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생활을 한다는 일”이라며 오리아나 팔라치가 영위했던 삶의 이력을 “혁명”이라고 총칭한다. 당시 오리아나 팔라치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중요 사건 이나 인물을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거침없고 대담함 으로 큰 이슈가 된 인물이었다. 서평에서 강석경이 옮겨 쓰고 있는 ‘혁명 관’은 오리아나 팔라치의 인터뷰 모음집 『거인과 바보들』(전망, 1978) 에 수록된 오리아나 팔라치의 표현으로, 그녀는 “우리는 혁명가예요. 혁명적이라는 사실은 데모를 한다거나 선동선전문을 쓰는 일은 아니죠. 혁명적인 생활을 한다는 일이잖겠어요? 혁명은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비롯되는 거예요.…나는…어디까지나 오리아나 팔라치예요.”라며 자신의 삶을 근거로 스스로를 ‘혁명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344]

‘삶’과 ‘혁명’을 등치시키는 이러한 방식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참조해볼 것은 강석경이 특별 편집인으로 참여한 『여성해방의 문학- 또 하나의 문화 3』에 실린 좌담 「페미니즘문학과 여성운동」이다. 이 좌담에 참여한 고정희는 “삶이 곧 운동이다, 운동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삶이 곧 운동이라는 인식”[345]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 “해방운동으로 서의 여성문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말하고 있었다.

이상, 오리아나 팔라치와 고정희를 경유한 ‘혁명(가)’의 내용과 방식을 고려한다면, 미양이 소양의 마지막 모습을 ‘혁명가’로 표현한 것은 소양이 “박탈의 체계 속으로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싸움으로 그의 삶을 지속·지탱해왔음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양은 소양의 죽음이 좌절로서의 자살과 그로 인한 종결이었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그것은 ‘자기’가 설 자리를 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마지막 항거이자 ‘몸’ 전부를 건 혁명

서”라 평한다. 강석경, 「사과를 따지 않은 이브」, 『기독교사상』 21-12, 대한기독교서회, 1978, 163-168면.

344) 오리아나 팔라치, 강은교 역, 「反戰·反權力을 위해 싸우는 팔라치」, 『거인과 바보들』, 전망, 1978, 384면. 이 책의 역자인 강은교에 따르면, 이 인터뷰는 당시 『주간조선』 1978년 10월 15일자에 소개된 내용을 재수록한 것이다.

345) 좌담 「페미니즘문학과 여성운동」, 『여성해방의 문학- 또 하나의 문화 3』, 또 하나의 문화, 1995, 24면, 26면.

이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미양과 소양은 각자의 방식대로 세상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놓인 구조와 상황을 인식했고, 그로부터 생겨난 '고통'을 공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던『순례자의 노래』가 여성교양소설의 주체인 '나'-여성이 역사적 변화의 계기로서의 사회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면,「숲속의 방」은 소양의 죽음과 이를 기억하려는 미양, 둘의 관계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소양의 죽음의 의미는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더욱더 폐색적이 되어버린 운동권 문화 속에서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다. 공지영이나 김인숙의 후일담 속 여성들이 90년대가 지나서야 80년대 중후반 운동권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억압하고, 가두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소양의 죽음이 '혁명가'의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지만, 더욱더 폐색적이 되어버린 운동권 문화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소양의 죽음의 의미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346]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작가가「숲속의 방」의 개작을 통해 소양의 죽음의 의미를 보완하는 이유다.

> 최대리는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신문부터 샀다. 두 사람 다 묵계나 맺은 듯 서울을 떠나면서 신문은 물론 라디오 뉴스 한 번 듣지 않았는데 신문을 펼치니 연기가 치솟는 대학 건물 사진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 루탄, 물세례…(중략)…신문 기사로 사건의 앞뒤를 헤아리고 나는 가만 눈을 감았다. 시대의 극으로 달려가는 젊음들. 금요일 밤, 인파를 뚫고 종로 거리를 미친 듯 뛰어가던 소양이와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호를 외치며 허수아비 화형식을 한 운동권 아이들. 두 학생의 분신자살 기도는 나를 전율시켰고 불타는 매트리스가 물결처럼 눈앞에 일렁였다.[347]

---

346) 김은하는 "민주화 이후 1970~80년대 시민 항쟁의 역사가 국가의 기원과 정체성의 서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류의 기억과 배치되고 갈등하는 소수자의 기억 투쟁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하, 앞의 논문, 18면.

347) 강석경,「숲속의 방」(1995), 458-460면.

1995년 개작하여 재출간 된 「숲속의 방」에서는 미양이 신혼여행을 가느라 서울을 떠나 있는 동안 서울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그려진다. 이 사건은 1986년 10월 28일에 있었던 건대항쟁[348]을 가리키는데 당시 전국 각 대학 좌경파 학생들은 '전국 반외세 반독재 학생투쟁연합 발대식' 을 가졌고, "친미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족정부 수립하자,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쟁취하자, 노동 3권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전두환과 레이건과 나카소네 허수아비 화형식을 시행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이 사건에 대해 미양은 최대리와 작은 언쟁을 벌인다. 최대리가 "아직 배우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설정해 혁명가가 되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며 학생들의 과격행위에 회의를 나타냈기 때문인데, 미양은 "현실과 타협하는 기성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나선 것이며, 운동하는 학생들 "전부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학생들을 옹호한다. 이러한 미양의 태도는 1986년의 「숲속의 방」에서 보여주었던 "물질적으로 소외된 자는 중시하면서 정신적으로 소외된 자는 외면"하는 운동의 편협함을 비판했던 미양을 떠올려볼 때, 언뜻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양이 저들을 보며 불현듯 "인파를 뚫고 종로 거리를 미친 듯뛰어"가던 소양을 떠올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양은 소양의 삶을 지속하고 지탱했던 싸움과 운동권 학생의 시위를 "이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며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서술은 소양의 죽음이 '혁명'인 이유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1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와 같은 개작을 시도하도록 작가를 이끈 것은 무엇일까. 이 소설과 관련한 강석경의 언급을 살펴보자.

---

348)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66시간 50분 동안 건국대에서 전개된 학생민주화운동 이다. 전두환 정권 퇴진 요구 시위를 한 뒤 해산하려던 학생 2000여 명을 경찰이 '용공 좌경 분자'라며 학교 건물로 몰아넣은 다음 1500여 명을 연행하고 1288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사상 최다 구속 기록이다. (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26, 접속일 : 2020. 08. 27.)

어느 평론가는 '소양의 절망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썼다는데 개인적이 다, 아니다 유의 평론은 미숙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개인도 그 시대와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도 사회문제로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 벌써 12년 전의 일이지만, 동생은 칼날위에 선 듯 위태롭게 청춘의 형벌을 감내하다 죽음을 택했다. 몹시 영민한 아이였는데 가족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 고, 학교에선 피흘리는 어린 양을 외면했고, 신문에선 서울대학에 못 간모여고 출신의 비관자살이라고 추측을 활자화했고, 학도호국단에선 그 기사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내게 전화해 항의했다. 한 사람의 고통스런 죽음을 앞에 두고 학교의 불명예라니. 그때 나는 알았다. 그 아이를 죽인 건 바로 나이고, 사랑 부재의 이 사회라는 것을. …「숲속의 방」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작가는 왜 소양이를 죽음으로까지 치닫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바로 그러한 물음을 유도하려 했다고 답변했다. 소양의 죽음을 통해 내 청춘의 분신을 장사지냈지만, 이 소설의 진정한 주제는 '구원'이다.…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데 인도 땅에서야 구원을 찾은 내가 잘못된 것인지, 내게 구원을 주지 못한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둘다 잘못된 것인지.[349]

1990년대에 들어서 작가는 「숲속의 방」발표 당시 이 소설을 해석했던 일부 비평에 대한 불쾌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모든 개인을 "그 시대와 실핏줄처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이 '개인'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 사회를 비판한다. 이 글은 「숲속의 방」의 개작이 왜 소양의 죽음을 혁명의 차원으로 의미화하는 데 집중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웅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개작이 1980년대를 넘어선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누구의 삶/죽음이 중요한가?" 혹은 '누구의 삶/죽음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더불어 1980년대의 변혁에 관한 집단적 열망을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349) 강석경, 「나의 작품 나의 얘기-80년대 방황하는 '회색 젊음'」, 『동아일보』, 1990, 11.15. 이에 관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는 강석경, 「화엄의 바다에 갈매기처럼 내려앉아」, 『저 절로 가는 사람』, 마음산책, 2015, 18-21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동생의 죽음을 전달하는 기사는 다음을 참고할 것. 「대학생 투신자살」, 『동아일보』, 1978. 6. 19.; 「학교측 해명 자살한 서강대생 낙방비관 아니다」, 『동아일보』, 1978. 06. 24 등.

1980년대 강석경은 여성교양소설의 기획을 통해 여성 개인에게 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당연시된 지식이 그녀들의 ‘살 만한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폭력적인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문제화한다. 이 세계 속에서 여성의 ‘성장’과 존립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여성의 성장을 ‘몸’의 경험에 가두는 본질주의적 전제와 ‘성장’이라는 보편적 이념이 젠더화된 구조의 역사성을 전유해온 인식론적 토대를 상대화하는 한편으로, 여성교양소설의 주체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성장의 방식과 의미를 논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이유에서 「숲속의 방」은 전 존재를 걸었던 소양의 분투(죽음)와 그런 소양을 기억하는 미양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존립과 성장의 기반이 상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350]

350) 앞서 김윤식이 「폐구」와 「거미의 집」의 한계로 지적했던 문제- “개인의 성장”이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로서 파악”되는 사회적 변화와 연결되지 못한 채 “단지 한 개인의 자전적인 묘사”에 그쳐있다는 판단은 「폐구」의 누나와 남동생, 「거미의 집」의 수영과 숙모의 관계에서 성장의 주체인 ‘나’와 고통을 당하는 ‘너’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2. 소외된 차이들의 연대와 노동자성의 재표명

여기서는 석정남과 방현석의 텍스트를 통해 성차와 계급차를 각인한 인간들의 연대가 제한적으로 표명된 노동자성을 갱신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구조적 타자들의 자기형성(성장)이라는 수행이 남성중심주의적 인간됨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의 자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1980년대는 한국 노동계급 형성에서 핵심적인 시기로[351] 이 시기의 노동소설은 한국 민주화 과정의 노동운동을 관류하는 이념・태도・의식・정념을 표현한 문예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352] 당대 문학 장은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1980년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노동 문학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353] 특히 1987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계급형성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성별 구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노동의 주체와 노동현장에 특권을 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354] 논자들

---

351) 구해근은 해외 한국학자의 관점에서 19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집단적 정체성과 계급의식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는 이 변화가 노동운동의 형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참여하는 문화활동에서도 드러났다면서 이를 197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들이 누적된 결과로 설명한다. 구해근, 신광영 옮김, 앞의 책(2002) 39면.

352) 한국 노동소설은 각 시대의 노동과 노동하는 인간을 표현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과제에 투여된 글쓰기 양식이다. 천정환, (앞의 논문)2017, 130-135면.

353) 1985년 12월 간행된 80년대 대표평론선 3권은 『민중, 노동 그리고 문학』으로 출간된다. 편자들은 책머리에서 이 책에 모인 글들이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며 자본-임노동 관계를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노동, 그리고 그 노동을 행하는 자로서 민중 구성의 중추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문학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김병걸・채광석, 『민중, 노동 그리고 문학 - 80년대 대표형론선 3』, 지양사. 1985, 6면 참조. (이하 『평론선 3』으로 표기)

354) 1987년 노동투쟁은 노동운동의 주요 행위자들의 성별 구성이 여성노동자 중심에서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기점이 된다. 1987년 노동쟁의는 시민사회의 정치역학에 의해 만들어진 갑작스런 정치적 개방의 산물로서 외부 단체의 지원없이 노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해근은 198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여성의 주변화 현상이 당시 한국의 산업구조가 여성이 지배적인 경공업으로부터 남성이 지배적인

은 노동문학이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경제·문화적 소외”의 구조와 현실을 반영하고[355] 그 소외를 지양하는 “해방을 이념으로 하여 새로운 내일을 획득하려는 모든 문학(문화)적 노력”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56] 소외를 극복하려는 변혁의 의지와 불행없는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노동자 재현에는 일군의 규범이 마련되었다. 민족문학주체논쟁을 거치며 노동문학(운동)론자들은 지식인의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지식인의 위치를 투명하게 만드는 대신[357] 노동자(인간)의 몸에 각인된 성차·계급차를 무화한 단일한 존재의 세계관과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358] 이러한 서사적 규범은 역설적으로 노동과 현장으로부터 소외된 주체의 문제를 남겨둔다.[359]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하는 것은 석정남의 텍스트다. 1970년대 여공이라는 상징적 위치에 있었던 그녀는 1980년대 일련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노동(자)문학의 규범으로부터 배제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대’라는 노동자 되기의 규범을 전유하여 기혼 여성 노동자로서, 노동자되기를 수행해나간다. 이러한 그녀의 도전은 이 시대의 노동자성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중화학 공업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라고 본다. 구해근, 위의 책, 234-257면.

355) 이재현, 「노동, 문학 그리고 민주주의」, 『평론선 3』, 지양사, 1985; 현준만, 「노동문학의 현재적 의미」, 『한국문학의 현단계 Ⅳ』, 창작과비평사, 1985 참조.

356) 이재현, 「일과 놀이. 혹은 일과 싸움」, 1984.3.26.

357) 스피박의 푸코와 들뢰즈에 대한 비판을 참고할 수 있다.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잘린드 C. 모리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8 참조.

358) 백진기, 「노동문학, 그 실천적 가능성을 향하여」, 김병걸·채광석 편, 『민중, 노동 그리고 문학 -80년대 대표 평론선 3』, 1985; 김명인, 「지식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문학예술운동1 :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학의 현단계와 문학적 현실주의의 전망」, 『창작과비평』 1988 가을;_____,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학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 1989 창간호 등.

359) 이 문제를 손유경은 “노동 현장의 특권화는 문학에서의 현장성 강화를 수반했다”고 지적한다. 손유경, 앞의 논문(2015), 139면; 노동소설의 현재화를 모색하는 최근의 논의들이 재해석고자 하는 지점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고은, 앞의 논문(2017);천정환, 앞의 논문(2017); 허민, 앞의 논문(2022) 등.

석정남은 1979년 동일방직 시위의 경험을 수기로 널리 알린 여성 공장노동자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목표로 한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전략이 주로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공업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여성 공장노동자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치화된 지식인집단과 산업현장의 결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360]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주력 산업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361] 80년대 중, 후반의 문학 장에서 여공의 수기에 관한 논의의 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게 된 것은 이와 관련된다. 석정남은 이와 같은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반영하는 일련의 글을 발표하면서 남성중심주의적으로 제약되고 있었던 '노동자성'에 대한 이해가능성에 변형을 가한다.

1984년 동일방직해고 전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공장의 불빛』(일월서각, 1984)[362]을 출간하자 찬사와 비판이 뒤따랐다.

한 후, 석정남은 1985년 해고 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강제퇴직을 당한 경험을 담고 있는 에세이 「노동자와 문화」(『기독교사상』, 1985)와 소설 「장벽」(『노동의문학, 문학의 새벽』 3, 1985)을 발표한다. 비슷한 시기에 석정남은 조세희의 청탁을 받아 조세희의 제3작품집 『침묵의 뿌리』에 「실제와 이론」이라는 글을 싣기도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무크지 『노동문학』 창간호(1987)에도 석정남은 기혼 여성이 된 자신의 현재를 반영한 소설 「불신시대」를 발표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자기재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당대 그의 글은 '노동운동에 기여하는 문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받았지만[363] 최근의 연구는 여공의 능동적 정체성의 구현이

360) 의류・섬유・전자산업 등 경공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나 노동자야학, 소모임활동을 통해 노조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1979년 동일방직 사태를 비롯하여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파업 및 복직투쟁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현장 노동운동을이끈 주요 자원이었다. 구해근, 앞의 책, 42면.

361) 위의 책, 221-264면 참조.

362) 석정남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70년대 노동운동의 종합이나 총정리가 아니라 그에 참여했던 개인의 느낌과 감정을 넘겨다보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적고 있다.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363) 가령, 1970년대 노동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맥락에 『공장의 불빛』의 한계

라는 관점에서 그 정치성을 읽어내려는 시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364][365] 이 연구들이 주로 여공의 수기에 주목한 것이었다면, 이와 달리 석정남이 발표한 소설을 1980년대 문학 장에서 일어난 장르적 규약이 해체되는 사례의 하나로,[366] 문학소녀였던 여공이 소설을 씀으로써 자신이 원한 정체성을 완성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367]

이러한 연구들에서 충분히 주목되지 않은 것은, 석정남에게 이 글쓰기라는 수행적 실천이 갖는 의미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당대 문학 장에서 석정남의 작가로서의 위치는 희미해진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를 반영한 소설과 에세이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자신을 소외

를 대응시키면서 "노동조합주의적인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영역으로 질적 변환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연대운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그 한 예일 것이다. 백진기, 「노동문학, 그 실천적 가능성을 향하여」, 앞의 책, 332면.

364) 루스 배러클러프, 김원·노지승 옮김, 『여공문학 :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후마니타스, 2017;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수기를 남성 지식인 중심의 문단 제도를 뛰어넘는 실천적인 글쓰기로 평가한 김양선은 석정남과 장남수, 송효순과 같은 여성 노동자들의 수기를 당대 노동운동에 관한 집단기억이자 기록물로 평가한다. 김양선, 「70년대 노동현실을 여성의 목소리로 기억/기록하기: 여성문학(사)의 외연 확장과 70년대 여성 노동자 수기」, 『여성문학연구』 37, 한국여성문학연구회, 2016 참조.; 배하은은 1980년대 노동자 수기가 그 자체로 노동자에게 정치·사회적 행위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노동자들의 정치·사회적인 실존을 부정하는 지배 담론으로부터 탈맥락화되는 동시에, 담론장 안에 그들의 언어와 신체를 재배치·재맥락화함으로써 사회적 실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했다."(157)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4장 노동자 수기의 수행적 정체성 참조.;여성 노동자의 수기가 당대 사회의 갈등 및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기존의 재현 및 대표 체제를 부정하는 새로운 체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 안지영은 수기 속 여성 노동자들의 행위를 "행위주체성에 대한 증거이자 이들이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로 평가한다. 안지영, 「'여공'의 대표 (불)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임계점 : 1970-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5, 상허학회, 2019 참조.

365) 이와 달리 민주주의적 정동을 발현한 몸으로 여공을 주목한 다음의 논의도 참고할 만하다. 이소영, 「여성의 몸과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 - 1970년대 수기와 소설에 드러난 정동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4, 한국현대문학회, 2018 참조.

366) 장성규, 「1980년대 논픽션 양식과 소설 개념의 재편 과정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 회, 2014.

367)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여공 수기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정체화와 문학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9-1, 한국근대문학회, 2018.

시키는 노동과 현장 앞에서 자기의 노동자성을 실천해나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무크지에 발표한 소설 「장벽」(『노동의 문학, 문학의 새벽』, 1985)은 주인공 옥순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그리고 있다. ㄷ방직 해고자에게 씌워진 불순분자, 외부세력 등 기관원에 의해 해고당한 경험을 가진 옥순은 인천의 합판공장에 면접을 보러오는 동안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는 블랙리스트가 와있을지 걱정한다. 지난 가을에도 이 문제로 인해 전자회사에서 강제로 퇴직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앞서 면접을 본 한 젊은 남성이 ㅁ목재공장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불안감은 증폭한다.

> 옥순이 무엇보다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폐업에 반대하고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싸웠던 사람들의 뒷소식이었다. 졸지에 일터를 잃은 그들은 모두 어디로 흩어져버렸을까? 다른 공장에 재취업을 하는데 우리 ㄷ방직 사람들처럼 또다시 해고당하거나 별다른 문제는 따르지 않았을까…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든 일터를 잃고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다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어디선가 열심히 또다른 나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려니 믿었던 사람들 중의 하나를 이런 곳에서 다시 보게 되다니…저들 역시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저렇게 떠돌고 있구나. 그랬었구나. 하긴 빈털터리 맨주먹으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368]

그럼에도 옥순은 당시 "폐업에 반대하고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싸웠던 사람들의 뒷소식"을, "졸지에 일터를 잃은 그들은 모두 어디로 흩어져버렸을까?"의 현재를 궁금해한다. 한편, 자신들을 "외부세력, 불순분자 침투"등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소름끼치는 이런 단어들"로 해고자들을 규정하는 "음모"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음모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지난 가을, 그녀 역시 직접 체험해 본 까닭이다. 그녀의 존재는 갑자기 찾아온 형사에 의해 "회사 측 사람들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경악시키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탈바꿈된다. 회사 측은 위험인물을 다루듯 하면서 오로지 신분을 위조한 것이 해고 사유의 전부인 것처럼 옥순을 강제로 퇴직

368) 석정남, 「장벽」,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편, 『노동의문학, 문학의 새벽』 3, 이삭, 1985, 118면.(이후 동일작품 인용시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함)

을 시켰다. 옥순은 이런 자신의 과거를 동료 은희에게 털어놓는다. 전자회사에서 해고된 이유와 이력서에 이름을 쓸 수 없었던 사연, ㄷ방직에서 해고된 경위를 거쳐 노조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파란만장한 일화들로 옥순의 이야기는 끝없이 전개된다. 은희와 옥순의 대화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나?" 하는 물음이다.

> "그럼 거기서 해고당한 사람은 지금 다 어떻게 지내고 있지?"
>
> "나만 해도 해고 당시 나이어린 양성공이었어. 워낙 나이 많은 고참들이었으니까 대개 결혼해서 벌써 아이엄마가 된 언니들도 있고 대부분 결혼했어. 네가 알다시피 취직하기도 어렵고. 해도 마음놓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서둘러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래."
>
> "어떤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
> "처지들이 그러니까 다 비슷한 환경의 남자들이지 뭐. 더러는 뜻이 통하는 좋은 상대를 만난 애들도 있어."
>
> "거참 잘된 일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노동현장의 촛불이 될 수 있을까?"
>
> "글쎄,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어떤 삶을 꾸려 나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 멀리 떠났거나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야."[369]

옥순과 은희의 대화는 1970년대의 여공들이 해직 '이후'의 삶이 '결혼'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거기서 해고당한 사람" 대부분은 "비슷한 환경의 남자"와, 더러는 "뜻이 통하는 좋은 상대"와 결혼을 했다. 옥순과 은희의 입을 빌려 노동자 석정남이 묻고자 한 것은 여성인 '나'가 나이를 먹고, "앞으로도 계속 노동현장의 촛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노동자와 문화」(『기독교사상』, 1985)에서 석정남은 여성 노동자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노동력이라는 유일한 상품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370] 주목

369) 석정남, 「장벽」, 129-130면.

370) "머릿 속에 한가지 분명히 떠오르는 생각…내일 당장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유일한 생존수단은 노동을 하는 것 뿐이니 또 공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에겐 남다른 약점까지 붙어있지 않은가. 동일방직 해고자라는 것과 나이를 스물 일곱이나 먹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노동력이라는 유

할 것은 이처럼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몰아가는 자본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과 그 필요를 해석하는 노동자 석정남의 날카로운 감각이다.

>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돈이 있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이다. … 피로가 꼭지까지 차있는 사람에게 잠자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12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돌아온 사람이 세수하고 밥먹고 쓰러져 잔다고 그들을 가리켜 천성이 게으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에세이집이나 …수필집 한 권 읽지 않는다고…그들이 피카소를 모르고, 베토벤을 모르고, 그보다 더 가까운 이광수나 황석영조차도 모른다고 개 앞에 진주를 던져준들 소용없는 일이라고 오만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
> 그런 자격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격심해지는 빈부의 격차는 산업사회의 모순을 더욱 극대화 시켜가고 있다. 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문화와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문화, 곧 대중문화라는 것에 대한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그 거리는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것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꾸 멀어지는 거리감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또한 문화란 어떤 것일까? 문화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농민이거나 노동자 구별없이 골고루 적용되고 소외되는 계층없이 혜택을 누리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현실은 XX합판에서 일하고 있는 나와 많은 노동자들을 문화적으로 소외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모순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변화며 발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 가진 것 없는 나와 내 이웃과 많은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산업사회 속에서의 이러한 모순은 과연 불가피한 것인가?[371]
>
> …기계문명의 발달은 기업주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에게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어야 한다.…더욱 풍부해진 잉여가치의 분배가 특정 소수에 한정되지 않고,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된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그런 사회가 되어야 …보편타당성을 띤 진정한 문화적 개념이 우리의 생활과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내일 밤 이 시간 나는 또다시 12시간의 힘겨운 야간근무에 시달리면서 오늘의 이 그럴듯한 생각들을 향하여 조소를 던지고 있겠지."[372]

일한 상품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석정남, 「노동자와 문화」, 『기독교사상』 29-2, 1985.2, 206면.

371) 석정남, 위의 글, 208-209면.

372) 위의 글, 212면.

석정남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2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돌아온 사람”이 수필집 한 권 읽지 않는다고, 피카소를 모르고, 베토벤을 듣지 않는다고, 이광수나 황석영을 모른다고 해서 오만한 미소를 지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다고 단언한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격심해지는 빈부의 격차”로 자신을 비롯한 이웃과 많은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석정남은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가져온 혜택은 농민이거나 노동자가 구별없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문제를 지적한다. [373]이와 같은 석정남의 지적은 문화적 특수성에 반응하는데 실패한 보편성의 작동방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버틀러의 이론적 사유를 떠올리게 한다. 버틀러는 자신의 적용가능성의 영역 안에 포함된 사회적·문화적 조건에 반응하면서 재정식화되지 못하는 보편성을 실패한 보편성이라 명명하면서[374] 이로부터 보편성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따라서 보편성이란 자신이 언표하는 그 보편성을 수행적으로 실연하기 위한 다양한 맥락으로 번역되는 구성적 행위를 거쳐야만 한다.[375] 이러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범주를 생산하는 과정”으로서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하다.[376]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보편성에서 관습적으로 배제되어 온 이들”의 “수행적 모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 보편성을 지속적으로 수정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377]

노동자 석정남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시간”이 주어질 때에 진정한 의미의 “보편타당

373) Ⅰ장 1절 서론의 문제제기와 Ⅱ장 2절 조세희의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 1980년대의 현장은 1970년대가 약속한 ‘행복의 약속’이 성취된 시공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복과 희망이 불평등하게 착취·분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석정남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374)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6면.

375) 주디스 버틀러, 박미선 옮김, 「보편자를 다시 무대에 올리며」, 앞의 책(2009), 61면.

37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5), 67면.

377)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09), 66면; 앞의 책(2016), 303면.

을 띤 문화”적 개념이 우리의 생활과 마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이와는 괴리되어 있다며 조소한다.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기존의 언어가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정확히 꼬집고 있는 것이다.

석정남의 이 괴리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조세희의 원고청탁을 받아 쓴 「실제와 이론」이다.

> 지식인은 고도의 이론에서 실제를 배우지만 노동자들은 실제에서 출발하여 이론을 정리한다. 우리의 생활은 별수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만들어진 구조이다.…곧 지식인이 실제적인 것에 눈뜨면서 그 배움이 더욱 훌륭하고 빛나는 것이었듯,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신성한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각성함으로써 자기의 처지는 운명지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에 얽매인 사슬을 풀려는 강한 저항정신으로 승화되며 그것은 차츰 사회문제로까지 시각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다.…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자는 산업의 역군이라 하지만, 무의식 상태에서 모든 악조건을 무시한 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일종의 사탕발림이요 재주부리는 곰과 다를 바 없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노동운동 역시 강한 주체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주체성을 확립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특히 노동문제는 사회의 모든 문제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식없이는 올바르 문제 진단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고한 주체의식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볼 때의 결론은 노동자에게도 실제 행동이 필요한 만큼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노동문제를 보다 넓은 안목에서 관찰하고 확고한 주체의식과 운동철학을 갖기 위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행위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세우는 것은 어떻든 자기발전이며 운동의 발전인 동시에, 지식인이 실제와 이론의 연결로써 배움의 의미가 더 커졌듯이 노동자의 이같은 변화 역시 그런 관점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노동자에게도 지식인인 회사 간부와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이 필요하고 실제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378]

「실제와 이론」은 “노동자는 이론 따위가 필요없다. 실제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지식인의 논리에서 “상당한 모순”을 발견한 석정남이 “심한 저항감”을 토로하며 시작된다. 지식인은 고도의 이론에서 실제를 배우지만,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만들어진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실제에서 출발하여 이론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석정남이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378) 석정남, 「실제와 이론」, 조세희, 『침묵의 뿌리』, 열화당, 1985, 65-66면.

“대개 지식인이 노동자에게 자기네 의견이나 바램에 말없이 따라주길 원할 때, 그것이 먹혀들지 않거나 혹은 반론을 제기할 때 이런 식의 공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해방을 부르짖는 기본목표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며 “배운 자 대 못 배운 자의 지배계급 형성이라는 서글픈 현상”의 일부를 보여준다. 따라서 석정남은 노동자가 사회 전반에 대해, 그리고 “이것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노동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질 수 있기” 위해 “실제 행동이 필요한 만큼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석정남의 소설에서 ‘연대’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연대의 과정이 노동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할 감각에 바탕하여, 세계에 변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 「장벽」의 결말이 옥순과 은희의 연대를 통해 “장벽은 이미 장벽이 아니게”되는 희망을 표현한 이유를 읽을 수 있다.[379]

> …참으로 성실하게 살려는 옥순이었다. 그런 사람의 삶의 의지를 뿌리째 뒤흔드는 가혹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어진 자기 현실을 바꿔보려는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아니었던가?……
> “이옥순이 어떻게 될지 왜 불려 갔는지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마찬가지로 너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몰라도 돼.”
> “왜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물론 이곳의 모든 사람들과 상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우리 형부가 그러는데……빨갱이들이 뒷조종을 하기 때문에 ㄷ방직 사람들도 경찰서에 끌려가 혼이 났었대.…”
> 은희는 일단 옥순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걸 인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도움이 된다면 그녀의 친구 선자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누구라도 만나보고 싶었다.… 운명지어진 자기 삶의 한계와 투쟁하기 이전에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의 불행을 방관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순간. 장벽은 이미 장벽이 아니었다.[380]

「장벽」의 은희는 옥순과의 만남을 통해 노동 현장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다시 강제퇴직을 당할 위험에

379) 이데올로기 속에서 현실적 관계는 불가피하게 상상적 관계 속으로, 즉 하나의 현실을 기술하기보다는 하나의 의지(보수적・순응주의적・개혁적 또는 혁명적 의지)를, 게다가 하나의 희망 또는 향수를 표현하는 관계 속으로 투여된다. 루이 알튀세르, 서관모 옮김, 『마르크스를 위하여』, 후마니타스, 2019, 407-408면.

380) 석정남, 「장벽」, 148-150면.

처한 옥순을 돕고자 하는 인물로 변해간다. 석정남의 소설에서 옥순과 은희 두 명의 화자가 내세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대에 비판받은 바 있었던 시점의 교차는,[381] 옥순과 은희가 맺는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해직 이후의 삶이 어떤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석정남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지금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 텔레비전 봐서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다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헐 얘기가 많은데, 우선 여기 오신 분들부터…사명감을 갖구 내마을 내고장을 지키는데 앞장서야겠어요.…"…"참 큰일이야. 학생은 학교에서 얌전히 공부나 하고, 공장 직공들은 참하게 공장에서 일만 허면 좀 좋아. 다들 배지가 불러서 그렇지. 난리를 안 겪어봐서 배지가 불러서 그 지랄들이야."…"…결론은 우리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위를 잘 살펴보자 이거에요. …나이가 많은데 혼자 사는 여자나, 학생도 아니면서 책을 많이 보는 남자,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항상 바쁜 사람, 외모에 신경을 안쓰고 텁수룩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든가 이웃집에 드나드는 손님도 예사로 보지 말고 눈여겨 보는 신고정신을 생활화해야 되겠어요.…잘하면 포상금도 있고 괜찮아요."
>
> …TV나 반장 통장의 말을 곧이 듣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사리를 따질 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게 무척 반가웠다. 그러나 돈만 생긴다면 세상에 못할 짓이 없어 보이는 여자들도 있었다. …인숙이를 비롯하여 전세금까지 떼이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이 살벌한 세태를 알아야 할 텐데…선자를 한번 더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382]

「장벽」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불신시대」(『노동문학』, 1988)는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한 옥순과 여전히 노동운동 중인 선자의 현재를 보여준다. 기혼 여성이 된 옥순은 주로 남편이나 시아버지와, 그리고 반상회 장소에 존재한다. 특히 집주인을 대신해 나간 반상회에서 옥순이 '주민 신고원'으로 임명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는 것은 은희가 연대의 필요를 외쳤던 옥순의 '일'의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그런 옥순에게 수배자가 된 친구 인숙의 문제로 형사들이 찾아온 사건이 발생하고, 옥순은 여전히 운동에 몸담고 있는 선자를 찾는다.

---

381) 당대에는 이처럼 옥순과 은희의 시점을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382) 석정남, 「불신시대」, 『노동문학』, 실천문학사, 1988, 308-309면.

"그때나 지금이나 왜들 그럴까?"

"그때두 그랬지만 역시두 달라진 게 하나두 없어."…여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네가 그렇게 열정을 바쳤는데도 아니, 어찌 너뿐이겠니. 네 주위에서 선량하고 욕심없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잡혀가고 매맞고 죽기까지 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니(…중략…)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더니 이젠 그런 데까지 참여하시는군."

선자의 말투에는 그동안의 거리감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옥순은 순간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나는 너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변치 않고 있다고. 그래서 하찮은 정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여기까지 달려왔노라고. 그러나…우리 사이는 구차한 변명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어설픈 사이가 아니지 않은가.[383]

옥순과 선자는 "선량하고 욕심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잡혀가고 매맞고 죽기까지 했던 그때와 지금을 모두 경험하였고, 그 두 시대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절망적인 판단을 공유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 남아 노동운동을 지속하는 선자와 달리 옥순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고, 그 "거리감"을 이유로 선자는 옥순의 문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불신'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신'은 주민을 신고해야 하는 옥순의 일상을 문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옥순에게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불신은 이처럼 선자가 자신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기도 하다. 옥순은 선자의 불신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로 응답한다. 옥순은 여전히 자신에게 선자와 선자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사소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여기"에 왔다는 변명을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자신과 선자의 사이가 "그렇게 어설픈 사이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숙이는 어떻게 될까?"

"…인숙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선자는 골목을 달리는 찬바람에 떠밀리며 새벽이 부여하게 트여오는 저쪽을 향해 총총히 사라져갔다. 옥순은 멀어져가는 선자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384]

---

383) 석정남, 「불신시대」, 310-311면.

이 소설은 “봉제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이”의 신고로 잡혀간 미옥, 수배 중이었다가 잡혀간 인숙, 그런 인숙을 도와야 하는 선자의 상황과 “온 시민을 자기네 정보요원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 옥순의 일상을 뒤엉킨 채 끝을 맺는다. 이 뒤엉킴은 주부가 된 옥순의 사적인 일상이 남편의 일터-공장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교묘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끝까지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동료에게 연대하려는 존재로 남아있는 옥순을 보여준다.

이처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지면을 통해, 석정남은 자기를 반영한 해직한 기혼 여성 노동자가 사적인 영역(가정)에서도 연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석정남의 소설은 노동자의 인간됨이란 단순히 물리적·경제적·물질적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는지를 성찰함으로써[385]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석정남이 그려낸 해직된 기혼 여성의 노동자되기는 1987년 이후, 달라지는 노동자의 자기재현의 규범을 전유하여 연대하는 자로 자기를 부조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하는 노동자의 인간됨을 표명한다.[386]

학출 노동자 방현석의 노동소설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연대를 이루는 방식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8년부터 1991년 사이 발표된 방현석의 소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를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387] 노동소설의 현재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들에서 방현석의 소설은 집중적으로 주목되었다. 그의 소설에 나타난 희망이 민주주의를 향한 정의와 연결된 정념이며, 노동소설주체의 존재방식을 드러낸다다는 점[388] 노동현장에서 목격한 열사의 죽음 앞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소설창작

384) 석정남, 「불신시대」, 317면.
385) 스튜어트 홀, 앞의 책(2021), 70-71면.
386) 주디스 버틀러, 박미선 옮김, 「보편자를 다시 무대에 올리며」, 앞의 책(2009), 66면; _____, 앞의 책(2016), 303면.
387) 천정환, 앞의 논문 (2017), 135-142면.
388) 조현일, 「노동소설과 정념,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의 계기이자 동력이 되었다는 점, 이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사실)을 소설(허구)로 재구성하면서 생겨난 특징이 지배적인 문학성의 체계를 재배치한다는 점 등이 주목되었다.[389]

「새벽출정」(1989)은 인천지역 세창물산의 위장폐업 투쟁 과정에서 운명한 송철순 열사의 죽음을 서사화한 소설로, 실제로 인천지역을 담당했던 방현석이 세창물산 노동자들의 투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에 두고 있다.[390] 이 소설은 투쟁의 과정과 열사의 죽음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감정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 이 과정에서 고투하며 각성을 이루는 것은 영웅적 인물에 가까운 위원장 미정이 아닌, 민영이다.[391]

> 강민영, 너는 일당 사천팔십원짜리 고용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사장은 네가 필요없어졌어. 매일 구매하던 4,080원짜리 물건을 이제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겠다는 거야. 내가 앉혀졌던 자리에 다른 누군가 앉혀져서 도료를 만지게 될 거야.

민영과 철순, 미정이 주도한 잔업 특근 거부 사건이 화공부와 페인팅실 전원이 잔업을 거부하는 사태로 예상 외의 큰 파문을 일으키자 이들에게 '우리 회사'는 각각 사직서와 각서를 요구한다. 민영은 그동안 일해 온 "세광물산에서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광물산에서의 나의 7년은 무엇인가"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근면·자조·협동"과 같은 사훈과 "'사원을 가족처럼 회사 일을 내 일처럼'"이라고 적힌 사장의 친필을, "사무실 직원들의 얼굴"을 낯설게 인식

389) 장성규, 앞의 논문(2014).; 정고은 「1980년대 노동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장3절-4장 참조; 천정환, 앞의 논문 등.

390) 송철순은 1988년 7월 15일 기금마련을 위한 연대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장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7월 17일에 운명했다.

391) 정고은은 「새벽출정」(1989)과 「내일을 여는 집」(1990)에서 노동소설의 주제로 수렴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노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통해 노동자의 내밀한 감정(내면), 노동에 대한 근원적 질문,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의 위계 등이 질문되고 있음을 주목한 다. 그는 「새벽출정」이 여성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광물산을 중심으로, 선흥정밀과의 연대장면을 그리는 과정을 민영의 내적 고투로 읽게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미정들의 이야기'로 읽었던 소설을 읽었던 당대의 비평과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정고은, 앞의 논문(2017) 참조.

하기 시작한다. 민영은 자신이 “4080원짜리 물건”에 불과하기에 언제든 쉽게 다른 누군가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392]

민영의 내면을 눈여겨보면서 새삼 주목하게 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감정의 변화가 먹는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작가가 공들여 그리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이 문제가 잘 드러난다.

> 어디가 고장인지 다단식 증기 취사기는 끝내 꿈쩍도 않았다. 식사는 식빵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 민영이 공단 주변을 모조리 뒤져 식빵을 구해 왔을 때까지 상례와 금주는 취사기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
> 12월에 접어들어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107일째 접어드는 농성장에도 어려움이 몰려왔다. 날마다 곤두박질쳐 온 날씨는 오늘 아침 수은주를 영하 10도로 끌어내렸다. 며칠째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를 조합원들은 제 체온 하나로 버텨야 했다. …(중략)… 윤희가 떠난 오늘 아침에는 취사기마저 고장이 나버렸다.
>
> 민영은 식당에 들어서는 조합원들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언니, 오늘은 메뉴가 뭐야. 언제나처럼 약간은 미안스러운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서던 조합원들은 배식구 앞에 놓인 식빵을 보고는 이내 표정이 굳었다. 밤새 추위에 떨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을까 생각하며 내려왔을 그들이었다.
>
> 식빵 네 조각씩을 받아든 조합원들의 표정은 날씨보다 더욱 스산했다. 민영의 눈치를 살피며 한두 입 베어문 뒤 식당을 나갔다.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짬밥통에 내던지는 조합원도 있었다.
>
> “이걸 처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
> 경자는 받아든 식빵을 고스란히 짬밥통에 던져넣었다. 시위였다.
>
> 장기농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조합원들의 감정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이 싸움 과정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
> 적개심. 가는 곳마다 자리 잡은 가진 자들의 튼튼한 장벽 앞에서 조합원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를 넘어선 적대감이 고스란히 쌓여갔다. 본사는 물론 노동청과 노동부, 정당. 그 어느 곳 하나 사장의 편이 장벽을 치고 있지 않은 곳은 없었다. 그리고 경찰은 그때마다 빠지지 않았다.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적개심은 때로 동료들을 그 표적으로 삼기까지 했다. 힘겨운 싸움 속에서 여유와 너그러움을 잃어가는 조합원들의 가슴

392)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철학 수고」를 통해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노동의 관계를 되물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소외를 설명한다. 민영의 이 각성은 마르크스가 노동 생산물로부터,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 할 수 있다.

속은 동료 하나를 받아들일 공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흐려져 감에 따라 강화되어 오던 단결력도 질시와 반목으로 변해갔다.

"야이 쌍년아. 처먹기 싫음 말지. 왜 처버리니?"

연탄나로에 달라붙어 언 손을 녹이고 있던 상례가 경자의 뒤통수에다 욕설을 퍼부었다.

"남이야 버리든 말든. 내 몫 내가 버리는데 왜 잔소리야?"

"처먹고 싸우라고 도와 준 거지 버리라고 없는 주머니 털어준 줄 알아?"

"그럼 처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냐."

"누가 밥하기 싫어서 안 했어야. 기계가 고장인 걸 어떻게 해."

…개, 소, 돼지, 살쾡이, 셋의 욕설이 뒤엉키고 머리채를 휘어잡기 직전까지 갔다.[393]

농성 107일째로 접어들던 12월의 어느 아침, 동료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취사기마저 고장이 나버"리자, 힘겨운 싸움 속에 여유를 잃어가던 조합원들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취사기가 고장나 "밤새 추위에 떨다 따뜻한 국물"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에게 식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민영은 미안함에 "식당에 들어서는 조합원들을 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투쟁이 어려워져가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는 조합원들의 마음에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사라졌고, 이는 결국 질시와 반목으로 가득한 싸움으로 번진다. 이처럼 함께 무언가를 먹는 문제는 노조를 만들기 전의 미정과 민영이 "친자매보다도 가까"워지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이들은 "쉬는 시간이면 같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셨고, "잔업이 없는 날엔 공단 시장으로 순대를 먹으러 다녔다." 미정의 전세방에서 함께 "과자 부스러기를 쪼아먹으며" 밤을 밝힌 날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였다.(242) 조합이 결성되고 미정이 위원장이 되면서 민영은 '울 권리가 없다'며 울지 않던 미정에게 장벽을 느껴왔는데 이들의 거리가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것, 감정의 물꼬를 트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먹는 장면에서다.

"커피 한 잔씩 들래요?"

…"아침도 못 먹었을 텐데 우유로 뽑아 드리지." 홍위원장은…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기 전에 사무장은 옆에 놓인 모금함에 먼저 동전을 넣었다. 라면박스로 만든 커다란

393) 방현석, 「새벽출정」, 『창작과비평』17-1, 1989 봄, 239-240면.(이후 동일작품 인용시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함)

모금함이었다. 세광노조를 위한 모금함. 조합원동지, 잠깐, 당신의 커피 한 잔이 세광 형제들의 겨울을 따듯하게 합니다. 한 잔 마실 때마다 세광동지들에게도 한 잔을 권하는 형제애를. 쟁의부. 사무장은 한 잔을 꺼낼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모금함에 동전을 넣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안 먹어요. 조합원들은 굶고 있는데 우리만 이걸 마셔요?"…(중략)…

회의가 시작되었다. 미정과 민영은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합원 한 명을 따라 식당으로 갔다. 식판을 받아들고 줄을 섰다. 돼지고기가 든 김치찌개가 김을 올렸다. 미정은 식욕이 일지 않았다. 김치조차 없는 라면가닥을 빨고 있을 조합원들이 눈에 어른거렸다.

"먹어요. 잘 될 것 같던데."

민영은 두어 숟갈만 먹어야지 했는데 빈 뱃속은 숟가락질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바닥까지 다 긁어먹고도 아쉬웠다.…미정은 대답 대신 자신의 식판에서 밥을 덜어 민영에게 옮겨놓았다.[394]

이 소설은 "경공업 중심의 미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의 세광물산에 대한 "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을 배경으로 조직"된 남성 노동자들의 신흥정밀의 연대 투쟁의 장면보다[395] 함께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느끼는 어떤 마음의 연대를 보다 주목하고 있다. 이 연대는 당대 노동문학론자들이 요구했던 공장이라는 현장에서, 조합 결성의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거나, 총체성 속에서 현실을 포착하는 노력 속에 "노동자계급 당파성"을 구현하는 문제와도 다른 성질의 것이다.[396] 여성 조합원들은 밥과 국을 '함께' 나누어 먹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마음의 연대를 이루었고,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자본이 가하는 소외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마르크스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문제삼으며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이 자연과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인간 자신

394) 방현석, 「새벽출정」, 254-255면.

395) 「시·수기서 소설로 확산」, 『동아일보』, 1989.4.22.; "농성 노동자들의 동지애와 계급적 각성의 체득 과정 그리고 '신흥정밀' 남자 노동자들과 '세광물산'의 여공들 사이의 연대 투쟁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려는 작의(作意)를 품고 있다." 임우기, 「노동 문학, 생활과 운동의 교환양식-새로운 '리얼리즘'을 향하여 1」, 『문학과사회』 10, 문학과지성사, 1990 여름, 545면.

396) 김재용, 「비장함에 새겨진 거인의 발자국」, 『내일을 여는 집』, 창작과비평사, 1991, 294면.

과 세계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었다. 자기의 삶을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성격이기에, 이것이 불가능할때에 노동자는 자기의 인간성으로부터도 소외된다.[397] 따라서 방현석 소설의 노동자들이 '함께' 나누는 이 밥과 국은 이 자기의 인간성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는 일상의 '실천' 이었다.[398]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1980년대 한국의 교양소설과 노동소설에 요구된 서사적 규범은 성차·계급차를 반영한 인간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선별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한 것은, 인식론적 규범이 부과하는 한계를 전유하여 인간됨을 실천하였던 구조적 타자들의 수행적 실천이다. 이들의 '노동자되기' 로의 수행은 그녀들의 노동자성을 일정한 한계 아래 강제하는 맥락을 '변형' 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석정남의 노동소설은 1987년 노동의 전형과 특권이 변화되는 국면에서도 변함없이 연대하는 자로 존재하면서 자기가 놓인 공간을 노동의 '현장' 으로 재편하고자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97) 칼 맑스,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최인호 외 옮김,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2016참조.

398) 방현석은 후일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던 이 "순정한 시간" 을 "세광물산의 조합원들과 어울려 함께 반찬타령을 하며 밥을 먹었던 시간" 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들과 함께 먹었던 "찰기 없는 밥과 국의 연대감" 은 자본주의가 변질(소외)시키는 노동자의 인간성을 '인간적인 것' 이 될 수 있도록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으며, 그는 이들의 실천에 '밥과 국' 이 되는 소설을 쓰고자 했다. 방현석, 「밥과 국」, 『문학동네』, 2002, 327면.

Ⅳ. 번역을 요구하는 몸과 인간다움의 지평 확장

1. 탈脫인간화한 몸으로의 변신變身과 ‘인간’의 분쇄

4장에서는 주체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非인간적인 것’을 통해 인간에 관한 존재론적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 비非인간적 과잉으로 충만한 이 몸들의 고백을 번역하여 궁극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이 장의 과제다. 양귀자와 김영현, 임철우와 최윤의 소설은 비非인간적 과잉으로 충만한, 벌레나 짐승 또는 훼손되고 찢긴 몸들로 가득하다. 인간다움personhood의 한계에서 출현한 이 ‘비非인간적인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비非인간을 나누는 이분법을 심문하고, 인간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한다.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인간’에 관한 존재론적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환된 새로운 질서를 가진 존재와 우리가 맺는 관계를 사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非인간적인 것’과의 관계를 통해 취약성과 상호의존성, 관계성을 자기의 구성요소로 발견한다. 이와 같은 발견이 우리에게 필요한 윤리적 토대이며, 그 토대를 쇄신하는 자원이 된다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이 절chapter에서는 양귀자의 「방울새」(『문예중앙』, 1985 가을), 「한 마리의 나그네 쥐」(『문학사상』, 1986.9) 김영현의 「벌레」(『창작과 비평』17-1, 1989 봄)를 통해 벌레와 짐승으로 변신變身하는 인간들을 주목한다. 이들의 소설에 나타난 탈脫인간화한 몸들은 인간 삶을 훼손시키는 역사적 폭력의 잔혹함과 야수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성에 초점을 두어 해석할 경우, 짐승과 벌레로 변신變身한 몸들은 인간다움personhood의 한계 바깥에 놓인 존재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 한계 바깥에 놓인 몸들이 ‘인간’으로 회복될 것을 희구하는 휴머니즘적 결론으로 귀착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의 방식에는 존재 내부에서 발견되는 타자성·이질성을 ‘인간’의 바깥, 인간이 아닌 것not human으로 밀어내는 로고스중심주의적 사유가 개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서두에서 제기하였듯, 1980년대 문학 장은 벌레나 짐승, 또는 찢기고 훼손된 몸으로 출현하는 비非인간적 과잉을 설명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399] 이러한 이유에서 짐승과 벌레로 변신變身한, 이 탈脫인간화한 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400]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다움personhood'을 판단해 온 경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그 안팎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젝은 이 문제를 '시차視差, parallax'의 개념을 활용한 "시차적 전환"으로 명명하면서 이를 통해 인간다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예시豫示한다.[401]

그에 따르면, '시차視差,'가 발생할 때,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전환하게 되는 간극 혹은 틈새가 드러난다. 시차視差로부터 포착할 수 있는 '극소한 차이'는 인간다움personhood과 그 자체의 비인간적 과잉이 맺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근거이며, 이 간극을 통해 인간의 비인간적 중핵인 죽음충동 같은 주제가 도입된다. [402] 이러한 설명을 참고할 때, 극소한 차이로 나뉘는 인간과 비非인간은 구별되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의 존재 내부의 서로 다른 질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양귀자의 소설을 살펴보면, 그의 소설에서 이 '간극'이 동물(짐승)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간극에서 출현한 존재들은 현실 속의 인물들이 직접 접근하거나 파악하는

---

399) Ⅰ장 1절 문제 제기 참조.

400)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2009), 49면

401) 시차視差, parallax란 두 층위 사이에 어떠한 공통 언어나 공유된 기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고차원적인 종합을 향해 변증법적으로 "매개/지양"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율배반을 뜻하는 것이다.…시차적 간극이라는 개념은 결코 변증법에 되돌릴 수 없는 장애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 전복적 핵심을 간파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를 제시한다.…(중략)…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의 전환은 전적으로 관점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인류의 집단적 실천의 지평 너머에 도달하는 인간의 '비인간'적 중핵인 죽음충동 같은 주제를 도입한다. 그러므로 간극은 인간다움과 그 자체의 비인간적 과잉 사이의 간극으로서 인류 사회에 내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책, 14-17면.(강조는 인용자의 것)

402) 슬라보예 지젝, 위의 책(2009), 14-17면.

것이 불가능한 실재적 차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 상징적 장치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미동 사람들』 연작 가운데 한 편인 「한 마리 나그네 쥐」(『문학사상』, 1986.8)는 어느 날 갑자기 원미산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소문 속의 '그'에 관한 이야기다. 서술자가 전달하는 그 사내의 진실에 관련된 이야기와 동시에 그를 둘러싼 원미동 사람들의 소문과 추측이 대비되면서 소설은 전개된다.

지물포 주씨와 사진관 엄씨, 강남부동산의 박씨와 형제슈퍼의 김반장이 함께 모여 술자리가 펼쳐지면서 '원미동의 밤'이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서 '그 사내'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오른다. 여기 모인 이들 중 누구도 원미산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그 사내를 실제로 만나거나 본 적이 없기에,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왜곡된 추측과 뜬소문에 불과하다.

> 확실히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사내'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소주병이 반쯤 비워졌을 때였다.
>
> "장대봉 밑에 동굴이 하나 있는디, 거그서 살고 있다드만."박씨가 확실하다는 듯 말했다. 장대봉은 원미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였다.
>
> "무신 말심입니꺼, 성님. 시상에 동굴에서 우째 하룬들 온전케 배겨내겠습니꺼."
>
> 지물포 주씨는 성님뻘인 박씨 말이 도무지 당치 않다는 듯이 손을 훼훼 내저었다. 그의 주장은 사내는 벌써 객사로 처리되어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씨는 또 달랐다.
>
> "사람은 어떤 곳에서라도 살게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손님 말을 들으니까, 역곡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버려진 초가에서 그 사내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쪽 동네야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으니 그곳에 숨어 살지도 모르죠."
>
> 이번에는 젊은 김반장이 대번에 고개를 흔들었다. 소문이라면 형제슈퍼 주인인 그로서도 결코 빠질 사람이 아니었다.
>
> "우리가 작년 요맘때 원미산을 샅샅이 뒤졌다구요. 없었어요. 텐트치고 있던 몇 사람들도 그런 사내는 본 적이 없대요.…" (……)
>
> "성님, 우자다가 그 사람은 산으로 들어갔답니꺼. 밥술이나 묵고 자슥도 둘이나 있다 하던데."…
>
> "그 사람이 원래 서울 무슨 회사 다니는 ㅜ얼급쟁이인디 대학꺼정 나오고 인물도 썩 괜찮은 편이라는 거여.…"
>
> 박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정도가 고작이었다. 물론 거기에 보탤 말이야 하루를 모자랄 만큼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다. 직장에서 쫓겨난 바람에 그

리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부부 사이의 속궁합이 맞지 않아 마누라가 결국 서방 잡아 먹은 셈이 되었다는 설도 있었다. 누군가는 월급보다 많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 빚에 몰려 그리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세웠다.[403]

소문 속에서 그 사내는 장대봉 밑 동굴에서 살고 있거나, 이미 공동묘지에 묻혀있었고, 때로는 역곡역 근처 버려진 초가에서 숨어 살고 있기도 했다. 그가 무슨 이유로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상히 알고 있다는 박씨조차도 뚜렷하게 알지 못한다. 여기 모인 이들 중에서 그리고 원미동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사내를 직접 보거나 만난 적 없다는 것은, 그 사내가 직접적 접근이나 포착이 불가능한 실재적 차원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원미동 사람들의 '현실'에 등장한 적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 중 한 편으로 위치해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게 보통 바람이 아니었어. 축축하고 섬뜩한 것이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구불구불 기어가던 행렬이 우뚝 멈춰버렸다는 거여. 이상시럽게도 산은 괴괴하고 벌레 소리 하나 안 들리는디 소름이 쫙 돋는 찬바람이 쏴악 밀려오드라 이 말여."

(……)

앞장서서 숲속으로 들어가던 예비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섰지.…독나방이 나타났던 거여. 그것도 서너마리가 아니라 수천수만 마리가 숲을 시커멓게 메우고 날라다니는디 어떻게나 크던지 박쥐떼가 몰려오는 줄 알았대는구먼.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디야. 사방팔방으로 독가루를 뿌리며 발광을 하드란겨. 그렇게 엄청난 독나방 떼는 생전에 보도 듣도 못했다고 그러드만. 새카맣게 떼지어 몰려다니는 독나방을 한번 상상혀봐. 해괴하다 못해 끔찍한 노릇 아닌개벼.[404]

그는 원미동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존재로 존재하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 사내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접근이나 파악이 불가능한, '실재적인 것'으로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405] 그를 찾기 위한 수색대가 꾸려졌을 때, 갑자기

403)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문학사상』, 1986.8 발표.; 『원미동 사람들』, 쓰다, 2014, 129-131면.(이후 동일 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한다.)
404)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148-149면.

“새카맣게 떼지어 몰려다니는 독나방”(149)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처럼 그 사내를 실재적 차원에 있는 존재로 상정했을 때, 그 사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장치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그는 시차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그는 누구일까. 그는 왜 사라진 것일까. 소문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문제는, 서술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 엉성하게 짜여진 도시는 지저분한 얼룩에 찌들어 끈끈한 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마치 짐승 우리에서 풍겨오는 악취를 맡는 것 같았다. 이제 막 그가 지나온 숲과는 전혀 달랐다. 흡사 저 우리 안으로 그 자신 한 마리 짐승이 되어 기어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몸을 돌려 숲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출근을 포기한다면, 아지 지각을 각오한다면 얼마쯤은 숲 속을 더 헤맬 수도 있었다.[406]

그 사내는 원미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곳에서 “짐승 우리에서 풍겨오는 악취”를 느낀다. 그에게 도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그 자신 한 마리 짐승이 되어 기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이렇게 도시를 짐승 우리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5년 전, 한 달간 “그 도시”에 출장을 갔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밖으로는 좀체 드러나지 않는 깊은 내상內傷”을 입고 돌아왔다. 그 날 이후로 그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짐승의 체취에 질식당하고야 말 것”(139)같은 구토증에 괴로워했고, 때때로 울컥 치솟는 짜증과 견딜 수 없는 적개심을 빈번하게 느끼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

405) 켈시 우드・박현정 옮김, 『한권으로 읽는 지젝』, 인간사랑, 2018, 44-65면 참조

406)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문학사상』, 1986.8 발표.; 『원미동 사람들』, 쓰다, 2014, 134면.(이후 동일 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한다.)

"무리지어 몰려오는 인간들이 단지 무리 속에 섞여 있다는 조건만으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 거의 5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때 그는 한 달간의 출장으로 그 도시에 있었다. 그해 5월, 그도 그 도시의 시민들 못지않게 상처를 입었다. 그것은 밖으로는 좀체 드러나지 않는 깊은 내상(內傷)이었다. 출장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다만 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수많은 짐승의 무리들이 치켜올린 날카로운 발톱만을 보았다. 그들 모두가 홀로 떨어져 남게 되면 가장 소박한 옛날이야기에도 눈물을 글썽이는 보통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 그의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 흰 이빨의 웃음 속에 감추어진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지나 않을까 겁이 났다. 길을 묻기 위해 옆구리를 치는 행인에게 그 자신이 늑대가 되어 달려드는 모습도 끊임없이 머릿속에 되풀이 떠올랐다."[407]

사내는 그 도시에서 돌아온 뒤로 "보통의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많은 수'로 모이게 되면 "인간의 얼굴을 한 수많은 짐승의 무리들"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출장 때문에 우연히 겪게 된 '그날'의 경험으로 사내는 많은 이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흰 이빨 웃음 속에 감추어진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거나, 혹은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 자신이 늑대가 되어 달려"들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에 겁을 내기 시작한다. 무엇에든 "숫자가 많다는"(144) 이유에 위협을 느끼게 된 그는 결국 도시의 사람들을 피하다가 자취를 감추어버린다.

오후가 되었을 때 그는 장대봉 동쪽의 쉼터에 앉아 있었다. 쉽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한 마리의 쥐를 만났다. 그보다 먼저 쥐가 쉼터에 와 있었다. 그가 다가가도 애써 피할 기색도 없이 멀뚱멀뚱 그를 올려다보던 쥐가 할 수 없다는 듯 긴꼬리를 늘어뜨리고 사라져갔다. 쥐에게서 빼앗은 자신의 보금자리에 앉아 그는 등에 진 배낭부터 풀어놓았다.[408]

그는 숲을 헤매었다. 가도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깊은 터널처럼 뚫려 있는 숲이

407)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143-144면.
408)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152면.

었다.…숲을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원을 그리며 맴을 돌 수밖에 없었다. 맴을 돌다가 그는 다시 쥐와 맞부닥쳤다. 아까 쉼터를 차지하고 있던 그 쥐였다. 그와는 열 발자국쯤의 거리를 두고 쥐는 망연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도 쥐의 까만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 혼자 떨어져나와 산을 헤매던 한 마리 쥐의 구부정한 등허리 위로 청색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상한 놈이군. 그가 몸을 돌렸다. 몇 걸음 떼어놓고 돌아보아도 쥐는 거기에 있었다. 그의 구부정한 등허리에도 어둠이 한 켠 내려앉았다.…지난 밤 그는 두 청년이 텐트를 거두어 내려가버린 것을 발견했었다.…텐트도…기타소리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한 가닥의 빛이라도, 그것도 안 된다면 잠들어 있는 건강한 숨소리라도 곁에 두고 싶었다.[409]

나무둥치에 붙어버린 몸이 떨어지지 않아서, 문갑 위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어서, 또다시 밤이 찾아와 버린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마침내 그는 숲 가운데 홀로 남아 흐느껴 울었다.

"결국 그 남자는 사라져버리고 말았군요."[410]

소설은 그 사내가 사라지게 되던 마지막 하루를 보여준다. 그가 산에서 머무는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의 자취가 사라진 가운데 그는 "한 가닥의 빛이라도", "건강한 숨소리라도 곁에 두고" 싶어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혼자 남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숲 가운데 홀로 남아 흐느껴" 울었고, 이후로 그의 자취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 다.

이처럼 그가 이전과 달리 한 마리의 나그네 쥐와도 같은 삶을 살기로 한 것은 그날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일어난 일들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 도시의 "시민들처럼" 사건을 겪었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짐승과 같아진 그의 현재 모습이 타자의 고통이 가져온 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타자에게 양도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된다.[411]

한 마리 나그네 쥐와 같이 되기로 한 그의 선택은 우리가 지켜온 인간다움의 경계가 지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어 살

409)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154면.
410)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156면.
411)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47면.

펴볼 소설에서 이 문제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흉내내는 존재로 등장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된다.

양귀자의 「방울새」(『문예중앙』, 1985 가을)는 여중 여고를 함께 다닌 윤희와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 나들이를 한 하루 동안의 이야기다. 소설은 동물원 초입의 미아보호소부터 조류원에 이르기까지 동물원을 구경하는 시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소설의 시공간은 대공원에서 보낸 하루를 벗어나지 않지만, 그녀의 지난 날의 악몽에서 비롯하는 환상, 수감되어 그녀의 곁에서 부재하는 남편에 대한 연상이 맞물리며 소설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 아, 다락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모양새는 깊고 깊은 음부인 양 보였다.…벌거벗은 방이 사실은 수천 수만 수억의 구더기들로 뒤덮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꿈은 급속도로 진행하기 시작한다. 깊고 깊은 음부의 모양새를 한 다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구더기떼는 몇 개의 나무계단을 뒤덮고 방바닥을 뒤덮고, 사방의 벽을 뒤덮어버린다. 막무가내로 꿈틀거리며, 흰 몸뚱이를 뒹굴어가며 그것들은 일정한 흐름을 이루어서 방문을 향해 도도하게 밀려가고 있다. 꾸역꾸역 쏟아져 나와 꿈틀꿈틀 기어나가는 구더기의 행렬이 얼마나 엄청난지, 방문으로 흘러나가는 그것들이 머지않아 온 집안을 다 뒤덮고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거라는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
> 이윽고 그녀는 미칠 듯이 분노하여 사방으로 빗자루를 흔들어댄다. 더러는 발로 밟아 죽이기도 하고 죽을힘을 다해 구더기들을 밀어내기도 한다. …돌아보면 그것은 거대한 강(江)이다. 구더기의 강이다.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튕겨오르는 흰 물결. 주름을 만들며 앞으로 앞으로 기어나가는 구더기의 흰 등허리. 구역질도 두려움도 잊은 채 그녀는 미친 듯이 비를 휘두르고 저 깊은 음부에서부터 시작된 구더기의 물결은 온 방안을 가득 메우고 당당하게 흘러간다. 누구도 이 흐름을 가로막아줄 것 같지는 않다. 그녀가 믿을 것은 하나의 빗자루뿐이고 그녀는 빗자루만으로 구더기와 맞붙어 씨름한다. 하지만 그 모습은 흡사 구더기의 강물에 빠진 조금 더 큰 구더기처럼 보일 뿐이다. …치마폭에서, 목덜미에서, 겨드랑이에서, 속옷 사이에서, 허벅지에서 구더기는 끊임없이 떨어져 내리고 구더기의 무리는 순식간에 불어나 또 다시 온 방을 뒤덮기 시작한다. 머리카락 사이마다에 박혀 있는 수많은 구더기를 뜯어내다 결국 그녀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며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며 허물어진다.[412]

412) 양귀자, 「방울새」, 『문예중앙』 8-3, 1985.9 발표. 인용은 『원미동 사람들』, 쓰다, 2014, 213-214면. (이후 동일 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작가, 제목,

윤희와 대화를 하거나 딸 경주를 돌보면서 그녀는 음부처럼 보이는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던 “구더기의 강물”을 떠올린다.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녀는 꿈의 내용을 남편에게 말하리라 생각하지만, 다음 날 남편은 수감되어 그녀의 곁을 떠났고, 꿈은 “오로지 그녀 혼자만의 몫으로 남아”있다. 끝없이 기어나오는 구더기의 행렬이 온 집안과 세상을 덮어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두려움에 그녀는 구역질을 느낀다. 꿈이 단순히 지난 밤의 끔찍하고 역겨운 악몽으로 봉합되지 않고 그녀의 현재에 순간순간 틈입하여 비현실처럼 지속하는 것은,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물들과 인간의 경계가 흐릿해져 있는 까닭이다.

> 인위적으로 깎아 만든 가파른 절벽과 창공을 가로지르며 매달린 줄사다리는 원숭이들에게만 제공된 한바탕의 무대였는데 녀석들은 괴성을 내지르며 즐겁게 곡예를 연출해내었다. 원숭이를 보는 일은 아무리 하여도 지루하지가 않았다. 그가 기필코는 빨간 피터가 될 거라는 소박한 기대가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원숭이 족속은 바로 인간들의 거울이었다.** 아이들은 좀체로 원숭이우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라고 말해서는 적당치 않은 그곳은 하나의 무인도처럼 보였다. 수십마리의 재주꾼 원숭이가 섬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서 빙 둘러서 있는 구경꾼들 앞에 붉은 항문을 내보이며 야유를 보냈다.…원숭이들의 섬을 떠나 다시 길을 가는 동안 성구는 연신 원숭이 뜀뛰기를 흉내내었다. **원숭이는 인간을 흉내내고 인간은 다시 원숭이를 흉내낸다.** 413)

공원의 입구에 세워진 미아보호소는 “빙 둘러놓은 넓은 유리창 때문에 유리통처럼 보이는”(198) 곳이었는데, 부모를 잃어버려 그곳을 찾은 아이들은 “유리벽 바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199)있었다. 그녀가 미아보호소를 지나 동물원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난 것은 “거대한 원숭이우리”(202)였다. 인위적으로 절벽을 깎아 만든 절벽과 창공을 무대로 원숭이들은 곡예를 연출한다. 그녀는 원숭이를

면수로 표기)

413) 양귀자, 「방울새」, 202-203면.

보면서 “인간들의 거울”같다고 생각한다. 원숭이가 인간을 흉내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원숭이를 흉내”내기도 하는 이 기묘한 상황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경계가 그만큼 흐릿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동물과 인간의 닮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차단된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그녀의 남편 때문이다. 수감된 남편은 이제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의,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201)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는 한때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언젠가부터 그러한 생각을 “주장”으로 바꾸어 “주장만을 신봉”[414]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 동물들은 거의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수용 시설 속에 들어 있었다. 놈들이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의 **간격**만 깊게 파 놓으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사슴과 숫양 들은 사람들 곁에서 뛰노는 듯이 보였다. 앵무새는…높은 대(臺)에 앉아 인간을 내려다보며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건넸다. 코끼리는…느긋하게 기다린다. 멀리로는 돌고래 쇼를 알리는 애드벌룬이 둥둥 떠있고, 공작들은…군중 쪽을 향해 다가왔다. 그것들은 모두 이웃사촌처럼 익숙하게 굴었다. 사람들과 한 패거리로 놀아볼 생각인 양 마냥 느긋해서 이쪽과 저쪽을 갈라놓는 간격만 없다면 함께 어울려 파티를 열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415]

수감된 남편이 “오래도록 그녀 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208)과 비교해볼 때, 시설 속의 동물들은 오히려 “거의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수용 시설”속에 있다. 그녀가 보기에 이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결코 멀지 않다. 동물들과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의 간격”만이 있을 뿐이다. “이쪽과 저쪽을 갈라놓는 간격”을 사이에 두고,사슴과 숫양, 코끼리와 공작새와 군중은 “이웃사촌처럼” 굴었다. 이 소설에서 그녀의 곁에 부재하는 남편은 이처럼 현재 그녀가 보고 있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연상된다. 문제는 그의 처지나 상태가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우리 속 동물

414) 양귀자, 「방울새」, 202면.
415) 양귀자, 「방울새」, 208면.

보다 ‘더’ 동물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동물과 인간이 근거리에서 서로를 흉내 내는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녀에 반해, 그녀의 딸 경주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위계가 전환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원숭이를 흉내내는 윤희의 아들 성구를 보며 경주는 “벌레처럼 무서워” 한다.

> 성구는 좀체 지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성구의 끝없이 치솟는 변화무쌍한 그 힘이 경주를 주눅들게 했다. 경주는 여자애답게 그녀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입을 오므라뜨리며 중얼거렸다. **무서워, 오빠가 무서워. 오빠는 벌레처럼 무서워**.
>
> 경주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벌레였다. 장롱 밑에서 기어나오는 오줌싸개, 쥐며느리에서부터 바퀴벌레, 돈벌레까지 그것들보다 무서운 것이 세상에 또 있으랴 하는 고집을 그애는 지니고 있었다.…두 발로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나이였다. **단지 인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노출되고 공격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 사회에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벌레가 되는 것임**을 알기에도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416]

경주는 “장롱 밑에서 기어나오는 오줌싸개, 쥐며느리에서부터 바퀴벌레, 돈벌레까지 그것들보다 무서운 것이 세상에 또 있으랴 하는 고집”을 지니고 있었고, TV에 나오는 “뻐드렁니에 핏방울을 묻힌 드라큘라”도 “벌레”의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서워한다. 이런 경주를 보며 그녀는 “두 발로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면서 “단지 인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노출되고 공격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 사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벌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그녀의 발화다.

양귀자의 소설이 제기하는 짐승, 벌레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문제를 “짐승이 되어버린 무력한 개인”[417]의 문제로 한정하면, 그들에게 남은 가능성은 기존의 우리가 지켜온 인간적인 삶으로의 복귀뿐이

416) 양귀자, 「방울새」, 203-204면(강조는 인용자의 것)
417) 황도경, 「2판 해설/ 밥의 진실과 노래의 진실」, 『원미동사람들』, 쓰다, 2014, 396면.

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지젝이 제안한 대로, “사유의 수동성 자체의 ‘실천적’ 측면을 주목하여 존재로부터 사유를 분리시키는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속에서 그것을 착상하는 것이다.” [418]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짐승이나 벌레가 ‘된다’는 문제를 198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인간을 벌레 또는 짐승과 같이 만들고 있다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거나, 환원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벌레가 된다는 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그 자신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선택된 것이다. 이를 주목할 때 짐승과 벌레로 되려는 이 존재들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사유가능성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서 이 소설의 결말이 보여주는 절망적인 분위기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 냄새는, 특히 이런 유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하였다.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느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그녀는 이제 조류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 코는 말짱해져…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곤 별로 없는 것이다.
>
>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횡대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곧이곧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 것에 불과하였다. [419]

> 내일모레쯤에는 남편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번에야말로 헛손질과 얼룩진 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방울새가 저어기에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도 좋다. 배고파하는 동물들의 벌려진 입을 전해주고도 싶다. 경주의 방울새 노래가 듣고 싶지 않으냐고도 물어볼 것이다.
>
> 이야기가 술술 풀려만 간다면 아니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구더기의 강에 대해

418)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19면.
419) 양귀자, 「방울새」, 219-220면.

서도 소상히 들려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머리칼 깊숙이 수십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털구멍에 처박혀 몸을 오그라뜨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제법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야 말하지만 이 꿈을 홀로 간직하는 일이 정말 두려웠다고도 말해보자. 말이란 한번만 눈 딱 감고 시작하면 실타래에서 풀려나오는 명주실처럼 길고도 질기게 계속될 것이었다. 한 번만 입을 열어 모음과 자음을 발음한다면, 한 번만 부리를 벌려 방울 소리를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히 견디어낼 것 같았다.(……)

버스를 타러 가면서 그녀도 자꾸 뒤를 돌아다본다. 그 때문인가, 이번 면회 때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슬그머니 사라진다.[420]

그녀는 조류원의 방울새를 보면서 눈 앞의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곧이곧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가 방울새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한다. 이 새는 그녀로 하여금 "동굴에서 살고"(220)있는 남편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내일 모레쯤에는 그 남편을 찾아가 방울새와 그들의 딸 경주, '구더기의 강'에 대해서 "제법 세밀하게"이야기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보지만, 그 소망은 오래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사라"지고 만다.

앞서 살펴본 「한 마리의 나그네 쥐」의 사내는 산에서 머무는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의 자취가 사라지자 "한 가닥의 빛", "건강한 숨소리"를 그리워한다. 혼자 남은 "그는 숲 가운데 홀로 남아 흐느껴" 울었고, 이후 그의 자취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소설은 그 사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진실과는 상관없는 왜곡된 소문을 이야기하던 원미동 사람들의 현실로 돌아와 끝을 맺었다. 사내가 한 마리 쥐 '처럼'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상상하지만. 누구도 그가 입은 내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듯, 남편이 그 구더기 강의 진실을 듣게 되리란 요원해보인다.

이처럼 절망적이고 다소 우울한 분위기로 끝을 맺는 두 소설의 결말은, 개인의 사회적 기원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때, 그 위협되고 공격당하는 인간의 삶의 진실이 하나의 메시지로서 누군가에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양귀자의 소설 두 편에서 짐승과 '같이' 된 인간들의 생존에서 희망을 발

420) 양귀자, 「방울새」, 224-225면.

견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말걸기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김영현의 「벌레」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김영현의 이 소설은 "벌레가 되는 것이 인간을 노출하고 공격하는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방울새」)" 이라는 그녀의 발화에 정확히 반향한 벌레가 '된' 몸을 등장시키고 있다.

「벌레」(『창작과비평』17-1, 1989 봄)는 감옥에서 카프카의 「변신」을 읽은 '나'의 내면의 목소리로 전개되는 소설이다.[421] 이 소설은 '나'의 목소리를 통해, 한 개인을 무화시키려는 기원에 놓인 사회적 권력 앞에서 벌레가 '된' 인간을 우리 앞에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은 인간에게 고유한 '목소리'를 가진 벌레의 시선과 목소리로 진행된다. 이 벌레가 된 인간이 인간적인 것은 살아남은 채 생존과 어떤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22]

> 카프칸가 하는 친구가 쓴 작품 중에 「변신(變身)」이라는 것이 있다. 석 재미있다곤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기발한 내용이어서 읽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내용의 토막토막이

---

421) 김영현 소설은 권성우의 비평을 필두로, '김영현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권성우가 발견한 김영현의 '내면'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문학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움직임이자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권성우는 "80년대의 10년 동안에 씌어진 모든 문학은 일종의 원죄와 같은 '광주 콤플렉스'와 '박노해 콤플렉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진정 80년대적이게 한 결정적인 요소"였지만 "90년대 문학에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는 역시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90년대는 모든 "억압적인 족쇄와 이데올로기적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여야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데올로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사가 "풍부한 일상사와 다채로운 삶의 풍경에 의해 충분히 여과된"작품으로 김영현의 소설을 주목했다. 이를 통해 "진보적인 지식인의 섬세한 내면이 일상사에 매개되어 얼마나 풍부하고 복합적인 풍경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고평된다. 권성우, 「베를린전노협, 그리고 김영현 90년대 사회와 문학」, 『문학과사회』3-1, 1990, 255-264면; 권성우, 「어느 신진 소설가의 최근작에 대한 단상」, 『문학정신』, 1990.1.참조; 배하은은 1990년대 문학의 내면성에 관한 담론이 김영현의 소설에 나타난 다른 종류의 내면을 간과/배제하는 가운데 개인 주체의 내면이라는 좁은 범주 안으로 스스로를 협애화시켰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김영현의 소설은 소설 속 서사로서의 내면, 나아가 소설 바깥의 현실을 재구성하는 서사로서의 내면이라는 장치를 통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전망'을 현실을 전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참조.

422)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07면.

내 기억의 갈피에 남아 있다. 내 기억력이 다소 흐린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준다면, 아울러 억지로 그 내용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대충의 줄거리를 이야기해보겠다. 나의 기억력에 의존할 생각이 전혀 없는 독자라면 직접 그 책을 사보셔도 좋겠다. 이야기인즉슨 이러하다.(……)집안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누이동생만이 벌레로 변해버린 자기 오빠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때가 되면 먹이(먹이라고 표현했다)를 갖다주지만 그것도 오래가리란 보장이 없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할 언어도 잃어버렸다. 말을 하려 하면 칙칙거리는 이상한 벌레 울음소리만 나는 것이었다.(……)그 소설을 번역한 친구(내가 읽은 책이 일어판에서 중역한 싸구려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가 책 뒤에 해설해놓은 것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취약성(脆弱性)' 어쩌구 하여 더욱 난삽하게 설을 풀어놓은 통에 나는 더더욱 헷갈리고 말았다.[423]

'나'는 벌레로 변한 「변신」의 사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사내의 누이동생만이 그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먹이'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로부터 그는 사내의 생존이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내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할 언어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이후 소설은 '나'가 "벌레처럼 취급당하는 경험" 끝에 자기 "자신이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버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서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30)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서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벌레로 변한 '나'의 목소리라는 점이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이 소설은 처음부터 벌레가 된 '나'의 이야기(진실)을 들어줄 '독자'-당신을 상정한 채로 소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나 자신이 정말 벌레처럼 취급당하는 경험을 몇 번 하였는데 그 경험의 끝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와서 문득문득 나 자신이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버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느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느낌은 아주 불쾌하지만 동시에 약간의(이 표현의 뉘

423) 김영현, 「벌레」, 『창작과비평』17-1, 1989 봄 발표; 인용은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학사, 1990, 29-30면.(이후 이 「벌레」의 인용은 이 책에서 하며, 인용시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함)

앙스를 이해해주기 바란다)편안함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아니다. 그 편안함은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 알고보면 정체가 불분명한 두려움이고 불안이라고 해야 옳겠다.…(중략)…이러한 증상은 그 후 사회적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 조금씩 회복되기는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연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최루탄 가스의 어떤 성분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역으로 밝혀보자면 벌레가 되어버리는 듯한 나의 고통스러운 증상은 사회적 분위기와 약간의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 아니. 실제로 그럴 것이다. [424]

지난 5년을 감옥과 군대에서 보내고 돌아온 '나'는 요즘 들어 종종 "자신이 징그러운 벌레로 변"한 듯한 고통을 느낀다. '벌레로 변해버리는 듯한' 이 증상은 "가만히 혼자 방안에 앉아 있거나, 낯설고 어두운 거리를 걸어갈 때" 영락없이 '나'를 찾아와 괴롭힌다. "유물론자"인 '나'는 "과학적인 철저성"에 입각하여 스스로를 "정신장애환자"로 단정하고 그 원인과 치료법을 고민해왔다. 생각 끝에 그는 이 "벌레가 되어버리는 듯한 나의 고통스러운 증상"이 "최루탄 가스"가 상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과 관련된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그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성을 보여준다.

"우리의 기대대로 형은 일류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 그때 우리 집의 기쁨을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그 오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바로 눈 앞에까지 온 것을 우린 느꼈지. 그때 나는 시골에서 겨우 농업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형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형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 살림은 더욱 쪼들렸고 자그만 땅붙이까지 팔아치워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그까짓 것쯤이야 우린 얼마든지 참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형이란 놈이 대학 3학년 때 덜컥 자살을 하고 만 거야."…"자살을요?"…

"그래, 자살이야. 아아 정말 나쁜 새끼였어. 어쩌자구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리는가 말이야.…정말 잠꼬대 같은 유언이라 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그 자식이 대학에 가서 빠져버린 게 바로 그 카프카라는 거야.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 그리고

424) 김영현, 「벌레」, 31면.

그렇게 썼더군. 자기는 '갈 수 없는 성'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야. 아아 정말 무책임한 놈이었어.…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전보다 더 형편없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로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카프카란 놈이 어떤 놈인지 만나면 찢어죽이겠노라고 절규를 하시는거야. ……한마디로 우리 집은 그 후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렸어."[425]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그가 영등포 구치소의 독방에 갇혀 있었을 당시 만났던 교도관, 더 정확하게는 그 교도관의 형이다. 대학 졸업반이었던 그때 '나'는 한 학기를 남겨 두고 '시위예비혐의'로 긴급조치 9호에 걸려 영등포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사역을 마친 죄수들도 모두 입방(入房)을 하고 나면, 각 사동(舍棟) 입구에 있는 이중 철문이 채워지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 '나'는 그때부터 독서에 전념하곤 하였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도관은 '나'에 대해 흥미를 보였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준다. "형편없는 술주정꾼"(36)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무엇이나 잡아 두들겨 패곤했다. 그러나 큰형이 공부를 잘해서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술을 끊었고, 닥치는 대로 남의 일까지 하며 "죽어라고 일만" 했다. "우리의 희망, 바로 형 때문"(36)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희망이었던 형은 대학에 진학한 뒤 카프카에게 빠져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함으로써 가족의 '희망'을 배반한다. 형이 "갈 수 없는 성"으로 가겠다며 떠나버렸기에, 그 자신은 교도관이 되어야 했고, 남은 가족의 인생 또한 "절망의 구렁텅이"(38)에 허우적거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다.

"무책임한 놈이군, 너도"(……)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형이란 놈도 그랬어.… 나에겐 형이 하나 있었어. 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식이었지만 말이야. 나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은 모두 우리 형과 같이 무책임한 놈들이라고 말해버리지. 기분이

425) 김영현, 「벌레」, 36-37면.

나밨다면 이해해주게."[426]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순 없어. 너 같은 놈들은 모조리 무책임한 놈들이야."[427]

카프카의 소설과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갖는 연관성을 고려할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교도관이 가족을 버리고 자살한 자신의 형을 향해 그리고 그런 형을 떠올리게 하는 '나'를 향해 던지는 경고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경멸조의 목소리로 '나'를 힐난한다. 교도관의 형의 삶은 그의 삶의 기원에 놓여있는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삶 대신, '죽음'으로 자유를 선택한 것이었다.

이처럼 첫 번째 에피소드는 개인을 무화시키는 사회적 기원에 놓인 가족이라는 관계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을 보여준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고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인간을 향해 교도관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부터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은 과연 "자기 운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 자기 운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 조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지젝을 참고할 때 그것은 간극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에 따르면 "궁극적 시차"가 가져다 주는 새로운 영역은 "주체의 자유/자발성"의 영역이다.[428] 이를 고려하여 '나'의 벌레되기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읽어보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지난 78년 여름, 내가 벌레가 되게 한 경험을 다루고 있다. 그 해 12월 8대 대통령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기에, 박정

426) 김영현, 「벌레」, 35면.
427) 김영현, 「벌레」, 38면.
428)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50면.

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하여 조기 선거를 실시하려 한다. ‘나’는 독재자가 기획한 기만적 선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감옥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투쟁을 시도한다. 철창을 두드리며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칠 때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전율”을 느낀다. “내 몸의 세포가 활짝 열리”면서 “모든 세포의 솜털은 바늘처럼 솟아올랐고,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인다. 옆방과 그 옆방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순간 죽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했고, “몸의 무게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투명한 존재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 또한 아주 짧은 순간 느꼈다.(42) 이후 ‘나’는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도살장의 소처럼 ‘먹방’으로 끌려가 손발이 묶이고 방성구가 채워져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내가 벌레가 ‘되는’ 경험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

> 말하자면 자신을 이중으로 분리시켜 묶여 있는 비참한 자신과 그것을 관찰하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해방되어 있는, 자유로운 자아를 하나 더 만들어버리는 방법이다.
>
> 나는 독방에 살면서 이 방법으로 약간의 효과를 보았다. …일반수들에게도 나의 이 ‘형이상학 요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유물론자이면서도 관념을 조작할 줄 아는 훈련이 되어 있는 나 같은 인간에게나 통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비좁은 식구통(밥 등 물품이 들락거리도록 되어있는 철문 밑에 달린 작은 구멍)에 대가리를 내배고 발광적으로 소리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이었다. 자신이 영점칠 평의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미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429]

‘나’는 0.7평의 좁은 공간에 갇혀 손발이 묶였을 뿐만 아니라, 입 안으로 들어오는 “방성구가 혀를 짓”눌러서 “소리를 차단”당한 상태에 이른다. 독방에 갇힌 다른 이들이 내지르는 ‘우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이상한 추억을, 때로는 공포감”을 느낀다. 그는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버텨

429) 김영현, 「벌레」, 45면.

내기 위해 갇혀 있는 자신을 이중으로 분리하여 “묶여 있는 비참한 자신”과 “관찰하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는 관념조작술을 시도한다. 이 관념조작술은 그에게 남아 있는 “해방되어 있는 자유로운 자아”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한 것이었고, 독방에 있는 그에게는 약간의 효과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다른 “일반수들”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그는 관념조작술이 자신에게 유효했던 것은 그가 관념을 조작할 줄 아는 “유물론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몸과 정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칠듯한 가려움”(44)과 요의尿意가 찾아오면서 그의 관념조작술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대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또 한차례 지나갔다. 나는 나무막대에 차단된 혀를 간신히 비틀어 ‘오음’이라고 불명확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을 뱉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 …

“오줌? 이봐 오줌을 누고 싶다는 말이야?”

나는 너무나 반가워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내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나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어. 열쇠도 없을뿐더러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이 있었거든.”…

…그의 뒤에다 대고 나는 다급하게 짐승같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는 되돌아오지 않고 가벼렀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문을 차대도 누구 하나 얼굴을 내미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원래의 자리로 천천히 돌아와…의지력을 풀어버렸다. 그리고는 드디어 요도를 꽉 잠그고 있는 의지력을 풀어버렸다. 고무풍선을 팽팽하게 부풀어올리고 있던 물이 황급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뜨뜻한 물기가 느껴졌다. 오줌은 척척하게 푸른 수의의 바지를 적시고 사타구니를 타고 엉덩이께로 하여 바닥으로 흘러갔다.…오줌보가 비는 만큼 고통도 사라지고 일종의 쾌감이 부르르 떨리며 지나갔지만 대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기분이 되었다.그때의 내 기분을 백분의 일쯤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지를 입은 채로 오줌을 사보면 될 것이다. 나는 그 후에 어떤 곳에서 심문관의 지시에 따라 옷을 발가벗겨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의 기분과 비슷하였으리라 기억된다.[430]

방성구로 입을 막힌 그는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실패

430) 김영현, 「벌레」, 위의 책, 47-48면.

한다. 간신히 혀를 비틀어 ‘오음’이라는 단어 아닌, 발음을 뱉어냈을 때 그 뜻은 가까스로 전달되지만, 그의 요구는 허락받지 못한다. 그가 생리적 욕구를 ‘인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박탈되어 있었고, 그 박탈의 주체인 사회는 그의 요구를 “짐승같은 소리”로 치부할 뿐인 것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의지력을 풀어버리고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싸기 시작한다. “오줌보가 비는 만큼” 육체의 고통은 사라지고 일종의 쾌감이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비참해질대로 비참해진 기분”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몸과 정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관념조작술은 도리어 그의 육체성을 더욱 부각시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 …그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한 고통이 되었다. 입에선 끊임없이 개처럼 질질 흘려대고 있는 침. 질퍽하게 오줌을 싸놓은 옷. 손을 뒤로 묶여 팔이 없는 사람의 꼴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형상이 그들을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말 것이었다. 나는 끝없이 작아지고 싶었다. 이를테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싶었다.…그때 나는 놀랍게도 내가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해가는 것을 알았다.…마치 여름날 나뭇잎새에서 흔히 발견되는 나방의 애벌레처럼…여러 개의 발이 몸통에 달려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유감스럽게도 내 몸을 완전히 관찰할 수는 없었다.…그러나 내가 한 마리의 완전한 그리고 다소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버린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매우 비참하고 괴로운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안감을 느끼게 해주었다.…이때의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나의 의식은 여전히 벌레로 변해버린 내 몸통의 눈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나는 벌레의 눈을 통하여 마치 열쇠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듯 자신을 완전히 숨긴 채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셈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수가 없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431]

방성구가 씌워진 입에선 끊임없이 “개처럼” 침을 흘러나오고, 질퍽하게 오줌을 싸놓은 옷을 입고서, 손을 뒤로 묶여 팔이 없는 기괴한 형상을 한 채 그는 늙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녀를 떠올리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그 수치와 고통 끝에 결국 그는 “한

431) 김영현, 「벌레」, 49-50면.(강조는 인용자의 것)

마리의 벌레로 변해" 버린다. 주목할 것은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나의 의식이 "여전히 벌레로 변해버린 내 몸통의 눈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 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몸을 완전히 관찰할 수는 없지만, "한 마리의 완전한 그리고 다소 징그러운 벌레" 로 변해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감지한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벌레가 된 그로 하여금 비참하고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상한 위안감" 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수가 없" 으므로, "이보다 더 안전하고 편한 일" 은 없다. 그는 그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지젝은 카프카의 「변신」에서 잠자의 여동생이 곤충으로 변한 오빠를 괴물이라고 부를 때 사용된 독일어 "ein Untier" 가 비인간적인 것의 엄밀한 대칭인 비동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잠자의 '변신' 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인간의 반대, 동물로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 동물로 볼 수 없는 상태의 것이다. "동물 속에 동물을 넘어서는 과잉이 있으며 우리는 오직 동물로 변한 인간 속에서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동물성의 외상적 중심을 볼 수 있다." 432) 이를 참조할 때,「벌레」의 사내가 느끼는 이 위안은 이 시차적 전환을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자유는 현상과 본체 사이의 이 궁극적 시차, 시차적 간극을 통해서만, 벌레가 '된' 몸을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평이 현상적인 것일 때에만, 본체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을 때에만 자유롭다." 433)

이제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한 가지 사실만 더 사족으로 달아두고자 한다. 혹시 **당신**이 의사라면 이 사실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 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인간은 퍽이나 단순하고 낙천적이며 때때로 경박하기까지 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나는 절대로 카프카의 변신에서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사내'처럼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두기 위해서 말해둔다.

지금 밖에는 때늦은 가을비가 추절거리며 내리고 있다.

나는 불을 켜두지 않은 반지하의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앉아서 이 글을 쓰면서 또다시 서**

432)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50면.
433)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51면.

서히 벌레로 변해가는 자신을 느끼고 있다.(나는 그 후 5년이 지나서야 옛 애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낯설어 있었다.)[434]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는 벌레로 변해버린 몸으로, 벌레의 눈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숨긴 채"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인간은 퍽이나 단순하고 낙천적이며 때때로 경박하기까지 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은 절대로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사내처럼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발화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설명하는 방식의 사람으로서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사내'처럼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으로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그는 "이 글을 쓰면서 또다시 벌레로 변해가"고 있다. '나'는 "유령 같고 불가능하며 탈육화된" 목소리로 '독자 여러분'과 '나' 사이, "당신"과 "나"사이에서 "계속 살아남는다."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서의 '생존'이 인간의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역설적 방식이라는 점이다.[435]

아도르노는 「카프카에 대한 노트」에서 카프카의 작품이 "개인의 사회적 근원은 결국 개인을 말살하는 권력"임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카프카의 작품을 이 '권력을 흡수'하려는 시도이자 노력으로 평가한다.[436] 지금까지 살펴본 양귀자의 소설 「한 마리 나그네 쥐」. 「방울새」와 김영현의 소설 「벌레」는 이러한 관점에서 카프카의 작업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소설들의 주체는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조건으로,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개별 주체들의 삶을 훼손시키려는 기원에 놓인 권력을 밝혀 보이고 있다. 이들은 탈脫인간화한 몸으로의 변신變身을 통해 '나'의 인간됨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억압

434) 김영현, 「벌레」, 위의 책, 51면.
435)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07면.
436) 테오도르 W. 아도르노, 홍승용 옮김, 『프리즘』, 문학동네, 2004, 305면;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10-111면.

과 금기를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이 소설의 주체들의 변신이 의미하는바, ‘비非인간적인 것’의 상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회적 위협 앞에서 자신의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탈脫인간화하는 역설적인 생존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신變身의 의미에 관한 논점은 개인의 기원에 놓인 사회적인 것을 관계의 문제로 진전시켜야 한다. 앞서 논의했던, 양귀자의 소설의 인간들이 인간과 비非인간의 경계, 간극에서 생존하면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의 생존의 방식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전달받을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437] 탈脫인간화한 몸들의 변신變身은 언어의 구조 안으로 들어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

437) 양귀자의 「천마총가는 길」(『현대문학』, 1988.6)은 ‘그’가 천마도 앞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를 염원하며 각서에 굴복했던 지난 7년의 시간들을 되돌리기를 희망하며 끝이 난다. 이 ‘희망’은 그가 6월 항쟁을 경험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받을 ‘너’를 찾게 된 경험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를 상실한 주체와 윤리적-정치적 토대의 쇄신

앞서 탈脫인간화한 몸으로의 변신變身을 사회적 기원에 놓인 권력이 인간의 삶을 훼손시키려 할 때 인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역설적 실천으로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탈脫인간화한 몸이 우리와의 관계로 사유되지 않는다면, 그의 생존은 다시 위협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절chapter에서는 임철우의 「사산하는 여름」(『외국문학』 5, 1985.6)과 「불임기」(『문학사상』 155, 1985.9), 최윤의 「저기 한 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문학과 사회』, 1988 봄)와 「회색 눈사람」(『문학과 사회』, 1992 여름)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들의 소설은 훼손되고 찢긴 몸들로 가득하다. 비인간적 과잉으로 충만한 이 몸들은 인간으로서의 인식불가능성・인정불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우리에게 번역을 요구한다. 이 번역의 요구로부터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원에 대해 무지한 취약한 주체를 발견하게 된다. 훼손되고 찢긴 몸들이 환기하는 문제를 관계성과 취약성이라는 인간을 구성하는 새로운 질서의 문제로 사유할 때, 인간다움personhood에 관한 사유의 지평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임철우의 소설 「불임기」와 「사산하는 여름」에는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있는 아이들의 흰 팔목, 뭉특하게 잘린 혀, 성기가 맞붙어 있다는 괴물 같은 몸, 우물에 묻혀있다가 떠오른 부패한 시체들과 같은 기괴한 형상으로 가득하다.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당시 이 비非인간적인 형상들은 “상징적” 혹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었다.[438] 여기에는 이 소설들이 1985년을 전후한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이 해석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신군부의 위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이 소설들이 보여준 괴물에 대한 상상은, 1980년 봄의 광주라는 “금기의 틈을 여는 썩 유효한 방편”[439]의 알레고리로 평가되었다.[440] 그러나

438) 오생근, 「(해설)단절된 세계와 고통의 언어」, 『그리운 남쪽』, 문학과지성사, 1985.

이 잘리고 부패한 이 몸들을 상징이나 비유로 이해하기에 앞서, 이들이 말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 앞에 출현할 때, 우리는 이들을 인간으로 인식·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몸을 무엇으로 간주하는지 먼저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음을 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출현이 '오월 광주'라는 1980년대 특유의 사회적·정치적 사건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책임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비非인간적 과잉으로 충만한 몸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청된다.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책임감을 어떤 맥락에서 이론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탈인간화한 몸으로의 변신'의 문제를, 인간을 비非인간으로 격하시킨 폭력을 비판하는 데 주된 초점을 두어 해석할 경우, 탈중심화하지 '않은' 주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내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였다.[441] 책임감이라는 문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문제가 된다. 책임의 주체가 갖는 주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와 니체의 분석을 참조하여 양심의 가책이 부정적인 나르시시즘의 한 형식이 된다고 지적한다. 주체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책임을 사유할 때, 그 주체는 타자, 감수성, 민감성, 취약성으로부터 물러난다. 버틀러의 논점을 참조할 때, 책임감은 죄의식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지적인 것the unwilled'의 지대를 통해 공통의 취약성, 공통의 물질성을 상기하는 문제로 사유되어야 하는 것이다.[442] 요컨대, 책임감은 "주체의 중심성과 필수불가결성을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심의 가책 너머에서" 이론화되어야 한다.[443] 이 점을 견지하면서 임철우의 소설에 나

439) 성민엽, 「금속성과 액체성의 대립」, 『작가세계』 8-3, 1996.8, 44면.

440) 성민엽, 「세계의 폭력과 자아의 숨음」, 『우리세대의 문학』4, 1985.1; 서영채, 「임철우론 : 『봄날』에 이르는 길」, 『문학동네』 5-1, 1998 봄 참조.

441) 우리 자신의 행위가 모든 있을 수 있는 결과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의 전지전능함을 믿기라도 하는 양, 우리의 행위에 호소함으로써 폭력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죄의식은 때로 폭력을 비판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느낌을 극대화시킨다.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74면.

442) 위의 책, 174면.

443) "양심의 가책이 주체를 나르시시즘 안으로 퇴출시키는 만큼 양심의 가책은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이타성, 윤리적 반응성의 가능성을 출현시키는 이타성과의 일차적 관계를 폐제시킨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로 책임

타난 비인간적 과잉과 주체의 관계, 이로부터 책임감을 이론화하는 문제를 규명해본다.

「사산하는 여름」(『외국문학』, 1985.6)은 각 절에 따라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가 달라지는 중편소설이다. 다섯 개의 절에서 중심이 되는 에피소드는 조금씩 달라진다. 이 도시의 시민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두 개의 소문-향민의원을 둘러싼 괴소문과 수원지에서 시체가 떠올랐다는 소문으로 소설은 큰 틀을 마련한다.([1], [5])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강진댁과 남편 최씨의 이야기[2], 대학시절의 친구였던 P와 K가 야학에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배 김광서를 찾아가 재회하는 이야기[3], 그간 김광서에게 일어났던 과거와 그 이후의 이야기[4]가 전개되고 있다.

> -저어, 뭣이냐. 그 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요?
>
> -그 사람들이라니.
>
> -아, 이러지 맙시다이.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을 가지고 …… 아직도 안 떨어지고 찰떡맨키로 딱 붙어있소?…
>
> 누군가 곁에서 킥킥대는 기척이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듯하더니, 기어코 녀석도 으흣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김씨는 마침내 열이 바짝 뻗쳐오른다. 뭐여? 뭐가 붙어 있어? 이 쓸개빠진 자식아. 비싼 밥 처먹고 이따위 전화질이나 할래, 아침부터? 김씨는 악다구니를 빽빽 질러 넣어 주고는 수화기를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고 만다.…벌써 보름이 넘게 계속되어 온 비슷비슷한 전화들이 이젠 김씨를 아주 녹초로 만들어놓은 셈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남녀들이 낄낄대며 수화기를 통해 그의 귓구멍으로 무차별로 쏟아붓는 온갖 낱말과 목소리들은, 때로는 뾰족한 바늘침이나 쇠꼬챙이처럼 혹은 흐늘흐늘 썩어문드러진 무슨 벌거지 떼처럼 다짜고짜 귓구멍을 후비고 고막을 뚫어대다가 기어코는 그의 육신 내부 깊숙한 곳까지 함부로 침입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얼빠진 전화 속의 작자들…할일없는 구경꾼들[444]

불륜관계의 형수와 시동생의 성기가 떨어지지 않아 한데 엉킨 몸이 되어서 비밀스럽게 향민의원에 입원해있다는 소문을 전하며 소설

감에 어긋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주디스 버틀러, 위의 책(2013), 173면.

444)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외국문학』5, 1985.7, 25-26면.(이후 동일 작품의 인용은 여기서 한다. 인용 시 작가, 제목, 면수만을 표기함)

은 시작한다. 향민의원에서 수위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남녀들이 낄낄대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이들에 관해 물어오는 것이, 마치 그의 “육신 내부 깊숙한 곳까지 함부로 침입해들어오는” 것 같아 불쾌하고 피로하기만 하다. 첫 번째 장([1])에서 문제가 되는 소문은 이것만이 아니다. 김씨의 아내는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급수제가 가뭄 때문이 아니라, 산 너머 수원지에서 떠오른 시체 때문이라는 소문을 전해준다.

-여보. 저그, 그 소문 들었소? 어저께 큰방집 여자가 그라는데, 산너머 수원지 밑바닥에서 시체를 건져냈답디다예. 그것도 자그만치 일곱씩이나 말이어라우. 그거이 참말이까라우.

어제 오후, 김씨가 모처럼 끼니 때를 맞춰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는 방정맞게도 밥상머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입을 열었다.…

-죽은 지가 솔찬히 오래 되놔서 그런지, 오만 몸뚱이가 아주 팅팅 물에 불어터져갖고 얼굴 형체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들 하등만요. 하기사, 안 그럴랍디여. 벌써 그때가 언제인디(……)무슨 수돗물에서 그리 괴상스럽고 고약하게 썩은 냄새가 올여름 내내 콧구멍을 쑤셔대능가 했더니, 결국 알고 보니께 그 송장 때문이었등개비라우, 아이구, 시상에. 천벌을 받지 원, 무슨 이런 징한 일이 또 있으까이. 암만해도 시상이 망할라고 이런갑소야.

-거, 지발 아구지 좀 닥치지 못할란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송장 썩은 물을 마시고 살았다는 얘기여, 뭐여.

-어따, 우리집 뿐이랍디여. 온 시내 사람들이 모두 같이 마셨겄지라우.

-당신이 봤어? 임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느냐고.

-아, 보기는 내가 어떻게 봐라우. 그냥 사람들이 그러드라는 소리제이. 보나마나 틀림없이 재작년 그 난리통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일 것이라고들 합디다.

-누가 그런 소릴 해? 제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은 일을.

-으마. 한번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어디 물어보시오.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일이라는디…….

김씨는 입맛이 썼다.…팔십만 시민이 식수로 쓰는 수원지에 하나도 아니고 일곱씩이나, 그것도 한결같이 수면으로 뜨지 않고 몇 년째가 되어가도록 물밑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번 가뭄으로 밑바닥이 벌겋게 드러나자 뒤늦게야 눈에 띄게 되었노라는 것도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렸다. 더더구나 지금에야 우연히 물밑바닥에서 찾아낸 시체에 아직도 그런 대로 살점이 온전히 붙어 있었노라는 대목에 이르면 이미 그것은 꾸며낸 얘기임에 틀림없으리라고 김씨는 단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내의 그 얘기는 불현듯 김씨의 가슴 어디쯤인가에 한 자루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

아와 깊숙이 박혔다. 그리고 그 비수가 꽂힌 자리로부터 피고름처럼 눅진하게 솟구쳐 흘러나오는 것은 지금껏 스스로 간신히 감추고 억눌러 온 어떤 알 수 없는 분노와 적의의 덩어리였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는, 쯧,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도 못 보았다등가. 날이 하도 오래 가물다 보니 수원지 밑바닥에 뻘흙이며 모래가 가라앉고, 이끼랑 흐레가 끼어서 그런 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라디오 방송에도 났었는디…….[445]

김씨는 아내가 전해준 소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팔십만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수원지에 오래도록 시체가 묻혀 있었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오랜 가뭄으로 수원지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나타난 시체 일곱 구의 몸에 살점이 붙어 있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진실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서는 분명 "오래 가물다 보니 수원지 밑바닥에 뻘흙이며 모래가 가라앉고, 이끼랑 흐레가 끼어서" 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급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 중 누구도 그 방송을 믿지 않았고, 애써 소문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김씨 역시 신문과 방송 내용을 믿지 않고 있었다. 김씨가 방송을 믿지 못한 것은 "그해 오월, 유난히도 길었던 열흘 낮 열흘 밤을 겪고 난 다음"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사건이 벌어진 후 며칠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결승전만을 방영했고, 라디오에선 앵무새같은 목소리로 "시민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셔야 해요. 일시적인 흥분은 자칫 이성을 잃게 하고 문화시민의 긍지를 저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이라는 안내만이 흘러나왔다. 다음 날, 찜찜한 기분으로 병원을 나서는 김씨의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확성기 소리가 틈입한다. "시민 여러분"을 향해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계절"[446]이라며 반드시 물을 끓여 마시라는 안내였다.

임철우 소설에서 서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각종 소리들이 틈입하는

445)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28-29면.
446)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31면.

장면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시가지를 돌며 안내하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그 차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 소리, 뿐만 아니라 총성으로 오해되었던 택시의 타이어가 터지는 "타아아-앙"[447]하는 소리 같은 것들은 수시로 이 도시의 일상을 침입하여 그 질서를 깨뜨린다. 시차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448] 임철우의 소설은 이 소리들을 통해 남녀의 성기가 하나로 엉킨 괴물 같은 몸들이 출현할 수 있는 간극을 포착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인간과 비非인간의 이분법을 심문한다.

> 어쩌면 이 소문은 이미 사실이냐 아니냐의 단계를 훨씬 넘어서버리고 만 셈인지도 몰라. 한 덩어리로 엉킨 남녀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혹은 전혀 얼토당토않게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헛소문에 불과할 뿐이든,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냐. 정작 문제는 다른 데에 있는지도 몰라.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자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야. 바로 이 순간에도 말야…….그는 손가락으로 무릎 위에 경계선을 반복해서 그려대며 혼자 그런 생각에 빠져든다. 신화를 만드는 시민들. 이 도시의 팔십만 시민들의 대부분은 스스로도 모르는 새에 어느 틈에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공통의 작업에 참으로 적극적이고도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들은 모두 그 네 개의 팔과 네 개의 다리와 두 개의 머리를 지닌, 인간을 닮은 한 마리 괴물의 창조자들이자 그 주인들인 셈이었다.[449]

이 소설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대학시절을 함께 보낸 P와 K가 오랜만에 재회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P는 "팔십 년 봄" 이후로 일 년 반의 형기를 치러야 했고, 제적을 당한 뒤 혼자 떠돌았다. K와 P는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지만, P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에덴다방'에 먼저 도착한 K가 P를 기다리는 동안, 다방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 도시를 떠돌고 있는 기괴한 사건에 대해 떠들어대기에 바쁘다. "이 즈음의 도시는" 어디에서든 "온통 그 얘기로 들끓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만 하면 어디든, 그들은 "한덩어리로 엉킨 남녀에 관한 얘기를 쑥덕거리곤 했다." K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 소문과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447)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57면. (강조-원문)
448)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14-17면 참조.
449)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58면.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에 이 문제는 “이미 사실이냐 아니냐”의 단계를 넘어서 있다. 중요한 것은 소문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도시의 시민들이 “자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여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위 김씨와 K 등의 입을 빌려 “도시의 팔십만 시민들”이 “네 개의 팔과 네 개의 다리와 두 개의 머리를 지닌, 인간을 닮은 한 마리 괴물의 창조자들이자 그 주인들”이라고 서술되는 대목은 주의를 요한다. 보편 인간으로 위치해 온 이 시민들을 “인간을 닮은” 괴물의 창조자, 그 괴물들의 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연, 누가 인간이고, 누가 괴물인지 우리로 하여금 되묻고 있는 것이다.

남녀의 성기가 붙어 있다고 상상되는 몸, 퉁퉁 불은 살점이 붙어 있는 시체와 같은 비현실적인 존재들과 이들에 관한 신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의 인간들을 통해 이 소설은 인간과 비非인간의 경계를 의심한다. 지젝은 ‘비非인간적인 것’을 인간도 아니고 비非인간도 아니지만, 인간됨에 고유한 무시무시한 과잉의 징표를 지닌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비非인간적 과잉이 ‘인간성’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내재적인, 주체성 자체의 중심으로 간주한다.[450] 이러한 시각에서 ‘비非인간적인 것’의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제기하는 인물이 김광서다.

수척한 얼굴로 나타난 P는 K에게 그간 연극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김광서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K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이 맺어진 것은 P를 따라간 야학에서였다. 대학 시절 P의 설득으로 K는 난생처음 창고학교를 찾았고, 김광서는 그곳에서 교장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봄” 이후로 K는 김광서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야학도 문을 닫게 되었다. K는 김광서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P의 음울한 표정에서 광서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한다.

450)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49면.

방안은 무척 어두웠다. 뒤따라 들어온 그녀가 문을 닫고 형광등의 스위치를 눌렀다. 빛이 드는 걸 이 양반이 끔찍이도 싫어해서라우.…불빛 아래 드러나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K는 가슴 한 귀퉁이가 텅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451]

무엇인가로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그의 이마와 광대뼈 언저리에 푸르딩딩하게 부어올라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며 자꾸만 입술을 짓씹어야 했다. 아니다. 이것은 형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 당당하던 형이 이렇듯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선 안 된다. K는 속으로 연신 고개를 흔들며 눈앞에 쓰러져 누운 그 병든 사내의 그 모습을 부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환영이 아니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폭력 앞에 홀로 맞닥뜨려진 채 그 숨겨진 공간과 고통의 시간, 그리고 형언키 어려운 공포의 기억 속을 다만 맨몸뚱이 하나만으로 자신의 살과 내장과 뼈 관절 마디마디까지도 모조리 해체시켜 가며 홀로 통과해 온 한 사내의 시든 육신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분명히 놓여져 있는 것이다, 하고 K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내의 망가져 버린 육신 위에 실려져서 그의 가난한 가족에게로 함께 돌려보내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에 해체되어 가기 시작한 병든 영혼 하나였다.[452]

김광서는 그 날, 광장의 마지막 밤을 지켰고, 복역 중에 정신이상을 앓아 강제 퇴소를 당해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K는 병든 사내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마주한 순간 “가슴 한 귀퉁이가 텅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눈앞에 쓰러져 누워 있는 그를 환영으로 부인하고 싶었다. 가난한 살림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야학을 이끌어가던, “예리하고 힘이 들어 있던” 김광서의 눈빛은 부옇게 초점을 잃은 눈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김광서는 K의 눈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폭력”을 홀로 맞닥뜨린, “숨겨진 공간과 고통의 시간” “형언키 어려운 공포의 기억”을 드러내는 “맨몸뚱이”로 출현한다. 그는 “자신의 살과 내장과 뼈 관절 마디마디까지도 모조리 해체시켜” 홀로 통과해 온 하나의 “시든 육신”으로, K와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451)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67면.
452)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69면.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몇 천번 몇 백 번이나 더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네?…

거짓말!

아,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제발. (…중략…) 단 한 시간, 아니 십 분, 아니, 일 분, 아니 단 몇 초만이라도 내 말을 진실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주기만 한다면, 그저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여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준다면-아아, 난 사람이니까. 개가 아닌 사람이니까.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눈과 사람의 혀와 사람의 숨결과 사람의 심장을 지니고, 사람의 말을 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다만 사람으로 인정해 줄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소. 만나게 해주시오. 내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 스물 백까지 모조리 다 털어놓을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아니오. 당신들은 그렇지 못해요. 당신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중략…) 제발 그러지 말아요. 믿어 줘요.…나는 이런 책상도 아니고 차디찬 쇠붙이 수갑도 아니고 이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오. 저 천정도, 전등의 불빛도, 벽도 쇠창살도 아니오.…**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453]

세 번째 에피소드와 네 번째 에피소드는 모두 김광서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김광서를 찾아간 P와 K가 그의 아내를 통해 김광서에게 일어난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네 번째 에피소드는 철저하게 김광서의 내면으로부터, 그가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454] 김광서는 꿈 속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 고문을 가하는 맞은 편의 사내는 어둠 저편에 묻혀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대신, 자신은 혼자 유일하게 불빛에 노출되어 있”다. 김광서가 보는 눈으로, 빛과 어둠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간 사이를 가르고 있는 빛의 벽”으로 그려지고, “또 그것이 지닌 어마어마한 힘, 그리고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는 그것의 막막한 단절감”을 가져

453)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77-78면. (강조- 인용자)

454) 이러한 방식은 1절에서 살펴본 양귀자의 소설 「한 마리 나그네 쥐」에서 원미산에서 자취를 감춘 그 사내의 진실과 원미동 사람들의 추측으로 소설이 전개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오는 비현실의 시공간이 펼쳐진다. 김광서는 그 무대 위에서 말하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몇 초만이라도" 자신의 "말을 진실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훼손된 자신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머리와 눈, 혀, 심장을 지닌 보통 사람으로 자신을 "인정해 줄 사람"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하지만 당신은 아니오. 당신들은 그렇지 못해요. 당신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라는, 괄호 속의 말이다.

그의 말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김광서의 고백을 미친 사람의 것으로 치부하고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가 정상의 인간Man으로 회복되어 말하기 전까지 그의 말은 들리지 않는 것이다. 김광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지금 현재당신의 눈 앞의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김광서의 현재를 만든 상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김광서 역시 누군가의 말걸기로 인해 '타격당한 영혼'이라는 점이 그의 과거를 통해 밝혀진다.

> …소리. 목소리.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었지. 산기슭 기도원 지붕을 넘어 어디론가 지나가는 바람이 무심코 유리창을 흔들어대는 소리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이상도 해라. 그 수상한 소리는 이따금씩 끊어졌다 이어지고 다시 끊겼다가 시작되곤 했어.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소리가 타기도 하고…어디서 들려오는 것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었어. 하지만 이윽고 자리에 누우면 다시 그것은 시작되고 끝내 난 잠을 영영 이루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어.
>
> 노래 소리. 아아 그건 아이들의 노래 소리였어. 손에 손을 잡고 입과 입을 모아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 선생님 저예요. 선생님…귀에 익은 아이들의 음성이 그렇게 나를 부르고 있었어. 얘들아. 어디있니. 어디서 나를 부르고 있는거냐.
>
> 그건 아이들의 노래 소리였어.[455]

김광서의 아내는 날마다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난폭해져서 손찌검을 일삼는 그를 기도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닷새 만에 그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보름이 되던 날 서대문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

455) 임철우, 「사산(死産)하는 여름」, 81면.

을 받아 겨우 그를 찾아올 수 있었다. 아내는 그가 그곳에서 왜, 어떻게 탈출하여 서울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었던 그 의문은 김광서의 독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기도원의 원장은 김광서에게 규칙을 따를 것을 종용하며 감옥 같은 방에 처넣었고, 여러 날을 그 방에 갇혀 지내던 김광서는 자신을 부르는 이상한 노래소리를 따라 끊임없이 걷고 달렸다. 그렇게 정처없이 소리만을 따라 달리던 김광서는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커다란 트럭 하나를 보게 된다.

> 그 검은 트럭의 뒷칸에서 얼핏 무엇인가가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했어. 그것은 아이들의 하얀 팔목이었지. 이윽고 발가벗겨진 아이들의 희고 고운 팔목들이 어둠 속에서도 나를 향해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였어. 오오오…. 아이들이 일제히 손바닥을 펼쳐 흔들어대고 있었어. 나를 부르고 있었어. 난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아.…
>
> 아아 가지마 누가 너희들을 어디로 끌고가는거냐. 얘들아. 가지마. 목이 터져라 외치며 나는 뛰었어. 아이들이 트럭 뒷칸에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지. 끔찍한 모습이었어. 온통 시뻘건 핏빛 페인트를 얼굴이며 머리까지 흠뻑 뒤집어쓴 채 아이들은 그 수상한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어.…난 혼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
>
> …밤늦은 야학의 퀴퀴하고 습기젖은 구석방, 선생님 안녕히 계셔요. 잘 가요. 잘 가요. 안녕히. 안녕.…키가 작은 미형이 구두닦이 영식이 양재 재성이 동주 곰보 점순이 양님이 은실이 추자 기덕이…아이들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어. (……)
>
> 어디로 갔지? 트럭에 실려 짐짝처럼, 발가벗겨진 아이들의 희고 고운 팔목들떨어져 쌓인 꽃이파리들처럼. 넝마조각처럼 너희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지? 누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냐. 얘들아. 얘들아….[456]

그가 기도원을 나와 서울까지 올라오도록 이끈 것은 야학에서 만난 아이들의 목소리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찾아 정신없이 달렸던 김광서가 본 것은 검은 트럭의 뒷칸에 짐짝처럼 실려 있는 아이들의 희고 고운 팔목이다. 발가벗겨진 아이들이 손바닥을 펼쳐 흔들어대고 있었고, 시뻘건 핏빛 페인트를 머리까지 흠뻑 뒤집어 쓴 채로 웃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광서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파

456) 임철우, 「사산하는 여름」, 84-86면.

열시킨 것은 고문이었을지 모르나, 그를 영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 김광서의 내면을 강타한 기원은 폭력이 아니라, 야학에서 만났던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의 끔찍한 죽음, 발가벗겨진 몸들이 건네는 목소리가 김광서에게 상처를 입혔기에 그는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광서의 내면을 강타한 것은 야학에서 만난 아이들의 노래가 가져온 타격이라 할 수 있다. 버틀러는 폭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물리적 취약성,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체의 이름으로 해소할 수 없는 취약성의 조건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폭력은, 김광서와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와 김광서가 확고한 경계를 통해 철저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피부 속의, 양도된, 서로의 손 안의, 서로의 자비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방법을 제공할 취약성을 발견할 조건이 된다. 이 타격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정초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가 책임감을 떠맡는 조건들을 창조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457]

이처럼 우리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떠맡게 하는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 소설 「불임기」다. 「사산하는 여름」과 「불임기」는 제목에서부터 죽음, 생명의 불모성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앞의 소설이 사산(死産), 즉 죽은 아이들이 출현하는 사건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 소설은 불임(不姙) 즉, 생명이 자리할 공간이 존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강조한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떠맡는 조건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불임기」(『문학사상』, 1985.9)는 어느 해 늦은 봄날 새벽, 이제 막 달음질을 시작할 또래들로부터 아직 열 두어 살이 채 안 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의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의 일을 다루고 있다. 수많은 마을 아이들을 누가, 왜, 어디로 끌고 가버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 이후부터 마을에는 긴 가뭄과 함께 재앙이 시작된다. 마을 우물 밑바닥으로부터는 선연한 핏빛 물

457)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비판』, 인간사랑, 2013, 175면.

줄기가 퀼퀼퀼 솟구쳐 나오거나 마을 앞 개울가에 "누군가의 손가락에서 금방 뽑혀져 나온 게 분명한 사람의 손톱들"[458]이 강을 따라 떠내려오는 식이다. 이 마을에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두려운 증거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마을에 혀가 뭉텅이로 잘린 두 아이가 나타난다. 이 아이들은 유일한 생명이었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 너희들은 어디서 왔지? 어떻게 돌아온 거냐, 응?
> 지금껏 어디에 있었니. 그럿듯 오래동안 말이다.
> 왜 너희 둘뿐이냐. 다른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지?
> 누구냐. 누가 너희들을 데려갔어?
> 우리 아이는 못 보았니? 어째서 함께 오지 않았어?…
> 별안간 아이가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안고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다. 숨이 막힌 듯 가슴을 두드리고 목을 휘휘 내젓기도 했다. 그러다가 아이는 땅바닥에 풀석 무릎을 꿇었다. 입을 잔뜩 벌린 채, 얼굴이 발갛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당혹했다. 우우우…기묘한 신음 소리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한 사내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대답해! 넌 누구냐. 어디서 왔어."
> …아이의 입이 더 크게 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번엔 사내가 기겁을 하고 놀라 외쳤다.
> "아앗. 이것봐. 없어! 혀, 혀가 없어!"
> …그때 그들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아이의 목구멍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은 그 짙은 우둠을,
> "없다! 없어! 혀가 잘라져 버렸어."
> 아이의 입안엔 뭉특하니 뭉쳐진 살덩이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아직 가맣게 피멍울이 맺힌 그 끝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잘려진 듯했다.(……)
> 누군가의 짓이야. 누군가가 잘라내 버렸어.…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충격에 그들은 전율했다.…광장은 일순간 난장판으로 변했다.
> "그자들이다. 바로 그자들의 짓이야.…그래. 그자들이 올거야. 아이들을 찾아서."
> …온다. 그자들이 다리를 넘어 온단다.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다.…그들은 각기 집으로 뛰어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히 질렀다. 그리고 방안에 몸을 숨긴 채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았다.[459]

---

458) 임철우, 「불임기(不姙期)」, 『문학사상』155, 1985.9; 『그리운 남쪽』, 문학과지성사, 1985, 176면.(이후 동일 작품 인용 시 이 책에서 하며,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함)

459) 임철우, 「불임기」, 위의 책, 189-190면.

아이들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누가 데려간 것인지 앞다투어 묻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아이들이 자기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이 아이들의 혀가 뭉특하게 잘려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간 것으로 추정된 "그자들"이 찾아오리라는 두려움에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아이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노파뿐이었다. 노파의 아들 내외는 얼마 전 죽은 아이를 낳았음에도 이 아이들을 숨겨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라며 노파에게 아이들을 내보내라고 종용한다. 그날 밤, 아이들의 심장박동 소리가 "실낱"같아지면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된 노파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노파를 돕지 않았고, 노파는 그녀의 남편을 '치료'를 목적으로 데려갔던 '백색 제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가슴을 짓밟혀 숨을 거둔다. 그리고 혀가 잘린 아이들은 들 것으로 옮겨져 어디론가 알지 못할 곳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이 소설은 아이들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건 마을 사람들과 한밤중에 아이들을 찾아와 용서를 구한 광장의 미친 여자, 그리고 아이들의 실낱같은 심장소리를 지키려고 다리를 건넜던 노파를 통해 책임감이란, 우리가 지은 행동(죄)으로 인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떠맡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상황에서 세 종류의 다른 선택이 생겨나는 것은, "책임감이 타자에 반응하게 되기 위한 자원으로 무의지적 민감성을 사용하는 문제"[460]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앞서 제기한 문제, "양심의 가책 너머에서 책임감을 이론화"한다는 것은,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이타성, 윤리적 반응성의 가능성을 출현시키는 이타성과의 일차적 관계를 폐제"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461]

이를 이 논문이 탐색하는 '비非인간적인 것'의 맥락으로 가져온다면, 주체 내부의 기원에 있는 이 이질적 타자적 존재를 환대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고쳐 쓸 수 있다. 상황이 조건짓는 책임감은 우

460)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160면.
461) 위의 책, 173면.

리가 죄의식의 주체가 됨으로써 혹은 훼손된 인간을 치유하여 보편의 인간Man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훼손되고 찢긴 몸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환대가 책임감의 토대이며, 이것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새로운 척도가 되는 것이다.[462] 이 지점에서 최윤의 소설을 읽어보아야 한다.

최윤의 소설에서 '비非인간적인 것'은 타자와 연루된 자아의 불투명성을 가리킨다. '비非인간적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삶이 타자와 관계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로 인해 주체는 윤리의 토대가 아니라, 윤리를 위한 문제가 된다. 이제 최윤의 「저기 한 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1988)와 「회색 눈사람」(1992)을 통해 이렇게 타자와의 관계로 구성되는 자아의 불투명성,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상실하는 취약성이 다른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최윤은 1988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저기 한 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를 발표하며 소설창작을 시작한다. 등단 이후 최윤은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이어나갔고, 1992년 발표한 「회색 눈사람」으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첫 소설집 『저기 한 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를 출간했다. 그동안 최윤의 소설은 주로 비평을 통해 다뤄져 왔다. 예외적으로 그의 등단작 「저기 한 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것은 이 소설이 1980년 5월을 문학적으로 재현 혹은 증언하는 방식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463] 최윤의 소설을

---

462) 논의의 세부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이 절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논의로 차원현의 논문을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오월 광주의 '훼손된 육체'를 성급하게 애도하거나 승화하는 문제가 소박한 휴머니즘 혹은 관념적 휴머니즘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죄의식이 현대의 인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훼손된 육체의 자리에 각인된 죄의식이나 불안의 한계를 문제적으로 인식한다. 차원현은 이 훼손된 육체를 스스로 선택한 자기파괴의 결과물로 주장하며, 스스로를 오월 광주의 사후적 역사의 주체로 격상시키는 실천적 반인간주의로 주장한다. 차원현, 「포스트모더니티와 오월 광주」,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참조.

463)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미정, 「재현의 곤경, 설득의 서사 넘기 - 5월 광주 서사의 현재와 과제」, 『현대문학이론연구』 83, 현대문학이론학회, 2020; 배하은, 「재현 너머의 증언」,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2017; 양순모, 「이행기 정의와 비극-「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 『현대소설연구』 81,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양진영, 「5·18 소설의 정치미학 연구-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에 바탕해」, 『한국문학이론과비평』 88,

본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 1980-1990년대 문학이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변화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문학이 1980년대 문학과 맺고 있는 관계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이른바 한국 사회의 '전환기'로 일컬어지는 시기를 배경으로 발표된 최윤의 소설이 1987년 민주화의 활기를 구현하는 방식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464]

당대의 비평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최윤의 소설은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의 한국 문학장에서 낯선 스타일을 보여주면서도 한국사회 특유의 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 놓인 인간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주목된다.[465] 1980년대적 경향과 1990년대적 경향 사이의 최윤의 소설이 갖는 독특한 위치를 주목한다. 가령, 김치수는 역사적 자아를 중시하는 1980년대 작가군과 사적인 자아를 중시하는 1990년대 작가군의 사이에 작가 최윤을 위치시켰고,[466] 이수형은 최윤의 소설이 "80년대적인 것과 90년대적인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467]고 평가했다. 강동호는 이와 달리 최윤의 소설이 1980년대적인 것과도 1990년대적인 것과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윤의 소설은 "1980년대적인 경향성과 결별하고 있지만, 바로 그 개인성을 통해 역사적인 것과의 만남에 더욱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후에 나타날 1990년대 소설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불화"한다는 것이다.[46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0 등.

464) 차미령, 「이방인의 사랑」, 『회색 눈사람』, 문학동네, 2017, 337-345면.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 : 여성후일담의 이중적 자아기획」,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10-339면; 이채원, 「후일담 소설의 젠더지평」, 『여성문학연구』46, 여성문학회, 2019, 214-220면; 소영현, 「애도하는 여자들-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74, 2021, 557-568면.

465) 최성실, 「'텍스트화한 역사' 혹은 '떠 있는 텍스트 만들기'와 그 의미 연쇄망 - 최윤의 「회색 눈사람」에서 「갈증의 시학」까지」, 『문학과사회』, 1993 봄; 김경수, 「소설의 상투성 파괴와 독법에의 자의식 -김원우와 최윤의 소설에 대하여」, 『문학과사회』, 1995 여름 참조

466) 김치수, 「소설의 반성, 반성의 문체」, 『삶의 허상과 소설의 진실』, 문학과지성사, 2000 참조.

467) 이수형, 「부재의 효과」,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1, 329면.

468) 최윤의 소설이 개인의 내면적 삶이 역사의 한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

여기서는 '1980년대적인 것' 혹은 '1990년대적인 것' 사이에서 논의되는 최윤 소설의 독특성을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향 속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인간이 '비非인간적인 것' 없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비非인간적인 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로서 위치한다. 최윤의 소설에서 이 문제는 특정한 형태의 상호의존성 속에서 '비非인간적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출현의 장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최윤의 소설에서 '비非인간적인 것'의 문제는 평등의 가치에 대한 원리와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저기 한 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문학과 사회』, 1988 봄)는 최윤의 등단작으로, 당시 『문학과사회』 소설부문 신인의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80년 5월의 비극적 체험을 "직설적·도식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한층 가라앉은 문체로 개인적·집단적 심리의 깊이 속에서 구조화 체험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469] 이 소설이 5·18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은 당대의 논자들에게 "사태의 본질에 정확하게 다가서지 않"[470]는, 역사적 전망을 나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천박한 방식"으로 비판받았다. 이와 같은 비판이 제기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소설이 1980년 5월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주체인 소녀가 "전형적인 인물"과 차이가 나는, 비인간적인 형상으로 등장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471]

> 관자놀이에서 북처럼 쿵쿵대는 박동에 채찍질당하는 짐승처럼 소녀는 남자의 뒤를 쫓아가 그의 우람한 등 뒤에 바짝 붙어섰다.…남자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가 후에 저주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동호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대", 과거와 현재의 대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오늘날의 시점에서 부각되어야 할 현재적 과제로 고평된다. 강동호, 「해설/희망을 증언하는 언어들의 역사」, 『저기 한 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8, 356면.

469) 편집부, 「이번 호를 내면서」, 『문학과사회』 1-2, 1988 여름, 421면.

470) 이강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시민적 문학관을 비판한다」(1989), 5월 문학총서간행위원회, 『5월 문학총서 4』, 5·18기념재단, 2013, 223면.

471) 김명인·김사인·정과리·홍정선, 「88 상반기 소설작품을 중심으로 한 민족문학 주체논쟁」, 『오늘의소설』 1, 1988 상반기, 43면.

하고 구타하게 될, 그리고 더 후에는 고통스럽게 그리워하게 될 얼굴, 술기에도 불구하고 마르고 건조한 얼굴을 한. 폭발적인 호흡의 주인을 바라보았다.[472]…중략…예쁘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느낌조차를 무화시키는 다른 어떤 것이 무어라고 말로는 되어 나오지 않지만 이 작은 몸뚱어리가 머물러 있는 세상은 남자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리라는 결정적인 느낌이 그의 본능적인 방어적 근육들을 수축시켰다.…남자는 그가 느낀 이런 불편한 감정을 육체적인 공포라고 생각했다.…도피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빈곤한 신체를 공격했다. 해소도 쾌락도 없는 어두운 구멍의 심연 속에서 남자는 잠시 머물렀다.[473]

강변공사장에서 일하는 장은 어느 날 우연히 소녀와 마주친다. “관자놀이에서 북처럼 쿵쿵대는 박동에 채찍질당하는 짐승처럼” “폭발적인 호흡”으로 소녀는 남자를 뒤쫓아왔다. “예쁘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느낌조차를 무화”시키는 소녀의 얼굴 앞에 장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그는 그녀가 머물러 있는 세상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리라고 생각하며 “육체적 공포”를 느낀다. 이 공포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그가 모르는 세계에서 그를 향해” 웃음을 흘리고 있는 여자애를 거칠고 무질서하게 뒤에서부터 덮”치고, “빈곤한 신체를 공격”한다.

그는 무엇 때문에, 매번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격렬하게 솟아오르는 폭행의 욕구를 초인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더러웠고 무서웠고 끔찍했다.[474]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앙상한 뼈가죽 위에서 길길이 난무하던 여자애의 손이 그의 손으로 변했고 여자애를 날뛰게 하던 경련적인 자해의 리듬이 그의 몸속에서 끌어오르곤 하던 가해의 리듬으로 이전되었다. 그는 눈앞에 쓰러진 막대 같은 몸뚱어리를 보기가 무서웠다. 남자는 왜, 무엇 때문에 그가 이 여자애를 이 지경으로 구타했는지 알 수 없었고, 언제, 어느 순간에 격렬한 첫 번째 파동이 그를 사로잡았는지 기억해내고자 그 자신의 마디진 두 손을 눈이 시리도록 직시했다. [475]

---

472) 최윤, 「저기 소리없이 한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사회』1-2, 1988. 5, 731-732면.(이후 해당 작품 「꽃잎」으로 표기하며, 동일작품 인용 시 작가, 제목, 면수만 표기함)
473) 최윤, 「꽃잎」, 733면.
474) 최윤, 「꽃잎」, 735면.
475) 최윤, 「꽃잎」, 736면.

자신의 숙소까지 따라온 소녀는 결국 '둥지를 쳤다.' 소녀를 마주할 때마다 장은 더럽고 무섭고 끔찍하다는 어떤 불가해한 느낌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소녀를 구타한다. 이와 같이 소녀를 마주할 때마다 장이 느끼는 유일한 것은 '알 수 없다'는 느낌이자 인식의 불가해함이다. 흥미로운 것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앙상한 뼈가죽 위에서 길길이 난무하던 여자애의 손이" 장의 손으로 변하고, 소녀의 "경련적인 자해의 리듬이 그의 몸속에서 끌어오르곤 하던 가해의 리듬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장과 옥포댁, 김상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서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이 소녀의 존재는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한계이자 곤궁을 드러내는 비인간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실재적 차원의 소녀가 서사의 시작점이라는 점이다.

> …오빠 없는 방학이 지나고, 오빠 없는 봄이 한창일 때 …그날이 온거야.…아 엄마, 구멍나버려 고꾸라지던 엄마. 내 이 손이 빨리 썩어야 될 텐데. 아니면 독물 속에 첨벙 집어넣어 녹여버리든지. 아직도 진저리가 날 정도로 생생한 엄마 손의 촉감. 열에 올라 뜨겁던 엄마의 손. 이제는 다 틀려버렸어.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내 몸이 먼저 엄마 손의 촉감에 놀라 깨어 일어나곤 하는데,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내 머릿속의 바람을 막을 수 있단 말야.…더 큰 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오빠한테 가서 모든 얘기를 해주어야 해. 오빠는 무덤 속, 밤이면 냉기가 엉덩이로부터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그 어두운 구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거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거야.… 단 한순간만이라도 오빠가 알고 있는 그 얼굴을 되찾을 수 있다면. 설령 내 입에서 괴물의 혓바닥이 들락날락한다 해도 오빠는 옛날의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용서해줄지도 모르는데.
>
> 오빠 나야. …오빠한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476]

「꽃잎」은 엄마의 죽음을 목도한 소녀가 죽은 엄마를 뿌리치고 달아났던 자신을 고백하기 위해 죽은 오빠를 찾아나서면서 시작된다. 그날, 그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과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소녀가 겪는 고통은 소녀의 행위에 대한 인과적인 처벌로서 이해될 수 없다. 그럼에도 소녀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 보인 자신의 반응에 가책을 겪고 있다. 소녀는 죽은 오빠에게 "진저리가 날

476) 최윤, 「꽃잎」, 777면.

정도로 생생한 엄마 손의 촉감”을, 엄마가 죽던 그때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나를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이 아닌 엄마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고통을 겪고 있는 소녀의 여정에 남자 장과 우리는 연루된다. 소설은 이렇게 소녀와 ‘우리’ 사이의 연루가 일어나고, 끝없이 연쇄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녀가 겪고 있는 고통, 소녀의 상처에 “감염”된다.

> “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
>
> 남자의 눈자위가 붉어지는 것을 보고 여자애는 밥알 담긴 입을 크게 벌리고 왁자하게 웃어제꼈다. 밥알이 쟁반에 튀고 남자 또한 여자애를 따라서 어깨를 들석이면서 울면서 웃었다. 남자는 그녀와 똑같이 되어, 그녀 속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망가진 장치가 있다면 그걸 고쳐주고 싶었다.
>
> 이 즈음의 어느 날 남자는 동료에게 꼭 무슨 열병에 감염된 것 같다고 말했다. 꼭 흑사병에 감염된 것만 같은데…절대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477]

장은 소녀와 함께 지내는 동안, 소녀에게 술을 먹이거나 소녀 앞에서 느끼는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느낌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게 된다. 대신 “무엇이 저 어린애를 저 꼴로 만들었을까”(755) 의문을 갖다가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조차 못한다. 소녀를 “그 꼴을 만든 데 자신도 한몫 낀 것만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라진 관계 속에서 장은 “그녀와 똑같이 되어, 그녀 속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망가진 장치가 있다면 그걸 고쳐주고 싶”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 그녀가 도망치던 날 장거리를 지나가던 장정들은 장항 쪽으로 공사를 맡으려 떠난 인부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홉 명의 인부들 중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버스 안내원들 중 어느 누구도 갈색 면치마에 군청색 상의를 입은 채로 뛰어나갔다는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그녀가 또다시 흙탕물에 뒤섞이고 얼굴에, 몸에 때가 끼고 헝클어진 머리가 다발로 엉키어, 보는 사람의 시선을 어쩔 수 없이 멈추게 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
> 지도 위의 선과 점들은 모두가 착시를 유발할 뿐이다. 정연하게 한 지점에서 다른

477) 최윤, 「꽃잎」, 756면.

지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들은 실상은 얼마나 불분명하고 불안한 함정들인가. 한 지점은 수도 없이 많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많은 가능한 선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했으리라고 추정하게 하는 아무런 착실한 좌표도 없다. 그녀는 떠나온 방향으로 되돌아갔을 수도 있고 오던 길을 계속해갔을 수도 있다.…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을 추정하는 일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모두 답사해야 하는 면을 만드는 이동으로, 시간이 걸리고 말이 삭제된 무한한 내적 요인을 동시에 추리해야 하는 복잡한 이동이 된다. 그녀의 무분별한 여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능한 내면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 속에 그녀와 같이 머무르면서 내면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매번의 추적에서 그녀는 우리를 멀리멀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앞지르는 수밖에 없었고 그 거리만큼 그녀의 흔적은 절망적으로 희미해졌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우리를 먼저 떠나버린 친구의 누이동생의 흔적은 이미 상실해버린 꿈처럼 우리의 빈곤한 일상의 갈피에서 매순간 생생한 상처로 되살아났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확실한 지도였다.[478]

‘우리’는 친구의 누이동생을 찾아 옥포에서 장항으로 다시 서천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 ‘우리’에게 소녀의 흔적을 그리고 있는 “지도 위의 선과 점들은 모두가 착시를 유발할 뿐”이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분명하게 연결된 듯 보이는 이 선들이 사실은 “불분명하고 불안한 함정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녀의 “이동을 추정하는 일”을 선적인 이동에서 “면을 만드는 이동”으로 바꾸게 된다. 이는 “말이 삭제된 무한한 내적 요인을 동시에 추리해야 하는 복잡한 이동”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리고 “그녀의 가능한 내면으로 들어가” “그녀와 같이 머무르면서”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작업이다. 이와 같이 소녀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단 하나의 확실한 지도”는 우리가 아닌 소녀의 상처와 고통이다. 이처럼 고통겪기라는 도덕적 행동은 그 행동이 수행되는 현실과의 관계, 그리고 자아와의 관계를 포함하며, 인식의 주체로서 ‘자기’를 상실하는 대신, 윤리적 주체로서 ‘자기’를 형성 과정의 일환으로 하는 새로운 존재양식을 결정한다.[479] 이처럼 「꽃잎」은 소녀와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형성

478) 최윤, 「꽃잎」, 745-746면.
479)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13), 34면.

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회색 눈사람」(『문학과 사회』, 1992 여름)은 김희진과 강하원의 관계를 통해 이 상호의존성이 평등의 가치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소설은 '나'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간 '강하원'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다. 일간지에 작게 난 그 부고기사를 통해 '나'는 우연한 계기로 지하운동권 일에 가담하게 되었던 과거의 자신과 김희진을 회상한다. 이 점에서 소설은 '나'의 이름을 한 그녀 김희진에 대한 애도의 서사이면서[480] 여성운동가 김희진-강하원의 존재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애도가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481]

> 나는 그 시절 내가 틀림없이 곧 죽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막연히 죽은 일자까지를 상상해두었다. …나의 죽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 나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좁은 방안을 휘둘러보았다.…이럴 때면 유독히 앉은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단 한권의 두꺼운 외국어 책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탈리아 역사가의 독일어본 저서였는데 나는 유서를 쓰듯이 그 책의 번역에 매달렸다. 이탈리아도 독어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구차한 도전이었다.
>
> 이렇게 마구 엉겨붙는 세 나라 말의 문법처럼 내게 삶은 불가해하고 생소한 것이었던 반면 최소한 죽음의 느낌은 분명한 것이었고 쉽사리 친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482]

1970년대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나는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 안간힘은 대개 "이탈리아 역사가의 독일어본 저서"를 "유서를 쓰듯이" 번역하는 일에 쓰였다. 이탈리아어도 독일어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나에게 "불가해하고 생소한" 번역에 매달리는 것만이 죽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나'는 우연한 계기로 안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제안으로 '문화혁명회'라는 지하운동단

---

480) 여성활동가 김희진과 강하원의 만남의 시간을 '사건적인 것'으로 주목한 소영현 역시, 이 소설을 흔적없이 지워진 한 여성인 김희진의 존재를 복원하고 그것을 통해 강하원 자신의 존재를 복원하는 애도의 서사로 해석한다. 소영현, 위의 글, 562-563면.

481)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옮김,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72-89면 참조

482) 최윤, 「회색 눈사람」, 『문학과사회』 5-2, 1992 여름, 494면.(이후 동일작품 인용 시 여기서 하며, 작가, 작품, 면수만 표기함)

체를 돕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은, 고립되어 있던 '나'가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시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안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단체의 회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고, '나'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강하원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나와 그들 사이에는 늘 일정한 거리"를 끊임없이 감지한다.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 바깥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다가도, 어떤 때는 며칠간의 불면을 만들기도 할 만큼 괴로워한다. 강하원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만, 이때 발견된 '나'란 타자인-그들의 관점에 의해 구성되고 박탈당한 자신인 것이다.[483]

지하운동단체 일을 도운 지 두 달 반 만에 주말을 맞이한 그녀는 동네의 아이들이 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회색 눈으로 눈사람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한다. 이 아이들의 눈사람 만들기는 나가 그들과 함께 한 인쇄 책자 만드는 일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자기의 형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이나 인쇄물들을 끝내지 못한 채 지하운동단체의 일이 발각되었고, 조직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강하원을 괴롭게 한 것은 다시 그들과 일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은 하나도 없었고, 그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안을 기다렸다.

> 나는 가끔 희망이라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건 그 가능성을 조금 맛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에 애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꺾일 때는 중독된 사람이 약물 기운이 떨어졌을 때 겪는 나락의 강렬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에의 열망은 더 강화될 뿐이다. 김희진이 도착하던 날, 그녀의 피곤에 지쳐 눈감긴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는 내가 이미 오래 전부터 나도 모르게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희망이란 것에 감염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생동안 나를 지배하리라는 것도. 나는 막연한 희망에 대한 막무가내의 기대로 김희진을 돌보았다.[484]

483)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114-115면.
484) 최윤, 「회색 눈사람」, 517면.

조직이 와해된 뒤, 나는 끈질기게 안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나’를 찾아온 것은 김희진이다. 김희진이 찾아왔던 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도 모르게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희망이란 것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일생동안 나를 지배”하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희망은강하원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으나, 자기 삶의 경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상호의존성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버틀러가 지적하듯 서소를 묶어주는 의무로서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착취나 폭력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485] 강하원이 그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상호의존성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강하원의 여권과 이름을 필요로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강하원이 김희진을 돌보게 되었을 때 이들의 관계는 그와 같은 목적성을 벗어나 있다. 강하원은 김희진을 돌봄으로써 자기 삶의 상호의존성을 ‘평등의 조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막연한 희망에 대한 막무가내의 기대”로 김희진을 돌볼 수 있었던 이유라 할 것이다.

김희진이 떠난 후, ‘나’는 대학을 포기한 채 이모에게 내려가 이모의 농사를 오랫동안 돕는다. 그러면서 강하원은 자신이 ‘맛본’ 희망의 색깔을 주변과 나누려고 여러 가지 일을 벌였고, 그 후의 삶은 이러한 양상에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안은 유명한 민중 예술가이자 운동가가 되어 있었고, 여러 지면을 통해 그의 견해를 기탄없이 발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한번 강연 즈음에 맞추어 그를 찾아가 주최자측에 김희진이 남기고 간 글과 당시 우리가 같이 일하던 논문이 들어있는 가방 하나를 안에게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제 김희진의 과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불안과 고립의 시간과 싸우기 위해 나 혼자 하던 이탈리아 사학가의 독일어본 역사책의 한글 번역의 미완성의 원고”(520)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소설의 서

485)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0), 66면.

두-김희진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서 이 모든 일들이 서술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강하원이 경험한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희망은 그녀가 놓여 있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강하원-김희진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로부터 비롯한다. 이곳의 강하원과 저곳의 김희진이 갖는 개별적 몸으로서가 아니라, 이 애도를 통해 강하원과 김희진의 '사이'의 공간을 통해 '희망'은 출현한다.[486]

이 '희망'은 '평등'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정치적 상상이 된다는 점에서 「회색 눈사람」은 "새로운 평등주의적 상상계"[487]에 관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김희진과 강하원의 관계를 통해 '자기'라는 존재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존재이며, '자기'라는 이름으로 지켜져야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묻고 있다. 이 물음은 곧 이 논문이 지금까지 탐색해온 바,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인간, 가치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이로부터 현재에는 불가능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인간 삶의 지평을 확장한 곳에서 살아있게 한다.

---

486) 위의 책, 114-115면.

487)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옮김,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69면

Ⅴ. 결론

지금까지 1980년대 문학장의 인간 해방 기획에 수렴되지 않는 '비非인간적인 것'을 통해, 이 시대 소설 속 주체들이 '인간'에 관한 본질주의적 관념을 해체하고 인간(성)의 구성적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인간됨에 관한 해석의 지평을 변형하였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이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제기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1980년대 문학·문화를 경험의 주체인 인간의 능동적 실천이 반영된 텍스트로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타자들의 자기재현의 글쓰기는 기존 문학 장의 위계와 질서에 생산적인 균열을 가져온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1980년대 문학·문화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는 타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 존재들의 주체화의 결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체화는 '조건화 된 행위'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에, 이들이 놓여 있던 모순적인 위치로부터 조건과 행위 사이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맥락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삶 그리고 그에 관한 성찰에 관여하는 자본의 동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동의 결과이자 효과만으로 이 시대 문학의 운동성을 논의한다면, 이 시대 재배치된 인간의 질서에 관한 해석의 침체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이 논문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들이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사회는 자본 자체의 동학으로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자본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해진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국문학은 인간의 살 만한 삶을 향한 변화를 치열하게 모색한다. 이 변화를 사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본성)을 변형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1980년대 한국문학의 '비非인간적인 것'에 관한 고찰이 요구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다. 이에 도입된 '비非인간적인 것'은 인식론과 존재론 양자에 내재한 한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1980년대 소설이 휴머니즘의 이상理想으로 존재해왔던 '인간'을 상대화하고, '비非인간적인 것'과의 관계로 구성되는 인간성에 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시각을 제공한다. 이 개념은 푸코나 알튀세르, 그리고 최근의 포스트휴먼 담

론이 휴머니즘이 전제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이거나 자명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문제의식에 조응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론을 참조하여 본고는 인간의 자격과 지위를 선별적으로 부여 혹은 박탈하는 인식론적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와 분투하는 존재들의 서사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주목한 서사적 주체들은 비非인간으로 격하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가 갖는 공모성과 착취성을 폭로하고, 인간과 비非인간을 이분화하는 인식론적 규범을 전유하여 자기의 인간됨을 수행하며, 때로는 그 규범의 간극에서 출현하여 인간다움에 관한 한계를 재설정한다. 본 논문은 '비非인간적인 것'이 인간에게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로서 위치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인간Man'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탈구성되는지 고찰한다. 그것은 지식인의 위치에서 민중·노동자의 인간화 기획에 내재한 전통적인 주체-대상의 위계를 변형하고자 하는 사유의 실천(2장), 타자의 위치에서 남성중심주의적으로 규정된 인간됨의 조건을 수정하는 여성들의 수행(3장), 주체 내부의 위치에서 인간의 경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탈脫인간화한 몸들의 번역(4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주체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에 관한 인식을 주목하였다. 박태순과 조세희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탈중심화 한 인간들을 통해 주체-타자의 위계에 변형을 가져오는 맥락을 밝힐 수 있었다. 박태순의 1970년대 말- 1980년대 텍스트를 통해 포스트식민적 조건에서 지식과 권력의 공모성을 자각한 지식인 주체가 시도한 사유와 실천을 주목하였다. 그의 소설과 실천론은 당대 '민중'의 인식론적 규범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통해 창출된 것으로, 규범 바깥에 놓인 존재들을 인식·인정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절에서는 희망이 착취되는 삶의 현장에서 타자를 착취하는 메커니즘을 해체하고자 한 조세희의 작업을 분석하였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이어져 있는 조세희의 '불행의 공유'라는 문제의식은 주체와 타자, 행복과 불행에 관

한 이분법을 가로질러 인간의 욕망을 변형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박태순과 조세희는 휴머니즘적 토대 위에 세워진 지식인과 민중의 위계적 관계를 전환한 다른 질서를 가진 인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장에서는 타자 위치에서 이루어진 '비非인간적인 것'의 수행을 살펴보았다. 구조적 타자로 규정된 인간들의 수행적 실천이 인간됨humanness의 조건을 수정해나간 맥락을 이문열과 강석경, 석정남과 방현석의 텍스트를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과 강석경의 「숲속의 방」의 교양 주체들의 성장을 마주 세워, 젠더화된 형성buildungs의 규범을 패러디하는 여성들의 분투를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석정남과 방현석의 노동문학 관련 텍스트를 통해 성차와 계급차를 각인한 인간들의 연대가 제한적으로 표명된 노동자성을 갱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조적 타자들은 규범이 부과하는 한계에 갇히기보다 이를 전유하여 자기형성이라는 수행을 실천한다. 이들의 수행적 실천은 인간됨을 강제하는 조건을 수정·갱신하여 민주주의의 자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체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非인간적인 것'의 번역의 요구를 주목해보았다. 양귀자와 김영현, 임철우와 최윤의 소설에는 비非인간적 과잉으로 충만한, 벌레나 짐승 또는 훼손되고 찢긴 몸들로 가득하다. 1980년대 문학장은 이를 해석할 언어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양귀자와 김영현의 소설이 개별 주체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권력 앞에서 탈脫인간화한 몸으로 변신變身을 시도한 양상을 주목하였다. 이들의 시도는 '나'의 인간됨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억압과 금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탈脫인간화하는 생존의 역설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철우와 최윤의 소설에서는 인간다움personhood의 한계에서 출현한 '비非인간적인 것'을 주목하였다. 이 훼손되고 찢긴 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비非인간을 나누는 이분법을 심문하고, 인간을 구성하는 새로운 질서를 통해 윤리적 토대를 쇄신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상상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 공론장의 ‘민중·노동자·여성의 인간화’라는 정치적 의제는 민주화운동의 목표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집단적 에토스를 형성하며 폭력적·배제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지위와 자격에 경계를 그었다. 이 시대의 소설은 이와는 다른 질서로 구성되는 인간들의 조건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유임을 말한다. 이에 본 논문은 1980년대 소설의 침체를 해석의 침체로 되비추며, 이 시대 문학이 수행한 균열·전복·해체를, 휴머니즘의 전통 위에 세워진 ‘인간Man’이라는 개념과 지식, 지위에 일어난 차이différance의 운동으로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차이의 운동에 입각하여 우리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관계성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인간의 살 만한 삶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문제로 나아가고자 했다. 1980년대 한국소설이 문제적으로 그려낸 인간 존재와 그 삶의 문제를 ‘비非인간적인 것’이라는 프리즘으로 조명할 때, 로고스중심주의·인간중심주의의 보편으로 위치해 온 ‘인간’은 탈구축된다. 이 점이 1980년대의 소설을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인간과 그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사유와 비판적 실천의 자원으로 읽고자 한 이유이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강석경, 「사과를 따지 않은 이브」, 『기독교사상』 21-12, 대한기독교서회, 1978.12.

_____, 「숲속의 방」, 『세계의 문학』, 1985 가을.

_____, 「이사」, 『문학사상』, 1981.2.

_____, 『순례자의 노래』, 까치, 1981.

_____, 『밤과 요람』, 민음사,1983.

_____, 『숲속의 방』, 민음사, 1986/1995.

_____, 『청색시대』, 한벗, 1989.

_____, 『저 절로 가는 사람』, 마음산책, 2015.

김영현, 「벌레」, 『창작과비평』 1989 봄

_____,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실천문학사, 1990.

박태순, 「논휙션 焚身의 警告 평화시장 재단사 全泰壹의 얼」, 『여성동아』, 1971.1.

박태순, 「廣州團地 4泊5日」, 『월간중앙』, 1971.10.

_____, 「후진국 문학론」, 『세계의 문학』, 1977 여름.

_____, 「문학의 세계화 과정-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13(1), 1978.

_____, 『어제 불던 바람』, 전예원, 1979. 『어제 불던 바람』 (전예원, 1979),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심설당, 1980)과 「3・1절」(『세계의 문학』, 1983 봄)을 읽어본다.

_____,,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1980.

_____, 「문화운동과 실천으로서의 문학예술」,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실천신서1』, 실천문학사, 1983.

_____, 「3・1절」, 『세계의 문학』, 1983.

_____, 『신생』, 민음사, 1986.

_____, 『밤길의 사람들』, 풀빛, 1988

_____, 『낯선거리』, 나남, 1989

_____,『민족문학작가회의 문예운동 30년사 1』, 작가회의, 2004.
방현석,『내딛는 첫발은』, 창작과비평사, 1991.
_____,,「밥과 국」,『문학동네』, 2002.
석정남,『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_____,「노동자와 문화」,『기독교사상』29-2, 1985.2.
_____,「장벽」,『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편,『노동의문학, 문학의 새벽』3, 이삭, 1985.
석정남,「불신시대」,『노동문학』, 실천문학사, 1988.
임철우,「사산하는 여름」,『외국문학』, 1985.7.
_____,「불임기」,『문학사상』, 1985.9,
조세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79.
_____,『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_____,『침묵의 뿌리』, 열화당, 1985.
최 윤,「저기 한점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문학과사회』1-2, 1988.
_____,「회색 눈사람」,『문학과사회』, 1992.

『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
『세계의 문학』,『한국문학』,『부정기간행물 창비』,『창비 1987』,『문학과비평』,『문학정신』,『우리세대의 문학』,『우리 시대의 문학』,『실천문학』,『창작과비평』

논문

강소희,「‘비-동일성’의 민중을 기입하는 글쓰기」,『현대문학이론연구』79, 2019.
강준만,「이문열을 알면 한국 사회 ‘문법’이 보인다」,『인물과사상』, 인물과사상사, 2002.
권영민,「통과제의의 스토리」,『한국문학』1981.6.
김경민, 「1970-80년대 서발턴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노동자・농민

수기의 서사구조와 욕망의 메커니즘」,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김경수,「소설의 정치성이란 무엇일까」,『황해문화』54, 새얼문화재단, 2007.
김동춘,「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성」,『경제와 사회』118, 비판사회학회, 2018.6.
김명인, 「슬픔을 힘으로 바꾸는 작가정신의 연금술; 양귀자의 변모와 90년대 리얼리즘 소설에의 기대」, 『동서문학』, 1990.1.
김세준,「박태순의 실천 담론과 역사의식」,『현대문학이론연구』 69, 2017.
김병덕, 『한국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박완서・오정희・양귀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병익,「대립적 세계관과 미학」,『문학과지성』37, 1979.가을.
김병익,「관찰과 반성」,『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김영민,「여운형, 이문열, 그리고 나.나.나(너)」,『철학과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7.
김윤식, 「소설쓰기의 기원에 대하여; 김원일과 양귀자의 경우」, 『예술세계』, 1992.4.
김양선, 「여성작가들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새 경향; 「떠나가는 노래」, 김향숙 저・『희망』, 양귀자 저」, 『창작과비평』, 1992.6.
김주연,「사민의식과 허위의식-박태순『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세계의 문학』1981 봄.
김주현,「시각체험과 6・70년대 도시빈민 소설의 새로운 형식」,『어문연구』33-2,『어문논총』, 어문학회, 2005.
김진기,「『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의 위상 연구」,『통일인문학논총』36, 건대인문학연구원, 2001.
김한식,「박태순 소설과 1960년대 서울」,『현대소설연구』58, 현대소설학회, 2015.
박미선,「보편과 특수의 번역실천으로서 비판이론과 페미니즘」,『문화

과학』56, 2008.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 의 정치성: 연구자의 무의식과 노동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7, 상허학회, 2013.
.
백낙청, 「제3세계와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1979 가을.
백지연, 「박태순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 고찰」, 『비평문학』 26, 한국비평문학회, 2007.
복도훈, 「전쟁의 폐허에서 자라난 젊음과 공민적 삶의 가능성」, 『한국문학연구』4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복도훈, 「정착과 유랑, 1970년대 후반기 한국 피카레스크 교양소설의 두 양상」, 『한국문학연구』 58, 2018.
오창은, 「4・19 공간경험과 거리의 모더니티」,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이소영, 「소설가 박태순이 제안하는 한국문학의 출구전략-소설가 박태순 인터뷰」, 『상허학보』 49, 2017, 419-454쪽.
이영진, 「제국의 곤경과 저항의 논리」, 『사회과학연구』60-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이우성, 강만길, 정창열, 송건호, 박태순, 백낙청, 「民族의 歷史, 그 反省과 展望」, 『창작과비평』, 1976 가을.
이현석, 「시민과 혁명의 시간」,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1.
장 현, 「배회하는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장성규, 「1980년대 노동자 문집과 서발턴의 자기 재현 전략」,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조현일, 「대도시와 군중」, 『한국현대문학연구』 22, 한국현대문학회, 2007.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권, 민족 문학사학회・민족문학연구소, 2011.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멩이’들은 어디로 갔을까—1980~90년

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역사비평』, 2014.2.
최은아,「탈중심을 향한 이념적 실험의 기록」,『상허학보』61, 2021.

오길영, 「연민과 죄의식을 넘어서; 임철우・양귀자의 소설에 대해」, 『한길문학』, 1991.12.

이광호, 「리얼리즘이 있던 자리; 현길언・양귀자의 소설」, 『문학과사회』, 1993.11.
김양선・김은하,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이르는 길」, 『여성과사회』, 1993.4.
우찬제, 「모색과 모반의 도정에서; 90년대 초 소설의 전반적 성격」, 『동서문학』, 1993.6.
우찬제, 「아우라의 상실, 그 음울한 우물」, 『세계의문학』, 1994.2.
김재석, 「‘문학 증발 시기’ 소설의 길찾기: 양귀자의 「숨은 꽃」」, 『비평문학』, 1994.9.
방민화, 「「숨은 꽃」의 서정성」, 『숭실어문』, 1994.10.
정상균, 「양귀자 문학 연구」, 『한양어문연구』, 1995.12.
서범석, 「양귀자와 배수아의 사랑 나무; 『천년의 사랑』과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소설과사상』, 1995.12.
박태상, 「1990년대 페미니즘 소설에 대한 연구; 양귀자, 공지영, 공선옥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 1995.2.
장경렬,「숨은 꽃을 찾아 그리기, 그것의 어려움과 아름다움; 양귀자론」, 『소설과사상』, 1995.3.
김병익, 「성장소설의 문화적 의미」,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김병익,「대립적 세계관과 미학」,『문학과지성』37, 1979 가을.
김병익,「사랑・분노 그리고 관용」,『전망을 위한 성찰』, 문학과지성사, 1987.
백낙청,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 『한국문학의 현단계Ⅱ』,

창작과비평사, 1983.
사북·고한 역사연구/사북청년회의소 편,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2001.
서은주, 「노동(자)의 재현과 고통의 재소유 - 조세희의 『침묵의 뿌리』에 담긴 '사북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성민엽, 「이차원의 전망」, 『한국문학의 현단계 II』, 창작과비평사, 1983.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이경률, 「사진읽기의 다변화된 관점과 수용미학 - 사진적 행위와 비주얼 리터러시에 관한 존재론적 연구」, 『기호학연구』 37, 2013.
이재현, 「문학의 노동화와 노동의 문학화」, 『실천문학』, 1983.12.
정주아, 「조세희 문학을 통해 본 1970년대 산업사회와 '희망'의 문제-개발독재 시대의 윤리와 부(2)」, 『한국근대문학연구』19-2, 2018.
황광수, 「노동문제의 소설적 표현」, 『한국문학의 현단계』4, 창작과비평사, 1985.
김혜숙, 「독일 교양소설 이론과 수사학」, 『독일어문학』 28, 2005.
김은실 엮음,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휴머니스트, 2018,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성 (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김영선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인식』, 2010 가을.
김영선,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실천과 여성학」, 『여성문학연구』 37, 2016.
김윤식, 「중간세대의 문학과 그 형식」, 『세계의 문학』 9-2, 1984 여름.
김인혜,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17.
김종기, 「예술작품에서 지시성의 문제」, 『새한논총』 76, 2014.
김치수, 「(해설) 고통의 기록과 절망의 표현」, 『밤과 요람』, 민음사,

1983.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
의 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2009.
박지영, 「‘위기’의 여자들 :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 번역과 1970년대 젠더/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39, 여성문학회, 2016.
백도기 외, 『우리시대 우리작가 21-강석경』, 동아출판사, 1987.
신옥희, 「타자(他者)에서 주체(主体)로」, 『한국여성철학』11, 한국여성철학회, 2009.
이동하, 「오만과 폐쇄 기질로 관념벽 못 뚫은 희생양-강석경 ‘숲속의 방’의 자살한 소양」, 『동문학』, 1986.9.
이미영, 「누가 교양소설을 노래하는가 : 남성(성)네트워크와 이문열의 1980년대 텍스트」, 『상허학보』 56, 상허학회, 2019.
_____, 「강석경의 텍스트와 여성성장서사의 재맥락화」, 『구보학보』 25, 구보학회, 2021.
_____, 「1980년대 박태순의 텍스트에 관한 메타 실천」, 『상허학보』 62, 상허학회, 2021.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의 소설」, 『현대문학의 연구』 51, 현대문학연구회, 2013.
이정자, 「1970년대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교육」, 『젠더연구』 19, 2014,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진형준, 「순수 탐구의 드라마- 강석경론」, 『문학, 현실, 상상력- 우리 세대의 문학 4』, 문학과지성사, 1985.
김미정, 「여성교양소설의 불/가능성-‘한국-루이제 린저’의 경우(1)」, 『문학과사회-하이픈』 29, 문학과지성사, 2016.
김욱동, 「노벨 문학상의 문화 정치학」, 『외국문학연구』 3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0.
김 원, 「‘장기 80년대’ 주체에 대한 단상: 보편, 재현 그리고 윤리

」,『실천문학』 겨울, 2013.
김 원,「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장기 80년대’」,『한국학연구』 3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김정환,「문학의 활성화를 위하여」,『실천문학』3, 실천문학사, 1982.
문학과사회 편,「집중조명 : 이문열의 문학편력」,『문학과사회』겨울호, 문학과지성사, 1998.
박이은실,「패권적 남성성의 역사」,『문화과학』76, 문화과학사, 2013.
박종홍,「이문열 소설의 권력, 애정, 예술」,『현대소설연구』6, 한국현대소설학회, 1997.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_____, 「재현 너머의 증언—1980년대 임철우, 최윤 소설의 5·18 증언」, 『상허학보』 50, 2017.
_____,『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백낙청, 「民族文學 槪念의 定立을 위해」,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창작과비평사, 1978.
_____,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김윤수·백낙청·염무웅 편, 『韓國文學의 現 段階Ⅰ』, 창작과비평사, 1982.
_____,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 백낙청·염무웅 편, 『韓國文學의 現段階Ⅱ』, 창작과비평사, 1983.
_____, 「1983년의 무크운동」, 백낙청·염무웅 편, 『韓國文學의 現段階Ⅲ』, 창작과비평사, 1984.
_____,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창작과비평사, 1985.

손유경, 「사후(事後/死後)의 리얼리즘—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을 중심 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4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_____,「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交錯/膠着)—박현채와

조한혜 정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5집, 상허학회, 2015.
_____,「현장과 육체—『창작과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 『현대문학의 연구』 56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송건호・안병직・한완상, 「民衆의 槪念과 그 失體」, 『月刊 對話』 1976.11.
宋承哲, 「산업화와 70년대 소설」, 『문학의 시대』 제1권, 도서출판 풀빛,1983.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 허학보』 32집, 상허학회, 2011.
소영현,「비평 시대의 젠더적 기원과 그 불만 —「분례기」에서 「객지」로, 노동 공간의 전환과 '노동(자)-남성성'의 구축」,『대중서
송승철, 「산업화와 70년대 소설」, 『문학의 시대』1, 도서출판 풀빛, 1983.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 허학보』 32, 상허학회, 2011.
송명희,「(서평)페미니즘 비평가의 길을 걷게 만든 페미니즘 비평의 고전」,『인문사회과학연구』 18(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신광현,「"텍스트의 무의식" : 프레드릭 제임슨의 경우」,『안과밖』, 영미문학연구회, 2005.
오자은,「위안의 서사와 불화의 서사: 1980년대 교양소설의 두 가지 문법」,『한국현대문학연구』56, 한국현대문학회, 2018.
이경덕,「욕망과 서사-프레드릭 제임슨의 리얼리즘론」,『문화과학』3, 문화과학사, 1993.
이동하,「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우리세대의 문학-새로운 만남을 위하여』1, 문학과지성사, 1982.
_____,「이문열 특집 : 연구자료 이문열 이렇게 연구되고 있다」,『작가세계』, 작가세계, 1989.
이강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소시민적 문학관을 비판한다」, 『노동해방문 학』 1989.5.

이광호, 「맥락과 징후—문학적 실천의 역사적 범주화를 위하여」, 『비평의 시대1: 문학을 향하여 문학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1991.
이남희, 유리・이경희 역,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이동하, 「80년대 문학의 기본적 성격」, 『문학의 길, 삶의 길』, 문학과지성사, 1987.
이두영, 「제4의 출판, 무크」, 『출판상황론』, 청한문화사, 1991.
이병천, 「반공 개발독재와 돌진적 산업화— '한강의 기적' 과 그 딜레마」, 『시 민과세계』 제8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6.

이성혁, 「1970~1980년대 한국 문학운동 담론에서 '지식인-문학인' 위상의 변천— '시민 문학론' 에서 '노동해방문학론' 까지」, 『진보평론』 69호, 2016.
이원숙, 「미메시스로서의 문학과 미술—루카치미학의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59, 새한철학회, 2010.
이윤택, 「市民文學論」, 『언어의 세계』 4집, 청하, 1985.
이정희, 「훈육되는 몸, 저항하는 몸—1980년대 초반의 여성 노동 수기를 중심 으로」, 『페미니즘 연구』3, 한국여성연구소, 2003.
_____, 「여성노동자의 경험 읽기—1980년대 초반의 여성노동수기에 나타난 성 (사랑)・가족・노동」, 『여성과 사회』 15, 2004.
이진경, 「대중운동과 정치적 감수성의 몇 가지 체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1권 제3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이해찬, 「민중 속의 지식인」, 『韓國文學의 現段階Ⅲ』, 창작과비평사, 1984.
이혜령, 「쓰여진 혹은 유예된 광기」, 『작가세계』 2003년 봄호.
_____,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 집, 상허학회, 2016.
이상록, 「1970년대 함석헌의 민주화 운동과 비판의 철학-『씨올의 소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5,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_____, 「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사학연구』 130, 한국사학회, 2018.
이정숙, 「197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철호, 「황홀과 비하, 한국 교양소설의 두 가지 표정」, 『상허학보』 37, 상허학회, 2013.
_____, 「장치로서의 연좌제-1980년대 이문열의 초기 단편과 중산층 표상」, 『현대문학의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장문석, 「서른둘에 다시 읽은 데미안」, 『한국 현대소설이 걸어온 길(1945~2010)』, 문학동네, 2013.
정종현, 「‘노벨문학상’과 한국 문학의 자기 인식」, 『반교어문연구』 43, 반교어문학회, 2017.
정주아, 「이념적 진정성의 시대와 원죄의식의 내면」,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회, 2011.
홍정선, 「지금, 이곳의 우리 삶을 찾아서-소설가 양귀자편」, 『동서문학』, 1988.3.
류철균, 「유황불의 경험과 리얼리즘의 깊이; 양귀자론」, 『문학과사회』, 1988.8.
정과리, 「황량한 거리는 어떻게 함께 넘는 고개가 되는가」, 『한국문학』, 1988.1.
구모룡, 「80년대 우리 문학을 결산한다;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문학사상』, 1989.8.
김명인, 「슬픔을 힘으로 바꾸는 작가정신의 연금술; 양귀자의 변모와 90년대 리얼리즘 소설에의 기대」, 『동서문학』, 1990.1.
한기평, 「중성・지방성・소시민성; 「식구들의 세월」, 최학 저・「이상의 날개」, 김석희 저・「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양귀자 저」, 『세계의문학』, 1990.3.

김윤식, 「소설쓰기의 기원에 대하여; 김원일과 양귀자의 경우」, 『예술세계』, 1992.4.
김양선, 「여성작가들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새 경향; 「떠나가는 노래」, 김향숙 저・『희망』, 양귀자 저」, 『창작과비평』, 1992.6.
이광호, 「리얼리즘이 있던 자리; 현길언・양귀자의 소설」, 『문학과사회』, 1993.11.
김양선・김은하,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이르는 길」, 『여성과사회』, 1993.4.
우찬제, 「모색과 모반의 도정에서; 90년대 초 소설의 전반적 성격」, 『동서문학』, 1993.6.
우찬제, 「아우라의 상실, 그 음울한 우물」, 『세계의문학』, 1994.2.
김재석, 「'문학 증발 시기' 소설의 길찾기: 양귀자의 「숨은 꽃」」, 『비평문학』, 1994.9.
방민화, 「「숨은 꽃」의 서정성」, 『숭실어문』, 1994.10.
정상균, 「양귀자 문학 연구」, 『한양어문연구』, 1995.12.
서범석, 「양귀자와 배수아의 사랑 나무; 『천년의 사랑』과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소설과사상』, 1995.12.
서은주, 「노동(자)의 재현과 고통의 재소유-조세희 『침묵의 뿌리』에 담긴 '사북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성민엽, 「自己反省 담은 "삶의 목소리"—趙世熙의 「침묵의 뿌리」」, 『경향신문』 1985. 9. 27.
박태상, 「1990년대 페미니즘 소설에 대한 연구; 양귀자, 공지영, 공선옥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 1995.2.
장경렬, 「숨은 꽃을 찾아 그리기, 그것의 어려움과 아름다움; 양귀자론」, 『소설과사상』, 1995.3.
한수영, 「현실의 무게와 자기 성찰의 빛과 그늘」, 『문예중앙』, 1996.11.
정문권・허유미, 「닮음과 다름의 서사구조: 양귀자의 『모순』론」,

『배제대학원 논문집』, 1998.8.
이동하, 「사랑의 이야기와 모순의 이야기: 「사랑아 길을 묻는다」, 김원일 저/『모순』, 양귀자 저 [서평]」, 『문예중앙』, 1998.8.
강상희, 「소설・시간・운명: 「늪」, 양귀자 저/「그대 정동진에 가면」, 이순원 저」, 『현대문학』, 1999.8.
김병로, 「불협화음의 부조리 서사담론 미학: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양귀자)과 「붉은 방」(임철우)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2000.1.
정영자, 「90년대 여성소설의 특성연구: 양귀자, 공지영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2000.1.
조세희 이경호, 작가 인터뷰-2.5세계의 불안한 나날 ,『작가세계』14, 2002년 가을호.
황호덕, 「탈식민주의인가, 후기식민주의인가」,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단행본

국내서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_____,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_____,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권오룡 외, 『문학과지성사 30년 1975-2005』, 문학과지성사, 2005.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전집1』, 민음사, 2010.
_____, 『지상의 척도-전집2』, 민음사, 2015.
김윤수・백낙청・염무웅 편, 『韓國文學의 現段階 Ⅰ』, 창작과비평사, 1982.
김윤수・백낙청・염무웅 편, 『韓國文學의 現段階 Ⅱ』, 창작과비평사, 1982.
김윤수・백낙청・염무웅 편, 『韓國文學의 現段階 Ⅲ』, 창작과비평사, 1982.

김윤수・백낙청・염무웅 편, 『韓國文學의 現段階Ⅳ』, 창작과비평사, 1982.
김윤식, 『오늘의 문학과 비평』, 문예출판사, 1988.
김윤식 외, 『이문열論』, 삼인행, 1991.
김윤식, 『3대 계간지가 세운 문학의 기틀』, 역락, 2012.
김은실 편,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휴머니스트, 2018
김주연,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모윤숙 외, 『긴모리 자진모리 이화 100년 대표 에세이』, 미완, 1986,
박맹호, 『박맹호 자서전 책』, 민음사, 2012.
박연희, 『제3세계의 기억』, 소명출판, 2020.
방민호,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옥, 2018.
_____, 『한국비평에 다시 묻는다』, 예옥, 2021.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서동진·박소현 엮음, 『비동맹독본』, 현실문화, 2020.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편, 『그런 남자는 없다』, 오월의 봄, 2017.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이문열 외, 『이문열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4.
정희진 엮음,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2019.
천정환・정종현, 『우리가 사랑한 책들, 知의 현대사와 읽기의 풍경』, 서해문집, 2018.
황도경, 『우리 시대의 여성작가』, 문학과지성사, 1999.

국외서

스피박 가야트리,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_____, 태혜숙 옮김,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3.

_____, 태혜숙・박미선 옮김, 『포스트식민이성비판』, 갈무리, 2005.
_____, 사라 하라쉼 편, 이경순 옮김, 『스피박의 대담』, 갈무리, 2006.
_____,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_____, 『읽기』, 리시올, 2022.
모튼, 스티븐, 이운경 옮김, 『스피박 넘기』, 도서출판 앨피, 2005.
데이비드 하비, 황성원 옮김, 『자본의 17가지 모순』, 동녘, 2014.
데이비드 하비, 김성호 옮김,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창비, 2019.
데이비드 하비, 강윤혜 옮김,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2021.
스튜어트 홀, 임영호 옮김,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룩, 2015.
스튜어트 홀, 김영규 옮김, 『문화연구 1983』, 현실문화, 2021.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레이먼드 윌리엄스, 박만준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알튀세르, 루이, 김동수 옮김, 『아미엥에서의 주장』, 솔, 1991.
알튀세르, 루이, 서관모 옮김, 『마르크스를 위하여』, 후마니타스, 2019.
다카다 리에코, 김경원 옮김, 『문학가라는 병』, 이마, 2017
R.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옮김, 이매진, 2013.
하우저, 아르놀트, 백낙청・염무웅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창작과비평사, 2007.
제임슨, 프레드릭, 이경덕・서강목 옮김, 『정치적 무의식』, 민음사, 2015.
_____, 임경규 옮김,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자본주의』, 문학동네, 2022.
루카치, 게오르그, 반성완 외 옮김, 『리얼리즘 문학의 실제 비평』, 까치, 1987.
. 김경수 옮김,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모레티, 프랑코, 조형준 옮김,『근대의 서사시』, 새물결, 2001.
_____, 성은애 옮김,『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너스바움, 마사, C 조계원 옮김,『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모니크 위티그, 허윤 역,『이성애제도에 대한 전복적 시선』, 행성B, 2020.
시몬느 드 보부아르, 조홍식 역,『제2의 성』 상・하, 을유문화사, 2004.
오리아나 팔라치, 강은교 역,『거인과 바보들』, 전망, 1978.
우르술라 티드, 우수진 역,『시몬 드 보부아르, 익숙한 타자』, 앨피, 2007.
주디스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옮김,『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7.
주디스 버틀러・에르네스토 라클라우・슬라보예 지젝, 박대진・박미선 옮김,『우연성・헤게모니・보편성』, 도서출판b, 2009.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10.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주디스 버틀러・ 아테나 아타나시오우 지음, 김응산 역,『박탈』, 자음과모음, 2016.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옮김,『혐오발언』, 알렙, 2016.
자크 데리다, 김성도 옮김,『그라마톨로지』, 민음사, 2010.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최인호 외 번역, 김세균 감수,『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 출판사, 1991.
푸코, 미셸, 이규현 옮김,『말과 사물』, 민음사, 2015.
푸코 미쉘, 이정우 옮김,『담론의 질서』, 중원문화, 2020.
호미바바, 나병철 옮김,『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0.

Judith Butler, ‘Contingent foundations : feminism and the question of “postmodernism”’,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1992

Eve Kosofsky Sedgwick, Between Me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Abstract

Study on ‘The Inhuman’ Appearing in Korean Novel’s in 1980s

Lee Mi-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a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in 1908s by perceiving and imaging ‘the inhuman’. The main task of it is to consider how novels written in that period relativized the concept and the status of the ‘man’, based on the humanism and extended the horizon of thoughts about being human. The perceptions and imaginations of the literature about ‘the inhuman’ in 1980s are important, in that they provide a methodology for critically analyzing the humanism specific to 1980s.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mind, ‘the inhuman’ was introduced to reveal epistemological/ontological limits embedded in the existing concept of subject, and it provides an issue and a direction for thinking about possible changes in the human existence and life.

It was 1980s that the power of ‘capital’, which overcame Korean political/economic crisis based on its own dynamics, regulated human beings/life. The fact that aspirations for and the feasibility of human beings’ ‘better life’ in this period appeared more prominently than ev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human (nature) as changeable. Hence, ‘the human’ raises questions about the epistemological condition on which human beings are selectively perceived and the ontological perspective on a limit and the essence of humanity, as the methodologies for differently perceiving and imagining human beings for the ‘good life’.

An analysis on ‘the human’ based on the problematization is focused on the critical relationship human beings have with the norm of cognitivity, how the condition of general human beings is corrected by appropriating the norm, the newly organized human order, etc. They are embodied into the following modalitie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dition and the behavior of the novel subjects in 1980s: Speculation and practice of intellectual subjects who critically recognized the traditional subject-object hierarchy embedded in the project for humanizing the masses/worker(Chapter 2); females’ performance to correct the conditions of being human, ‘culture’ and ‘labor’, by appropriating the human norm prescribed as logocentric and androcentric(Chapter 3); bodies’ demand for translation, which are regarded as impractical ones and emerge as figures escaping from the limit of the human(Chapter 4).

Chapter 2 analyzes the phenomenon in which intellectual subjects’ critical speculation and practice, who disclose the conspiracy and the exploitation, embedded in the position of subject under the post-colonial condition, transform the hierarchy and the composition of the subject and the other. It primarily analyzes the texts of Park Taesun and Jo Sehui, who raised a question about the hierarchy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s (the subject) and the masses (the other), established based on the humanistic foundation, and tried to transform it. Park Taesun’s texts critically illuminate the position of intellections,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piracy between intellectuals and power, under the post-colonial condition. The criticism on the epistemological norm which

exclusively objectifies the ‘masses’ is practiced to seek out a place in which human beings who are placed on the outside of the norm, can survive.

「Time Travel」(1983) and 「Root of Silence」(1985) written by Jo Sehui make an issue of the hierarchy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who reproduces ‘my’ happiness by exploiting ‘your’ unhappiness, and the other. They disclose the mechanism of the subject who suppresses and exploits the other through the colony(the other) called ‘Sabuk’ in us, and try a radical project called the ‘share of unhappiness’ to disintegrate such a hierarchy relation.

Chapter 3 analyzed the phenomenon in which females placed in the outside of the human norm prescribed as logocentric and androcentric corrected the conditions of being human, ‘culture’ and ‘labor’, through the performance of growth. The conditions of building the human subject in the Korean time and space during 1908s include ‘culture’ and ‘labor’, and cultural and labor novels, specific to the period can be identified as the discourse system born in such an epistemological norm. When the growth of cultural subjects in both lee Munyeol’s 「A Portrait of Younger Days」(1983) and Gang Seokgyeong’s 「The Room in the Forest」(1985/1995) is confronted with each other, the falsity of the gendered building norm appears. The texts on labor, written by Seok Jeongnam and Bang Hyeonseok show the changing process in which the performance of solidarity among human beings, who are deeply aware of gender and class gap, re-express the labor characteristics.

Chapter 4 analyze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translation required by post-humanized bodies provides a foundation for building a new ethical subject, by changing the perspective on ‘the human’ by referencing to the texts written by Im Cheol-u, Kim Yeonghyeon and Choi Yun. Im Cheol-u’s 「Infertility Period」(1985), 「Summer Having a Stillbirth」(1985) and Kim Yeonghyeon’s 「Insect」(1985) raise questions about the uncognivity of human existence and life, undermined by the violent history and ask to change the perspective on the human, through confessions made by insects, beasts and teared bodies.

This paper could newly elucidate the critical relationship novel

subjects in 1980s have with the norm of human cognitivity, how the condition of general human beings is corrected by appropriating the norm, the newly organized human order, by making an issue of ‘the inhuman’. It can be found that such novels in 1980s have extended the condition of cognition and the horizon of interpretation, by introducing gap to the human subject. The literature in 1980s is expected to be reinterpreted as a resource for thinking about changes necessary for human beings living here and now and their life.

keywords :the inhuman, human beings, performativity, relationship, otherness, hope, capital,

Student Number : 2016-30025